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 2013년 11월호

리아호나

연차 대회 말씀

교회 회원 수 1,500만 명
전임 선교사 수 80,000명 초과

교회 역사 박물관 제공

길르앗의 유향, 애니 헨리

"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예레미야 8:22) …… 사랑은 영혼에 병고침을 가져 오는 유향입니다. ……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아들은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그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우리에 대한 참으로 위대한 사랑입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사랑이라 불리는 관문", 성도의 벗, 1988년 1월호, 71쪽)

2013년 11월호 목차

제50권, 제11호

토요일 오전 모임

4 **연차 대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6 **연차 대회: 신앙과 간증을 강화함**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9 **온유하며 마음이 겸손하게**
울리세스 소아레스 장로

12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캐롤 엠 스티븐

15 **앞을 바라보고 믿으십시오**
에드워드 듀브 장로

17 **하늘 문**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21 **와서 우리와 함께합시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토요일 오후 모임

25 **교회 역원 지지**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26 **영적인 보호의 열쇠**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29 **여성의 도덕적 힘**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33 **주님의 전략을 서둘러 실행합시다!**
에스 기포드 닐슨 장로

35 **작고 단순한 일**
아눌포 발렌주엘라 장로

37 **네가 낫고자 하느냐**
티모시 제이 다익스 장로

40 **깨진 그릇과 같으니**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43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엠 러셀 밸라드 장로

신권 모임

46 **신앙개조에 담긴 교리와 원리**
엘 톰 페리 장로

49 **너희는 나그네도 아니요**
제럴드 코세 감독

52 **그의 말씀을 선포하[기] …… 위하여 그에게 부름을 받았느니라**
랜디 디 펑크 장로

55 **이제는 할 수 있어요!**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58 **그들의 상처를 싸매고**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61 **참된 목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일요일 오전 모임

69 **내 손주들에게**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72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댈린 에이치 옥스 장로

76 **돌이키라**
보니 엘 오스카슨

79 **견뎌 낼 힘**
리차드 제이 메이너즈 장로

82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개인적으로 얻는 힘**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85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일요일 오후 모임

88 **예레미야애가: 속박을 조심하라**
쿠엔틴 엘 쿡 장로

92 **신권 권능**
닐 엘 앤더슨 장로

96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 가르침**
데이비드 엠 맥콩키

99 **계속해서 굳게 잡으십시오**
케빈 에스 해밀턴 장로

102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에이드리언 오초아 장로

104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테렌스 엠 빈슨 장로

106 **영원을 위한 결정**
러셀 엠 넬슨 장로

110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상호부조회 총회

111 **성약을 지킴으로써 오는 힘과 기쁨, 그리고 사랑**
린다 케이 버튼

115 **우리가 기뻐할 큰 이유가 있습니다**
캐롤 엠 스티븐

118 **성약을 지키고 그에 따른 축복을 구하십시오**
린다 에스 리브스

121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64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총관리 역원**

124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

125 **연차 대회에서 소개된 일화 색인**

126 **교회 소식**

제183차 반연차 대회 요약

2013년 10월 5일, 토요일 오전 모임
감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사회: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개회 기도: 켄트 에프 리차즈 장로 폐회 기도: 매튜 오 리차드슨 음악: 태버내클 합창단. 지휘: 맥 윌버그와 라이언 머피. 오르간 반주: 앤드류 언즈워스와 클레이 크리스텐슨. "위대하셔라 주님의 경륜", *찬송가*, 184장. "우리 구원의 날을 함께 다 즐기세", *찬송가*, 32장. "애통하는 이스라엘", *찬송가* 10장, 윌버그 편곡. 미출판. "내 영혼이 햇빛을 받아", *찬송가*, 153장. "계명을 지키라", *어린이 노래책*, 68쪽, 머피 편곡, 미출판. "감사하는 백성아", *찬송가*, 34장, 윌버그 편곡 옥스포드 출판

2013년 10월 5일, 토요일 오후 모임
감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사회: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개회 기도: 폴 브이 존슨 장로 폐회 기도: 캐롤 에프 맥콩키 음악: 유타 로이, 케인스 빌, 후퍼, 웨스트 헤이븐의 스테이크 회원들로 구성된 가족 합창단. 지휘: 제인 펠스테드. 오르간 반주: 린다 마겟츠. "이 즐겁고 기쁜 날에", *찬송가*, 38장 펠스테드/마게츠 편곡, 미출판. "I Know That My Savior Loves Me", 2010년 초등회 성찬식 발표, 벨, 크리머. 펠스테드/마게츠 편곡, 미출판. "전진하세 주 예수 믿으니", *찬송가*, 55장. "나의 집에 사랑이 차고 넘치면", *찬송가*, 174장. 펠스테드/마게츠 편곡, 미출판

2013년 10월 5일 토요일 저녁 신권 모임
감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사회: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개회 기도: 폴 이 컬리커 장로 폐회 기도: 월터 에프 곤잘레스 장로 음악: 유타 머레이 지역 스테이크의 청남들로 구성된 아론 신권 합창단. 지휘: 켈리 드한. 오르간 반주: 리차드 엘리엇, "Sing Praise to Him", *영어 찬송가*, 70장 켐프턴 편곡, 미출판. "Like Ten Thousand Legions Marching", *영어 찬송가*, 253장 엘리엇 편곡, 미출판. "의의 일하세",*찬송가*, 177장. "전능하신 조상의 하나님", *찬송가*, 51장, 허프 편곡, 미출판.

2013년 10월 6일 일요일 오전 모임
감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사회: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개회 기도: 쉐럴 에이 에스플린 폐회 기도: 프란시스코 제이 비냐스 장로 음악: 태버태클 합창단, 지휘: 맥 윌버그. 오르간 반주: 클레이 크리스텐슨과 리차드 엘리엇. "나의 하나님 나의 왕", *찬송가*, 63장. "기뻐하라 너희 주는 왕이시라", *찬송가*, 36장. "주여 큰 폭풍우 일고", *찬송가*, 59장. 윌버그 편곡, 미출판. "세상은 즐겨 일하는 일꾼 필요하네", *찬송가*, 161장. "O Divine Redeemer", 가우노드. "우리 인도하실 선지자 주신", *찬송가*, 6장. 윌버그 편곡, 미출판.

2013년 10월 6일 일요일 오후 모임
감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사회: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개회 기도: 데이비드 엘 벡 폐회 기도: 클라우디오 알 엠 코스타 장로 음악: 태버태클 합창단, 지휘: 맥 윌버그와 라이언 머피. 오르간 반주: 보니 굿리프. "They, the Builders of the Nation", *영어 찬송가*, 36장 윌버그 편곡 잭맨,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린이 노래책*, 46~47쪽 머피 편곡, 미출판. "주 섬기라", *찬송가*, 145장. "낮도 다간 이 저녁에", *찬송가*, 72장 윌버그 편곡, 미출판.

2013년 9월 28일 토요일 저녁 상호부조회 총회
감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사회: 린다 케이 버튼 개회 기도: 로레인 스웬슨 폐회 기도: 애나 디 아고스티니 음악: 유타 프로보 선교사훈련원의 자매 선교사 합창단, 지휘: 에밀리 와들리. 오르간 반주: 보니 굿리프. "이스라엘 구속주",*찬송가*, 27장. "신앙으로 나아가서", *찬송가*, 157장. "오 시온의 자매여", *찬송가*, 198장 샐리 디포드 편곡, 미출판. "주께서 날 보내시기 심히 원하시는 곳은", *찬송가*, 146장 노래 편곡: 와들리, 미출판. "거룩함도 더욱", *찬송가*, 60장, 라이언 편곡, 잭맨 출판.

대회 말씀 자료
연차 대회 말씀을 여러 언어로 듣고 싶으면 conference.lds.org에 접속해서 해당 언어를 선택하십시오. 연차 대회 후 보통 2개월 내에 배부 센터에서 연차 대회 음성 녹음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 복음 및 방문 교육 메시지
가정 복음 및 방문 교육 메시지는 여러분이 방문하는 사람들의 필요 사항에 가장 잘 맞는 대회 말씀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표지
앞 사진 촬영: 코디 벨
뒤 사진 촬영: 코디 벨

대회 사진
솔트레이크 연차 대회 장면: 웰든 시 앤더슨, 코디 벨, 랜디 콜리어, 웨스턴 콜튼, 스캇 데이비스, 크레이그 다이먼드, 로이드 엘드레지, 콜린 킹, 존 루크, 레슬리 닐슨, 매튜 라이어, 크리스티나 스미스, 브라이언 워너. 파나나, 아라이잔: 호세 페나: 브라질, 브라질리아: 톰 시퀘이라; 필리핀, 카비테: 달리노 솔레타; 미국 텍사스, 콜리빌: 마크 마브리; 브라질 포스두이구아수: 링컨 파르메잔 드 멜로; 과테말라 과타멜라시티: 돈 설리; 페루 리마: 스테파니 나파레트; 영국 런던: 프레스턴 주디; 프랑스 리롱: 캐롤린 카터; 파나나 파나나시티: 호세 페나; 이탈리아 로마: 마시모 크리숀; 칠레 산티아고: 크리스티안 에프 카스트로 마린.

2013년 11월호 제50권, 제11호
리아호나 10791 320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판 잡지임

제일회장단: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 아이어링,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십이사도 정원회: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러셀 엠 넬슨, 댈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밸라드, 리차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

편집인: 크레이그 에이 카든

고문: 머빈 비 아놀드, 셰인 엠 바운, 스탠리 지 엘리스, 크리스토펄 골든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티 와너

가족 및 회원 지원 책임자: 빈센트 에이 본

교회 잡지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비즈니스 관리자: 가프 캐넌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인: 라이언 카

기사 작성 및 편집 팀: 수전 베헷, 브리트니 비얘티, 데이비드 딕슨,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플리톤, 민디 라예 프리드만, 로리 풀러, 게릿 에이치 가프, 라린 포터 건트, 제니퍼 그레이스 존스, 마이클 알 모리스, 샐리 존슨 오드커크, 죠슈아 제이 퍼키, 잰 핀보로우, 리차드 엠 롬니, 폴 벤덴버그, 머리사 윗슨

관리 미술 책임자: 제이 스코트 크놋슨

미술 책임자: 태드 알 피터슨

디자인: 저넷 앤드류, 페이 피 앤드러스, 킴볼 보트, 토마스 차일드, 네이트 지네스, 콜린 힝클리, 에릭 피 존슨, 수전 로프그렌, 스콧 엠 무이, 마크 더블유 로빈슨, 브래드 테어, 케이 니콜 워큰호스트

지적 재산 코디네이터: 콜레트 네베커 오운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제작 팀: 콘니 바소프 브릿지, 줄리 버멧, 브라이언 더블유 지기, 드니스 커비, 지니 제이 날슨, 가일 타테 러퍼티

사전 인쇄: 제프 엘 마틴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워크

배부 책임자: 스티븐 알 크리스텐슨

통권: 제564호, 제50권, 제11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3년 11월 1일(월간지)
발행인: 정동환
편집인: 박승호
번역 책임자: 조현석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www.ldschurch.or.kr에 접속하여 좌측 리아호나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메일: koreadc@hanmail.net으로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신청서는 www.ldschurch.or.kr "교회 출판물 및 잡지 신청"에서 다운로드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전화 080-232-1441)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7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우체국 010041-01-000240

원고와 문의 사항은 liahona.lds.org에 온라인으로, 또는 에 이메일로 보내시거나 다음 주소로 우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m. 2420,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리아호나("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몰몬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샬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마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와힐리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간체자)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이어, 타히티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3 by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email: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For Reader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November 2013 Vol. 50 No. 11. LIAHONA (USPS 311-480) English (ISSN 1080-955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 (American Express, Discover, MasterCard, Visa) may be taken by phone or at .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ll UAA to CFS (see DMM 707.4.12.5). NONPOSTAL AND MILITARY FACILITIES: Send address changes to Distribution Services,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USA

연사 색인

닐 엘 앤더슨, 92
댈린 에이치 옥스, 72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17
데이비드 엠 맥콩키, 96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29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21, 55
랜디 디 펑크, 52
러셀 엠 넬슨, 106
로버트 디 헤일즈, 6
리차드 제이 메이너즈, 79
리차드 지 스코트, 82
린다 에스 리브즈, 118
린다 케이 버튼. 111
보니 엘 오스카슨, 76
보이드 케이 패커, 26
아눌포 발렌주엘라, 35
에드워드 듀브, 15
에스 기포드 닐슨, 33
에이드리언 오초아, 102
엘 톰 페리, 46
엠 러셀 밸라드. 43
울리세스 소아레스, 9
제럴드 코세, 49
제프리 알 홀런드, 40
캐롤 엠 스티븐스, 12, 115
케빈 에스 해밀턴, 99
쿠엔틴 엘 쿡, 88
테렌스 엠 빈슨, 104
토마스 에스 몬슨, 4, 61, 85, 110, 121
티모시 제이 다익스, 37
헨리 비 아이어링, 25, 58, 69

주제 색인

가르침, 96
가정 복음 교육, 61
가족, 29, 69, 72, 88, 106
간증, 76, 79, 102
감사, 85
개종, 76
결혼, 69, 72, 106
경전 공부, 46, 96, 121
경전, 26
계명, 72
교회 모임, 15, 99
교회 부름, 15, 69
교회 성장, 4
교회 지도자, 25
구원의 계획, 72
권능, 92, 96
긍휼, 40
기도, 121
기적, 43
단합, 15, 49
마지막 날, 26
몰몬경, 82
미디어, 102
봉사, 12, 58, 61, 82, 96, 111
사랑, 12, 35, 43, 49, 69, 104, 111, 121
선교 사업, 4, 33, 35, 43, 52
선교사, 33
선지자, 6
선택의지, 106
성신, 96
성약, 12, 82, 99, 111, 115, 118
성전, 17, 115, 118
성찬, 99, 118
소속감, 21
속박, 88
신권, 46, 58, 92, 115
신앙, 15, 21, 43, 104
신앙개조, 46
십일조, 17
안식일, 99
어머니의 본분, 29, 72
여성들, 29
역경, 40, 55, 79, 85, 104, 118, 121
연차 대회, 6, 110
영감, 6, 58
예수 그리스도, 9, 15, 37, 82, 102, 111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52, 55, 69, 82, 118
온유함, 9
용서, 37
우울, 40
우정 증진, 21, 49
의로움, 79
의식, 92, 115
이스라엘의 집, 88
인내, 40, 79, 85, 99
자기 극복, 9
자애, 58
정결, 29, 72
조셉 스미스, 96, 102
종교적 자유, 88
준비, 102
축복, 17
치유, 37
평화, 26
필멸의 몸, 106
하나님 아버지, 69
행복, 69, 85
활동 촉진, 12, 21, 35
회개, 26, 52, 55, 82, 118
희생, 76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연차 대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동안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다시 만나 뵈니 정말 좋습니다. 주님의 인도 아래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이 교회를 조직한 지도 어언 183년이 지났습니다. 1830년 4월 6일의 그 모임에 참석한 교회 회원은 여섯 명이었습니다.[1]

이제, 2주 전에 교회 회원 수가 1천 5백만 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을 기쁜 마음으로 발표합니다. 교회는 계속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매년 더욱 많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진리를 갈구하는 이들을 찾아 나서는 선교사들 덕분에 이 교회가 온 지상으로 퍼져 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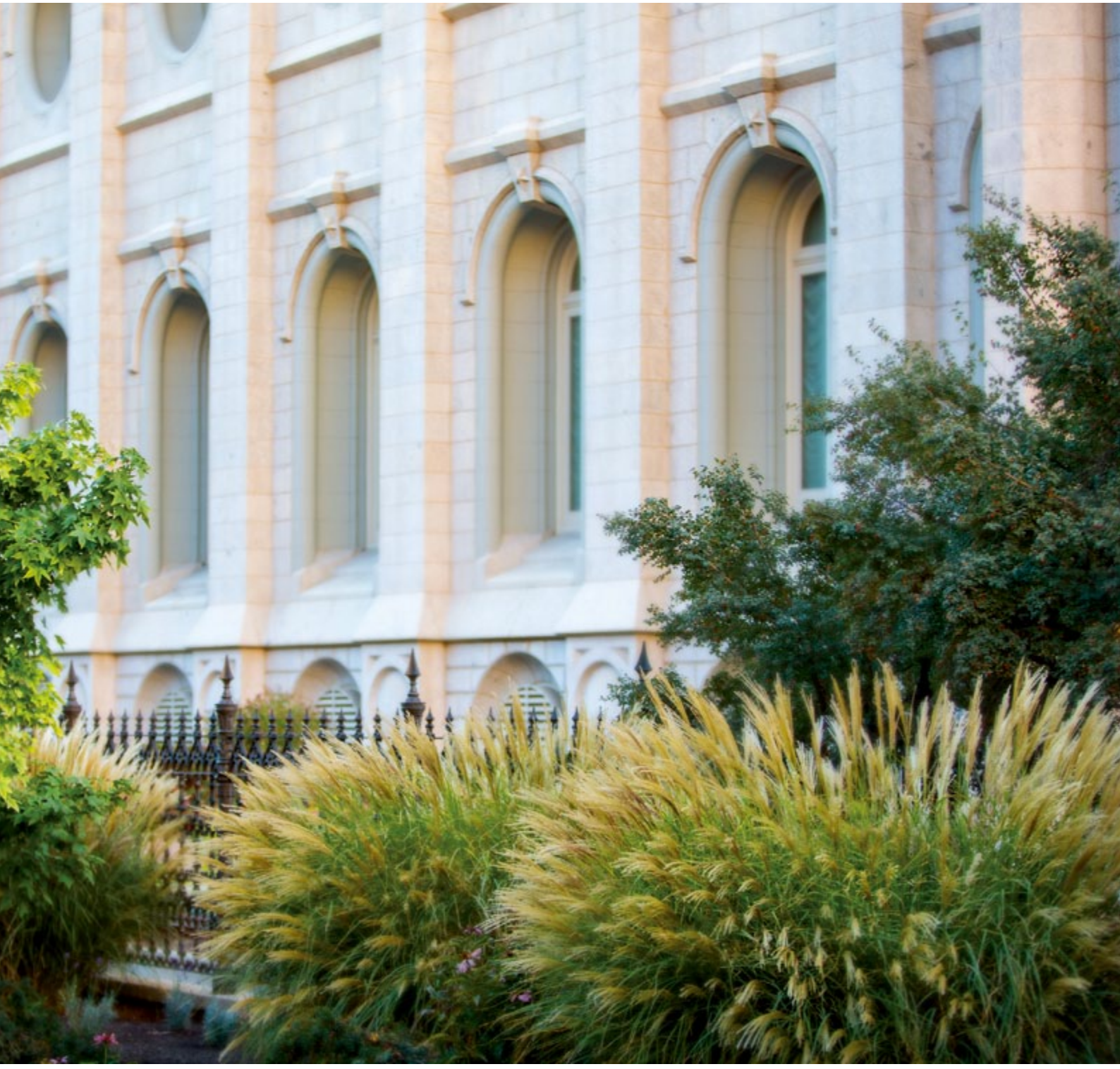
선교사 봉사 연령을 낮춘다고 발표한 지는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봉사 중인 전임 선교사 수는 2012년 10월 당시 58,500명에서 현재 80,333명으로 늘었습니다. 그 발표에 대한 이 엄청나고 영감 어린 반응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땅에서 열한 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던 다음 계명보다 더 의미 있는 선언도, 더 강력한 책임도, 더 직접적인 가르침도 없을 것입니다. 그 계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2]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결국,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의무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3]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모든 회원은 선교사"[4]라는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님의 친숙한 말씀을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의 말씀에 저도 한 마디 덧붙이겠습니다. 지금은 회원과 선교사들이 다 같이 나아와 함께 일하는 가운데 주님의 포도원에서 수고하여 사람들을 주님께 데려와야 할 때입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방편을 수도 없이 준비해 주셨으며, 주님의 일을 완수하고자 충실하게 노력하면,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 선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저는 일찌기 회원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는 한 교회의 와드 선교사 기금이나 일반 선교사 기금에 헌금해 주실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요청에 응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그런 지원은 자신의 힘으로는 선교 사업을 할 수 없는 수많은 이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대한 헌금에 감사드립니다. 그 도움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기에, 선교 사업을 하고 싶은 소망은 강하나 스스로는 방편을 마련할 수 없는 이들에게 여러분이 계속해서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가르침 받고 영감 받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다음 이틀 동안, 복음에 관한 여러 가지 주제로 많은 말씀이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형제 자매님들은 자신의 주제와 관련하여 하늘의 도움을 간구해 왔습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동안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교회가 조직된 날에 수십 명이 참석하긴 했지만, 창립 회원으로 공식 등록된 사람은 여섯 명이었다.
2. 마태복음 28:19.
3.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330쪽.
4. David O. McKay, Conference Report, Apr. 1959, 122.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연차 대회: 신앙과 간증을 강화함

아, 이 연차 대회는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시간입니까! 연차 대회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강화되고 간증이 깊어집니다.

몬슨 회장님, 그리스도와 같은 봉사에 대한 가르침과 모범에 대해,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책임에 대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회장님을 위해 언제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륜의 시대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의 모임을 "*나의* 연차 대회"[1]라고 지칭하셨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 있든, 어떤 방식으로 연차 대회 방송을 시청하든, 우리는 *주님의* 대회에 함께 모인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나의 종들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같으니라"[2]

참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는 언제나 대회가 있어 왔습니다. 아담은 그의 권속을 모아 다가올 일을 예언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녀들을 모아서 자신이 받은 계명을 가르쳤습니다. 구주께서는 거룩한 땅과 고대 미대륙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믿는 자들을 모았습니다. 이 후기의 첫 번째 연차 대회는 교회가 조직되고 2개월 후에 개최되었으며, 이런 대회는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회는 언제나 주님의 지시에 따라, 주님 영의 인도로 이루어집니다.[3] 우리는 특정 주제를 지명받지 않습니다. 몇 주 또는 몇 개월에 걸쳐, 잠 못 드는 밤을 여러 번 보내면서 주님의 뜻을 알고자 기다립니다. 금식, 기도, 연구, 숙고를 하며 *주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배웁니다.

이렇게 묻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왜 더 쉽고 빠르게 영감이 오지 않는 겁니까?" 주님께서는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이같이 가르치셨습니다. "너는 네 생각으로 그것을 연구해야만 하느니라. 그러고 나서 그것이 옳은지를 내게 물어야 하나니"[4] 대회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많은 기도를 드리며 준비한 끝에 성신을 통해서 저희에게 옵니다.

이것은 교회 회원이 와드, 스테이크, 또는 연차 대회에 참석하고자 준비할 때에도 모두에게 적용되는 참된 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속으로 연구하며, 자신이 배운 것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연차 대회가 다가오면,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제쳐 두고 더 나은 것을 추구[하기]"[5] 위해 다른 일들을 희생합니다. 그러고 나서 베냐민 왕의 백성이 한 것처럼 가족을 불러모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6]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대회에 참석하는 것을 사랑합니다. 대회 말씀 수준이 너무 높아 그들이 지적으로나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심각한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어린 회원 여러분,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면 더 분명하게 영의 영향력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대회에서 자신을 위한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회원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장로님 말씀을 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 장로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저희 가족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계시였습니다. 성신이 직접 제게 말씀하셨던 그때만큼 제가 살면서 강한 영을 느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또 다른 분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은 제게 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슴 깊이 느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성신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에 전하시기 때문입니다.[7] 저는 대회에서 기록을 할 때, 연사의 말씀 내용을 항상 그대로 적지는 않습니다. 저는 영이 제게 주시는 개인적인 지시를 적습니다.

말씀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듣고 *느끼는가*가 더 중요합니다.[8] 그래서 우리는 영의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을 분명하게 듣고, 느끼며, 이해할 수 있는 환경에서 대회를 경험하고자 노력합니다.

아, 이 연차 대회는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시간입니까! 연차 대회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강화되고 간증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새롭게 거듭날 때, 우리는 서로를 강화하여 반대와 유혹의 불화살이 난무하는 이 마지막 날에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9]

최근 수십 년간 교회는 대다수 지역에서, 초기 성도들이 경험했던 극심한 오해와 박해를 거의 겪고 있지 않습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전례 없이 더욱 빠르고 더욱 멀리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대적이 지상에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사전 경고를 듣고 보호를 받기 위해 우리는 선지자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공부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은 가족을 둘러싼 지금의 이 많은 어려움이 있기 훨씬 전에 주어졌습니다. '살아 계신 그리스도: 사도들의 간증'도 우리가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할 때가 오기 전에 준비되었습니다.

우리는 선지자들과 여러 연사들이 연차 대회에서 특정 주제를 다루는 이유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해롤드 비 리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안전은 …… 주님께서 그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과 계명에 유의하는 것입니다. …… 인내와 신앙을 요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권세를 가진 이에게서 나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견해와 상반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사회적 견해와 상반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사회적 생활의 일부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친히 주님의 입에서 나온 것처럼 인내와 신앙을 가지고 귀 기울인다면, 그 약속은 '지옥 문이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임이니, 그러하도다. 주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흑암의 권세를 흩어버리고 너희 유익과 또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을 진동하게 할 것임이니라.'(교리와 성약 21:6)라는 것입니다."[10]

리 회장님은 이 시대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것들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그분은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대회에서 말씀을 전할 분들을 포함하여, 현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면 우리는 강화되고, 보호될 것입니다.

연차 대회의 가장 큰 축복은 대회가 끝난 후에 옵니다. 경전에 빈번하게 나오는 양상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고, 집으로 돌아가 그 말씀대로 생활합니다.

베냐민 왕이 백성들을 가르친 후에 "무리를 보내니, 그들이 각자 그 가족대로 그들의 본집으로 돌아갔[습니다.]"[11] 림하이 왕도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12] 구주께서는 풍요 땅의 성전에 모인 백성을 가르치시고 성역을 베푸신 후에 "너희는 너희 집으로 가서, 내가 말한 것을 깊이 생각하며, 너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하고, 내일을 위하여 너희 마음을 예비하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13]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깊이 생각하고, 간구하고,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는 구주의 권유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스펜서 더블유 킴볼 회장님의 다음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 이 [연차] 대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제 삶에서 제가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참으로 많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러한 부분을 머리 속에 간추려 보았으며, 대회가 끝나자마자 그러한 것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14] 몬슨 회장님은 최근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들을 읽고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감에 찬 말씀들을 깊이 있게 공부할 때 더 많은 것을 얻는다는 것을 저는 제 삶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15]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개인 및 가족 경전 공부와 더불어 대회에서 배운 것을 정기적으로 연구하고 적용하라고 권고하십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신앙으로 이 권고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자신은 물론 앞으로 올 후손을 축복할 위대한 힘을 얻게 될 것임을 간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교회 회원의 97퍼센트가 이 대회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를 모국어로 들을 수 있습니다. 197개국에서 수백만 명이 넘는 회원들이 95개 언어로 이 대회를 시청할 것입니다. 단 2~3일 후면, 이 말씀들은 LDS.org에 영어로 게재되며, 1주 안에 52개 언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연차 대회가 끝나고 3주가 지나기 전에 인쇄된 교회 잡지를 받아 봅니다. 이제는 우편으로 도착하는 대회 말씀을 읽기 위해 몇 달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컴퓨터나 휴대전화, 또는 다른 전자 기기로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읽고, 듣고, 시청하고, 나눌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지식을 넓히고, 신앙과 간증을 강화하고, 가족을 보호하며 안전한 집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 대회의 말씀 내용은 또한 온라인 청소년 교육 과정에 포함될 것입니다. 부모님들도 lds.org에 접속하여 청소년 공과를 직접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떤 것을 배우는지 살펴보시고, 여러분 자신의 공부와 가족 토론, 가정의 밤, 가족 평의회, 각 자녀와 하는 개인 접견에서 그들이 개인적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에 관한 주제로 다루십시오.

모든 회원 여러분에게 교회 웹사이트 자료와 모바일 앱을 사용하시도록 권합니다. 그러한 자료는 계속 개선되어 더욱 사용이 편리해지고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들이 담길 것입니다. lds.org에서 복음을 공부하고, 가정과 가족을 강화하며, 부름에서 봉사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들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전 의식이 필요한 조상, 그리고 복음을 나누는 것을 포함하여 구원 사업을 하는 데 유용한 자료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모 여러분은 자녀가 침례, 신권, 전임 선교 사업 등을 위해 준비하는 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성전 의식과 성약에 이르는 협착하고 좁은 길을 나아가고 영생을 축복받기에 합당하게 되는 데 이러한 자료들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 4월 연차 대회 신권 모임에서 저는 제 부친이 전신 갑주를 입은 기사 그림을 그려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착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영적인 보호에 관해 가르치신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모임이 끝난 후에 한 아버지는 자신이 배운 것을 가족에게 전했습니다. 이에 감명을 받은 어린 아들 제이슨은 그 메시지를 lds.org에서 찾아 직접 들어보았습니다. 며칠 후에 제이슨은 가정의 밤에서 자신의 형제자매들에게 그 교훈을 들려 주었습니다. 그 장면을 담은 사진입니다.

주님께 영감 받아 전한 연차 대회의 간단한 메시지를 한 어린이가 받아들여 가족에게 개인적으로, 또 강력한 방식으로 가르친 것입니다. 저는 그 아이가 입은 의의 가슴판을 사랑합니다. 저는 그 아이가 대적의 불화살을 막기 위해 든 신앙의 방패를 사랑합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연차 대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제이슨

형제 자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며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저의 특별한 간증을 전합니다. 이 대회는 *그분의* 연차 대회입니다. 이 대회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돕고, 강하게 하시며, 그분 면전으로 인도하시고자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임을 구주의 이름으로 약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교리와 성약 124:88; 강조체 추가.
2. 교리와 성약 1:38.
3. 교리와 성약 46:2 참조.
4. 교리와 성약 9:8.
5. 교리와 성약 25:10.
6. 모사이야서 2:5 참조.
7. 니파이후서 33:1 참조.
8. Spencer W.Kimball, Conference Report, Tonga Area Conference 1976, 27 참조.
9. 누가복음 22:31~32 참조.
10.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해롤드 비 리*(2000년), 84~85쪽.
11. 모사이야서 6:3.
12. 모사이야서 8:4 참조.
13. 제3니파이 17:3.
14. 스펜서 더블유 킴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말씀," *성도의 벗*, 1976년 2월호, 110쪽.
15. 토마스 에스 몬슨, "우리 다시 만나 볼 동안 하나님이 함께 계셔",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110쪽.

울리세스 소아레스 장로
칠십인 회장단

온유하며 마음이 겸손하게

온유하다는 것은 나약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친절하게 행동하며, 힘과 평온, 건강한 자긍심, 자제력을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몰몬은 사람이 "온유하며 마음이 겸손하게 되지 아니하고는 신앙과 소망을 가질 수 없[다]"[1]고 가르쳤습니다. 몰몬은 그런 자질이 없다면 "그의 신앙과 소망은 헛것이라. 이는 온유하며 마음이 겸손한 자가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아니함이라."[2]라고 덧붙였습니다.

온유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우며, 겸손하고, 가르침을 잘 들으며, 고통 속에 인내하는"[3] 사람의 자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속성을 간직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따르려 하며, 차분하고, 유순하고, 관대하며, 순종적인 기질을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온유가 성령의 열매라고 가르쳤습니다.[4] 따라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5] 가장 쉽게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의로운 삶의 방식을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 때, 하나님의 속성을 본받고 우리의 성격이 더욱 그분처럼 되도록 매일 노력해야 합니다. 구주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6]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 모든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거부[하고], ……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7]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사이다. [이러한 성품은] 선택의지를 의롭게 행사할 때 온다. ……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린다는 소망을 갖고, [우리]의 약점을 인식하고 그것을 향상시키는 일에 기꺼운 마음을 가지며 열망하도록 한다."[8]

더욱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자 한다면, 온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다른 중요한 덕성도 개발할 수 없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나약하다는 뜻이 아니라 선하고 친절하게 행동하며, 힘과 평온, 건강한 자긍심, 자제력을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유함은 구주의 생애에서 가장 풍부하게 드러난 성품 중 하나입니다. 그분은 자신에 대해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 내게 배우라"[9]

우리는 마음속에 온유함의 씨앗을 품고 태어나도록 축복받았습니다. 씨앗을 키우고 가꾸는 일은 절대 눈 깜박할 사이에 되지 않으며, 그보다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얻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10] 지라고 하셨는데, 이는 꾸준히 집중하고 소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경륜의 시대 다섯 번째 선지자이신 로렌조 스노우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온전하게 되려고 노력하고, …… 매일 개선하고, 지난 주를 살펴보고 이번 주에는 더 잘하는 것, 다시 말해 어제 했던 것보다 오늘 더 잘하[는 것이] …… 우리의 의무입니다."[11] 따라서 온유해지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매일 더 나아지는 것입니다. 매일 그러한 과정을 거쳐 앞으로 나아가면서 전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 시도해야 합니다.

스노우 회장님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우리는 다소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나약합니다만, 되도록 빨리 이를 극복하도록 힘써야 하며, …… 이러한 태도를 자녀들에게 철저히 심어 줘야 합니다. …… 그리하여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분 앞에서 [행실을] 올바르게 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와 다투지 않고, 또는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에게 불친절하거나 하나님의 영을 슬퍼하게 하지 않고 하루를 보낼 수 있다면, 지금까지는 …… 온전하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런 후 다음 날도 똑같이 해 봅니다. 그러나 다음날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셋째 날에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12]

우리의 헌신과 인내를 인정하실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불완전함과 인간적 약점 때문에 획득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온유하게 되는 또 다른 중요한 단계는 화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육에 속한 사람이 거하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온갖 압력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기에, 화를 다스리는 것은 우리 삶의 도전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따라 주기를 바라는 누군가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 몇 초간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를 해결할 아이디어를 제대로 냈다고 확신했지만,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여러분의 노고를 비평하거나 단지 자기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불친절하게 대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러한 순간이나 다른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화를 자제하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인내와 부드러운 설득으로 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정 안에서,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 사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결혼 생활 31년 동안, 사랑하는 제 아내는 삶을 불안하게 하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자주 이 점을 "온화하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서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13]

자신의 반응을 통제하고, 침착하고 차분하게 행동하며, 언쟁을 피할 때, 우리는 온유의 은사를 받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으로 우리의 화를 다스리고 교만을 누른다면, 성신은 우리를 인정할 것이며, 성스러운 약속과 성약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14]

온유함에 이르는 또 다른 단계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토머스 비 마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너는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 네 하나님이 손을 잡고 너를 인도할 것이요, 네 기도에 대한 응답을 네게 주리라."[15]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오직 겸손한 사람만이 자신의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을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가르침을 잘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의 뜻을 기꺼이 따르고자 소망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온유하며, 타인에게도 그렇게 되도록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는 진실로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고 걷는다면 삶에서 우회로나 슬픔을 피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이 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온유의 본보기 중 하나로, 모세스 마흐랑구 형제님의 모범을 꼽고 싶습니다. 그분의 개종은 1964 년에 몰몬경 한 권을 받았던 때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분은 책을 읽으면서 매료되었지만, 7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야 길을 걷다 마주친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의 한 건물에서 후기 성도 교회 팻말을 보게 됩니다. 마흐랑구 형제님은 강한 호기심이 일어 교회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시 국법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모임에 참석하거나 침례를 받을 수 없다는 친절한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흐랑구 형제님은 그 결정을 온유하고,

겸손하며, 분개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는 강한 소망을 계속해서 간직했습니다. 그분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바깥에 앉아 들을 수 있게 일요일 모임 시간에 집회소 창문 하나를 열어 줄 수 있는지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수년간 마흐랑구 형제님의 가족과 친구들은 "창을 통해" 교회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했습니다. 1980년 어느 날, 그들은 교회 모임에 참석해도 좋고 침례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마흐랑구 형제님에게 그날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이었겠습니까!

나중에 교회는 소웨토에 있는 그분의 마을에 지부를 조직했습니다. 이 일은 어려한 상황 속에서도 오랜 세월 동안 충실했던, 마흐랑구 형제님과 같은 사람들의 굳은 결의와 용기, 충실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소웨토 스테이크를 방문했을 때, 같은 시기에 교회에 들어온 마흐랑구 형제님의 친구분이 들려 주신 것입니다. 대화를 마칠 때쯤, 그분은 저를 안아 주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 순간, 사랑으로 안아 주시는 구주의 팔에 둘러 싸인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선한 형제님의 눈에서 온유함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슴 가득히 선함과 깊은 감사함을 품은 그분은 자신과 다른 많은 사람이 참된 복음을 통해 삶에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고 감사해하는지를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께 전해 드릴 수 있느냐고 제게 물으셨습니다. 마흐랑구 형제님과 그분의 친구들이 보여 준 온유의 모범은 참으로 많은 사람의 삶에, 특히 저의 삶에 선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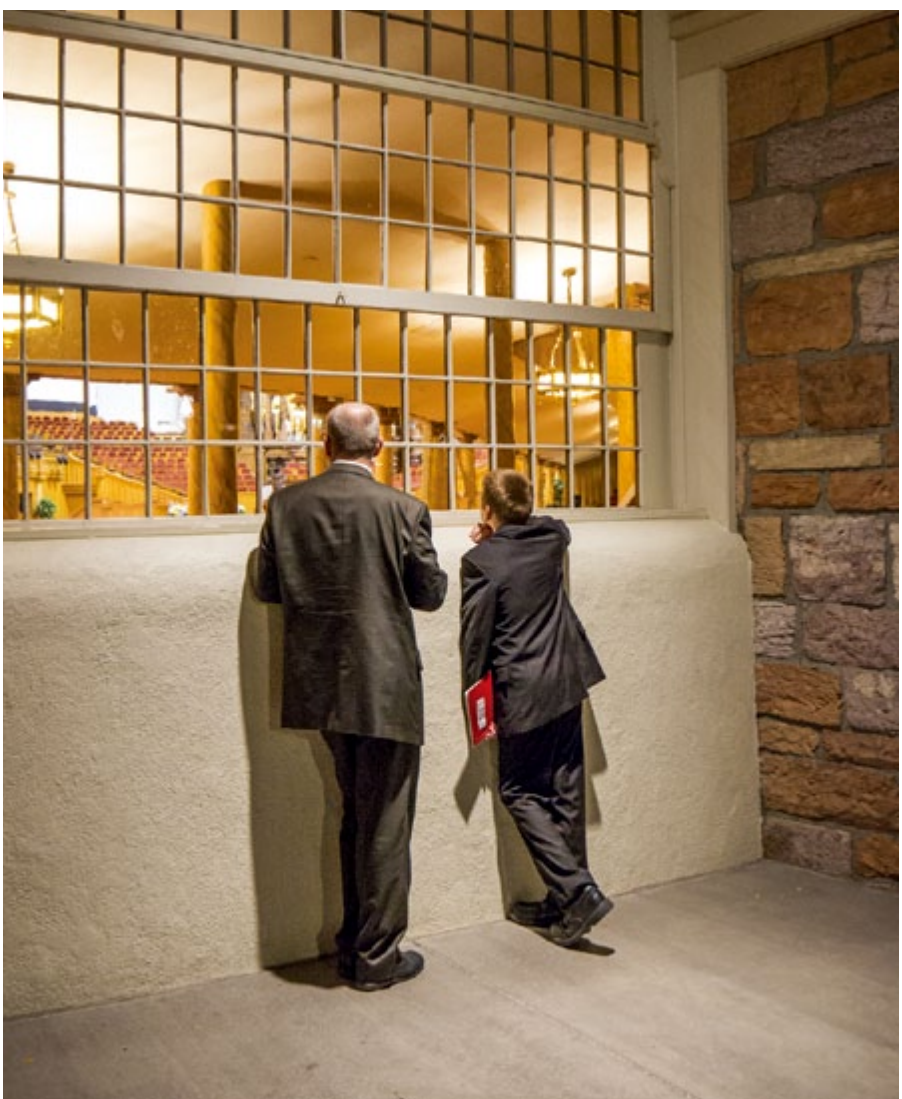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유에 대한 최고의 모범으로 믿습니다. 부당하게 기소되고 정죄받으셨으며, 극한 고통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시고, 원수들에게 조롱과 저주를 받으며, 그분을 알았고 그분의 기적을 보았던 많은 사람에게 버림을 받은 생애 마지막 순간, 그분은 십자가에 못박히셨습니다.

가장 극렬한 육체적 고통을 겪으신 후에도, 주님은 아버지께 돌이켜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의 저 밑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간구를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16]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적 기질을 바꾸고 그분처럼 온유하게 될 기회를 주시고자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이심을 간증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분의 사랑에 대해 간증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자신의 약점을 버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악의 영향력을 거부하고, 분노를 자제하고, 온유하게 되며, 우리의 내면에서 구주의 품성을 계발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보여 주셨습니다. 완벽한 모범을 보여 주셨고 우리 각자에게 그분처럼 되라고 명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모범을 따르며, 그분처럼 되라고 권유하십니다. 이러한 진리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모로나이서 7:43.
2. 모로나이서 7:44.
3. 경전 안내서, "온유한, 온유", scriptures.lds.org.
4. 갈라디아서 5:22~23 참조.
5. 갈라디아서 5:25.
6. 마태복음 5:48.
7. 모로나이서 10:참조.
8.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 사업 지도서* (2004년), 116쪽.
9. 마태복음 11:29.
10. 누가복음 9:23.
11. Lorenzo Snow, Conference Report, Apr. 1898, 13.
12.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로렌조 스노우*(2012), 100~101쪽.
13. 디모데후서 2:24~26.
14. 헨리 비 아이어링, "성약을 맺은 가족", *리아호나*, 2012년 5월호, 65쪽.
15. 교리와 성약 112:10.
16. 누가복음 23:34.



캐롤 엠 스티븐스
본부 상호부조회 제1보좌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신권 의식과 성약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충만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며, 구주의 속죄 덕분에 우리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에서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간, 즉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사람은 모두 하늘 부모의 사랑하는 영의 아들과 딸이며, 따라서 각각 신성한 품성과 운명을 지니고 있다."[1] 이 거룩한 운명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딸들에게는 신권 의식과 성약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침례가 필요합니다. 침수로써 침례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며 항상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끝까지 그분을 섬겨 그분의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 거할 수 있게 하겠다는 성약을 맺습니다.[2]

우리는 성신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 의식을 통해, 우리는 항상 그분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윌포드 우드럽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 죄 사함을 위해 침례를 받은 모든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과, 자녀를 가르치는 일과, 그들이 감리하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과 자녀들을 권고하는 일에서 도움을 얻기 위해, 계시를 받을 권리, 하나님의 영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성신은 어떤 사람에게만,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임하시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충실한 모든 사람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나이가 된 모든 어린이에게 주어집니다."[3]

우리는 성전 엔다우먼트가 필요합니다. 엠 러셀 밸라드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성전에 갈 때, 그들은 똑같은 권능을 받습니다. 바로 신권 권능입니다. …… 엔다우먼트는 말 그대로 권능을 선물받는 은사입니다."[4]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은사 가운데서 가장 큰"[5] 은사인 영생으로 이끄는 인봉 의식이 필요합니다. 이 신권 의식은 반드시 한 남성과 한 여성이 함께할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러셀 엠 넬슨 장로님은 "신권의 권세는 가족들을 영원히 인봉하기 위해서 회복되었다.]"[6]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매주 성찬을 취하면서 우리의 성약을 새롭게 할 기회가 필요합니다. 후기의 선지자와 사도들은 우리가 합당하게 성찬을 취할 때 침례 성약뿐만 아니라 "주님과 맺은 모든 성약"[7]을 새롭게 하게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신권 의식과 성약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충만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며, 구주의 속죄 덕분에 우리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권 의식과 성약은 하나님의 아들딸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8] 무장시키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가 그분의 영원한 가족 안에서 그분과 살게 되는 축복, 즉 영생을 받을 기회를 줍니다.

최근에 저는 신권 지도자들과 함께, 온두라스에 사는 네 자매님들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매님들과 가족들은 신권 열쇠와 권세, 신권 의식과 성약, 신권 권능과 축복이 필요했습니다.

처음 방문한 곳은 예쁜 두 자녀를 둔 자매님의 집이었습니다. 자매님은 충실한 활동 회원이었고, 자녀들이 옳은 것을 선택하도록 가르치고 계십니다. 남편은 그런 아내를 지지해 주었지만, 회원은 아니었습니다. 그 가족은 강하지만 더 큰 힘을 받기 위해선, 추가로 신권 축복이 필요합니다. 침례 의식과 성신의 은사를 받고 신권을 받은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엔다우먼트와 인봉을 통해 받게 되는 신권 권능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간 곳은 남편 없이 홀로 지내시지만 강한 신앙을 지닌 두 자매님의 가정이었습니다. 한 자매님은 선교 사업을 준비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자매님은 항암 치료 중이셨습니다. 좌절과 낙담을 겪을 때에도 구주의 속죄를 기억했기에 그분들은 신앙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 분은 모두 성전 의식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더 많은 축복과 권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매님들에게 의식을 받을 준비를 하시도록, 가정에서 미래의 선교 사업에 동참하도록 격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최근에 비극적인 사고로 남편을 잃은 자매님의 댁이었습니다.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자매님은

엔다우먼트를 받고, 남편에게 인봉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과 그분의 죽은 남편이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자 자매님은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성전 의식과 성약을 통해 자신의 가족이 함께 인봉될 수 있음을 안 이 자매님은 신앙과 투지로 앞으로 겪게 될 시련들에 맞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여읜 이 자매님의 아들이 아론 신권을 받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아들이 아론 신권을 받는 것은 그 자매님과 가족에게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가정에 신권 소유자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충실한 온두라스 여성들을 만나보면서, 저는 가족들이 복음 안에서 충실하도록 이 자매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시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자매님들은 자신의 가족을 정성스레 돌봐 주고 현세적으로, 영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주는, 성약을 지키는 와드 회원들에게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자매님들은 각각 아직 완전히 채워지지 않은 필요 사항이 있었습니다.

함께 방문했던 한 현명한 신권 지도자는 자매님들에게 신권 축복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네 분 모두 받은 적이 없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분들의 요청에 따라 그날 네 분 모두에게 신권 축복을 주었습니다. 자매님들은 합당한 신권 소유자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위로와 인도, 격려와 영감에 감사함을 표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자매님들을 통해 저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권능 및 권세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저 또한 함께 이 가정들을 방문했던 신권 지도자들에게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방문을 마친 후 우리는 이 가족들이 앞으로도 계속 성약의 길을 걷는 데 필요한 의식을 받고 가정을 강화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의논했습니다.

오늘날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딸로서 서로 존중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신권, 즉 그분의 권능과 권세에 대한 공경심을 키우는 일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는 우리를 위한 계획이 있으시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앙을 행사할 때, 우리는 그분과 그분의 신권 권능 및 권세를 더 깊이 공경하게 될 것입니다.

"*신권을 통해 가족과 교회를 강화함*"이라는 주제로 열린 전 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에서 우리는 이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가정에 신권 소유자가 없는 자매님들은 절대 혼자라고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받은 의식과 그들이 지킨 성약을 통해 축복받고 강화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주저하지 말고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엠 러셀 밸라드

장로님은 교회의 모든 여성들에게는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감독님, 장로 정원회 회장, 가정 복음 교사, 또 다른 합당한 신권 소유자들이 있으며, 로즈메리 엠 윅솜 자매님의 말씀처럼, 그 신권소유자들은 '축복을 주기 위해'[9] 그들의 집으로 오거나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밸라드 장로님은 또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권능을 무한히 나누어 주십니다. 모든 남성과 여성은 살면서 도움 받기 위해 이 권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이 성약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은 개인적인 계시를 받고 천사의 성역을 축복받고 하나님과 친교를 나눌 자격이 있습니다."[10]

우리는 모두 서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딸들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로 재능과 강점이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딸들은 주님의 계획에 따라 각자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11]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인지, 무엇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신권을 행사하고 신권의 권능과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십니까? 여러분은 아버지, 할아버지, 아들, 형제, 삼촌으로서 가족을 강화해야 하는 여러분의 역할과 책임을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은 여성과 여성성, 모성을 존중하십니까?

하나님의 딸인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신권의 권능과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십니까? 우리는 감사와 은혜, 고결함을 갖고 자신의 은사를 받으십니까? 우리는 어머니, 할머니, 딸, 자매, 이모로서 가족을 강화해야 하는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받아들이십니까? 우리는 남성과, 남성성, 부성을 존중하고 계십니까?

성약의 아들딸로서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계획과 그분을 믿는 신앙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를 믿는 신앙이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성품과 운명을 갖고 있다고 믿습니까? 이런 운명을 성취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받기 위해,[12] 신권 의식을 받는 것과 주님과 성약을 맺고 지키며 새롭게 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늘 부모님이 사랑하시는, 신성한 속성과 운명을 지닌 영의 아들딸입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의 속죄로, 성스러운 신권 의식 및 성약을 통해 하늘 본향으로 나아갈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신권 의식과 성약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지상에 회복되었으며, 오늘날 몬슨 회장님은 지상의 모든 신권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아들의 이름으로 그분과 성약을 맺을 수 있도록 의식을 집행하는 신권의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여러분이 하나님과 맺은 성약을 경외할 때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지키실 것[입니다.]"[13]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2. 모로나이서 4:3; 6:3 참조.
3.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윌포드 우드럼*(2004), 49쪽.
4. M. Russell Ballard, "Let Us Think Straight" (Brigham Young University Education Week devotional, Aug. 20, 2013); speeches.byu.edu.
5. 교리와 성약 14:7; 또한 교리와 성약 131:1~4 참조.
6. 러셀 엠 넬슨, "결혼 생활을 보살핌",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37; *내 왕국에 속한 딸들: 상호부조회의 역사와 업적*(2011), 134쪽.
7. Delbert L. Stapley, Conference Report, Oct. 1965, 14; "우리가 성찬을 취하는 동안", 엘 톰 페리,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41쪽에서 인용; 또한 *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 (1997), 561 참조; *The Teachings of Spencer W. Kimball, ed. Edward L. Kimball* (1982), 220.
8. 교리와 성약 109:22 참조.
9. 엠 러셀 밸라드, 로즈메리 엠 윅솜, *신권을 통해 가족과 교회를 강화함*, "모든 가정에 주어지는 신권 축복" (전 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2013년 5월), lds.org/broadcasts 참조.
10. M. Russell Ballard, "Let Us Think Straight"; speeches.byu.edu.
11. 또한 교리와 성약 46:9, 12 참조.
12. 교리와 성약 84:38 참조.
13.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성약의 권능",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22쪽

에드워드 듀브 장로
칠십인

앞을 바라보고 믿으십시오

주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 왔고 어디에 있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기꺼이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적에 저는 어머니와 함께 밭에서 일하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배웠습니다. 아침 늦게, 중천에 뜬 태양 아래서 제 생각에는 상당히 오랫동안 괭이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손을 멈추고 일궈 놓은 밭을 돌아보며 어머니께 외쳤습니다. "우리가 해 낸 것 좀 보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못 들으셨나 보다 하는 생각에, 목소리를 조금 더 높여 다시 한 번 외쳤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어머니는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더 크게 다시 소리쳤습니다. 마침내 어머니는 저를 돌아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드워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는 앞만 보거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주님께 맺은 성약, "죽을 때까지 어느 때에나 무슨 일에나, [우리]가 있게 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증인이"(모사이야서 18:9) 되겠다는 성약은 일생에 걸친 약속입니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님은 이같이 권고하셨습니다. "침례와 성신의 은사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제자의 길에 발을 들여 놓은 것이며 구주의 발자취를 꾸준히, 성실하게 따르도록 명을 받은 것입니다."("사계절 내내 성도가 됩시다", *리아호나*, 2013년, 9월호, 5쪽) 주님께서는 그분의 종들을 통해 여러 가지 부름에서 봉사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그 부름을 받아들입니다. 부름에서 해임되고 또 다른 임무에 부름받게 될 때, 우리는 이를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조들이 알고 있었듯이, 우리도 "주님을 섬기는 것에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어디서 봉사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봉사하느냐 하는 것"(J. Reuben Clark Jr., Conference Report, Apr. 1951, 154)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해임받는 스테이크 회장 또는 감독은 자신의 해임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주께서 "합당하게 여겨"(모사이야서 3:19) 그분의 종을 통해 또 다른 부름에서 봉사하도록 부르실 때, 이전 경험의 그늘에 갇히거나 뒤를 돌아보며 자신이 이미 충분히 봉사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수고가 수많은 사람의 삶을 영원토록 축복할 것이라는 분명한 비전을 보고, 자신이 "위대한 일의 기초를 놓고 있음"을 알기에 "선을 행함에 지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작은 일에서 큰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교리와 성약 64:33)

우리는 모두 "훌륭한 대업에 열심히 노력하여 [우리]의 자유의사로 많은 일을 행해야 하며 많은 의를 이룩해야 [합니다.]"(교리와 성약 58:27)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님은 이같이 권고하셨습니다. "과거에서 배우되, 그곳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는 이유는 과거로부터 배우기 위함이지, 과거의 일을 회상하고 집착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배워야 할 바를 배우고 경험을 토대로 최고의 것을 얻었다면 이제는 앞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은 항상 미래[지향적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앞으로 성취할 최고의 것", *리아호나*, 2010년 1월호, 18쪽)

앞을 바라보라는 어머니의 가르침은 단지 밭에 난 잡초에 대한 것이었으나 초기 성도들은 그것과는 비교도 하지 못할 일들을 겪었습니다. 조셉 비 워스린 장로님은 그 일을 다음과 같이 잘 설명하셨습니다. "1846년에, 일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미시시피 연안에 세워졌던 번창하던 나부 시를 떠났습니다. 예언의 권능을 지닌 지도자를 믿는 신앙으로, 초기 교회 회원들은 그들의 '아름다운 도시' [나부]를 떠나 미국 변방의 황무지를 향해 과감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정확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얼마나 먼 거리를 더 가야 하는지, 여행이 얼마나 더 걸릴지, 도대체 어떤 미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실로 자신들을 이끌고 계신 분이 바로 주님이며, 또한 그분께서 그분의 종들을 통해 이끌고 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우리 선조들의 신앙", *성도의 벗*, 1996년 7월호, 33쪽)

그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앞을 바라보며 믿는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이 회원들 중 몇몇은 당시로부터 약 15년 전에 다음 계시가 주어졌을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대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살든지 죽든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며, 환난 중에 충실한 자는 그의 상이 천국에서 더욱 크도다.

너희는 이후에 임하게 될 일들에 관한 너희 하나님의 계획과, 많은 환난 후에 뒤따르게 될 영광을 지금 너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느니라."(교리와 성약 58:2~3)

우리 또한 앞을 바라보며 믿을 수 있습니다. 손을 내밀며 권유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을 다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마태복음 11:28~30)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 토마스 에스몬슨 회장님과 그분의 보좌들, 십이사도 정원회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 사업에 참여하도록 초대해 왔습니다. 새로운 개종자, 청소년, 청년 성인, 사회에서 은퇴한 분들, 전임 선교사 모두는 구원 사업을 서두르기 위해 같이 이 멍에를 짊어져야 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이신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님은 황소 끌기 대회를 보시면서 한 가지 교훈을 배우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 썰매에 시멘트 벽돌을 4.5톤 가량 쌓습니다. …… 시합의 요지는 황소가 썰매를 약 90센티미터 정도 끌며 우열을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 청회색 얼룩무늬를 한, 잘 어울리는 거대한 황소 한 쌍이 눈에 띄었습니다. …… 그 우람한 청회색 황소는 지난 시즌에도 참가했던 소였습니다."

패커 회장님은 대회 결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황소들은 한 쌍씩 탈락해 나갔습니다. …… 그 커다란 푸른 색 황소 팀은 등수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작고 볼품없는 다른 황소 한 쌍이, 서로 덩치도 잘 맞지 않는데도, 세 차례 모두 썰매를 끄는 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패커 회장님은 그 놀라운 뜻밖의 결과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 우람한 푸른 황소 팀은 다른 팀보다 더 크고, 더 강하고, 덩치도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황소 팀은 호흡과 조직력에서 더 훌륭한 기량을 보였습니다. 그 두 황소는 함께 멍에를 끌었습니다. 둘은 정확히 동시에 앞으로 박차고 나갔고, 그 힘으로 짐을 끌어냈습니다."("Equally Yoked Together," 지역 대표 세미나에서 전한 말씀, Apr. 3, 1975; in *Teaching Seminary: Preservice Readings* [2004], 30)

앞을 바라보고 믿으면서, 우리는 그와 같은 팀워크를 발휘하여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 사람들을 초대함으로써 구원 사업을 서둘러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능력 안에서, "가까이 모여 서서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들어올[리라]"("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들어올리십시오"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56쪽)는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님의 권고를 따라야 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엘 톰 페리 장로님이 하신 다음 말씀에도 나오듯이 우리는 자신의 모든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있는 교회를 가 볼 때면, 그 교회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긍정적인 일들에 경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잠재력을 다 실현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끼기에 우리는 항상 협동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여전히 개인적인 명예나 성공에 대한 야망이 클 뿐, 주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공동의 목표에는 관심을 거의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United in Building the Kingdom of God," *Ensign*, May 1987, 35)

우리 모두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려는]"(모세서 1:39) 공통된 목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과 끝을 다 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가게 될 길, 즉 겟세마네와 골고다로 이어지는 그 여정을 잘 알고 계셨으며,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누가복음 9:62)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 왔고 어디에 있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기꺼이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우리를 인도하는 근본 원리를 이와 같이 가르쳤습니다. "우리 종교의 기본적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간증, 즉 그분은 돌아가셨고, 매장되셨으며, 삼 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종교에 관한 다른 모든 것은 단지 그것에 부속되어 있을 뿐입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49쪽)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며, 손을 직각으로 들어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을 지지한다면, 우리는 화평과 위안, 기쁨을 찾고 "이 마지막 날에 시온의 땅의 좋은 것을 먹[게 될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64:34)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하늘 문

십일조의 법에 따라 생활할 때 영적 및 현세적 축복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됩니다.]

십일조의 법과 관련해서 제가 배운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개인과 가족이 이 계명에 충실히 순종할 때 받게 되는 축복에 초점을 둡니다. 두 번째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전 세계적인 성장 속에서 십일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성신께서 제가 이야기하려는 원리의 참됨을 우리 각자에게 확증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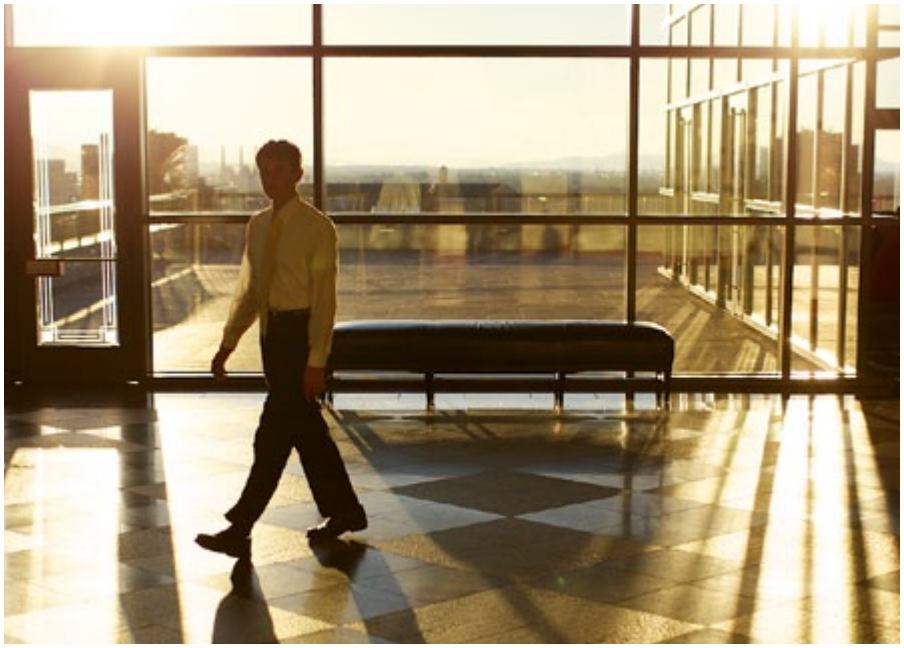
교훈 1. 중대하면서도 감지하기 어려운 축복들

제 장모님은 충실한 여성이시며 영감을 따르는 주부이십니다. 그분은 결혼 초기부터 가정의 재정 기록을 세심히 관리해 오셨습니다. 수십 년간 아주 간단한 가계부에다 가족의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기록하셨습니다. 그분이 오랜 시간 기록하고 보관해 오신 기록은 방대하고도 유익합니다.

장모님은 제 아내가 청녀였을 때 가계부에 적힌 내용을 활용하여 절약하는 생활과 알뜰한 가정 경제 관리에 대한 기본 원리를 강조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느 날 함께 여러 가지 지출 항목을 검토하다가 장모님께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셨습니다. 가족들의 병원 진료비와 약값이 예상보다 훨씬 적게 들었던 것입니다. 장모님은 이 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련이 있음을 아셨고, 딸에게 다음과 같은 놀라운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십일조의 법에 따라 생활할 때, 종종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쉽게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중대하면서도 감지하기 어려운 축복들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모님의 가족은 가계에 보탬이 되는 어떤 갑작스럽거나 분명한 수입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방법으로 단순한 축복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아내는 어머니께 배운 이 중요한 교훈, 즉 구약의 말라기에 약속되어 있듯 하늘 문을 통해 우리에게 오는 도움에 관한 이 교훈을 항상 기억했습니다.(말라기 3:10 참조)

흔히 십일조의 법에 대해 가르치고 간증할 때면, 우리는 즉각적이고, 극적이며, 쉽게 인식되는 현세적인 축복을 강조합니다. 물론 그런 축복들도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 계명에 순종할 때 얻게 되는 여러 다양한 축복에는 중대하면서도 감지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축복은 영적으로 민감하고 주의를 기울일 때에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고린도전서 2:14 참조)

말라기에 나오는 하늘 "문"이란 표현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 이 하늘 문은 "windows of heaven", 즉 "하늘 창문"이라고 되어 있음-옮긴이] 창문은 건물 안으로



자연광을 들여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일조의 법을 지키면 영적인 빛, 즉 영적인 깨달음과 시각이 하늘 창문을 통해 쏟아져 나와 우리 삶을 비추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받는 감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축복 한 가지는 감사라는 영적 은사인데, 이 은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주어 더 소유하려는 욕망을 억제하게 해 줍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온전히 만족할 줄 압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끝없는 불만족 속에서 늘 빈곤에 허덕입니다.(누가복음 12:15 참조)

우리는 좋은 직장을 찾기 위한 도움이 필요하고,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지나칠 수도 있는, 취업 기회를 알아보는 안목이 영적인 은사를 통해 커졌다는 것을 인식하려면, 신앙의 눈과 귀가 필요합니다. 또는 남들이 할 수 있거나 하려는 것보다 더 열심히, 더 오래 어떤 일자리를 찾아보는 강한 결의를 축복받았다는 것을 인식하려면, 신앙의 눈과 귀가 필요합니다.(이더서 12:19 참조) 우리는 취업을 원하고 기대하겠지만, 하늘 문을 통해 주어지는 축복은 누군가나 어떤 것 때문에 우리의 환경이 바뀌는 것보다는 스스로 행동하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 필요한 것을 더 잘 마련하기 위해 급여 인상이라는 합리적인 소망을 품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 및 현세적인 지혜와 능력이 향상되어(누가복음 2:52 참조) 적은 돈으로 더 많은 것을 하고, 예리해진 판단력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생활을 간소화하며, 소유한 물질을 더 현명하게 관리하는 자질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느끼려면, 신앙의 눈과 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더 높은 급여를 원하고 기대하겠지만, 하늘 문을 통해 주어지는 축복은 누군가나 어떤 것 때문에 우리의 환경이 바뀌는 것보다는 스스로 환경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올 수 있습니다.

몰몬경에 나오는 청년 용사들은(앨마서 53장; 56~58장 참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강하게 하시고 원수의 손에서 건져 내 주시도록 온 마음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 기도의 응답은 무기를 추가하거나 병사 수를 증원하는 식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대신, 이 충실한 용사들에게 그분께서 그들을 구하실 것이란 확신과 영혼의 평안, 주 안에서 그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란 큰 신앙과 소망을 주셨습니다.(앨마서 58:11 참조) 그리하여 힐라맨의 아들들은 용기를 냈고, 적을 정복하겠다는 결의를 확고히 하고 나아가 힘을 다해서 레이맨인에 맞섰습니다.(앨마서 58:12~13 참조) 확신, 평안, 신앙, 소망이 처음에는 전쟁터의 용사들이 원하던 축복으로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분명 그것들은 이 용맹한 청년들이 전진하여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승리를 거두는 데 필요한 축복들이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성공을 간구할 것이며,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강하게 해 주십니다. 번영을 간구할 때, 우리는 더 넓은 시각과 더 큰 인내심을 받게 되며, 더 큰 성장을 간구할 때는 관대함의 은사를 축복받습니다. 합당한 목표를 이루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은 신념과 확신을 주십니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고 간구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가 더 굳은 결의와 의지를 품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십일조의 법을 준행하고 지킬 때, 진실로 하늘 문이 열리고 영적 및 현세적인 축복이 더는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질 것임을 약속합니다.(말라기 3:10 참조) 또한 우리는 주께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신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이사야 55:8~9)

영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잘 살핀다면, 삶에 임하는 중대하고도 미묘한 그분의 방법, 그분의 뜻, 그분의 축복을 더 분명히 볼 수 있는 눈을, 더 지속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더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임을 간증합니다.

교훈 2 – 단순한 주님의 방법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으로 부름받기 전에 저는 교리와 성약에서, 신성한 십일조 기금을 감독하고 지출하는 일을 하는 평의회와 관련된 부분을 많이 읽었습니다. 계시에 따라 십일조 지출 평의회가 제정되었으며, 이 평의회는 제일회장단, 십이사도 정원회, 감리 감독단으로

구성됩니다.(교리와 성약 120편 참조) 2004년 12월에 그 평의회 모임에 처음으로 참석할 준비를 하면서, 저는 이 특별한 기회를 통해 무언가 배우게 되기를 간절히 고대했습니다.

그 평의회에서 경험하고 느꼈던 것들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는 개인과 가족, 그리고 그분의 교회를 위해 마련된 주님의 재정 율법을 더 깊이 이해하고 우러러보게 되었습니다. 수입과 지출 모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기본적인 재정 체계는 교리와 성약 119편과 120편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교회 재정과 관련된 제반사는 이 계시들에 담긴 두 가지 내용을 토대로 합니다.

119편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모든 회원이 "해마다 그들의 모든 수익의 십분의 일을 바칠지니, 이는 …… 영원토록 그들에게 항구적인 율법이 되리라. 주가 이르노라."(4절)

그다음, 십일조와 관련된 승인된 지출에 대해 주님은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나의 교회의 제일회장단과 감독과 그의 평의회와 나의 고등평의회로 구성된 평의회에 의하여 또 그들에게 주는 나 자신의 음성에 의하여 그것이 처리되어야 [하느니라] …… 주가 이르노라."(교리와 성약 120:1) 이 계시에서 언급된 "감독과 그의 평의회"와 "나의 고등평의회"는 각각 오늘날의 감리 감독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입니다. 이 신성한 기금은 빠르게 성장하는 이 교회의 성전과 집회소를 건축하고 유지하며, 선교 사업을 지원하고, 경전을 번역하고 출판하며, 가족 역사 탐구를 촉진하고, 학교 교육 및 종교 교육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그 외 주님의 성임된 종의 지시에 따라 나머지 다른 많은 목적들을 성취함으로써 개인과 가족을 영적으로 축복하는 데 쓰입니다.

세상의 많은 단체와 정부에서 사용하는 복잡한 재정 지침과 관리 절차에 비교할 때, 이 두 계시가 지닌 명료함과 간결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와 같은 큰 조직의 현세적인 업무가 어떻게 그와 같이 간단명료한 지침으로 전 세계에 걸쳐 운영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제게 매우 간단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일이고, 그분은 자신의 일을 하실 수 있으며(니파이후서 27:20 참조), 자신의 종들이 지시에 따라 그분의 대업에서 일할 때 직접 영감을 주시고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참석했던 그 평의회에서 저는 우리의 심의와 결정을 이끄는 원리의 단순함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교회 재정 운영에서는 두 가지 기본적이고도 확고한 원리가 준수됩니다. 첫째, 교회는 수입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며 수입을 넘어서는 지출을 하지 않습니다. 둘째, 비상 상황과 예기치 않은 필요 사항에 대비하여 연간 수입에서 일정 부분을 따로 비축해 둡니다. 수십 년간 교회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음식과 연료, 돈을 추가로 비축하라는 원리를 회원들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회원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치는 바로 그 원리 그대로 교회 역시 조직으로서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임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교회의 현세적인 사안을 처리하는 주님의 방법(교리와 성약 104:16 참조)의 단순함과 명료함, 질서정연함, 자비로움과 권능을 교회의 모든 회원이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십일조 지출 평의회 일원으로 오랫동안 참여해 왔습니다. 주님의 방법에 대한 저의 감사와 존경심은 매년 더 커졌으며, 그곳에서 배운 교훈들은 점점 더 심오하게 다가왔습니다.

제 마음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서 온 이 교회의 충실하고 순종적인 회원들에 대한 사랑과 감사함으로 가득합니다.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저는 여러분의 소망과 바람, 다양한 생활 여건과 환경, 그리고 어려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교회 모임에 참석했으며 몇몇 가정도 방문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덕분에 제 신앙이 강화되었습니다. 헌신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저도 더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선함과 십일조의 법에 기꺼이 순종하는 모습은 제가 더 좋은 사람이자 남편, 아버지, 교회 지도자가 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십일조 지출 평의회에 참여할 때마다 저는 여러분을 기억하고 생각합니다. 성약을 지키는 가운데 보여 주신 선함과 충실함에 감사드립니다.

회복된 주님의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회원들이 헌납한 헌금을 적절히 관리하고 돌보는 일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과부가 낸 헌금의 성스러운 특성을 잘 압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마가복음 12:41~44)

저는 십일조 지출 평의회가 과부의 헌금을 소중하고도 세심하게 다룬다는 것을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압니다. 이 거룩한 청지기 직분을 수행하는 일에서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과 그분의 보좌들께서 보여 주시는 효과적인 지도력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는 주님의 성임된 종들이 그분을 대표할 의무를 수행할 때, 주님의 목소리(교리와 성약 120:1 참조)와 손길이 미쳐 그들을 지지해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권유 및 간증

정직하게 십일조를 바치는 것은 단순한 의무 이상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성결함에 이르는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입니다. 십일조를 바치는 분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현재 십일조의 법에 순종하지 않고 계신 분들께는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회개하시도록 권합니다. 이 주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여러분에게 하늘 문이 열리게 될 것임을 간증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회개의 날을 미루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일조의 법에 따라 생활할 때 영적 및 현세적 축복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때로는 중대하면서도 감지하기 어려운 축복들이 있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또한 그분 교회의 현세적인 일들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주님의 방법의 간결함과 단순함은 개인과 가족으로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지침이 된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 각자가 이 중요한 교훈을 통해 배우고 유익을 얻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와서 우리와 함께합시다

여러분의 상황이나 이력, 또는 간증의 크기가 어떻든 이 교회에는 여러분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세계의 종교가 모인 큰 집회장에 있었습니다. 그는 종교마다 바람직하고 훌륭해 보이는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대표하는 훌륭한 부부 한 쌍을 만나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회원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부부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부는 계속해서 교회 부름, 가정 복음 및 방문 교육, 선교 사업, 매주 하는 가정의 밤, 성전 사업, 복지 및 인도주의 봉사, 가르치는 임무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남자가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그 모든 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합니까?"

부부는 "아닙니다. 회원들은 무료로 시간을 바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부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교회 회원들은 6개월마다 한 번씩 주말에 10시간에 걸쳐 연차 대회에 참석하거나 방송을 시청합니다."

남자는 놀라서 "열 시간 동안이나 설교를 듣는단 말입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매주 열리는 교회 모임은 어떻습니까? 그건 몇 시간이나 되죠?"

"일요일 모임은 세 시간입니다!"

"맙소사. 당신네 교회 회원들은 정말 당신이 말한 대로 합니까?"

"그 이상을 합니다. 아직 가족 역사, 청소년 야영, 여러 영적 모임들, 경전 공부, 지도자 훈련, 청소년 활동, 새벽반 세미나리, 교회 건물 관리를 말씀드리지 않았군요. 건강에 대한 주님의 율법과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 매달 하는 금식, 그리고 십일조도 있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군요. 사람들은 왜 그런 교회에 가입하고 싶어 할까요?"

부부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런 교회에 가입할까요?

전 세계에서 대다수 교회의 신도수가 크게 줄고 있는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여타 교회에 비해 작긴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2013년 9월을 기준으로 전 세계의 회원 수는 1,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몇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구주의 교회

첫째,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시대에 친히 회복하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는 그분의 이름으로 행할 권세, 즉 죄 사함을 위한 침례, 성신의 은사 부여, 땅과 하늘에서의 인봉 등을 행할 권세가 있습니다.[1]

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분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합니다. 성스러운 신권 의식을 받고 하나님과 성약을 맺으면, 생활 속에서 그분의 권능을 느낄 수 있습니다.[2]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면, 자신이 그분의 면전에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거룩한 경전[3]을 읽고 선지자들의 가르침대로 생활하는 가운데 자신이 매우 사랑하는 구주께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적극적인 신앙

또 다른 이유는 이 교회가 선을 행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훌륭한 일이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영감 어린 설교를 듣거나 천상의 행복을 꿈꾸는 것 이상의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4] 사람들은 신앙을 실천하고 싶어합니다. 소매를 걷어붙이고 이 위대한 대업에 동참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람들은 재능과 연민, 시간을 훌륭한 일로 변화시킬 많은 기회를 받게 됩니다. 세계 어느 곳이든 우리 교회에는 급료를 받는 현지 성직자가 없기 때문에 회원들이 직접 성직을 수행합니다. 회원들은 영감에 따라 부름을 받습니다. 자원하기도 하고, 지명을 받기도 합니다. 임무를 짐으로 여기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에게 봉사하겠다고 기쁘게 맺은 우리의 성약을 이행할 기회로 봅니다.

귀중한 축복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는 세 번째 이유는 귀한 축복으로 이어지는 제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침례를 제자의 길을 시작하는 첫걸음으로 여깁니다. 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으면, 현세에서는 평안과 목적을, 내세에서는 큰 기쁨과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을 충실히 따라가는 사람들은 인생의 많은 위험과 슬픔, 후회를 피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이곳에서 지식의 큰 보화를 찾습니다.

고통이나 슬픔을 겪는 사람은 이곳에서 치유를 얻습니다.

죄의 짐을 진 사람은 용서와 자유, 평안을 얻습니다.

떠나는 이들에게

진리를 찾는 수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로 인도됩니다. 그러나 한때 사랑했던 이 교회를 떠나는 이들도 일부 있습니다.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이 복음이 그렇게 훌륭하다면 왜 떠나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까?"

때로 우리는 그 이유를 그들이 상처받았거나 게으르거나 죄가 있어서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그것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양한 상황에 모두 적용되는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회원들 중에는 이 교회를 떠나야 할지를 놓고 수년간 힘겹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곳은 개인의 선택의지를 매우 존중하는 교회이기에, 또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던 한 젊은이를 통해 회복된 교회이기에, 우리는 정직하게 진리를 찾는 이들을 존중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교회와 우리가 찾은 이 진리로부터 떠나는 사람들이 생길 때, 우리의 가슴은 미어지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양심에 따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권리를 주장하듯[5] 그들의 권리도 존중합니다.

답을 얻지 못한 질문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있었던 행위나 발언에 관한 의문에 답을 얻지 못하여 괴로워합니다. 우리는 약 200년에 걸친 교회 역사에서 훌륭하고도 영감받은 성스러운 사건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던 것과 더불어 사람들에게 의문을 일으킬 만한 말과 행위도 일부 있었음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때로는 단순히 우리에게 모든 정보가 있는 것이 아니라서 좀 더 인내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언젠가 진리가 완전히 알려지게 되면, 그 전에는 이치에 맞지 않았던 것들이 만족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실"의 진정한 의미에 관해 견해가 엇갈리기도 합니다. 의혹을 일으키는 일부 질문은 신중하게 조사하고 연구할 경우, 타인의 신앙을 키워 줄 수 있습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교회 회원들이나 지도자들이 말 그대로 실수를 했던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 원리, 교리와 맞지 않는 말과 행동을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오직 완전한 존재들이 관리할 경우에만 이 교회가 완벽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그분의 교리는 순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불완전한 자녀인 우리를 통해 일하시며, 불완전한 사람들은 실수를 합니다.

몰몬경의 표제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이제, 만일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의 실수라, 그러한즉, 너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흠 없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을 정죄하지 말지니라."[6]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지상을 다스리실 완전한 날이 이르기 전까지는 이런 일들이 있어 왔고, 또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저지른 실수 때문에 실족한 사람들이 일부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찾을 수 있는 회복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영원한 진리는 손상되거나 축소되거나 파괴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리고 이 교회의 평의회와 교회 운영 과정을 직접 지켜보는 사람으로서 저는 이 교회와 회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어떤 중대한 결정도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영감과 인도를 구하고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시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엄숙하게 증거합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가 지정된 길에서 벗어나거나 거룩한 운명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절대로 그냥 두는 법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떠나신 분들에게 이곳에는 아직도 여러분을 위한 자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와서 여러분의 재능과 은사와 힘을 더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모두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에 생긴 의문은 어떡합니까?"

의문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정직한 질문이라는 작은 도토리에서 싹이 나고 자라면, 이해라는 커다란 참나무가 됩니다. 교회 회원 중에 중대하거나 민감한 문제로 한 번쯤 고심해 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교회의 목적 중 하나는 신앙의 씨앗을 키우고 재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의심과 불확실이라는 모래가 섞인 흙 속에서도 씨앗을 키울 수 있습니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참된 것들을 소망하는 것입니다.[7]

사랑하는 형제 자매 및 친구 여러분, 부디 신앙을 의심하기 전에 여러분의 의혹을 먼저 의심해 보십시오.[8] 의심의 포로가 되어

과테말라, 과테말라시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받을 수 있는 신성한 사랑과 평안, 값진 은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그저 교회 회원들과 어울리지 못할 뿐이에요."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비슷한 열망과 고민,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놀라실 것입니다. 자신이 다른 후기 성도들과는 배경이나 성장 과정에서 참 다르다는 느낌이 들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것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고유한 재능과 시각이 필요합니다. 지구촌 곳곳에 있는 사람들의 다양성은 이 교회의 힘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교회의 표준대로 생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와야 합니다! 이 교회는 불완전하고, 분투하며, 지친 이들을 양육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교회는 온 마음을 다해 계명을 지키고자 소망하는 사람들로 채워집니다. 비록 아직은 모든 계명에 능숙하지는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이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 회원 중에 위선자를 한 사람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에는 절대로 가입할 수 없어요."

만일 여러분이 말하는 *위선자*가 자신이 믿는 바대로 완벽하게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을 뜻한다면, 우리는 모두 위선자일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마땅히 되어야 한다고 아는 만큼 그리스도와 같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결점과 죄를 지으려는 성향을 극복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한 도움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해 염원합니다.

여러분의 소망 또한 그와 같다면, 여러분의 상황이나 이력, 또는 간증의 크기가 어떻든 이 교회에는 여러분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와서 우리와 함께합시다!

와서 우리와 함께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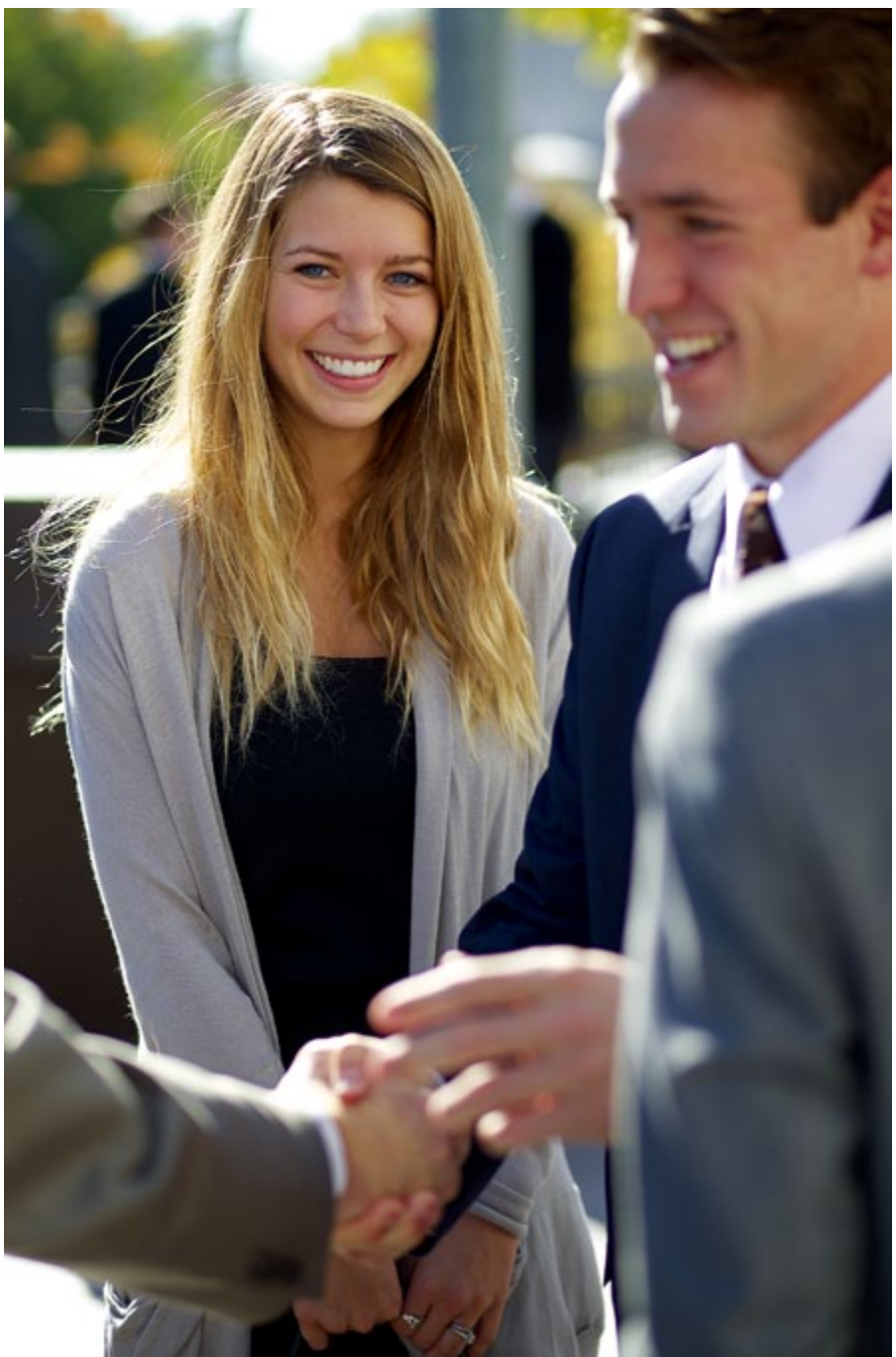
우리의 인간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이 이 교회 회원들 사이에서, 세상에서 만나야 할 가장 훌륭한 영혼들을 많이 찾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친절하고 배려하는 사람, 정직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듯합니다.

이곳에서 완벽한 사람들을 기대한다면 실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순수한 교리, "상한 영혼을 치료하시는"[9] 하나님의 말씀, 성결하게 하는 성신의 영향력을 찾고자 한다면, 찾게 될 것입니다. 신앙이 감퇴하고 있는 이 시대에, 아주 많은 사람이 하늘의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하는 이 시대에, 이곳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구주를 알고 가까이 나아가고자 열망하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와서 우리와 함께합시다!

너희도 가려느냐

구주의 생애 중 많은 사람이 그분을 버려 두고 떠난 때를 떠올려 보겠습니다.[10]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11]

이따금 우리도 그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떠나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을 굳게 붙들겠습니까?

진리와 의미, 신앙을 행동으로 바꿀 방법을 찾는다면, 여러분이 속할 장소를 찾고 있다면, 와서 우리와 함께합시다!

한때 받아들인 신앙을 저버렸다면, 다시 와서 우리와 함께합시다!

포기하고 싶다는 유혹을 받는다면, 조금만 더 머무십시오. 이곳에 여러분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거나 읽는 모든 분에게 간청합니다. 와서 우리와 함께합시다. 와서 온유하신 그리스도의 외침에 귀 기울이십시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십시오.[12]

와서 우리와 함께합시다!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귀중한 것을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영생의 말씀, 평안에 이르는 길, 축복된 구속의 약속, 행복을 찾게 될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추구할 때, 와서 우리와 함께하려는 소망이 마음에 새겨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마태복음 16:18~19; 힐라맨서 10:7 참조.
2. 교리와 성약 84:20 참조.
3. 니파이후서 33:10 참조.
4. "Have I Done Any Good?", Hymns, no. 223.
5. 신앙개조 제11조 참조.
6. 몰몬경 표제지; 몰몬서 8:17 참조.
7. 히브리서 11:1; 앨마서 32:21 참조.
8. F. F. Bosworth, *Christ the Healer*(1924), 23 참조.
9. 야곱서 2:8.
10. 요한복음 6:66 참조.
11. 요한복음 6:67~68.
12. 마태복음 16:24 참조.

헨리 비 아이어링
제일회장단 제1보좌

교회 역원 지지

토마스 스펜서 몬슨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장으로, 헨리 베니언 아이어링을 제일회장단의 제1보좌로, 디이터 프레드릭 우흐트도르프를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보이드 케이 패커를,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으로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러셀 엠 넬슨, 댈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밸라드, 리차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그리고 닐 엘 앤더슨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회장단의 보좌들과 십이사도들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모두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가 있으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존 비 딕슨 장로, 폴 이 컬리커 장로, 에프 마이클 왓슨 장로를 칠십인 제일 정원회에서 해임하고 명예 총관리 역원으로 지명할 것을 제의합니다.

켄트 디 왓슨 장로를 칠십인 제이 정원회에서 해임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역 칠십인에서 해임된 시저 에이치 후커 장로와 크레이그 티 라이트 장로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이분들의 훌륭한 봉사에 감사를 표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줄리오 에이 안굴로, 피터 에프 에번스, 제네디 엔 포드보도프를 새로운 지역 칠십인으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랜들 엘 리드를 본부 청남 회장단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그 외 현재 구성되어 있는 모든 총관리 역원, 지역 칠십인,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저희를 위한 여러분의 지지와 끊임없는 신앙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영적인 보호의 열쇠

우리가 경전을 펼쳐 거기에서 가르치는 보호와 구속의 약속을 이해한다면, 마음에 화평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성전에서 젊은 부부를 인봉했습니다. 아들과 딸로서 어린 시절을 보낸 각자의 가정을 떠나 남편과 아내가 되기 위해 이 두 남녀는 합당하게 준비하여 놀라운 날을 맞이했습니다. 그 성스러운 순간에 두 사람은 순결했고 깨끗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그들은 하늘 아버지께서 세우신 본보기에 따라 자신의 자녀를 양육할 것입니다. 그들과 미래 세대의 행복은 그들이 구주께서 세우시고 경전에서 설명하는 표준에 따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시대 부모들은 자녀를 키울 만한 안전한 곳이 과연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러한 안전한 장소는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복음을 중심에 두는 가정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가족에 초점을 두며, 사는 곳이 어디이든 부모는 의로움 가운데에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예언하고 경고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1]

바울은 또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2]

경고를 담고 있는 이 성구들은 우리가 삼가야 할 것들을 보여 줍니다. 우리는 항상 부지런히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예언 하나하나를 돌아보면서 오늘날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것을 염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통하는 때: 현재. 우리는 매우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이 모든 것은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이 모든 것들로 세상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는] 일 등: 이 모든 것이 세상에 만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모로나이는 또한 우리 시대의 사악함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너희가 이러한 일들이 너희 가운데 생김을 보거든 …… 너희는 깨어나 너희의 참담한 처지를 깨달을지니라. ……

그리하여 나 모로나이는 악이 사라지게 하며, 사탄이 사람의 자녀들의 마음을 다스릴 아무 권능도 갖지 못할 때가 이르게 하도록, 또 그들이 설득을 받아 끊임없이 선을 행하게 되어 모든 의의 근원으로 나아와 구원을 받게 되도록 이러한 것들을 기록하라는 명을 받았느니라."[3]

바울과 모로나이의 말은 오늘날 우리 시대를 아주 정확히 묘사했기에 우리는 이를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많은 사람이 불안감을 느끼고, 낙담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미래를 생각할 때면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느낌에 휩싸입니다.

바울은 계시에서 여러 가지 도전과 문제점을 언급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도 말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4]

경전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경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주요 구주라는 간증을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심어 줄 수 있는 교리와 율법과 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수년간의 준비와 엄청난 노력 끝에, 언어마다 주석과 전후 참조를 실은 경전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모든 분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전은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칩니다. 경전은 희망과 지식을 선사합니다.

여러 해 전에 저는 칠십인이신 에스 딜워스 영 장로님께 경전 읽기에 관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당시에 한 스테이크가 성도들간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적절한 권고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영 회장님께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하고 여쭈었습니다.

그분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회원들에게 경전을 읽으라고 하십시오."

저는 다시 여쭈었습니다. "어떤 경전을 말씀이십니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회원들에게 몰몬경을 펴고 읽기 시작하라고 말씀하십시오. 곧 화평과 영감이 찾아오고 해결책이 저절로 드러날 것입니다."

경전 읽기를 생활의 일부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축복이 따라올 것입니다. 경전에는 경고의 음성뿐만 아니라 커다란 자양분 또한 있습니다.

경전의 언어가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지겠지만, 계속 읽으십시오. 곧 경전에서 찾을 수 있는 아름다움과 힘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5]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 약속을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받는 때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 그리고 가족을 위해 희망과 화평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물든 자녀를 구조할 가능성이 없어 보여 절망하고 슬픔에 빠진 분들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6] 의로움의 힘은 사악함보다 더 강합니다.

어려서부터 경전을 이해하도록 가르침을 받은 자녀는 자신이 걸어가야 하는 길을 알게 될 것이며, 그 길에서 남아 있을 가능성 또한 더 높습니다. 길에서 벗어나더라도 그들은 돌아올 역량이 있기에 도움을 받는 가운데 돌아오는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모사이야의 아들들은 교회를 대적하여 싸운 적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회개하고 극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앨마서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모사이야의 아들들은 …… 진리의 지식에 있어 강해져 있었나니, 이는 그들이 온전한 이해력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부지런히 경전을 상고하였음이더라."[7]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님이 다섯 살이셨을 때, 그분의 부친인 하이럼은 카테지 감옥에서 순교했습니다. 후에 조셉 회장님은 홀로 되신 어머니와 함께 평원을 횡단했습니다.

열다섯 살 때 그분은 하와이로 선교 사업을 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길을 잃고 외톨이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심한 중압감을 느꼈습니다. …… 나는 궁핍하고 지식과 예지가 부족한 [소년에 불과하여] 감히 [다른 사람]의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을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어려운 처지에 대해 깊이 고심하던 어느 날 밤, 어린 조셉은 어디론가 온 힘을 다해 빨리 달려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분은 목적지인 멋진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다가가자 "목욕탕"이라고 적힌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그분은 서둘러 들어가 몸을 씻었습니다. 들고 있던 보따리를 열자 깨끗하고 하얀 의복이 나왔습니다. 그분은 "저는 오랫동안 그와 같은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조셉 회장님은 옷을 갈아입고 저택의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나는 문을 두드렸고 문이 열렸습니다.

파나마, 파나마시티

거기에 서 있는 사람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였습니다. 그분이 나를 약간 책망하는 듯이 바라보면서 하시는 첫마디는 이러했습니다. '조셉, 늦었구나.' 그러나 나는 자신을 갖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깨끗합니다. 저는 깨끗합니다!'"[8]

우리 각자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신앙의 길에 들어서서 교회에서 활동을 시작하려는 분이 계시다면, 그 길에 머무시고 성약을 지키십시오. 주님의 축복이 임하고 성신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힘과 영향력을 미치게 될 때까지 계속 나아가십시오.

현재 경전이 가르치는 길에서 벗어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삶에서 치유를 얻을 수 있는 매우 명확한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실수는 개인적인 기도를 통해 용서를 구하며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영적인 질병, 특히 도덕적 율법을 어긴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자격이 있는 영적인 의사의 도움과 치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래 전에 연로한 아버지와 그 딸이 함께 제 사무실에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딸은 아버지가 느끼고 있는 죄책감을 치유할 방법을 찾으려고 아버지를 모시고 수백 킬로미터를 여행해 온 것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젊은 시절에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는데, 나이가 들어 그 기억이 되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죄책감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로 돌아가 그가 젊은 시절에 범한 잘못을 되돌릴 수는 없었지만,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혀 온 죄책감을 지우는 일은 그 자리에서 도움을 받으며 바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몰몬경에 나오는 원리들을 가르쳐 주었고, 그것으로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던 엄청난 짐을 덜어줄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그 아버지는 과거의 범법으로 겪어 온 죄책감을 벗어버리고 딸과 함께 또 수백 킬로미터를 여행하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깨어나 [여러분]의 참담한 처지를 깨[닫고]"[9] 온전하게 영적인 건강을 되찾고 싶다면, 감독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은 열쇠가 있으며, 여러분이 회개의 길을 걷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회개가 그렇듯 용서도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개인이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며 "[그분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10]

회개 과정이 끝나면, 여러분은 속죄에 관해 이사야가 한 약속의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11]

마치 칠판에 묻은 분필을 지우는 것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우리의 범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지워지게 됩니다. 그 약속은 어떤 상황이든 다 적용됩니다.

복음은 우리가 행복하도록, 두려움이 아닌 신앙을 갖도록, 절망을 극복하고 희망을 찾도록, 어둠에서 벗어나 영원한 복음의 빛으로 향하도록 가르칩니다.

바울과 다른 선지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고통받는 시대와 다가올 날들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전을 펼쳐 거기에서 가르치는 보호와 구속의 약속을 이해한다면, 마음에 화평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드리건대,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구약전서와 신약전서, 몰몬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에서 찾을 수 있는 그분의 가르침에 의지하십시오.

경전은 우리의 영적인 보호의 열쇠라는 확고한 간증을 전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서 오는 치유의 권능에 대해 간증하며, 구원을 받게 될 "모든 자가 그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12] 될 수 있음을 간증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지상에 다시 세워졌습니다. 저는 복음의 참됨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저는 구주의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디모데후서 3:1~5.
2. 디모데후서 3:13.
3. 이더서 8:24, 26.
4. 디모데후서 3:14~15.
5. 디모데후서 3:16.
6. 마가복음 5:36.
7. 앨마서 17:2.
8. 조셉 에프 스미스, *복음 교리*, 5판 (1939), 497쪽.
9. 이더서 8:24.
10. 예레미야 31:34.
11. 이사야 1:18.
12. 교리와 성약 76:42.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여성의 도덕적 힘

선을 행하고 선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의 본성이며, 성령을 따를 때 여러분의 도덕적인 힘과 영향력은 더 커질 것입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사회는 여성들의 도덕적 힘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것만이 사회에 작용하는 긍정적인 영향력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여성들이 제공해 온 도덕적인 토대가 사회 전반에 엄청난 유익을 안겨 주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마도 이런 여성들의 기여는 사회 어디에나 있기에 오히려 잘 인식되지 못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훌륭한 여성들의 영향력에 감사드리면서, 여성의 힘과 지위를 위협하는 사상과 조류에 대해 알아보고, 여성 여러분이 타고난 도덕적 힘을 촉진할 것을 호소하려 합니다.

여성은 태생적으로 어떤 덕성을 갖고 태어나는데, 곧 능숙하게 신앙, 용기, 공감, 관계 개선, 문화 향상 등과 같은 속성을 심어 줄 수 있는 신성한 은사를 타고나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발견한 바울은 이를 칭찬하면서 그런 믿음이 "먼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다는 것을]"[1] 알아보았습니다.

오래 전, 멕시코에 살 때 저는 바울이 한 말의 의미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생활 속에서 매우 자연스럽게 빛을 발하는데도 그것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하는 멕시코 교회의 많은 여성 중 한 젊은 어머니가 기억납니다. 이 훌륭한 여성은 선량함에서 비롯되는 도덕적 힘을 발산하여 주변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더 높은 우선순위를 위해 수많은 즐거움과 소유물을 희생했습니다. 위로 들어올리고, 몸을 구부리고, 자녀들과 함께 균형을 잡는 그녀의 능력은 거의 초인적이었습니다. 맡은 일도 많고, 단조롭고 지루할 때도 자주 있었지만, 그 뒤에는 항상 아름다운 평온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인식이 존재했습니다. 구주께서 하셨듯이 봉사와 희생으로 타인을 축복함으로써 그녀는 기품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사랑의 화신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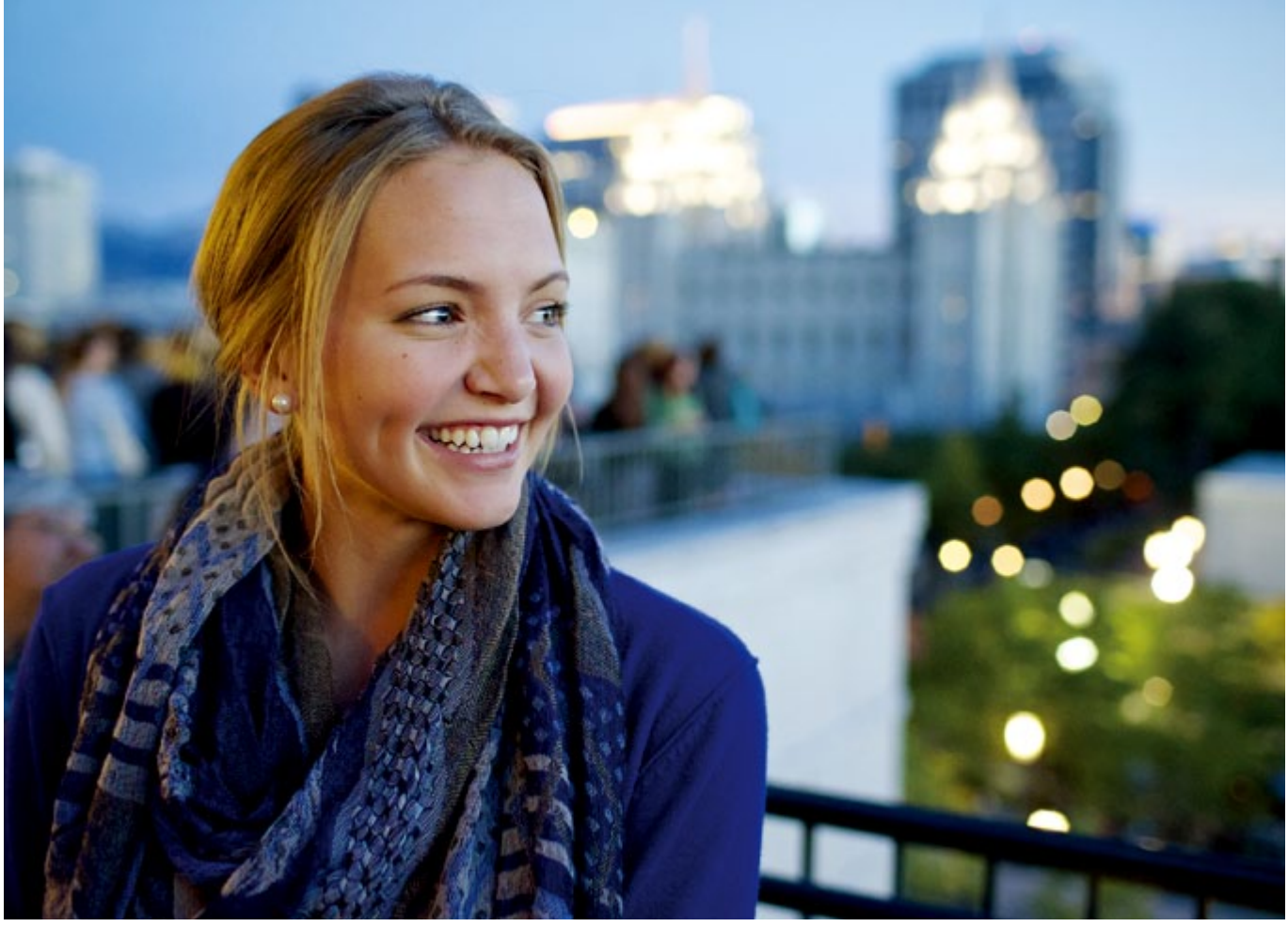
저는 여성들, 특히 어머니와 아내의 도덕적 영향으로 많은 축복을 받아 왔습니다. 제가 감사히 여기는 여성들 가운데는 애나 데인스 자매님이 계십니다. 애나 자매님과 그녀의 남편 헨리, 그들의 네 자녀는 미국 뉴저지에서 우리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헨리가 러트거스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던 1930년대 초부터 이 부부는 자신들이 거주하는 메투첸 시에서 몰몬에 대한 뿌리깊은 편견을 극복하고 모든 부모가 자녀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도록 지역 사회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 및 시민 단체와 함께 쉴새 없이 일했습니다.

한 예로, 애나 자매님은 메투첸 YMCA에서 자원 봉사를 했고, 곧 그곳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애나는 어머니 단체 회장으로 임명되었고 그 뒤 "YMCA 이사회에서 여성에게 할당한 세 직책 중 하나에 입후보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몇 년 전에 그 건물에서 집회를 하게 해달라는 후기 성도들의 요청을 거절했던 바로 그 위원회에 그녀는 아무런 반대도 없이 입성하게 되었습니다!"[2]

제가 십 대였을 때, 저희 가족은 뉴 브런즈윅 와드 지역으로 이사했습니다. 데인스 자매님은 저를 눈여겨 보시며 자주 제 능력과 가능성에 대해 강한 확신을 보여 주셨습니다. 자매님의 격려는 제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는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자매님의 사려 깊고 시기적절한 조언 덕분에 큰 후회로 이어질 뻔한 상황을 모면한 적도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그분의 후손들과 저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의 삶에서 애나 데인스 자매님의 영향력은 여전히 살아 있고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 할머니 애드나 워닉 스웬슨은 제게 신권 봉사를 성실하게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빵과 물에 대한 성찬 축복문을 암기하라고 하시면서 그러면 그 의미를 더 잘 이해하고 느낌을 잘 표현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스테이크 축복사이셨던 제 할아버님을 내조하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성스러운 것들을 더욱더 우러러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운전하는 법은 모르셨지만, 신권 소유자가 되도록 소년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아셨습니다.

여성의 도덕적 영향력은 그 어느 곳보다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고,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는 곳은 바로 가정입니다. 부모가 화합하여 자녀를 부양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전통적인 형태의 가정은 자라나는 세대를 키우는 데 가장 적합한 환경입니다. 그런 환경이 아닌 곳에서도 각기 나름의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여 이상적인 가정에서 누릴 수 있는 유익을 얻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어머니는 다른 어떤 사람이나 관계도 흉내낼 수 없는 영향력을 끼칩니다. 어머니의 모범과 가르침은 아들이 여성성을 존중하고 자제심과 높은 도덕적 표준을 생활에서 실천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딸은 자신의 덕성을 키우고, 비록 그것이 인기가 없는 것일지라도 계속해서 옳은 것을 지켜 나갑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높은 기대치는 자녀들이 핑계를 대는 대신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교육과 자신의 발전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며, 주위 모든 사람의 복리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도록 이끕니다. 닐 에이 맥스웰 장로님은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인류의 진정한 역사가 모두 밝혀지면, 총소리와 자장가 중 어느 것을 중요하게 다루겠습니까? 군인들에 의한 휴전과 가정과 이웃에서 여성들의 화해의 노력 중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다루겠습니까? 의회에서 일어났던 일이 요람과 부엌에서 일어났던 일보다 더 큰 영향력이 있겠습니까?"[3]

생명 창조 과정에서 여성이 맡은 역할은 성스럽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의 신성한 기원[4]을 알며, 또 하나님의 해의 왕국에서 가장 높은 상태에 이르려면 육체적인 출생과 영적인 거듭남을 모두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5] 그리하여 여성은 때로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것을 감수하면서,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6] 하나님의 일과 영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귀감이 되는 여성들은 생명의 원천을 수호하며, 각 세대에 성적 순결, 즉 혼전 순결과 결혼 후 정절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칩니다. 이런 식으로 여성은 사회적으로 선도적인 영향을 끼쳐 왔으며, 남성들이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했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자녀를 키울 건전한 환경을 존속시켜 왔습니다.

자매 여러분, 어머니 날에 하는 과찬을 늘어놓으며 여러분을 낯 간지럽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7] (지금 근처에 앉아 있는 한 사람은 제외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에게 완벽해야 한다고 외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미혼이든 기혼이든, 자녀가 있든 없든, 나이가 많든 적든, 또는 그 사이이든 여러분의 도덕적인 권한은 매우 중요하며, 어쩌면 우리가 그 점과 여러분을 너무 당연시하지 않나 하는 점에 대해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개인과 가족, 사회 전체에 걸쳐 큰 손해를 입힐 만큼 여러분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말살하려 하는 풍조와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의를 환기하고 경고하기 위해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도덕적인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한 가지 위험한 태도는 결혼과 어머니의 역할, 가사 활동의 가치를 낮게 보는 것입니다. 가사 활동을 경멸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것이 여성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또 자녀를 키우라는 가혹한 요구는 일종의 착취라고 주장하는 여성운동가들이 있습니다.[8] 그들은 육아를 위해 승진과 승급 기회를 희생하는, 소위 여성운동가들이 말한 "엄마의 길(mommy track)"을 가는 직장 여성을 조롱합니다. 이것은 공정하지도 올바르지도 못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여성, 또는 남성이 합당한 노력으로 이루는 성취의 가치를 폄하하지 않지만, 결혼 생활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본분보다 더 훌륭한 것은 없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 경력도, 막대한 금전도, 권세도, 대중의 갈채도 근본적으로 가족에게서 얻을 수 있는 보상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을 성취하더라도 여성의 도덕적인 영향력이 가장 필요한 곳은 가족입니다.

인간의 성에 대한 태도가 여러 면에서 여성의 도덕적인 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내지 개인적인 편의를 위한 낙태는 여성의 가장 성스러운 힘의 핵심을 공격하고, 도덕적인 권한을 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성적 부도덕과 노출이 심한 옷차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여성의 가치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성적인 표출로 여성의 가치가 규정된다는 거짓말을 확산시킵니다.

남성의 부도덕에는 관대하면서도 여성은 성적으로 조신해야 한다는 이중적인 잣대를 가진 문화가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기준이 부당한 것은 명백하기에 당연히 비판받고 거부되었습니다. 이러한 거부 속에서 남성이 도덕적 기준을 높여서 같은 표준을 이루기를 바랐지만, 오히려 그 반대가 되었습니다. 그 이중적인 잣대가 남성들에게 허용했던 문란한 성생활을 이제는 여성과 소녀들에게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여성의 더 높은기준은 남성에게 헌신과 책임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양심 없는 성 관계, 아버지 없는 가족, 커져가는 빈곤만 남아 있습니다. 똑같이 난잡한 성 생활에 동참하면서 여성들은 도덕적 영향력을 박탈당하고 사회는 전반적으로 수준이 떨어졌습니다.[9] 이런 실속 없는 합의를 통해 "자유롭게" 되는 것은 남성뿐이고, 가장 고통을 받는 것은 여성과 어린이들입니다.

걱정되는 세 번째 사항은 평등이라는 미명 아래 남성스러움과 여성스러움 사이의 모든 차이를 없애려는 시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런 일은 여성에게 남성스러운 특성을 더 많이 받아들여 더 적극적이고, 거칠고, 대립을 일삼도록 부추기는 형태를 띱니다. 영화와 비디오 게임에서 여성이 잔혹하고 폭력적인 역할을 맡아 사람을 죽이고 파괴를 일삼습니다. 그런 역할을 맡은 남성을 보는 것 역시 우리의 영혼을 해치지만, 여성이 폭력의 주체와 대상이 되는 것도 분명 그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본부 청녀 회장이셨던 마가렛 디 네이돌드 자매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에는 완강한 여성들이 많으나, 우리에겐 부드러운 여성이 필요하며, 세상에는 거친 여성들이 많으나 우리에겐 친절한 여성이 필요하며, 세상에는 무례한 여성들이 많으나 우리에겐 세련된 여성이 필요하며, 세상에는 부유하고 명성있는 여성들이 많으나 우리에겐 신앙이 있는 여성이 필요하며, 세상에는 탐욕과 허영과 인기가 만연하지만 우리에겐 선과 덕과 순수함이 더욱 필요합니다."[10] 사내다움과 여성스러움의 차이를 왜곡하다 보면 서로 다르면서도 상호보완하는 남성과 여성이란 은사를 잃게 됩니다. 남성과 여성은 함께할 때 더 훌륭한 완전체가 됩니다.

여성과 소녀 여러분, 오늘 제가 간청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내재된 도덕적인 힘을 보호하고 신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 지니고 온 타고난 덕성과 특별한 은사를 지키십시오. 선을 행하고 선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의 본성이며, 성령을 따를 때 여러분의 도덕적인 힘과 영향력은 더 커질 것입니다. 청녀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도덕적인 힘을 충분히 키우기도 전에 그 힘을 잃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십시오. 상스러운 말이 아닌 깨끗한 말을 사용하고, 옷차림에는 허영심이 아닌 단정함이, 행동에는 무분별함이 아닌 순수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손으로는 악행을 즐기면서 다른 한 손으로 사람들을 덕으로 이끌 수는 없습니다.

자매 여러분, 삶의 모든 관계에서도 항상 제1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도덕적인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맺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힘은 오직 아버지의 뜻에 전념하는 것에서 비롯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에서 벗어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11] 아버지와 아들의 제자가 되기 위해 애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향력은 결코 시들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미안해하지도 말고, 그런 영향력을 용감하게 발휘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남성과 여성, 어린이]의 질문에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십시오.]"[12] "말씀을 전파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고]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십시오.]"[13] "자녀를 빛과 진리로 양육하[십시오.]"[14] 자녀에게 "기도할 것과 주 앞에서 올바르게 걸을 것을 가르[치십시오.]"[15]

여성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간곡한 권고를 고의로 곡해하려 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성들의 도덕적 힘을 칭찬하고 권장했지만, 그렇다고 남성과 소년들이 진리와 의를 수호할 의무가 면제되었다거나 봉사하고 희생하고 보살피는 책임이 여성들의 다른 책임만 못하다거나 여성에게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형제 여러분, 여성들 곁에 서서 짐을 나눠지고, 여성에 맞춰 우리의 도덕적인 힘을 키웁시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세상과 결혼 생활, 가족과 교회에는 여러분의 도덕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와 신앙으로 하늘에서 끌어내리는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안전, 복지, 행복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의 영향력이 지지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디모데후서 1:5.
2. Orson Scott Card, "Neighborliness: Daines Style," *Ensign*, Apr. 1977, 19.
3. 닐 에이 맥스웰, "하나님의 딸", *성도의 벗*, 1978년 10월, 13쪽.
4. 모세서 2:27 참조.
5. 모세서 6:57~60 참조.
6. 모세서 1:39.
7. "백여 년 전, 학자 존 보울비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정서적 교류를 통해 형성되는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유대감이 사회적 및 정서적 발달의 핵심적인 기반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 또한 여성학자인 새라 루딕은 어머니의 '친절한 사랑'을 효과적인 양육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어머니는 '사랑에 찬 인내의 눈'으로 자녀에 관한 특별한 지식을 발전시키는데, 그것은 각 자녀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특별한 통찰을 주는 지식이다."(Jenet Jacob Erickson, "Love, Not Perfection, Root of Good Mothering," *Deseret News*, May 12, 2013, G3)
8. 여러 세대에 걸쳐 많은 여성이 가족과 직장 양쪽에서 공정하지 못한 짐을 지거나 착취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비이기심과 희생은 남용이나 착취를 당할 필요가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 브루스 시 하펜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여성이 자신의 내적인 정체성과 개인적 성장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비이기심'의 의미라면, 비이기심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 그러나 오늘날 여성 해방 운동가들은 다른 쪽으로 너무 멀리 나가 버려서 여성을 가족으로부터 지나치게 독립된 존재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상호 의존한다는 것이 더 분별 있는 관점입니다. …… 어머니를 의존적인 존재에서 독립적 존재로 옮긴 비평가들은 상호 의존이라는 비옥한 중간지대를 건너뛴 것입니다. 어머니를 비이기적인 존재에서 이기적인 존재로 옮긴 사람들은 여성의 개인적 발전에 기여하는, 자기선택적 봉사라는 비옥한 중간지대를 건너뛴 것입니다. 얄궂게도 이런 과도함 때문에 어머니의 본분에 대한 가치 논쟁은 비단 어머니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여성을 경시하는 시각을 사회 전반에 야기했습니다."("Motherhood and the Moral Influence of Women" [remarks to the, World Congress of Families II, Geneva, Plenary Session IV, Nov. 16, 1999], http://worldcongress.org/wcf2_spkrs/wcf2_hafen.htm)
9. 한 어머니는 *월스트리트저널*에 이런 글을 기고했다. "일부 몰몬들과 복음주의자, 정통 유대인을 제외하고는, 많은 사람이 아들과 딸에게 자신의 몸을 그렇게 쉽게 내주지 말라고 가르치려 해도 그 방법을 알지 못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의 여성들은 순결로 돌아가려는 욕망이 강하다. 그들 중 성과 관련하여 자신의 과거에 대해 사그라지지 않는 불편한 심정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던 여성들은 모두 성과 관련해 더 많이 '시도해 보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말했다."(Jennifer Moses, "Why Do We Let Them Dress Like That?", *Wall Street Journal*, Mar. 19, 2011, C3)
10. 마가렛 디 네이몰드, "여성이 되는 기쁨",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18~19쪽.
11. 요한복음 8:29 참조.
12. 베드로전서 3:15.
13. 디모데후서 4:2.
14. 교리와 성약 93:40.
15. 교리와 성약 68:28.

에스 기포드 닐슨 장로
칠십인

주님의 전략을 서둘러 실행합시다!

우리[는] 각자 열정적으로 자신만의 경기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여 전임 선교사들과 함께 봉사해야 [합니다.]

몇 년 전, 우리 스테이크의 어느 감독님의 부인과 이야기할 것이 있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어린 아들에게 저는 물었습니다. "엄마 계시니?"

아이는 "네, 계세요. 바꿔드릴게요. 그런데 누구세요?"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닐슨 회장님이라고 전하렴." 하고 대답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매우 격앙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힝클리* 회장님 전화예요!"

그 자매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을지 상상이 안 됩니다. 아마 그때만큼 전화 받으러 오기까지 긴 시간이 걸린 적도 없으셨을 겁니다. '힝클리 회장님 행세라도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그러지는 않았고, 자매님과 저는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자매님은 전화한 사람이 저라는 걸 알고 분명히 엄청나게 실망하셨을 것입니다.

주님의 선지자가 정말로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분은 정말 그러셨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오늘 아침 다시 한 번 매우 중요한 일을 하도록 우리 각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회원과 선교사들이 하나가 되어 주님의 포도원에서 함께 일하고 수고하여 영혼들을 그분께로 데려와야 할 때입니다."("구원 사업에 대한 신앙", [전 세계 지도자 훈련 방송, 2013년 6월], lds.org/broadcasts)

우리는 경청하고 있습니까?

1832년 구주께서 조셉 스미스에게 "보라, 나는 때가 되면 나의 일을 서둘리라."(교리와 성약 88:73)라고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고 있음에 따라, 전 세계의 스테이크, 지방부, 선교부는 새로운 차원의 에너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 때입니다. 저는 느낄 수 있으며 여러분도 분명 그러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흥분된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동으로 옮기고 싶었습니다. 미식 축구 선수였던 저는 경기 전략이란 측면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경기 전략을 잘 세워서 시합에 나가면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브리검 영 대학교의 전설적인 코치이셨던 라벨 에드워즈를 만나 우리의 경기 전략을 이야기했을 때, 저는 이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네가 어떤 전략을 짜든 관심 없네. 결국 득점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분의 쿼터백 선수였던 저는 경기에 이기는 것이 그분 말씀처럼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단순한 지론 덕분에 그분의 이름을 딴 경기장까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모두 주님의 팀 소속인 우리는 승리를 위한 경기 전략이 있습니까? 경기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회원인 우리가 정말로 가족, 친구, 지인들을 사랑한다면 이 회복된 복음에 대한 간증을 그들과 함께 나누고 싶지 않겠습니까?

6월에 있었던 신임 선교부 회장 세미나에서는 역대 최고 기록인 173명의 새로운 선교부 회장과 그 부인들이 선교 사업 전에 마지막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 열다섯 분 모두가 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마지막 연사였던 엘 톰 페리 장로님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지금은 교회 역사상 가장 놀라운 시기입니다. 지금은 과거에 일어난 위대한 사건들, 이를 테면 첫번째 시현, 몰몬경이라는 선물, 복음 회복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에서 전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초석이 되어 준 그 모든 것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Concluding Remarks"[신임 선교부 회장 세미나에서 한 말씀, 2013년 6월 26일], 1, Church History Library, Salt Lake City)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 지도자들의 열성과 전임 선교사들의 헌신에 부응해야만 합니다. 우리 없이는 이 일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나이나 능력, 교회 부름이나 지역에 관계 없이 하나가 되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자녀들을 모으는 일을 돕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우리는 하나입니다",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62쪽)

제가 기도하고,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13장을 읽고, 과거 경험을 돌이켜 보며 실행해 봐야겠다고 생각했던, 제 전략 중 몇 가지 생각을 나눠도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전략을 돌이켜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 요점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매일 누군가를 구주와 그분의 복음으로 가까이 데려오겠다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딸로 본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으며 이로써 본향으로 돌아가도록 서로 도울 수 있습니다. 새로 사귀게 될 친구들을 생각하십시오.

둘째, 여러분의 지역에서 봉사하는 선교사들과 구도자들의 이름을 놓고 매일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려면, 선교사들과 인사하고, 그들의 명찰을 보며 이름을 불러 주고,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러셀 엠 넬슨 장로님은 이런 글을 기고하셨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이름과 얼굴을 알고 있어야만 비로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한 훌륭한 자매님의 침례식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침례식에서 그 자매님은 제가 결코 잊지 못할 간증을 나누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저를 위해 기도한 것도,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느껴 본 것도 처음이에요. 저는 이 사업이 참되다는 것을 알아요."

셋째, 여러분의 집이나 다른 활동에 친구를 초대하십시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와 함께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고, 성신의 지시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개인적으로 복음을 공부하면서 구주께 단순하면서도 특별한 깨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 그것은 "서두름"에 정확히 적용되는 듯합니다. 저는 무언가에 흥분되는 감정이 들 때면, 글에 느낌표를 붙입니다. 사전에도 나오듯이 느낌표는 "감탄이나 놀람 등 강한 느낌"(*Merriam-Webster's Collegiate Dictionary*, 11th ed. [2003], "exclamation point")을 나타낼 때 쓰는 부호입니다.

흥미롭게도 "집합"에 관한 구절 뒤에는 느낌표가 붙는 때가 많았는데, 그런 구절들이 여기저기서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슴에서 우러나온 앨마의 간청도 그 중 하나입니다. "오 내가 천사라면, 그리하여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팔로, 땅을 흔들 음성으로 말하여, 모든 백성에게 회개를 외칠 수 있다면[!](영문 몰몬경에는 느낌표가 삽입되어 있음-옮긴이)"(앨마서 29:1)

이와 같은 선교사의 강한 감정을 나타내는 구절은 65개나 되었고, 그 중에는 다음 구절도 포함됩니다.

"회개하는 영혼으로 인한 그의 기쁨은 얼마나 큰고!

그리고 만일 너희가 이 백성에게 회개를 외쳐 너희 온 생애 동안 수고하여 단 한 영혼이라도 내게로 데려오면,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그와 함께 누리게 될 너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리고 이제, 너희가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 내게로 데려온 한 영혼과 함께 누리는 너희의 기쁨이 클진대, 너희가 많은 영혼을 내게로 데려오면, 너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교리와 성약 18:13~16)

이 독특한 구절에 대한 깨달음은 지역 칠십인으로서 처음으로 임무를 수행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사도이신 쿠엔틴 엘 쿡 장로님의 동반자로서 어느 스테이크 대회에 가게 되었을 때 조금 긴장했었습니다. 그 주 주말, 첫 모임을 위해 스테이크 회장 집무실에 들어서는데, 책상 뒤 책꽂이에서 청동을 입힌 매우 낡은 구두 한 켤레가 보였습니다. 구두에는 느낌표로 끝나는 구절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구절을 읽고서 저는 주님이 제가 공부한 내용을 아셨으며, 제 기도에 응답하셨고, 무엇으로 제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를 그분이 정확히 아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스테이크 회장님께 구두에 얽힌 일화를 들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두는 한 젊은 개종자의 신발인데,

가정 형편이 매우 궁핍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선교 사업을 나가 잘 마치고 돌아오겠다고 다짐했고, 과테말라에서 봉사했습니다. 그가 귀환하자마자 저는 명예롭게 그를 해임해 주었는데, 그때 완전히 해진 그의 구두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청년은 가족의 지원을 거의 받지 못했지만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제 시선이 신발에 쏠려 있다는 것을 느낀 그 청년은 '회장님,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뇨, 장로님.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장로님의 신발을 제게 주시겠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스테이크 회장님은 계속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저는 그 귀환 선교사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으로 압도되었습니다! 그 일을 기억하고 싶었기에 이 구두를 청동으로 입혔습니다. 집무실에 들어올 때마다 이 구두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베풀고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떠올리게 해 줍니다. 함께 붙여 둔 이사야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이사야 52:7)"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전화했던 그 감독님의 부인은 왜 선지자가 자신을 불렀는지를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자매님과 우리가 더는 궁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여기에다 느낌표를 찍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각자 열정적으로 자신만의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여 전임 선교사들과 함께 봉사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여기에다 느낌표를 찍겠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다음 간증에 저의 간증을 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하여 드린 많은 간증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에 대하여 드리는 간증은 이러하니, 곧 그는 살아 계시다는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76:22)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아눌포 발렌주엘라 장로
칠십인

작고 단순한 일

신앙과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갑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몇 주 전에 저는 선교사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멕시코시티에 있는 선교사 훈련원에 다녀왔습니다. 아내와 저는 일부러 몇 시간 일찍 도착했습니다. 선교사 훈련원의 아름다운 정원과 깨끗하게 정비된 길을 보면서 수많은 젊은 선교사의 얼굴에서 빛나는 행복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새로운 언어 습득에 열중하고 선교 사업을 나온 목적을 더 잘 인식하고자 배움에 정진하고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세밀히 관찰하면서 저는 앨마가 아들 힐라맨에게 자신이 맡아 왔던 그의 백성에 관한 기록을 계속 이어가고, 성스럽게 간직하여 언젠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해질 수 있게 하라고 명한 것을 생각했습니다.

앨마는 힐라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어리석음이라 생각할지 모르나,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작고 단순한 일로 큰 일이 이루어지며, 많은 경우에 작은 방편이 현명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니라.

또 주 하나님께서는 그의 크고 영원한 목적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방편으로 일하시나니, 주께서는 아주 작은 방편으로 현명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많은 영혼의 구원을 이루시느니라."(앨마서 37:6~7)

우리 선교사들의 순수함과 젊음은 주님의 방법을 보여 주는 전형적인 예로, 이 겸손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에 대한 신앙, 회개, 침례, 성신의 은사 및 끝까지 견딤을 통해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도움으로써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도록 권유[합니다.]"(*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 사업 지도서* [2004], 1쪽)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는 우리만의 작고 단순한 일을 통해 "많은 자들에게 그들의 길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영혼의 구원에 이르[도록]"(앨마서 37:8) 도울 수 있습니다.

예전에 스테이크 회장님과 감독님과 함께 방문했던 한 저활동 회원의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의 축복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진정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게 필요했던 것은 누군가 와서 저를 안아 주는 것이었어요." 저는 얼른 일어나 그분을 안아 드렸습니다. 다음날이 일요일이었는데, 이 형제님은 온 가족과 함께 성찬식에 오셨습니다.

저희 와드 회원인 마사는 방문 교육을 온 제 아내와 동반자에게 다시는 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마사는 교회에 그만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방문 교사 중 한 명이 마지막으로 찬송가를 함께 부르자고 제의했고, 마사는 동의했습니다. 함께 노래하자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방이 영으로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두가 그 영을 느꼈습니다. 마사는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글썽거렸고, 방문 교사들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마사는 자신이 복음의 참됨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사는 곧 방문 교사들의 방문을 고맙게 여기게 되었고, 다음에 또 와 달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마사는 방문 교사들을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마사는 어린 딸과 함께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들은 정기적으로 교회에 나왔고 남편도 나중에는 함께하리라는 희망을 절대 버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그날이 찾아 왔고, 그는 가족과 함께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다른 딸도 곧 이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축복에서 느끼는 진정한 기쁨을 가정 안에서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마사는 와드 상호부조회 회장으로서 충실하게 봉사해 왔으며, 그녀의 남편도 스테이크의 여러 부름에서 훌륭하게 봉사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찬송가를 불렀던 것, 즉 작고 단순한 일이 마사의 마음을 감동시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은 훌륭하고 용맹한 사람이었지만 나병환자였습니다.(열왕기하 5:1 참조) 이스라엘 왕에게서 나병 치료를 받고자 했으나 실패했고, 결국 나아만은 선지자 엘리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는 사자를 보내어 이렇게 전했습니다.

"가서 요단 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

그의 종들이 나아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 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열왕기하 5:10~11, 13~14)

우리의 선지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우리 모두에게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구조하라고 하셨습니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할 발과

꽉 잡아 주어야 할 손, 격려해야 할 정신과 영감을 주어야 할 마음, 그리고 구해야 할 영혼이 있습니다. 영생의 축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구조대에게",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57쪽)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많은 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분들은 용감한 형제 자매들이 자신에게 손을 뻗어 작고 단순한 일을 통해 구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시간을 저활동 회원에게 가정 복음 교육을 하는 데 할애했는데,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이미 부드럽게 만드셨기에 그들은 우리의 간증과 진실한 사랑의 표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가가 초대한다면, 그들은 망설이지 않고 교회로 돌아올 것입니다.

신앙과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갑시다. 주님의 다음 약속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만일 너희가 이 백성에게 회개를 외쳐 너희 온 생애 동안 수고하여 단 한 영혼이라도 내게로 데려오면,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그와 함께 누리게 될 너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리고 이제, 너희가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 내게로 데려온 한 영혼과 함께 누리는 너희의 기쁨이 클진대, 너희가 많은 영혼을 내게로 데려오면, 너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교리와 성약 18:15~16)

주님이 그분의 모든 자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저는 그분이 살아 계시고 우리의 구속주이심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티모시 제이 다익스 장로
칠십인

네가 낫고자 하느냐

회개하고, 주님을 향해 개심할 때, 우리는 온전하게 되고 죄책감은 씻겨 사라집니다.

예루살렘에서 즐거운 잔치가 벌어지는 동안, 구주께서는 군중을 떠나 도움이 절실한 이들을 찾아 나서셨습니다. 주님은 양을 매매하는 곳 옆 행각 다섯 개가 있는 연못인 베데스다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발견하셨는데, 그 연못은 병든 자들이 모이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 못 근처에는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요한복음 5:3~4).

그곳을 방문하신 구주의 모습은 칼 블로흐가 그린 '*베데스다에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리스도*'라는 아름다운 작품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블로흐는 간이 천막을 살짝 들어올리신 그리스도와 그 사이로 보이는, 못 근처에서 누워 기다리던 "병자"(요한복음 5:7)의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여기서 *병자*[impotent man]란 힘이 없고 무기력한 사람을 뜻하는데, 이를 통해 타인을 보살피는 구주의 자비와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힘으로는 어쩌지 못하는 그들에게 조용히 다가가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 그림에는 38년간 고통 속에 살아오느라 쇠약해지고 의기소침해진 한 고통받는 남자가 그늘 진 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한 손으로 천막 끝을 들어올리시고 다른 손으로는 손짓을 하시며 마음속을 꿰뚫어 보는 듯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요한복음 5:6~7).

그 사람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련에 대해 예수께서는 심오하면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대답을 주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요한복음 5:8~9).

누가는 또 다른 사람의 예를 말해 주었습니다. 구주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나병 환자 열 명을 만나셨습니다. 그들은 질병 때문에 "멀리 서"(누가복음 17:12)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정하게 여겨지고 배척받으며, 쫓겨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누가복음 17:13). 다른 말로 하자면 이렇게 간청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해 주실 수 있는 것*이 없겠나이까?"

동정심으로 충만한 이 위대한 의사는 기적에 앞서 신앙이 있어야 함을 아셨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누가복음 17:14).

신앙으로 나아가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발 한 발 걸음을 내디디며 실제로 자신의 몸이 깨끗해져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가슴 벅찬 기쁨을 느꼈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그 중의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누가복음 17:15~16, 19).

과거 내과의사이자 외과의사로서 제가 했던 일은 육신을 치료하고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과 마음, 영 모두를 치유하시며, 그분의 치유는 신앙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신앙과 기쁨으로 충만해진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자신의 간증을 발견한 순간, 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아들딸이며 온전해졌다는 느낌을 받았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러한 기억이 흐려졌다고 느껴진다면,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우리가 온전해지거나 완전해지는, 또는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마태복음 11:28~30).

"와서 나를 따르라"(누가복음 18:22)는 말은 우리에게 예전의 삶과 세상적인 욕망을 뒤로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롭고 충실한 마음으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라고]"(고린도후서 5:17) 권유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다시 온전하게 됩니다.

"내게 가까이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가리라. 나를 부지런히 찾으라. 그리하면 나를 찾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게 될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리리라."(교리와 성약 88:63)

그분께 가까이 다가갈 때, 우리는 필멸의 삶이란 원래 어려움을 겪도록 계획되었으며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니파이후서 2:11)은 구원의 계획에 있는 결함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반대되는 것은 필멸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며, 우리의 선택의지를 강화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게 해 줍니다. 삶의 우여곡절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며,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로 향할 때 우리의 얼굴에는 그분의 형상이 새겨지게 됩니다.(앨마서 5:19 참조)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누가복음 22:19)는 말은 구주께서 우리가 성찬식이라 부르는 의식을 제정하시며 하셨던 말씀입니다. 빵과 물을 취하는 이 의식은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성약을 다시 새롭게 하며 우리 삶에 속죄의 권능을 불러옵니다. 완악한 마음과 거만한 태도를 낳는 습관과 삶의 방식을 버릴 때 우리는 치유됩니다. 우리가 "반역의 무기"(앨마서 23:7)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스스로 선택의지를 행사하는 자"(교리와 성약 58:28)가 되고, 더 이상 사탄의 책략에 눈이 멀거나 세상의 불협화음에 방해를 받지 않게 됩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향해 참된 개종을

이룰 때, 우리는 온전하게 되고 죄책감은 씻겨 사라집니다. 우리는 이노스가 그랬듯 "어찌 그 일이 이루어졌나이까?" 하고 의문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네 신앙으로 말미암느니라. …… 그런즉 가라, 네 신앙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이노스서 1:7, 8)

독실한 기독교도였던 네덜란드인 코리 텐 붐은 제2차 세계 대전 때 강제 수용소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러한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그녀가 사랑했던 언니 베치는 수용소에서 사망했으나 코리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녀는 종종 공개적으로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고, 치유와 용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은 코리가 독일 라벤스부르크에서 고통스럽게 생활하던 시절 그 수감 생활에 일조했던 전 간수가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가 나눈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가 마음에 와 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당신 말처럼 그분은 나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코리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이나 나서서 …… 사람들에게 용서해야 한다고 말했으면서도 저는 손을 내밀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분노와 복수심으로 끓어오르다가, 저는 그것이 죄임을 깨달았습니다. …… 주 예수님, 기도드리나니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그를 용서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웃음을 지으려 애쓰고, 손을 내밀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그 어떤 온정이나 자애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용히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 저는 그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용서를 제게 주옵소서.

그의 손을 잡았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어깨에서 팔로, 손으로 전류가 흘러 그에게까지 전해지는 듯했고, 그 사이 제 가슴에는 그 이방인에 대한 사랑이 샘솟아 거의 저를 압도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치유가 우리의 용서나 선함이 아닌 주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실 때, 그분은 그 명령과 함께 사랑 그 자체를 주십니다."[1]

코리 텐 붐은 온전해졌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슬픔과 비통에 싸여 있거나 혹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는 생명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2]

자신이 깨끗하지 못하다고,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불행하다고, 합당하지 못하다고, 온전하지 못하다고 느낄 때는 "삶에서 불공평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올바르게 정리될 수 있[다]"[3]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한 구주의 시간표와 목적을 믿는 신앙을 지니고, 인내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마가복음 5:36)

명심하십시오. 구주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치유하려 하십니다. 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며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분께 기도하고, 회개하며, 용서하고, 잊어 버리기 시작함으로써 문을 열어 드립시다. 베데스다 못에 있던 그 병자와 예루살렘으로 가던 나병환자, 코리 텐 붐은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낫고자 하[십니까]?"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분의 "은혜가 …… 족하[시며]"(고린도후서 12:9) 여러분은 홀로 걷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모두 그분의 자녀이며, 그분은 우리의 현재 모습과 장차 우리가 이루게 될 모습까지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온 인류를 위해 속죄 희생을 치르게 하셨으며, 그분의 친절한 자비로 "그가 정한 때에 그가 원하는 방법으로 또 그 자신의 뜻에 따라"(교리와 성약 88:68)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르는 이들은 낫게 되고 완전하게 될 것임을 압니다. 이러한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

주

1. Corrie ten Boom, *The Hiding Place* (1971), 215.
2. 토마스 에스 몬슨, "삶의 고난을 헤치며", *리아호나*, 1994년 1월호, 68쪽.
3.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 사업 지도서*(2004), 52.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깨진 그릇과 같으니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정신적, 정서적 시련에 처할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1]해야 한다고, 사도 베드로는 기록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단기간에 그치거나 평생 지속될 수도 있는, 또 가벼운 증상이거나 중증일 수도 있는 정신 질환과 정서적 장애를 겪는 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신경증과 정신 이상, 유전적 소인, 염색체 결함, 조울증, 편집증, 정신분열증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을 때, 우리는 그러한 문제의 복잡한 속성을 감지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당혹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러한 고통도 필멸의 삶에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 중 하나이고, 고혈압과 싸우거나 갑자기 나타난 악성 종양을 인정하듯 그러한 것을 인정하는 것을 수치스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 어려운 문제 앞에서 조금이라도 평안과 이해를 갈구하려 할 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한 신성한 목적을 위해,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거듭해서 시험받는 삶을 살고 있고 또 그런 삶을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중대한 확약이 들어 있는데, 바로 약속된 구주, 구속주가 계시어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신앙을 통해 시험과 시련을 이겨내도록 그분이 우리를 들어올려 주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와 보냄을 받은 아들께서 헤아릴 수 없는 대가를 치르실지라도 말입니다. 그 거룩한 사랑에 대해 감사할 때, 우리는 그분이 겪은 고통에 비해 작은 우리의 고통을 견디고, 이해하며, 결국에는 구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특이한 질환은 놓아두고, 주요 우울 장애인 "우울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제가 언급할 우울증은 때때로 겪는 운수 사나운 날이나 세금 납부 만기일, 또는 그 밖의 맥빠지는 순간들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걱정하고 낙담하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몰몬경에도 암몬과 형제들이 극심한 시련에 낙심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며[2], 따라서 우리 역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더 심각한 사안에 대해, 너무 극심하여 온전히 살아갈 능력을 상당히 제한받는 고통에 대해, 사실 저는 가슴을 펴고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입니다만, 너무도 깊어 아무리 가슴을 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그것이 사라질 것이라고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할 심리적인 상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음과 영에 드리운 이 컴컴한 밤은 단순한 낙담과는 다릅니다. 저는 그런 우울증이, 50년간 함께한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은, 정말 천사 같은 분에게도 찾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새로 엄마가 된 여성들에게 산후우울증이라고 완곡하게 표현된 우울증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안해하는 학생, 제대한 군인, 성인이 된 자녀를 걱정하는 할머니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우울증도 보았습니다.

그런 우울증은 가족을 부양하려 분투하는 젊은 아빠들에게도 일어납니다. 한때 저도 제 안에 일어나는 그러한 감정을 두려워해 본 적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의 한 시점에서 재정적인 두려움과 극도의 피로감이 충돌하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타격을 실제로 입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가족의 사랑으로 저는 근근히 움직이고 일할 수 있었지만,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도 저보다 더 오래, 더 심각한 우울함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보면 가슴 깊이 측은함이 밀려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선지자 조셉의 말처럼 "가장 어두운 심연을 살펴보고 생각[하며]"[3] 그곳을 인내 속에 건넌 사람들, 일부를 예로 들자면 에이브러햄 링컨, 윈스턴 처칠, 그리고 우리 경륜의 시대에 가장 온화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중 한 분으로 몇 년간 재발되는 우울증과 싸운 적이 있으며, 나중에는 모두에게 사랑받는 분이 된, 제8대 선지자이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장이신 조지 앨버트 스미스 같은 분들을 보며 용기를 내야 합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정신적, 정서적 시련에 처할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를 믿는 신앙을 잃지 마십시오. 지난 토요일 저녁, 몬슨 회장님이 상호부조회에 전하신 감동적인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 여러분이 슬플 때나 행복할 때, 낙담할 때나 희망에 찰 때, 어느 때나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위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끼든 또는 그렇지 못하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여러분을 위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그냥

거기에 있습니다."[4] 절대 의심하지 말고, 마음을 강퍅하게 먹지 마십시오. 세월 속에 입증된 예배 방식을 충실하게 따르며 삶에 주님의 영이 임하게 하십시오. 자신의 영적 복지에 대한 열쇠를 지닌 분들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오. 신권 축복을 구하고 소중히 여기십시오. 매주 성찬을 취하고 온전케 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기적을 믿으십시오. 온통 희망이 사라진 것만 같은 환경에서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희망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적이 빨리, 충분히,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 때에도 번민 속에서 보여 주신 구주의 모범을 기억하십시오. 쓴 잔이 지나가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마시고 강해지며, 행복한 날이 올 것임을 믿으십시오.[5]

가능할 때마다 병을 예방하기 위해 자신과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살피십시오. 자동차를 점검하듯, 온도가 너무 올라가지는 않는지, 과속하지는 않는지, 연료가 떨어져 가는 것은 아닌지 주의하십시오. 탈진에 따른 "고갈 우울증"을 겪을 때는 필요한 조정을 하십시오. 피로는 모두의 적이기에 속도를 늦추고, 충분히 쉬고, 기력을 회복하고, 재충전하십시오. 나아지려는 시간을 내지 않으면, 나중에 병이 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의사들은 늘 말합니다.

상태가 계속 악화된다면, 공인된 훈련과 전문 기술, 가치관이 훌륭한 명망 높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자신의 내력과 어려움을 솔직히 말하십시오. 처방받은 조언과 해결책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책임감 있게 고려하십시오. 맹장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신권 축복을 구하고, 또 훌륭한 의사에게 진료를 받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정서 장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경륜의 시대에 당신께서 제공하신 모든 놀라운 은사를 사용하기를 바라십니다.

고통받고 있거나 그런 사람을 돌보고 있다면, 해야 할 일의 크기로 압도되지 않게 하십시오.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만 하십시오. 무언가를 해 내면, 아무리 작은 것이더라도 감사히 여기고, 인내하십시오. 구주는 경전 여러 곳에서 "가만히 있어라", "잠잠하라" 또는 기다리라고 명하셨습니다.[6] 뭔가를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은 필멸의 세상에서 받게 되는 교육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 사람을 돌보는 분들은 타인의 건강을 위해 헌신하다가 자신의 건강까지 해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십시오. 가진 힘보다 더 빨리 달리지 마십시오.[7] 또 어떤 것을 줄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일은 기도와 "거짓 없는 사랑"[8]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 성내지 아니하며 …… 모든 것을 참으며 ……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9]

병이나 힘든 시련 속에서도, 삶에는 여전히 희망차고 감사히 여길 것이 많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자신의 한계나 고통보다 더 무한한 존재입니다! 스테파니 클락 닐슨의 가족은 저희 가족과 30년 이상을 알고 지낸 친구입니다. 2008년 8월 16일, 스테파니 부부는 비행기 추락 사고를 당했습니다. 뒤 이은 화재로 그녀는 화상을 입었고, 가족들이 신원을 확인하러 갔을 때에는 매니큐어를 칠한 발톱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처참한 상태였습니다. 생존 가능성은 희박했습니다. 그녀는 3개월간 혼수 상태로 있다 깨어나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심리적인 상처와 끔찍한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7세도 안 된 네 아이가 있었지만, 아이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 주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살지 않는 것이 낫겠다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제 사무실을 찾아온 스테파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들 절 잊어 버리도록, 제가 조용히 사라져 버리면 더 편할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녀는 영원한 찬사를 받을 만한 일을 해 냈습니다. 남편과 가족, 친구들, 예쁜 네 아이와 겨우 18개월 된 다섯째 아기까지 모두 힘을 모아 기도드린 덕분에 그녀는 파괴의 심연에서 나와 전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엄마 블로거"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블로그를 찾는 사백만여 사람에게 자신의 삶에 있는 "거룩한 목적"은 엄마가 되고 아름다운 지상에서 보내는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든 간에 삶을 끝내는 행위로 생명의 소중함에 반대표를 던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에 매달리십시오. 언젠가는 여명이 밝아와 필멸의 어둠이 달아나 버리게 될 것임을 명심하십니다. 자신이 시편의 저자가 말한 "깨진 그릇[처럼]"[10] 느껴지더라도, 그 그릇은 거룩하신 토기장이의 손 안에 들려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망가진 정신도 부러진 뼈나 상한 마음이 낫듯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고치시는 동안 우리는 관대하고, 개인적인 평가를 하지 않으며, 친절한 태도로 그분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들어 있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춧돌 같은 은사인 거룩한 부활에 대해 간증합니다.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저 또한 썩을 것으로 심은 것이 어느 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은 것이 궁극에는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임을 간증합니다.[11] 그날이 오면, 필멸의 삶에서는 장애를 겪는 존재로 여겨지던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놀랄 만큼 아름다운 완전한 몸과 마음으로 우리 앞에 영화롭고 당당하게 설 것임을 증거합니다. 얼마나 가슴 떨릴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 행복을 느끼는 이유가 그런 기적을 보게 되어서일지, 아니면 그들이 모든 면에서 완전하게 되어 마침내 "자유롭게"[12] 되어서일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은사가 남김없이 모두 드러날 그 시간이 올 때까지 우리가 신앙으로 살며 희망을 굳건히 붙잡고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는]"[13] 마음을 보이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주

1. 베드로전서 3:8.
2. 앨마서 26:27 참조; 또한 앨마서 56:16 참조.
3.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267쪽.
4. 토마스 에스 몬슨,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123~124쪽.
5. 마태복음 26:39 참조.
6. 예를 들어, 시편 4:4; 교리와 성약 101:16 참조.
7. 모사이야서 4:27 참조.
8. 교리와 성약 121:41.
9. 고린도전서 13:4, 7~8; 강조체 추가; 또한 모로나이서 7:45~46 참조.
10. 시편 31:12.
11. 고린도전서 15:42~43 참조.
12. "Free at Last," John W. Work, comp., *American Negro Songs: 230 Folk Songs and Spirituals, Religious and Secular*(1998), 197.
13. 베드로전서 3:8.

엠 러셀 밸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 메시지를 나누는 일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매진하십시오.

밸라드 자매와 저는 최근에 임무 수행 차 유럽 5개국 순방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어쩌면 여러분의 아들과 딸일 수도 있는 많은 선교사들을 만나 보는 특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께서 젊은 형제 자매의 선교사 봉사 연령을 낮추기로 발표하신 후, 저는 그들 가운데 3,000명 이상을 만나 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그리스도의 빛이 넘쳐 흘렀으며 사람을 찾고, 가르치고, 침례를 주고, 활동화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왕국을 강화하고 세우는 이 사업을 진척하여 나가려는 열의가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들이 이 일을 혼자서는 해 낼 수 없다는 것을 금세 깨닫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해야 하는 것은 긴급한 사안이기에, 오늘 저는 교회의 모든 회원 여러분에게 그것에 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 차례 인용된 바와 같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결국,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의무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2007년], 330쪽)

1974년에 스펜서 더블유 킴볼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교 사업의 최대의 목적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전은 복음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계명과 약속, 부름과 보상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계명*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개인으로나 또는 전체적으로 회피할 수 없는 영원한 지침이기 때문입니다."("온 세상이 개종될 때," *성도의 벗*, 1984년 9월호, 1쪽)

같은 해 7월에 밸라드 자매와 저는 캐나다 토론토 선교부를 감리하기 위해 아이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킴볼 회장님의 말씀이 제 귓가에 맴돌았는데, 특히 이 말씀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상에 가르침을 전하는 현 방법에 자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껏 144년 동안 전도를 해 왔습니다. 우리는 걸음의 폭을 넓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시야를 넓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성도의 벗*, 1984년 9월호, 2~3쪽)

그분은 또한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함께 일하는 속도를 더 서두르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지난 6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교회 회원들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되풀이하셨습니다.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회원과 선교사들이 하나가 되어 주님의 포도원에서 함께 …… 수고하여 영혼들을 그분께로 데려와야 할 때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나누도록 방편을 마련해 주셨으며, 우리가 그분의 사업을 성취하기 위해 신앙으로 행할 때 우리의 일을 도와주실 것입니다."("구원 사업에 대한 신앙" [2013년 6월 특별 방송에서 하신 말씀], lds.org/broadcasts)

형제 자매 여러분, 조셉 스미스 때부터 현재까지 계속되는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숙고해 보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그분들은 지도자들과 교회 회원들에게 열심히 전 세계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에게 복음의 회복을 전파하는 일에 매진하도록 격려하고 요청하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전하려는 이야기는 바로 주님께서 그분의 사업을 서두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이 일이 성취되려면, 교회의 모든 회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 진리를 사랑으로 나누고자 함께 도와야만 합니다. 우리는 현재 봉사하고 있는 8만 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일해야 합니다. 이 위대한 사업에서 특히 스테이크와 와드 평의회 지도자들의 임무에 관한 설명은 lds.org 웹사이트 "구원 사업을 서두릅시다"에 명확히 게재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통해 우리는 활동적인 교회 회원 대부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과 심지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의 삶에도 복음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많은 회원이 선교 사업과 복음 전도를 망설이는 이유 두 가지도 파악했습니다.

- 첫 번째 이유는 두려움입니다. 많은 회원이 복음 나눌 기회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신성한 영의 속삭임으로 지시받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 두 번째 이유는 선교 사업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성찬식에서 앞으로 나와 말씀을 전할 때 "오늘 선교 사업에 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라고 하거나 밸라드 장로가 연차 대회에 나와서 똑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 할 때, 듣고 계신 여러분 중 일부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제발요. 또 말씀하지는 말아 주세요. 이미 여러 차례 들었으니까요."

그 누구도 죄책감을 느끼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친구와 이웃에게 비현실적인 일을 하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도움으로,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느낄 수 있는 두려움이 여러분과 전임 선교사들에게서 물러가게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구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마태복음 7:7~11)

형제 자매 여러분, 회원들 또는 전임 선교사들이 무릎을 꿇고서 주님께 선교 사업 기회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로 간구한다면, 두려움은 신앙과 확신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신앙을 행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할 기회를 찾아야 하며, 그러면 반드시 기회는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 기회는 강압이나 조작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 자매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저 긍정적이 되십시오. 그러면 대화 상대방이 여러분의 사랑을 느낄 것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당장은 자신이 복음을 받아들일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느낌은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미래에 그들의 상황이 바뀌면, 그 결정도 바뀔지 모릅니다.

주님의 심부름을 할 때 최선을 다한다면,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는 선택의지에 달려 있지만, 복음을 나누는 일은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양을 아시고 그분의 양들도 그분의 음성을 압니다. 오늘날 선한 목자의 음성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회복 메시지를 들을 수도 있었을 많은 이들이 그저 스쳐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과 행동의 문제입니다.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개인으로, 그리고 가족과 함께 선교 사업을 할 기회를 찾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교리와 성약에서 주님은 많은 사람이 진리에서 멀어져 있는 이유는 다만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곳을 알지 못하는 까닭"(교리와 성약 123:12)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향적인 사람이나 화려한 연설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희망을 품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와 같은 주님의 약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백성에게 너희 목소리를 높이고 내가 너희 마음에 넣어줄 생각을 말하라. ……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말할 바가 …… 바로 그 순간에 너희에게 주어질 것임이니라."(교리와 성약 100:5~6)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우리 모두에게 다음 내용을 상기시켜 줍니다. "선교 사업에서는 가르칠 사람을 찾을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매일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일이 다소 두려운 것은 당연하지만 좀더 당당하게 입을 열어 회복된 복음을 전파할 신앙과 힘을 갖기 위해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다."(*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2004년], 157쪽) 전임 선교사 여러분, 더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싶다면 매일 더 많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그분의 선교사들을 보내실 때 항상 하도록 요청하신 내용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아십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은 기분을 느끼기도 한다는 것을 알지만, 어느 누구도 복음을 나누기 위해 자연스러우면서 즐거운 방식으로 손을 내미는 일을 부담스럽게 여기시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특권입니다! 우리 삶에서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일에 매진하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습니다.

열쇠는 하나님께 지시를 간구하여

영감을 받고, 그런 다음에는 영의 속삭임에 따라 나아가 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구원 사업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책임으로 여긴다면, 겁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임 선교사들이 사람들을 가르치게 함으로써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라는 그분의 권유를 따르는 일로 여긴다면, 이 일은 우리에게 영감과 활력, 희망을 선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모든 일을 다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원 여러분 모두에게 단지 기도해 달라는 권유를 하는 것입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회원이 지금부터 성탄절까지 단 "한 사람"에게만 손을 내민다면, 수백 만 명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구주께 드릴 수 있는 이만한 선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6주 전에 저는 플로리다에 사는 아주 탁월한 회원 선교사인 뮌스 가족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밸라드 장로님, 전 세계로 중계된, 구원 사업을 서두르자는 방송을 시청한 지 30분 만에 저희 가족은 가족 선교사 평의회를 열었습니다. 십 대인 손주들이 함께 참여하겠다고 했을 때에는 아주 신이 났습니다. 그 평의회 이후로 저희 가족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두 배로 늘었다는 보고를 드릴 수 있어 행복합니다.

손주들에게 친구들을 교회로 데려오게 했고, 저활동 친구 몇 명과도 성찬식 모임에 함께 참석했으며, 새로 만난 사람들에게 선교사 토론을 듣도록 권했습니다. 저활동인 자매님 한 분은 교회로 돌아왔을 뿐 아니라 새로운 구도자들도 데려왔습니다.

누구도 선교사 토론을 들어 보라는 권유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회원으로서 이처럼 흥분되는 순간은 또 없을 것입니다."(개인 서한, 2013년 8월 15일)

영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십시오.

힘 있는 기도로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 메시지를 나누는 일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매진하십시오.

또 다른 성공적인 회원 선교사인 클레이튼 크리스텐슨의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하여, 당신이 누군가의 손을 잡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한다고 하자. 그러면 구주께서 당신과 당신이 손잡은 사람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위대한 회원 선교사: 복음을 전하는 원리와 방법*[2013], 11쪽)

형제 자매 여러분, 신앙으로 기적을 경험할 때 얻게 되는 커다란 기쁨을 여러분이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로나이서 7장에서 배운 바와 같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되, 만일 너희가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지면 내게 합당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리라.

…… 이는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으로 말미암음이요, 천사들이 사람들에게 나타나 성역을 베푸는 것도 신앙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런즉 만일 이러한 일들이 그쳤다면 사람의 자녀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는 그것이 믿지 않음으로 인함이요, 모든 것이 헛됨이라."(모로나이서 7:33, 37)

제 경험에 비추어 간증드리건대,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며, 바로 지금과 이후로도 하나님 아버지의 소중한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할 수많은 기회가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몬슨 회장님, 우리는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선교 사업을 통해 얻는 커다란 기쁨을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겸손히 간증드립니다. 아멘. ■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신앙개조에 담긴 교리와 원리

신앙개조의 각 조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이해하는 데 독특한 가치를 더하여 줍니다.

연차 대회 신권 모임에서 말씀하도록 지명을 받자마자 저는 훌륭한 초등회 교사 한 분을 떠올렸습니다. 그 자매님의 큰 소망은 반원들이 신권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초등회를 졸업하기 위한 요건으로,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들의 이름과 신앙개조를 암기하도록 저희를 채근하셨습니다. 또한 모두가 신앙개조 13개를 암기하면 마지막 활동은 저희가 원하는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올라가 보고 싶었던, 유타 북부의 로건 캐년 입구에 있는 첫 번째 댐 바로 위 바위투성이 산비탈을 그 특별한 장소로 정했습니다. 이 바위 절벽에는 작은 평지도 있어서 불을 피우고 핫도그와 마시멜로를 구워 먹기에도 안성맞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장소를 정하면서 우리의 선생님이 연로하시고 그다지 활동적이지도 않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사려 깊었다면 선생님께서 그곳까지 그렇게 힘들게 오르실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약속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셨기에 힘차게 저희를 따라오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작은 언덕에 올랐습니다. 당시에는 접근을 막는 전기 철책선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도움을 받아 선생님도 언덕까지 올라오셨습니다. 정상에 다다른 후에 우리는 "거북이 등"이라고 부르던 바위투성이 산마루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선생님은 그곳에 도착한 후에도 가쁜 숨을 가라앉히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앉아서 먹을 준비를 할 때쯤에는 마지막 공과를 가르치실 수 있을 만큼 회복되셨습니다. 선생님은 지난 2년간 초등회에서 저희를 가르칠 수 있어서 얼마나 기뻤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앙개조를 다 외운 과정에 관해 칭찬도 해 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신앙개조 가운데 하나를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내용을 암송했습니다. 그런 다음, 선생님은 신앙개조에 담긴 교리와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단지 많은 단어를 암기한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생님은 신앙개조 각 조에 담긴 복음 교리를 공부하도록 격려하셨습니다. 또 그러한 교리는 각 부분으로도 나눌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I. 신회와 그리스도의 기본 교리

우리는 신앙개조 제1조에서 신회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신, 이렇게 세 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제2조에서는 우리 모두는 지상에서 행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제3조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를 구원하시는 구주의 사명에 관한 비전을 보여 줍니다.

제4조는 기본적인 원리와 의식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복음 공부를 강조하신 강력한 선생님의 말씀은 제게 영감의 원천이 되어 왔습니다. 경전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지식이 참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된 교리는 모든 진리의 토대이자 원천입니다. 참된 교리의 가르침과 개념은 우리 주님의 복음과 구주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릇된 가르침은 모든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게서 옵니다. 사탄은 계시된 진리를 왜곡하고 바꾸며 변경하고 싶어 합니다. 그는 우리를 속여서 하늘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에서 길을 잃게 만들려고 합니다.

경전에는 그릇된 가르침을 피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한 예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디모데후서 3:16~17).

교회와 교리는 휴대전화와 배터리 같은 관계입니다. 휴대전화에서 배터리를 빼면

쓸모가 없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참된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아무런 소용도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II. 신권의 조직과 반차

그리스도의 기본 교리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신앙개조 제5조와 6조에서 신권 조직과 반차를 배울 수 있습니다. 주님의 지시에 따라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권능인 신권 권세를 사용하여 구주의 교회를 조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때 조직하고 이끄신 교회와 똑같은 곳입니다.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가 몰몬경을 번역하던 중에 죄 사함을 위한 침례에 관한 교리를 읽고서 숲으로 들어가 간구했던 1829년 5월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이었습니까? 1800년대 초반에는 침례에 관해 서로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가 많았으며, 조셉과 올리버는 그 모든 가르침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침례의 정확한 방법과 누가 침례할 권세가 있는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주님께 드린 청원이 응답되어 하늘의 사자인 침례 요한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나의 동역자 된 종들인 너희에게 메시야의 이름으로 나는 아론 신권을 부여하노라."(교리와 성약 13:1)라고 말하며 침례할 권세를 부여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날은 얼마나 경이로운 날이었습니까! 신권이 지상에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신권이 부여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참되고 의로운 방식으로 인도할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지상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의로운 힘과 영향력의 필수적인 근원인 이 권세는 다음 세상에서도 계속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가 조직되기 전에 반드시 신권이 회복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개조 제5조와 6조에서 배워야 할 근본적인 가르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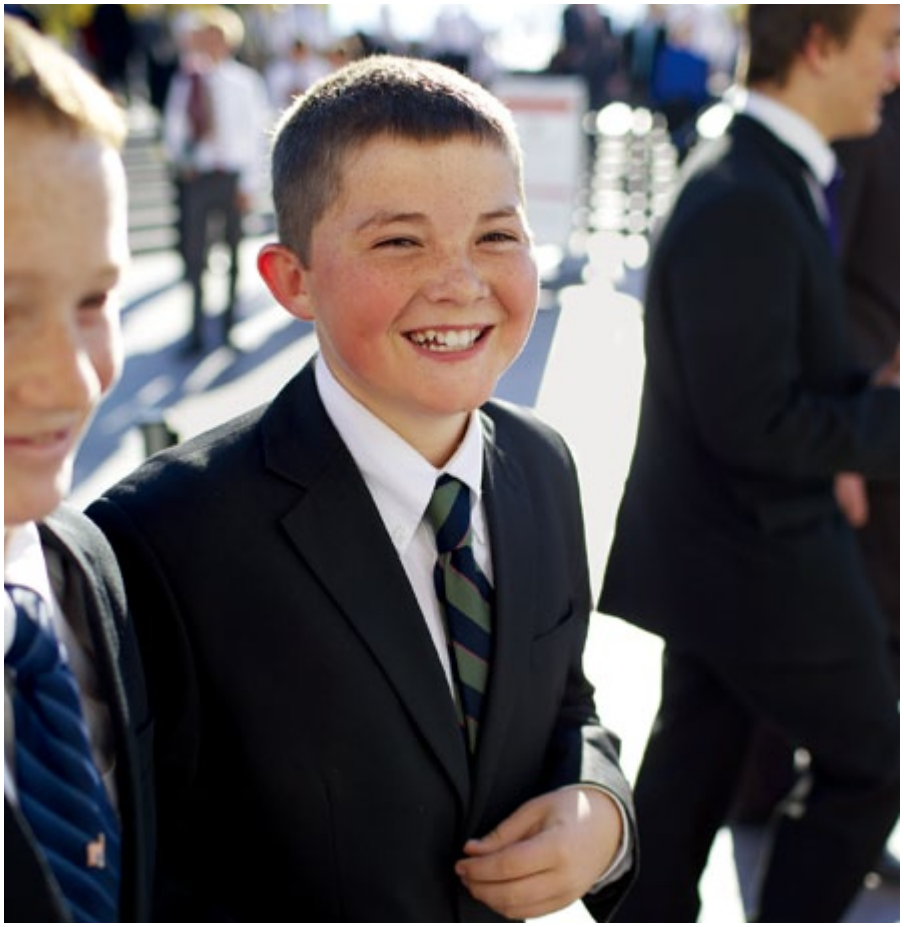
III. 필멸의 여정 안에 있는 영원한 근원

그다음 신앙개조인 제7조, 제8조, 제9조는 필멸의 여정에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근원에 관해 가르칩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를 때,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고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영적인 은사를 받습니다. 또 다른 안내자는 경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으로 향하는 길을 알려 주실 것입니다.

신앙개조 제9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에게 위대하고 중대한 수많은 진리를 계시를 주셨으며, 지금도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리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에 더하여, 우리는 고요하고 작은 영의 음성을 듣고 경전을 읽을 수 있으며, 우리를 가르침으로써 우리의 삶을 축복하도록 선택되고, 부름받고, 성별된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를 인도하는 또 다른 근원이라는 것도 배웁니다.

IV. 회원 선교사

신앙개조 제10조, 11조, 12조는 세상의 많은 나라와 다양한 법률 속에서 어떻게 선교 사업을 행하고 복음을 나눌



수 있는지를 가르칩니다. 우리는 구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집합하리라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스스로 선택의지를 행사하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수 있음을 배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모든 곳에 전해질 때, 반드시 각국의 정부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진실로 우리는 각 나라의 법을 존중하고 지지하며 순종할 것을 믿습니다.

V. 추구해야 할 속성

신앙개조 제13조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교류해야 하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정직, 진실, 순결, 인자, 유덕, 그리고 만인에게의 선행을 믿는다. 진실로 우리는 바울의 훈계를 따른다 할 수 있으니-우리는 모든 것을 믿으며, 우리는 모든 것을 바라며,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견디어 왔으니,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기를 바란다. 무엇이든지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거나 혹 듣기 좋거나 혹 칭찬할 만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들을 구하여 마지않는다."

우리 모두 이 속성을 구현하고자 열망해야 하며 그 속성대로 살아가는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개조에서 가르치는 진리들은 마치 서로 연결되어 기능을 발휘하는 휴대전화 부품들처럼 서로 연결됩니다. 정교한 공급망으로 휴대전화에 부품을 장착하는 것처럼 신앙개조는 우리에게 회복의 주요 교리를 심어 줍니다. 신앙개조의 각 조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이해하는 데 독특한 가치를 더하여 줍니다.

저는 초등회 선생님 덕분에 왕국의 교리를 공부하겠다는 단호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이 단순한 신앙개조에 담긴 깊은 의미를 추구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시간을 내어 이 성스러운 진리를 배우며 지식을 습득하면 인생이 더 훌륭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며, 이제 저는 그 말이 진실이었음을 간증합니다.

로건 캐년의 산마루에서 선생님의 멋진 공과가 끝난 후, 우리는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더 오래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스름이 내리고 있었고, 우리는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생님이 그 특별한 장소에 올 때 무척 힘겨워하셨기에, 이제는 그 길로 돌아가야 하는 커다란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외 활동 장소를 잘못 골랐다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내려오는 길은 저희에게도 힘들었는데, 선생님 같은 연세에 어땠을지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언덕에서 내려오시는 선생님을 돕고자 분투하고 있을 때, 경찰관 두 분이 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을까 봐 걱정하신 초등회 회장님께서 경찰을 보내 주신 것입니다. 그런 극적인 사건과 공과 때문에 그 일은 제 삶에서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청남 여러분, 여러분의 그 명석한 두뇌를 활용하여 신앙개조와 그 안에 담긴 교리를 공부하고 배우십시오. 신앙개조는 교회에서 교리를 언급하는 가장 간략하고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개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연구하는 방향을 잡는다면, 회복된 진리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을 선포할 수 있도록 훌륭하게 준비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 중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핵심을 단순하고 직접적이며 심오한 방식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3개 조로 이루어진 신앙개조의 진실함에 대한 제 간증을 더하면서, 우리 주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제럴드 코세 감독
감리 감독단 제1보좌

너희는 나그네도 아니요

이 교회에는 나그네도 버림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형제와 자매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한두 번쯤 낯설고 불안한 기분이 드는 새로운 상황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토마스 에스몬슨 회장님께서 제게 교회 총관리 역원으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주셨을 때 저희 가족도 그랬습니다. 이 부름으로 저희는 20년이 넘도록 즐겁게 살아왔던 아름다운 곳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자녀들이 이런 변화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보인 반응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열여섯 살인 아들은 "문제될 거 없어요. 두 분만 가시고 저는 남으면 돼요!"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이내 함께 가겠다고 결단을 내렸고, 자신의 삶에 찾아온 이 새로운 기회를 충실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특히 후기 성도들의 따뜻한 환영과 선함 덕분에 저희 가족은 많은 것을 즐겁게 배웠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살아보면서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전 세계 곳곳에서 실제로 피부로 느껴지는 단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름 덕분에 많은 나라를 여행하고 수많은 모임을 감리하는 각별한 특권을 누렸습니다. 다양한 회중을 대하면서 많은 나라와 언어, 문화를 대표하는 회원들을 자주 만납니다. 이 복음의 경륜의 시대에서 볼 수 있는 한 가지 경이로운 면은 이 교회가 지리적인 위치나 일단의 국가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교회는 세계적이고 보편적으로 존재합니다. "자기의 자녀들을 땅 사방에서"[1] 모아 하나님 아들의 영광스러운 귀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원 구성의 다양성이 커지고 있으나 우리의 성스러운 유산은 그러한 차이를 뛰어넘습니다. 교회 회원인 우리는 이스라엘 집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되어 영적으로 똑같은 가계의 동등한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네 이름으로 불리울 것이요, 네 자손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그들은 일어나 너를 *그들의* 조상으로 찬양"[2]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교회 회원이 되는 모든 사람은 이런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3].

*나그네*라는 말은 라틴어 *extraneus(엑스트라네우스)*에서 왔는데, 이것은 "외부" 또는 "바깥에서 온"이란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기원이나 문화, 의견, 종교 등 다양한 이유에서 "외부인"이 되는 사람을 이릅니다. 세상에 거하지만 속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는 때로 자신을 외부인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기회의 문은 다르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계속해서 나그네, 또는 남들과 달라 보일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보살피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고대에 나그네는 그들을 과부나 고아와 같이 똑같이 환대하라는 의무에 따라 그런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나그네는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참 많았고, 현지인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생존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주제에 대해 분명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4].

파나마, 파나마시티

칠레 산티아고

예수님께서는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환대와 관용의 책임을 훨씬 넘어서는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사회에서 배제된 사람들, 독선적인 사람들이 거부하고 불결하게 여겼던 사람들에게 동정심과 존중을 보이셨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역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구주께서는 당시의 기존 관습을 깨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서 물을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세리들과 함께 앉아 음식을 드셨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만지고 고치셨습니다.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군중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보편적이고 조건 없는 은사인 완전한 사랑의 율법을 지킬 것을 당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6].

이 교회에는 나그네도 버림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형제와 자매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하신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알면 세상의 모든 남성과 여성 사이에 있어야 할 형제애와 자매애에 더 세심하게 마음을 쓰게 됩니다.

소설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한 구절은 신권 소유자가 나그네로 생각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 줍니다. 장발장은 감옥에서 막 석방되었습니다. 오랜 항해와 굶주림, 갈증으로 기진맥진한 그는 작은 마을에 도착하여 그날 밤 묵을 곳과 음식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가 도착했다는 소식이 사방으로 퍼지자 모든 주민은 하나 둘씩 그에게 문을 닫았습니다. 호텔도, 여관도, 심지어 감옥도 그를 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절당하고, 쫓겨나고, 추방당했습니다. 결국 탈진한 그는 마을 주교의 집 정문에서 쓰러졌습니다.

그 훌륭한 성직자는 장발장의 이력을 잘 알았지만, 다음과 같은 연민 어린 말을 건네며 이 방랑자를 집 안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이 문은 들어오는 사람에게 이름이 아니라 슬픔이 있는지 묻습니다. 당신은 고통을 받고 있고 배고프고 목이 마릅니다. 당신을 환영합니다. …… 당신 이름을 내가 굳이 알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당신이 [이름을] 말하지 않더라도 나는 당신을 알고 있답니다.'

[장발장]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요? 제가 어떻게 불리는지 알고 계신다고요?'

'압니다.' 주교가 대답합니다. '당신의 이름은 내 형제입니다.'"[7]

이 교회에서 우리의 와드와 정원회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우리의 집회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집에 온 듯한 기분을 느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환영하는 책임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큰 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교통 수단과 통신 속도가 가속화되고 경제적 세계화가 확장되면서 세상은 전례 없이 사람들과 국가들이 만나고 연결되고 뒤섞이며 하나의 커다란 마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커다란 변화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도 보탬이 됩니다. 선교사를 머나먼 여러 나라로 보내고 다른 지역 사람들이 우리 도시와 이웃에 오게 됨으로써 세상의 사방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집합하고 있습니다. 인식하지는 못하겠지만,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인도를 받아 복음을 듣고 그분의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곳으로 이끌려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와드에서 다음 번에 복음으로 개종할 사람은 평상 시 여러분이 아는 친구나 지인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사람의 외모나 언어, 옷차림, 피부색이 그것을 말해 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배경이나 생활방식이 다르고 다른 종교

속에서 성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정증진은 중요한 신권 책임입니다. 아론 신권과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는 감독의 지시에 따라 자매들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각 사람이 사랑과 친절로 환영받게 해야 합니다. 가정 복음 교사와 방문 교사는 잊히거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위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일하여 와드와 지부 내에서 영적인 단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미대륙을 방문하신 후,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벽한 단합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이맨인이라든가 무슨무슨인이라고 불리움도 없이, 그들은 하나로서, 그리스도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이었더라"[8].

단합은 다르거나 더 약해 보이는 회원들을 소홀히 하고, 또는 격리하고, 오직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하고만 교제해서는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와 반대로, 단합은 새로운 사람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환영하고 그들에게 봉사할 때 일어납니다. 이런 회원들은 교회에는 축복이며, 우리에게는 이웃에 봉사하고 나아가 우리 마음을 성결하게 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 건물 문 앞에 나타난 사람에게 다가서는 것은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편견 없이 그들을 환영하십시오. 여러분의 모임으로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따뜻하게 인사하고 같이 앉자고 권하십시오. 부탁하건대, 그들이 여러분에게 올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환영과 사랑받는 느낌이 들도록 돕는 것을 제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환영한 다음에는 계속해서 도울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어느 와드에서, 두 명의 청각 장애자 자매님이 침례를 받자 이 새로운 개종자들과 의사소통을 더 잘 하기 위해 두 분의 상호부조회 자매님이 수화를 배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복음 안에서 회원들이 동료 형제 자매들에게 보여 준, 얼마나 멋진 사랑의 예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나그네란 없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그분께 소중하지 않은 영혼은 없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저도 이렇게 간증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9].

마지막 날에 그분의 양 떼를 모으실 때 우리 각자가 "내가 ……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구나]"라는 말씀을 주님께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나이까?]"라고 말씀드리면 그분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10]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니파이전서 22:25.
2. 아브라함서 2:10; 강조체 추가.
3. 에베소서 2:19.
4. 레위기 19:34.
5. 마태복음 8:10; 또한 마태복음 8:2~3; 마가복음 1:40~42, 2:15; 요한복음 4:7~9 참조.
6. 마태복음 5:46~48.
7. Victor Hugo, *Les misérables*, trans. Isabel F. Hapgood, 5 vols. (1887), 1:73.
8. 제4니파이 1:17.
9. 사도행전 10:34~35.
10. 마태복음 25:35, 38, 40.

랜디 디 펑크 장로
칠십인

그의 말씀을 선포하[기] …… 위하여 그에게 부름을 받았느니라

겸손하고, 순종하며, 영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인다면, 선교사로 봉사하면서 크나큰 행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총관리 역원으로 지지받았던 지난 4월 당시에 저는 인도에서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교회의 선교사들은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1]라고 하신 어느 선교부 회장님의 말씀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저와 펑크 자매는 많은 뛰어난 선교사들과 함께 봉사했는데, 그중 한 명인 포크렐 장로는 네팔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교회 회원이 된 지 2년 만에 영어를 써야 하는 인도 방갈로르 선교부로 부름받았습니다. 포크렐 장로는 자신이 그리 잘 준비된 선교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선교사로 부름받기 전까지 단 한 명의 선교사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네팔에서 봉사하는 젊은 선교사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부름장에 적힌 안내문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영어 실력도 부족했습니다. 선교사 훈련원에 입소할 때에도 깔끔한 양복 바지와 흰 셔츠, 넥타이가 아니라 "청바지 다섯 벌과 티셔츠 두 장, 그리고 헤어 젤만 잔뜩"[2] 챙겨 갔다고 했습니다.

그는 적절한 선교사 복장을 얻은 이후에도 처음 몇 주 동안은 날마다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지냈습니다. 포크렐 장로는 그 시절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어만이 아니라 선교 사업 자체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 그런 어려움에 배고픔과 피로까지 느끼고, 향수병마저 생겼습니다. 힘든 상황이었지만 저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제가 약하고 부족하다고 느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드릴 때면 언제나 위안이 찾아왔습니다."[3]

선교 사업은 낯설고 도전적인 일이었지만, 포크렐 장로는 큰 신앙과 충실함으로 경전,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선교부 지도자들에게 배운 내용을 이해하고 따르려고 애썼습니다. 결국 그는 영어로 복음을 가르치는 영향력 있는 교사이자 탁월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선교 사업을 마친 후, 그는 한 동안 네팔에서 지내다가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인도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1월부터 그는 뉴델리에서 지부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로서 실질적인 성장을 경험해 보았기에 그는 인도에서 교회가 실질적인 성장을 이룩하도록 계속해서 이바지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젊은 청년이 어떻게 그런 훌륭한 영적인 힘을 지닌 선교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선교사로서 영적인 권능을 받아, 여러분이 봉사하게 될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고, 이메일로 복음을 전하며,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늘 그렇듯 해답은 경전과 살아 있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말씀에 있습니다.

1837년 7월, 영국에서 처음으로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계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정식으로 추천하여 권세를 부여하고 네 형제 십이사도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으로 파송하는 자는 너희가 그들을 보내는 어느 나라에든지 나의 왕국의 문을 여는 권능을 가지리니"[4]

여러분이 어디로 보내지고 어느 선교부로 부름을 받든, 그것은 십이사도 중 한 분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추천하여 임무를 부여한 것임을, 또한 자신이 주님의 선지자로부터 부름받았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언에 의하여 …… 안수로써"[5] 부름받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약속이 성취될 수 있는 조건을 다음과 같이 알려 주셨습니다. "그들이[파송된 선교사들을 의미합니다.] [1] 내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2] 내 말에 거하며 [3] 내 영의 음성을 듣는 만큼, 그러하리라[이는 *그렇게 하면* 약속이 성취되리라는 뜻입니다.]"[6]

주님의 약속은 명확합니다. 여러분이 봉사하게 될 나라에서 하나님 왕국의 문을 여는 데 필요한 영적인 권능을 받고 싶다면, 겸손하고, 순종하며, 영의 속삭임을 듣고 따르는 능력을 갖춰야만 합니다.

이 세 가지 속성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겸손하다면, 순종하고 싶을 것입니다. 순종할 때, 여러분은 영을 느낄 것입니다. 영이 가장 중요합니다. 벤슨 회장님께서는 "영이 없이는 여러분의 재능이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7]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선교부 회장으로서 선교사들을 접견하면서 저는 때로 온전히 합당치 못해서 고통받는 선교사들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잠재력에 못 미치는 삶을 산 것입니다. 비록 열심히 선교 사업을 하고 많은 선을 행했더라도,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온전히 회개하여 구주의 자비와 은혜를 얻기 전까지는 절대로 평화와 성신의 동반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종들에게 겸손하라고 가르치셨는데, 영적으로 온전해지는 과정은 상한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상한 것에서 좋은 것들이 생겨나는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토양이 부서져야 밀이 자라납니다. 밀이 부서져야 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빵은 부셔져야만 성찬의 상징물이 될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성찬을 취함으로써 온전해집니다.[8]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온전해질 때, 우리는 구주께 봉사하면서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참으로 그에게로 와서, 너희의 온 영혼을 그에게 예물로 드리고"[9]

죄의 짐을 지고 있어 회개해야 한다면 즉시 그렇게 하십시오. 고통받는 사람들을 낫게 하실 때 구주께서는 자주 일어나라고 권하셨습니다. 경전에는 그들이 곧 바로 그렇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10] 영적인 고통에서 치유되고 싶다면, 일어나라는 주님의 권고를 받아들이십시오. 지체 없이 감독님, 지부 회장님, 또는 선교부 회장님께 말씀드리고 당장 회개 과정을 시작하십시오.

속죄의 치유력은 여러분의 영혼에 화평을 주고, 성신을 느끼게 해 줄 것입니다. 구주의 희생은 측량할 수 없기에, 우리가 셀 수 없이 많은 심각한 죄를 지을지라도 헤아려지고, 고백하고, 버리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영혼으로 인한 그의 기쁨은 얼마나 큰고!"[11]

교리와 성약에 담긴 이 약속의 힘은 참으로 큽니다. "쉬지 말고 덕으로 네 생각을 장식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네 확신이 점점 강하여지리니"[12] 정결한 삶을 살면 평화로운 확신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며, 영의 권능이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13]

교회의 새로운 회원이거나 최근에 완전히 활동화된 회원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합당하며 봉사하려는 소망도 있지만 제가 정말 충분한 자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올 4월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며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가장 중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14] 우리의 순종으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니, 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해지는 이야깁니까!

자신이 바칠 수 있는 재능이나 능력, 경험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염려를 하신다면 포크렐 장로를 기억하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온 힘을 다해 준비한다면, 겸손하고, 순종하려는 여러분의 노력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님은 다음과 같은 권고로 격려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꺼이 봉사하면 하나님의 권능, 즉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해낼 수 있는 권능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주님으로부터 힘과 권능을 받아서 우리의 통찰력과 재능, 능력이 확장됩니다."[15]

주님과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를

축복하고자 여러분을 보내실 것입니다.[16] 네바다에서 온 홀링스 장로는 선교 사업 초반에 그것을 배웠습니다. 인도에 도착한 날, 그는 저희 부부와 함께 첫 지역인 라자문드리로 갔습니다. 그날 오후, 홀링스 장로와 가나파람 장로는 회원 집을 방문하여 한 자매님과 그분의 어머니를 만나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교회에 관해 배우고 싶어 하셨는데, 그 이유는 딸의 생활에서 복음이 어떻게 축복을 가져왔는지를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함께하며 우정을 나누기 위해 제 아내도 그들과 함께했습니다. 토론은 영어로 진행되었기에, 지부의 한 형제님이 함께하시며 텔루구어만 구사하는 그 어머니를 위해 통역을 해 주셨습니다.

선교 사업 첫 번째 토론 약속에서 홀링스 장로가 맡은 임무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말을 인용하여 첫번째 시현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맡은 순서가 되자 그는 자신의 말이 통역될 것을 알았기에 제 아내를 돌아보며 "경전에 나오는 첫 번째 시현 부분을 그대로 인용해야 하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펑크 자매는 "영이 장로님이 말씀한 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그대로 전달해 주세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새로운 선교사가 진지하게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첫 번째 시현을 가르쳤을 때, 그 어머니는 표정이 달라지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홀링스 장로가 전한 영화로운 메시지가 채 통역도 되기도 전에 그녀는 젖은 눈을 하고서 텔루구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침례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제 아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 주시겠어요?"

젊은 동료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희망과 평화, 기쁨을 가져다주는 복음 메시지를 받아들이려는 문이, 사람들의 마음이 매일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겸손하고 순종하며 영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인다면, 선교사로 봉사하면서 크나큰 행복을 찾게 될 것입니다.[17] 주님께서 그분의 일을 서두르시는 지금은 선교사가 되기에 참으로 멋진 시기입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성한 명령"[18], 즉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19]는 말씀이 참됨을 간증합니다. 그분은 살아 있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이 사업을 이끌고 계십니다. 이제 제일회장단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몰몬처럼 "보고 깨닫는 것이 빠른"[20] 사람이 되기를 기원하며, 그리하여 부름이 올 때 합당하게 준비되어 영의 권능을 지니고 "보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나는 그의 백성 가운데 그의 말씀을 선포하여, 그들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에게 부름을 받았느니라."[21]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2005~2008년까지 켄터키 루이빌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한 데니스 시 브림홀과 나눈 개인적인 대화.
2. 아쉬시 포크렐의 개인 역사, "*My Name Is Ashish Pokhrel and This Is My Story*" (unpublished personal history, Sept. 2011)
3. Pokhrel, "*My Name Is Ashish Pokhrel*."
4. 교리와 성약 112:21.
5. 신앙개조 제5조.
6. 교리와 성약 112:22.
7. 에즈라 태프트 벤슨,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 사업 지도서* (2004년), 176쪽.
8. 2013년 6월 8~9일에 개최된 유타 바운티풀 북 스테이크 대회에서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가 전한 말씀에서 얻은 아이디어.
9. 옴나이서 1:26.
10. 마가복음 5:41~42; 요한복음 5:8~9 참조.
11. 교리와 성약 18:13.
12. 교리와 성약 121:45.
13. 교리와 성약 121:46 참조.
14. 토마스 에스 몬슨, "순종은 축복을 가져옵니다",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89쪽.
15. 리차드 지 스코트, "가정의 평화를 위해",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30쪽.
16. 많은 신임 선교사들이 하게 될 일에 대해 설명하며 러셀 엠 넬슨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선교사들은 늘 해 온 일을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할 것입니다!"("새 물결에 동참하십시오,"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45쪽)
17.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V쪽.
18. 토마스 에스 몬슨, "신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아",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66쪽.
19. 마태복음 28:19.
20. 몰몬서 1:2.
21. 제3니파이 5:13.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이제는 할 수 있어요!

기꺼이 다시 일어서서 …… 길을 계속 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실패에서 교훈을 배우고, 더 훌륭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넘어지면 눈 깜짝할 새에 벌떡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물리적 법칙이 제게 불리하게 변해서, 이젠 넘어져도 금세 일어나지 못하게 됐다는 탐탁지 않은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열두 살 난 손자와 스키를 탔습니다.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닥이 얼어 있는 곳을 만나 가파른 경사면에서 아주 보기 좋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별 수를 다 써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넘어졌는데,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친 곳은 없는 것 같았지만, 자존심은 좀 상했습니다. 그래서 스키 타는 사람들이 저를 몰라봤으면 하는 마음에 헬멧과 고글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저는 꼼짝하지 못하고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제 옆으로 멋지게 활강하며 "안녕하세요, 우흐트도르프 형제님!"이라고 외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일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궁리를 해 보기 시작했는데 그 때 손자가 제 곁으로 왔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했지만, 손자는 왜 제가 일어날 수 없는지에 대해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물끄러미 바라보던 그 아이는 다가와서 제 손을 잡고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는 할 수 있어요!"

저는 즉시 일어났습니다.

아직도 그 일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일이 열두 살 소년이 다가와서 "이제는 할 수 있어요!"라고 말함으로써 즉시 실현되었습니다. 마치 제게 자신감과 열정과 힘이 새롭게 주입되는 것 같았습니다.

형제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계속 전진해 나가는 것이 능력 밖의 일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날 눈 덮인 스키장에서 제가 배운 것이 있다면, 일어설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조차 희망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저 우리를 바라보며 손을 잡고서 "이제는 할 수 있어요!"라고 말해 줄 사람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강인함에 대한 편견

우리는 남성보다 여성이 자신의 부족함을 더 잘 느끼고 더 쉽게 실망하며, 그런 감정이 남성들보다 여성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남자도 죄책감과 낙담, 실패를 많이 느낍니다. 아닌 척 하지만, 실상은 그렇습니다. 실패와 부족함 때문에 극심한 부담을 느낀 나머지 우리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예전에 실패했을 경우, 그것을 자신의 운명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한 작가는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물결을 거스르는 배처럼 끊임없이 과거로 떠밀려가면서도 계속 전진한다."[1]

많은 은총을 받고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한두 차례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에서 발을 빼 버리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훌륭한 신권 지도자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비틀거리고 좌절했다는 이유로 그들은 신권에 대한 결심을 철회하고, 다른 합당하지 않은 길을 따랐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성취했을 수도 있었을 삶의 언저리에만 머문 채 자신이 타고난 가능성에 못 미치는 삶을 삽니다. 한 시인이 한탄했듯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죽은"[2] 불운한 영혼들입니다.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이 실패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존경과 존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승자가 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필멸의 인간이 노력과 수양, 또는 실수 없이 승자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몇 번이나 비틀거렸느냐가 아니라 몇 번이나 일어서서 먼지를 털어내고 앞으로 발걸음을 내딛느냐로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필멸의 삶은 곧 시험이란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어디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를 알려 주십니다. 그분은 불확실한 지형과 우리 각자가 겪게 될 예기치 않은 시련을 탐색할 수 있는 지도를 주셨습니다. 그 지도 중 하나는 바로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을 때, 즉 넘어지거나

하나님 아버지의 길에서 벗어날 때, 선지자의 말씀은 일어나 그 길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줍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선지자들이 가르쳐 온 모든 원리들 가운데서도 거듭 강조된 한 가지는 인간은 회개하고, 진로를 바꾸고, 제자의 참된 길로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차고 가슴 뜨거운 메시지입니다.

약점이나 실수나 죄를 편히 여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개로 이끄는 죄에 대한 슬픔과, 절망으로 이끄는 슬픔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3]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변화와 소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세상 근심*은 우리를 끌어내리고, 희망을 사라지게 하고, 유혹이 더 닥치면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개종[4]과 마음의 변화[5]로 이어집니다. 죄를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게 합니다.[6] 일어서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 안에서 걸을 용기를 줍니다. 참된 회개는 고문이나 고통이 아니라 변화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가슴에서 우러난 후회와 불순종에 대한 진실한 뉘우침은 회개라는 성스러운 과정에서 종종 고통스러운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하지만 죄책감이 자기혐오로 이어지거나 재기를 방해할 때는 회개를 촉진하기보다는 도리어 방해가 됩니다.

형제 여러분, 더 나은 길이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를 대신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었던 승리자, 구주께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죗값으로 자신을 내주셨습니다. 이제껏 이보다 더 큰 사랑을 지녔던 이는 없었으며, 흠 없는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진해서 희생 제단에 누워 우리의 죗값을 "한 푼 …… 도 남김이 없이"[7]다 치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짐과 죄책감을 어깨 위에 지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 그분의 이름을 받들고 당당하게 제자의 길을 걸을 때, 속죄를 통해 "이 세상에서는 평화를", 또한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을" [8] 약속받게 됩니다.

실수하여 죄를 짓고 넘어질 때, 참된 회개가 진정 무엇을 뜻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우리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돌리고 죄를 버린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제는 할 수 있다"는 하늘의 확신을 가져다줍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진보를 막기 위해 악마가 쓰는 방법 중 하나는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이며 무엇을 바라는지에 대해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우리는 또한 남자들이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즐기고 싶기도 합니다. 체중도 줄이고 싶지만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고도 싶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 싶지만, 운전할 때 무리하게 앞으로 끼어드는 운전자에게 한 마디 해 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우리가 참된 행복과 영원한 가치가 있는 값진 진주를, 참된 행복과 기쁨에 대한 헛된 환상과 모조품에 불과한 하찮은 플라스틱 장신구와 맞바꾸게 하려는 것입니다.

악마가 우리를 일어서지 못하게 하려고 쓰는 다른 방법은 계명을 강요된 것으로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자신의 아이디어가 아니면 무엇이든 먼저 저항하고 보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봅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을 의사의 권유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실패할 것입니다. 그보다는 내가 나를 위해서 원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계속 해 나가고 성공할 가능성이 더 많아집니다.

가정 복음 교육을 스테이크 회장의 목표로만 본다면, 그 일을 하는 데 큰 가치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목표, 더 훌륭한 기독교인이 되고 타인을 돌보기 위해 실행하고 싶은 일로 본다면, 우리의 결심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방문하는 가족과 자신에게 축복이 될 방식으로 그 일을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친구들 혹은 가족들의

도움을 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관찰하는 눈과 돌보려는 의도를 갖고 주위를 둘러본다면, 다른 사람들이 다시 재기해서 진정한 잠재력을 실현시킬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경전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나옵니다.

고결하고 의로운 생활을 하고 영원의 세계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곳에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은 영적인 힘을 얻는 커다란 근원이 됩니다. 비록 이런 거룩한 목적지가 신앙의 눈으로 보아야만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길에 머무르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성공이나 실패에만 집중할 때, 길을 잃고, 방황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시야를 더 높은 목표에 둔다면, 우리는 더 좋은 아들이자 형제, 더 친절한 아버지, 더 사랑이 많은 남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거룩한 목표에 둔 사람이라 하더라도 때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패배자로 남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그들은 의로운 하나님 안에서 밝은 희망과 놀라운 미래에 대한 영광스러운 비전이 있기에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합니다. 이제는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압니다.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분이 넘어져 본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은 우리 필멸의 인간에게 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기꺼이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목표를 향해 길을 계속 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실패에서 교훈을 배우고, 더 훌륭하고 행복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때로는 더는 못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 것입니다. 구주와 그분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회복된 복음의 힘과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언제나 당당하며 자신 있게 계속 *전진할 수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몬슨 회장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젊은 아버지이건, 연로한 신권 소유자이건, 새로 성임된 집사이건 우리는 늘 여러분을 잊지 않고 생각합니다. 주님도 늘 여러분을 잊지 않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의 길이 힘들 때도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약속합니다. 일어서서 우리 구속주, 구주의 발자취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언젠가는 뒤를 돌아다보며 속죄에 대한, 그리고 여러분을 들어올리고 힘을 준 속죄의 힘을 신뢰하기로 한 자신의 선택에 대한 영원한 감사로 마음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와 형제 여러분, 얼마나 많이 미끄러지고 넘어졌든, 일어서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영광스러운 운명이 있습니다! 굳건하게 일어서고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의 길을 걸으십시오! 여러분은 생각보다 더 강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주님, 우리의 선생님,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F. Scott Fitzgerald, *The Great Gatsby*(1925), 180.
2. Oliver Wendell Holmes, "The Voiceless," in *The Complete Poetical Works of Oliver Wendell Holmes*(1908), 99.
3. 고린도후서 7:10, 강조체 추가.
4. 사도행전 3:19 참조.
5. 에스겔 36:26, 고린도후서 5:17, 모사이야서 3:19 참조.
6. 모사이야서 5:2 참조.
7. 마태복음 5:26.
8. 교리와 성약 59:23.
9. 골로새서 3:23.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그들의 상처를 싸매고

이 필멸의 여정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려는 모든 신권 봉사를 위해 우리가 스스로 준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을 돌보아야 하는 책임을 축복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자녀들의 영생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그러하기에, 이것은 훌륭한 일이며, 때로는 압도되는 기분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 저녁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 장로 정원회 회장님들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 중 누군가가 겪었을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이 한 번 이상 이런 일을 겪어 보셨을 것입니다. 세세한 부분은 서로 다를지 모르나 상황은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는 한 장로가 도움을 청해 왔습니다. 그는 아내와 어린 아들과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오늘 근처의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이 부부는 친구에게 이삿짐을 옮길 트럭을 하루 동안 빌려 줄 수 있겠느냐고 부탁했습니다. 그 친구는 트럭을 빌려 주었습니다. 짐을 옮기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젊은 아버지는 허리를 다쳤고, 그럼에도 짐은 다 옮겨 실었습니다. 트럭을 빌려 준 친구는 너무 바빠서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이 젊은 아버지는 바닥에 주저앉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장로 정원회 회장인 여러분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도움을 청한 시간은 이른 오후였습니다. 저녁에는 교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내에게 그날 집안 일을 돕겠다고 약속도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자녀들도 뭔가를 함께 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그 일은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시간은 정원회 회원들, 특히나 가장 성실한, 여러분이 보통으로 도움을 청하는 형제들은 여러분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을 시간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그 직책에 부르셨을 때 그런 날들이 올 것을 미리 아셨고, 그래서 여러분의 용기를 북돋아 줄 이야기 하나를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과도한 일을 책임지는 신권 소유자들을 위한 비유입니다. 때로 이것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로 불립니다만, 사실 이 이야기는 이 바쁘고 힘든 마지막 날을 사는 훌륭한 신권 소유자를 위한 것입니다.

과도한 책임을 짊어진 신권 역원에게 딱 들어맞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여기서 여러분을 상징하는 것은 그 다친 사람을 지나쳐 간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라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앞서 들려드린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상황은 분명 또 올 것이며, 그때는 이 이야기를 떠올리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경전에는 그 사마리아인이 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혼자서 산책하던 중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곳에 강도들이 출몰하며 방심한 사람을 노린다는 것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꼭 해야 하는 여행이었을 것이며, 그는 당시 여행자들이 그랬듯 짐을 실은 짐승과 기름, 포도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 사마리아인은 다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발을 멈추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데 그치지 않고 그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구체적인 부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1]

여러분과 여러분이 이끄는 신권 소유자들은 최소한 세 가지를 보장받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간구한다면, 주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심어 주실 것입니다. 둘째, 주님은 여관 주인과 같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봉사에 함께 참여하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셋째,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랬듯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참여한 모든 이에게 그 이상으로 갚으실 겁니다.

정원회 회장 여러분은 그러한 확신에 따라 행동해 본 적이 여러 번 있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신권을 지닌 다른 이들이 동정 어린 마음으로 응할 것을 믿으며 도움을 청했을 것입니다. 이미 아주 여러 번 요청에 응했던 형제들에게, 그들이 쉽게 동정심을 느끼는 사람들임을 알기에 또다시 도움을 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돕는 것을 선택했을

때 그들이 주님께서 보여 주신 관대함을 느꼈다는 것을 알기에 여러분은 그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여러분은 희생이 더 클수록 주님께서 더 큰 동정심을 주신다는 것을 알기에, 이미 많은 짐을 지고 있는 형제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과거에 도와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향한 넘치는 감사를 느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트럭에서 짐을 내리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지 말아야 할 누군가를 떠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정원회 회장으로서 여러분은 정원회 회원들과 그 가족들을 잘 압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완벽하게 아십니다.

남편이 자기를 배려하고 도울 시간이 없어서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어떤 아내를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어느 집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가 남을 돕기 위해 또 한 번 나서는 모습을 보는 축복이 필요한지, 또는 어느 집 아이들이 아버지가 그날 자기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만큼 그들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느낄 필요가 있는지를 아십니다. 또 주님은 봉사해 달라는 요청이 필요하지만 응할 것 같이 보이지 않는 후보가 누구인지도 아십니다.

여러분은 정원회 회원 전원을 완벽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러므로 이미 수없이 많이 해 왔듯, 여러분은 다른 이를 도와달라고 누구에게 요청해야 할지 알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축복받을 사람이 누구이며, 그러한 요청을 받지 않아서 축복을 받을 가정이 어디인지 아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신권으로 이끌 때 받을 수 있는 계시입니다.

저는 청남 시절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제사 정원회 1보조였습니다. 어느 날, 집에 있던 저는 감독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어느 미망인을 저와 함께 방문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감독님은 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데리러 오시는 감독님을 집에서 기다리며 저는 안절부절못했습니다. 감독님에게는 강하고 지혜로운 보좌들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유명한 판사셨습니다. 다른 분은 큰 회사의 사장이었고 나중에는 총관리 역원이 되셨습니다. 감독님도 나중에 총관리 역원이 되셨습니다. 감독님이 이 미숙한 제사에게 왜 "네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감독님의 답변이 무엇일지 이제는 잘 알겠습니다. "주님께서 너를 축복하고자 하신단다." 그 미망인 댁에서 저는 놀랍게도 감독님이 이미 주었던 예산 서식을 작성할 때까지는 교회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을 거라고 그 자매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를 아셨던 감독님은 놀란 저의 모습을 보고 웃으시며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자매님이 자기 지출을 자제할 수 있게 되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게 되실 거야."

또 한 번은 감독님과 함께 알코올 중독자들인 어느 부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겁에 질린 두 어린 딸이 문가에서 우리를 맞았습니다. 감독님은 두 어린 소녀와 이야기를 나누셨고, 그 집을 나올 때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아직 우리가 저 가족이 겪는 비극을 바꿀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자기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느낄 수는 있을 거다."

어느 저녁에는 몇 년 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은 한 형제님의 집에도 갔습니다. 감독님은 자신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고, 또 와드에 그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는 별 감흥이 없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그리고 감독님이 저를 데려간 모든 상황은 저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감독님이 자신과 함께 그러한 방문을 함으로써 축복을 받을 제사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 기도하셨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른 제사들도 여러 번 데려가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젠가 제가 감독이 되어 신앙이 차갑게 식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온기를 다시 느끼도록 돌아오라고 초대하게 될 것임을 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언젠가 현세적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수백, 수천 명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맡게 될 것임을 아셨습니다.

청남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신권 봉사 활동을 맡기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신권 소유자에게는 더 큰 도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정원회 회원이 될 때 함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한 가족의 일원이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여러분의 정원회나 가족들의 신앙이 사탄에게 공격받을 때, 여러분은 동정심을 느낄 것입니다. 봉사와 자비를 보인 사마리아인처럼 여러분은 그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의 상처에 바를 치료약을 가지고 그들을 돌볼 것입니다.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는 동안, 여러분은 막중한 영적 필요를 지닌 수천 명에게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르치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이 자신에게 영적인 상처가 있고, 그것을 치료하지 않고 두면 끝없는 불행이 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구조하기 위한 주님의 심부름에 나설 것입니다. 그들이 영생으로 이끄는 의식들을 받아들일 때, 오직 주님만이 그들의 영적인 상처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정원회 회원으로서, 가정 복음 교사로서, 선교사로서 여러분의 신앙이 강하지 않다면 사람들의 영적인 상처가 아물도록 도울 수 없습니다. 이것은 꾸준히 경전을 읽고 그에 대해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잠시 하는 기도와 경전을 훑어보는 일은 준비라고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확신은 교리와 성약 84편에 나오는 다음 권고와 함께 주어질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말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끊임없이 생명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쌓아 두라. 그리하면 바로 그 시각에 모든 사람에게 할당되는 분량이 너희에게 주어지리라."[2]

이 약속은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쌓아 두[고]" 지속적으로 이를 행할 때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쌓아 두라는 표현은 저에게 말씀에 대해 뭔가를 느낀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 예로,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신성한 부름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는 어떤 사람을 도우려고 갔을 때, 저는 어떤 느낌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몰몬경 구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몰몬경에서 단 몇 줄을 읽더라도 그때마다 왔던 진리에 대한 확신의 느낌이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나 몰몬경에 대해 의구심을 느끼는 모든 사람에게 그런 느낌을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셉 스미스가 회복의 선지자임을 압니다. 저는 몰몬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압니다. 제가 그 말씀을 계속 쌓아 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리에 대한 영의 확신을 받을 수 있음을 경험을 통해서 압니다. 그러한 확신을 받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먼저 그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행 중에 진리의 적들에게 공격을 받아 쓰러진 그곳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기 전에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또 다른 준비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타인의 고통에 대해 마음을 닫는 특성이 있습니다. 구주께서 그분의 속죄와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도울 방법을 아시기 위해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짊어지신 일을 말씀해 주시려고 그토록 노력하신 이유 중 하나는 이런 인간의 특성 때문이었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훌륭한, 하나님 아버지의

신권 소유자들조차 쉽게 그만큼의 동정심을 품지 못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성향상 우리에게 너무나 명백한 진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조급해합니다. 우리의 조급함이 나무람이나 거절로 여겨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의 신권 역원으로서 그분을 도울 준비를 할 때, 지침이 될 성구가 있습니다. 이 성구는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든 그 여정에 필요할 은사가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으로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즉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만일 너희에게 사랑이 없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니, 이는 사랑은 언제까지나 시들지 아니함이라. 그런즉 모든 것 중에 으뜸이 되는 사랑을 붙들라. 이는 모든 것이 반드시 시들되-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라, 영원히 견딤이요, 누구든지 마지막 날에 이를 지닌 것으로 드러나는 자는 잘 될 것임이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마음의 힘을 다해 아버지께 기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자 모두에게 내려주신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며,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며, 그가 나타나실 때에 그가 계신 그대로 우리가 그를 볼 것인즉, 우리가 그와 같이 되게 하며, 우리로 이 소망을 갖게 하며, 그가 순결하신 것같이 우리가 순결하게 되게 할지어다."[3]

이 필멸의 여정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려는 모든 신권 봉사를 위해 우리가 스스로 준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누가복음 10:33~35.
2. 교리와 성약 84:85.
3. 모로나이서 7:46~48.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참된 목자

가정 복음 교육은 곧 수많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며, 그 일을 통해 우리는 사람들 생활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솔트레이크시티의 컨퍼런스센터와 거리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신권을 지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참으로 여러분은 사도 베드로가 밝혔듯이 "왕 같은 제사장"이자 나아가 "택하신 족속"입니다.[1]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는 이 특권은 정말 큰 영광입니다.

어린 시절, 저희 가족은 여름이면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남동쪽으로 약70킬로미터 떨어진 프로보 캐니언의 가족 별장에서 여러 주를 보냈습니다. 우리 남자 아이들은 정말로 얼른 냇가로 가서 낚시를 하거나 수영을 하고 싶었기에 좀 더 빨리 도착하고 싶어했습니다. 당시 아버지께서 몰던 자동차는 1928년형 올즈모빌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시속 약 55킬로미터를 넘으시면 어머니는 으레 "속도 줄여요! 빨리 줄여요!" 하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저는 "더 밟아요, 아빠, 더 빨리요!" 하고 외쳤지만 말입니다.

아버지는 프로보 캐니언까지 내내 약 55킬로미터를 유지하며 가시다 굽은 길에서 양 떼를 만나 차를 세우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백 마리 양이 지나쳐 가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목자는 없었고, 몇 마리 개가 양 떼 옆에서 짖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양 떼 뒤 저 멀리서 말을 타고 오는 목자가 보였는데, 말에 재갈도 물리지 않은 채 고삐만 쥐고 있었습니다. 말이 갈 길을 알아서 가고 개가 짖으면서 양 떼를 잘 몰았기에 목자는 안장에 구부정하게 앉아서 졸기도 했습니다.

오래 전에 저는 독일 뮌헨에서 그와는 대조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선교사 대회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선교부 회장님의 승용차 안에서 창 밖을 보는데, 손에 막대기를 들고 양 떼를 끄는 목자를 보았습니다. 양들은 목자가 가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목자가 왼쪽으로 움직이면, 양도 따라서 왼쪽으로 갔고, 목자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양도 오른쪽으로 따라갔습니다. 저는 양 떼를 이끄는 참된 목자와 양 떼 뒤에서 말을 타고 편하게 따라오는 양치기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2] 주님은 참된 목자에 대한 완벽한 모범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신권 소유자로서 우리는 목자와 같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교회에서 가족들을 이끄는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지침을 주셨으며, 우리는 그들을 위해 봉사하고, 가르치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가정 복음 교육이라고 부르며, 그것은 오늘 저녁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각 와드 감독의 지휘 아래

신권 소유자들을, 매달 회원들의 가정을 방문하는 가정 복음 교사로 지명합니다. 그들은 짝을 지어 다닙니다. 가능한 곳에서는 아론 신권의 제사나 교사인 청남이 멜기세덱 신권을 지닌 성인과 함께 갑니다. 그들이 맡은 회원의 가정을 방문할 때, 아론 신권 소유자는 기회가 있다면 가르치는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한 임무는 청남들의 선교 사업 준비뿐만 아니라 평생의 신권 봉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정 복음 교육 프로그램은 신권에 성임된 사람들이 맡은 책임으로서, "가르치며, 해설하며, 권면하며, 침례를 베풀며, 교회를 돌아보며, …… 각 회원의 집을 방문하며, 소리를 내어서 그리고 은밀하게 기도할 것과 모든 가족의 의무를 다할 것을 권면하는 것이[며] …… 교회를 항상 돌아보며, 그들과 함께 하며, 그들의 힘을 북돋아 주며, 교회 안에 악행이 없도록, 서로 감정이 대립되는 일이 없도록, 거짓말하는 일, 험담하는 일이나 비방하는 일이 없도록"[3] 보살피라는 현대의 계시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님은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가정 복음 교육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고취시키며, 권고하고, 인도하는, 무엇보다도 긴급하고 또한 가장 보람찬 기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 이는 신성한 봉사이며, 신성한 부름입니다. 가정 복음 교사로서 우리의 의무는 모든 가정과 마음에 …… 영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고귀하고 헌신적인 교사들이 이 일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면 한량없는 평안과 기쁨,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4]

몰몬경에서는 앨마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들의 모든 제사들과 그들의 모든 교사들을 성별하였나니, 이에 의인이 아니고는 아무도 성별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들의 백성을 보살피며, 의에 관한 것으로 그들을 양육하였더라."[5]

가정 복음 교육을 수행할 때 각 가족 구성원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해한다면,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필요한 도움을 지혜롭게 줄 수 있습니다.

임무를 미리 지명하면, 가정 복음 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오래 전 저의 경험을 전하겠습니다. 당시 선교사 집행 위원회에는 스펜서 더블유 킴볼 장로님과 고든 비 힝클리 장로님,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가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힝클리 장로님 내외께서 저녁 식사를 위해 위원회 위원 부부들을 자택으로 초대하셨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저녁식사를 막 마쳤을 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힝클리 회장님이 문을 여셨는데, 가정 복음 교사 중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 가정 복음 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리 방문 약속을 하지 않은 것도 알고 동반자도 같이 오지 않았지만 오늘 저녁 들러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님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 몰랐습니다."

힝클리 회장님은 가정 복음 교사를 따뜻하게 맞이하시면서 들어와 자리에 앉아 사도 세 사람과 아내들에게 회원의 의무에 대해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조금 긴장한 그 가정 복음 교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힝클리 회장님께서는 방문해 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셨고, 가정 복음 교사는 황급히 그곳을 떠났습니다.

가정 복음 교육을 하는 잘못된 방법에 대한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오래 전에 제일회장단 보좌로 봉사하셨던 매리온 지 롬니 회장님은 어느 추운 겨울 날 저녁에 회장님 댁을 찾아 온 가정 복음 교사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 교사는 손에 모자를 들고 있었으며 자리에 앉아 메시지를 전해 달라는 권유를 받고는 신경질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계속 서서 그는 "참 죄송하지만 롬니 형제님, 날씨가 추워서 차 시동이 꺼지지 않도록 엔진을 켜 놓은 상태로 왔습니다. 방문했다는 보고를 감독님께 하기 위해 잠시 들른 것뿐입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6]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님은 신권 소유자들과 함께한 모임에서 롬니 형제님의 경험을 언급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이보다는 잘, 훨씬 잘 할 수 있습니다."[7]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가정 복음 교육은 한 달에 한 번 하는 기계적인 방문 이상의 것입니다. 우리는 가르치고, 영감과 동기를 주고, 활동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방문해 활동화시키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딸을 승영으로 인도해야 할 책임을 집니다.

우리의 이런 노력에 도움이 될 만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총관리 역원

제일회장단

헨리 비 아이어링
제1보좌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제2보좌

십이사도 정원회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러셀 엠 넬슨

댈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밸라드

리차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

칠십인 회장단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엘 휘트니 클레이튼

도널드 엘 홀스트롬

태드 알 콜리스터

리차드 제이 메이너즈

크레이그 시 크리스턴슨

올리세스 소아레스

칠십인 제일 정원회
(알파벳 순)

칠십인 제이 정원회
(알파벳 순)

감리 감독단

2013년 10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의 말씀처럼 연차 대회 방송은 "여러 대륙 곳곳으로" 전해졌다. 회원과 선교사 사진(상단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탈리아 로마; 필리핀 카비테; 페루 리마; 텍사스 콜리빌; 브라질 포스두이구아수; 영국 런던; 파나마 아라이잔, 프랑스 리옹

특히 가정 복음 교사들에게 분명히 적용되는 지혜로운 권고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이 한 말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당신의 대의를 위해 어떤 사람을 설복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당신이 그의 참된 친구임을 확신시키라."[8]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님은 이렇게 역설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가르치는 가족과 개인에게 참된 친구가 되십시오.

친구는 매달 그저 의무에 따른 방문만 하지는 않습니다. 친구는 인정을 받는 것보다는 사람을 돕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둡니다. 친구는 보살핍니다. 친구는 사랑을 보입니다. 친구는 경청합니다. 또한 친구는 도와줍니다."[9]

가정 복음 교육은 곧 수많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며, 그 일을 통해 우리는 사람들 생활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제 대공황기에 미국민간자원보전단[Civilian Conservation Corps: 1933~1942년에 존속했던 초기의 뉴딜 정책 기구--옮긴이]으로서 유타에 왔던 딕 해머의 이야기가 그러했습니다. 그분은 한 후기 성도 여성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분은 유타 세인트조지에서 카페를 개업했는데, 꽤 인기 많은 만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제 친구인 윌라드 밀른 형제님은 그 가족의 가정 복음 교사였습니다. 카페 메뉴를 인쇄해 준 적이 있어서 저 역시 딕 해머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세인트조지를 방문해서 밀른 형제님을 뵐 때면 "우리 친구 딕 해머는 [복음 면에서] 잘 돼 가고 있죠?" 하고 종종 물어보았습니다.

밀른 형제님은 대부분 "느리기는 하지만 잘 돼 가고 있어요."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매달 해머 형제님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윌라드 밀른과 그의 동반자는 어떻게 해서든 딕을 포함한 그 가족에게 복음 메시지와 간증을 전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 어느 날 윌라드는 전화로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몬슨 형제님. 딕 해머가 개종을 해서 침례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분은 지금 90세인데, 성인이 된 후로 우리는 줄곧 친구로 지내왔지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전 오랫동안 그분의 가정 복음 교사로 봉사했었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윌라드의 음성에는 어떤 회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머 형제님은 정말로 침례를 받았고 1년 후에는 아름다운 세인트조지 성전에서 자신의 엔다우먼트를 받고 인봉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윌라드 형제님께 여쭈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해머의 가정 복음 교사로 지내면서 낙담하신 적은 없었나요?"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니요.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해머 가족에게 찾아온 기쁨을 직접 보면서 그들이 복음에서 받게 된 축복으로, 또 조금이나마 제가 도움을 줄 수 있었던 특권 때문에 제 마음은 감사로 넘쳐납니다.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형제 여러분, 많은 사람, 즉 교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저활동 회원들을 방문하고 가르치는 것은 오랜 세월에 걸쳐 우리의 특권이 될 것입니다. 부름을 소중히 여긴다면, 사람들을 축복할 기회가 많을 것입니다. 교회 활동에서 멀어진 사람들을 방문하는 것은 그들이 돌아올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고 우리가 맡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주님의 식탁으로 데려와 그들이 그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게 하고 주님의 영과 함께할 때 느끼는 즐거움을 맛보게 하여 "이제부터 ……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10] 되게 합시다.

가정 복음 교육 방문을 소홀히 여기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 바로 가정 복음 교육 의무를 다하겠다고 자신을 다시 추스르기에 좋은 때임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필요하다면 어떤 노력이든 하겠다고 지금 결심하십시오. 함께 다니기 위해 가정 복음 교육 동반자를 조금 더 격려해야 할 때도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공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가정 복음 교육에 대한 우리의 노력은 지속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충분하다"고 하실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보살펴야 할 삶이 많습니다. 어루만져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구해야 할 영혼이 있습니다. 보살피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이 소중한 영혼들을 보살피고, 어루만지고, 구하는 것은 성스러운 특권입니다. 충실하게, 또한 즐거움이 가득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가정 복음 교사로서 우리가 본보기로 삼아야 할 모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뛰어 넘는 위대한 교사가 계십니다. 그분은 삶과 죽음에 대해, 의무와 운명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사신 분입니다. 사랑이 욕망보다 더 아름답고, 가난이 보물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설명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다고 일컬어졌습니다.[11] 그분의 율법은 돌판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분은 바로 위대한 스승,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온 인류의 구주이자 구속주이십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분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다]"[12]고 합니다. 변함없는 우리의 안내자요 완전한 모범이신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가정 복음 교육을 할 때 그분의 신성한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생활에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마음에 위안이 찾아 올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될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목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위대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주

1. 베드로전서 2:9.
2. 요한복음 10:14.
3. 교리와 성약 20:42, 47, 53~54.
4. David O. McKay, *Priesthood Home Teaching Handbook*, rev. ed. (1967), ii–iii.
5. 모사이야서 23:17~18.
6. Quoted in Marion G. Romney, address given at a priesthood home teaching seminar, Aug. 9, 1963.
7. 에즈라 태프트 벤슨, "가정 복음 교사에게", *성도의 벗*, 1987년 7월호, 51쪽.
8. Abraham Lincoln, in David Decamp Thompson, *Abraham Lincoln, the First American* (1895), 226.
9. 에즈라 태프트 벤슨, *성도의 벗*, 1987년 7월호, 49쪽.
10. 에베소서 2:19.
11. 마태복음 7:28~29 참조.
12. 사도행전 10:38.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내 손주들에게

우리가 어려움에 맞서도록 도와주고 행복한 가족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올해 제 첫 손녀 두 명이 결혼을 합니다. 몇 년 안에, 아마도 나머지 손주 중 열 명 정도가 자신의 가족을 이루는, 인생의 새로운 시기에 접어들 것 같습니다.

그런 행복한 기대 속에서 손주들은 조언을 구해 왔고, 저는 이를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들은 "어떤 선택들이 저를 행복으로 이끌까요?"라고 묻고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저를 *불행*하게 할 선택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각자를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똑같은 가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행복해지는 방법을 조언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란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모든 자녀를 위해 행복에 이를 한 가지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성품이 어떠하든, 어떤 경험을 하게 되든, 행복의 계획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따르는 것입니다.

결혼을 앞둔 제 손주들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어려움에 맞설 수 있게 해 주고 행복한 가족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적용됩니다. 그 계명은 경전에서부터 우리 시대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이르기까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사랑과 행복 속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 바라는 모든 이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권고는 다음 성경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 중의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1]

가정이 행복해지게 하는 선택에 대해 제가 배워 온 모든 것이 이 간단한 말씀에 다 담겨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선택들이 내가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도록 이끌어 주었는가?" 제게는 그것은 주님의 속죄를 통한 용서에서 오는 기쁨을 느끼게 해 주었던 선택들이었습니다.

오래 전, 뉴 멕시코 앨버커키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던 시절에 저는 동반자와 함께 한 청남을 가르치고 침례를 주었습니다. 저는 그 청남을 물 속에 눕혔다가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청남은 키가 분명 저만 했을 것입니다. 그 청남이 제 귀에 대고 귓속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침례탕의 물과 눈물에 범벅이 된 얼굴로 기쁨에 가득차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깨끗해요. 저는 깨끗해요."

또 다른 자매님에게서도 그와 같은 행복에 찬 눈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사도가 면밀하면서도 친절하게 접견한 후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자매님을 용서합니다. 주님은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방법으로,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느끼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용서한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를 저는 직접 목격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속죄의 권능으로 새롭게 변화했고, 죄의 영향력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제 마음은 구주를 향한, 그리고 그분을 보내 주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위대한 축복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구주께로 가서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얻고 고통에서 벗어나라고 격려할 때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교회에서 주어지는 모든 부름을 받아들이고 영화롭게 하라고 촉구하는 이유입니다. 그 선택은 가족의 행복을 가져오는 위대한 열쇠 중 하나가 됩니다.

삶의 각 시기와 국면에 존재하는 스트레스와 압박감은 구주를 섬기라는 부름을 거절하거나 무시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것은 자신과 배우자, 가족을 영적인 위험에 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집사 정원회를 가르치라는 부름을 받아들였을 때 *저의* 삶과 제 가족은 더 좋은 쪽으로 변화했습니다. 저는 주님에 대한 집사들의 사랑과 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저는 과거에 스테이크 회장과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했고, 그 후 교사 정원회 고문 부름을 받아들이신 한 분의 삶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저는 과거에 감독과 지역 칠십인으로 봉사했으며, 이후 사고로 다친 한 교사 정원회 소년을 돌보기 위해 헌신하셨던 분을 압니다. 그 봉사를 통해 일어난 기적은 저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구주에 대한 그들의 사랑을 키워 주었습니다.

타인을 섬기고 봉사할 때, 성신의 동반을 간절히 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훌륭하게 주님께 봉사할 때, 언제나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기적이 따라옵니다. 심각하게 반항적인 자녀를 둔 부모라면 이 말이 참됨을 알 것이며, 또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받고서 힘과 위안을 구하던 자매에게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은 방문 교사 역시 그럴 것입니다. 그 두 방문 교사는 그날 아침 주님께 기도드리며 성신을 동반자로서 보내 달라고 기도드렸던 일을 감사히 여겼습니다.

결혼 관계에서 다툼을 벗어나 동등한 동반자로서 단합하고자 하는 소망은 성신을 동반할 때만 품을 수 있습니다. 결혼 안에서 행복을 이루는 데 성신의 동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보아 왔습니다. 완전히 하나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려면 하늘의 도움이 필요하며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의 면전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제 부모님은 서로 아주 다른 분이셨습니다. 어머니는 가수이자 화가셨습니다. 아버지는 화학을 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 한 번은 교향악 연주회에 간 적이 있는데, 아버지는 공연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도 전에 일어나 나가려 하셨고, 어머니는 깜짝 놀라 어디를 가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정말 다른 뜻 없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공연이 끝났잖소. 아닌가?" 아버지를 어머니와 함께 공연장으로 가게 하고, 이후로도 계속 함께 다닐 수 있게 해 준 것은 성신의 부드러운 영향력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께서 화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16년간 뉴저지에 사셨습니다. 어머니에게 이것은 희생이었는데, 자신 대신 오래된 가족 농장을 돌보고 꾸려나가던 홀어머니와 당시 미혼이었던 여동생과 떨어져 살아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분 모두 어머니가 머나먼 뉴저지에 있는 동안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눈물을 본 것은 그때가 유일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아버지는 유타에서의 일자리를 제안받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이번에도 단순히 어머니께 "밀드레드, 어떻게 하면 좋겠소?" 하고 물으셨습니다.

어머니는 "헨리, 당신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하세요."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 일자리 제안을 거절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아버지께 편지를 한 장 쓰셨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께 "여기서 열어 보지 말고 사무실에 가서 열어 보세요."라고 말씀하시던 게 기억납니다. 아쉽게도 그 편지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편지는 아버지에 대한 책망으로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오래전에 어머니께 약속을 하나 하셨는데, 할 수만 있다면 어머니가 친정과 가까이 살 수 있게 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직설적인 표현에 놀라셨습니다. 어머니가 마음속에 품고 계셨던 그 소망을 기억하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즉시 그 일자리를 다시 수락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밀드레드, 왜 말하지 않았소?"

어머니는 대답하셨습니다. "당연히 기억하셨어야죠."

아버지는 항상 유타로 건너온 그 일은 결코 자신의 학문적인 경력과 직업을 희생한 것이 아닌 당신의 선택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분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셨습니다. 성신의 도움으로 아버지가 오래전에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면 더 좋았겠지만, 아버지는 적어도 성신이 자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이 같은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한 시야로 보시며, 우리 각자를 아시고, 우리의 미래를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도울지 알게 하시려고 그분의 아들을 보내어 고통을 겪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 중에는 때로 죄와 큰 불행을 택하는 이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 이래로 가장 위대한 사랑의 행위로서 그분의 장자를 보내시어 우리의 구속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생을 위해 발전하고 우리 아버지와 함께 살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족과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시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멸의 삶이란 은사를 주신 목적 중 하나는 시험을 거치면서 강화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가정 생활에서는 더욱더 그러한데, 우리는 가족과 생활하며 큰 기쁨도 느끼지만, 때로는 도저히 우리 힘만으로는 견딜 수 없다고 여겨지는 큰 슬픔과 시련도 겪습니다.

조지 큐 캐넌 회장님은 우리가 겪게 될 시험에 대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준비시키셨는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중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께서 애정을 가지고 아끼시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하려는 마음이 없으시거나 구원할 방편을 마련해 주시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천사에게 신경 쓰지 말고 내버려 두라고 하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눈에 우리 자신이 하찮고 변변찮게 보일 수도 있고, 다른 이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진리이며,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분의 천사들, 권능과 힘을 지닌 보이지 않는 존재들에게 우리를 지킬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은 우리를 돌보며 지키고 보호합니다."[2]

캐넌 회장님이 가르치신 내용은 얼마나 참됩니까? 저에게 그런 확신이 필요했고, 또 제가 거기에 의지했듯이, 여러분도 이러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누군가가 속죄의 권능을 찾고 느끼게 되길 바라며 신앙으로 기도했습니다. 천사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기를 신앙으로 기도했으며, 그리고 그들은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각 자녀가 구원받을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런 방편은 그들이 무엇을 하든 사랑해 주는 형제자매나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하는 것과 관련될 때가 많습니다.

오래전에 한 친구는 그의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분은 의롭게 사셨고, 늘 주님과 그분의 교회에 충실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손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선택을 하고 말았고, 결국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친구는 할머니께서 손자를 면회하려고 차로 고속도로를 달릴 때 눈물을 글썽이며 고통스러운 기도를 드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손자가 자신의 인생을 파멸해 버리는 이런 비극을 겪게 하시나이까?"

그리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이런 말이 그녀의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든 네가 그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리라는 것을 알았기에 내가 그를 너에게 보냈노라."

우리 모두를 위한 훌륭한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사악해져만 가는 이 세상에서, 사랑을 품은 부모와 조부모, 하나님의 모든 종들의 길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행복에 이르는 길을 선택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선택의지를 주셨기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기로 선택하든, 무엇이 되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가증한 죄까지도 포함하여 모든 죄에 대한 죗값을 구주께서 치르셨습니다. 공의는 분명 있어야 하지만,

공의를 앗아가지 않는 자비의 기회는 주어집니다.

앨마는 그런 소망을 아들 코리앤톤에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공의를 좇아 이 시험의 상태, 참으로 이 예비적 상태에서 사람들이 회개하는 조건 위에서가 아니고는 구속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었나니, 이는 이러한 조건이 아니고는 공의의 일을 폐함이 없이 자비가 효력을 가질 수 없었음이니라. 이제 공의의 일은 폐하여질 수 없으리니,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를 그치시리라."[3]

제 손주들에게, 그리고 영원한 가족을 이루려 노력하는 모두에게 전하는 저의 메시지는 바로, 충실한 이에게는 기쁨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께서는 누가 헤매게 될지를 아셨지만, 그들을 사랑하고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사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영의 세계에서 가르침을 받으며 구원의 계획에 대해 배웠었다는 것을 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들과 여러분은 다른 자들과는 달리 이 세상에 올 만큼 충실했습니다.

성신의 도움으로, 모든 진리가 우리에게 생각나고 되살아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것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보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한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함께하는 기쁨을 느꼈었다는 확신을 통해 우리는 언제나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그 소망과 기쁨을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주

1. 마태복음 22:35~40.
2. George Q. Cannon, "Our Pre-existence and Present Probation," *Contributor*, Oct. 1890, 476.
3. 앨마서 42:13.

댈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우리가 예배한다고 공언하는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다른 우선순위 또는 신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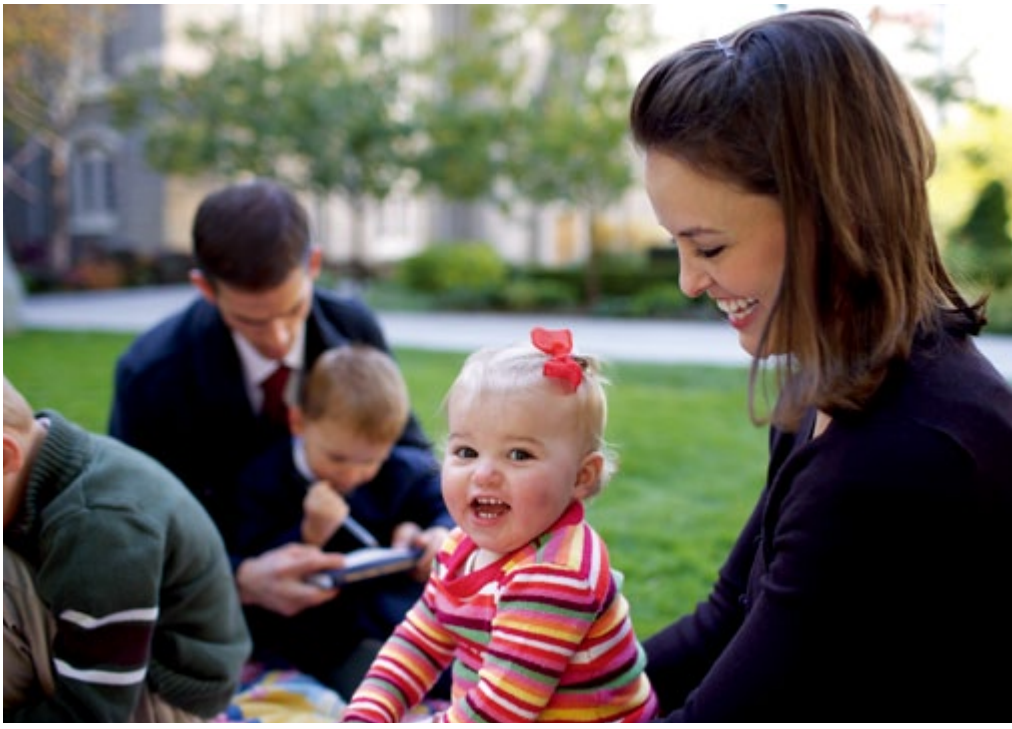
십계명은 기독교와 유대교에서 기본이 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이 계명에서, 처음에 나오는 두 가지는 우리의 예배와 우선 순위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출애굽기 20:3)라고 명하셨습니다. 수 세기 뒤에 예수님은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라는 질문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마태복음 22:36~37)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십계명에서 두 번째 계명은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지침을 잘 설명해 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에서 무엇을 최우선에 두어야 하는지를 알려 줍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출애굽기 20:4) 이 계명에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출애굽기 20:5)는 내용이 덧붙여집니다. 물리적인 우상만 금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근본적인 우선 순위로 무엇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 은혜를 베푸느니라"(출애굽기 20:5~6) 질투는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본래 뜻은 "민감하고 깊게 느낀다"(출애굽기 20:5, 영문 성경 각주 b)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그것을 "섬[기며]" 우선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1]

I.

오늘날, 심지어 종교가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섬[기는]" 다른 우선 순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흔히 접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 문화적 전통 및 가족의 전통
- 편견 없이 말하기(political correctness: 차별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때로는 그에 대한 과도한 반응을 일컫기도 함-옮긴이)
- 사회적 성공에 대한 열망
- 물질적 소유
- 여가 활동 추구
- 권력, 유명세, 명망



해당되는 예가 없다면, 또 다른 예도 들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리입니다. 원리는, 우리에게 어떤 다른 우선 순위가 있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계명에서 제기하는 질문은 "무엇이 우리의 *궁극적인* 우선 순위인가?"입니다. 우리가 예배한다고 공언하는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다른 우선순위 또는 신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가르치신 구주를 따르는 것을 잊으셨습니까?(요한복음 14:15 참조) 만약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흔한 문제인 영적 무관심과 절제되지 않은 탐욕으로 우리의 우선 순위가 뒤죽박죽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II.

후기 성도에게 계명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를 위해 주신 계획, 즉 위대한 구원의 계획에 근거하여 주어진 것이며, 따라서 구원의 계획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위대한 행복의 계획"(앨마서 42:8)으로도 불리는 이 계획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기원과 운명, 즉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왜 이곳에 있고, 어디로 갈 것인지를 알려 줍니다. 또한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명과 구주의 필요성, 필멸의 가족과 영원한 가족의 지극히 중요한 역할을 비롯하여 창조의 목적과 지상 생활의 상태도 설명해 줍니다. 이런 것을 아는 후기 성도가 이 계획에 맞게 우선 순위를 세우지 않는다면, 다른 신을 섬기는 위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그분의 계획을 알기에, 후기 성도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남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 중심의 교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학은 하늘 부모에게서 시작되었고, 가장 큰 소원은 영원한 승영의 충만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이 가족 관계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남녀간의 결혼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데 필수적인 것임을 압니다. 이런 결혼을 통해서만 세상에 태어나기에 합당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가족은 영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은 하나님 계획의 일부이며 그 기회를 받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성스러운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상과 하늘에서 최고의 보물은 자녀와 후손이라고 믿습니다.

III.

가족이 이룰 수 있는 영원한 역할을 알기에, 우리는 역사적으로 기독교 및 유대교 문화권인 수많은 서구 국가에서 출산율과 결혼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현실을 슬퍼합니다. 신뢰할 만한 출처에서 나온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 현재 미국은 역사상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고[2] 유럽의 많은 국가와 다른 선진국의 출산율은 현재 인구를 유지하기도 벅찬 상황입니다.[3] 이런 현상은 문명을, 나아가 국가의 존립까지도 위협하는 수준입니다.
- 미국에서 18~29세 사이인 젊은 성인의 결혼율은 1960년에 59퍼센트였던 것에서 2010년에는 20퍼센트까지 하락했습니다.[4] 현재 초혼 평균 연령은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으로, 여성은 26세, 남성은 거의 29세입니다.[5]
- 많은 국가와 문화권에서 (1) 결혼한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가 있는 전통적인 형태의 가족은 원칙이 아닌 이례적인 사례가 되어 가고 있으며, (2) 결혼해서 자녀를 낳기보다는 사회 경력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수많은 젊은 여성 사이에 팽배해지고 있고, (3) 아버지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이런 추세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분의 모든 자녀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6] 몰몬경의 첫 번째 장에서는 하나님의 "권능과 선하심과 자비하심은 땅의 모든 주민 위에"(니파이전서 1:14)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 뒤에는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해 그의 구원을 거저 주셨으며", "모든 사람이 서로 같은 특권을 가졌나니 아무도 금지 당하지 아니하였[다]"(니파이후서 26:27~28)고 나옵니다. 결국, 경전은 모든 사람을 동정심과 자애, (사랑으로) 대해야 할 우리의 책임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데살로니가전서 3:12, 요한1서 3:17, 교리와 성약 121:45 참조)

IV.

우리는 다른 사람의 종교적 신념뿐 아니라 날로 증가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까지도 존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의 능력을 통해 많은 사람이 우리와 다른 믿음을 따를 것임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종교적 신념을 존중하고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들과는 다른 몇 가지 선택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오직 결혼한 남녀 사이에서만 성적인 관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핵심 요소인 이 영원한 표준을 하나님께서 확립하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필멸의 생명을 창조하는 힘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에게 주신 가장 높은 차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주신 첫째 계명에서 그 능력을 사용하도록 명하셨지만(창세기 1:28 참조) 그것의 남용을 금지하는 중요한 계명도 주셨습니다.(출애굽기 20:14, 데살로니가전서 4:3 참조)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데에서 우리의 생명 창조 능력에 부여된 목적을 이해하기에, 우리는 그토록 순결의 법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남녀가 결혼 관계 밖에서 생명 창조 능력을 사용한다면 어떤 것이든 그것은 죄악이며, 하나님의 자녀를 승영으로 인도하려는 그분의 계획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아담과 이브에서 시작되어 온 시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결혼이라는 행위를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간의 생명 창조 관계로, 또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하나님의 규범으로 보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그토록 순결의 법을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종교적인 교리, 또는 사회를 위해 그것이 최선이라는 의견에 따라, 다른 종파나 단체와 관련된 많은 분이 결혼의 본질과 중요성에 대해 우리와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그분의 계획을 알기에[7], 혼외 관계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점점 증가하여 현재 미국에서 그 비중이 전체 신생아의 41퍼센트에 이르며[8], 결혼하지 않은 채 동거하는 사람들의 수가 과거 반세기 동안 급증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낙담하는 것입니다. 50년 전만 해도 결혼 전에 동거하는 사람의 수는 극히 적었지만, 지금은 60퍼센트에 이릅니다.[9] 또한 이를 허용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십 대들 사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십 대 중 약 50퍼센트가 혼외 관계에서 자녀를 낳는 것을 "문제 없는 생활방식"[10]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V.

수많은 정치적 사회적 압력이 몰려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적 도덕성에 위배되며 결혼과 자녀 출산의 영원한 본질과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합법화하려 합니다. 이러한 압력으로 이미 여러 주와 국가에서 동성 결혼이 허용되었습니다. 성별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하나님의 위대한 행복의 계획을 성취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남녀간의 차이를 없애려 하는 압력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교리를 이해할 때 얻게 되는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그런 행동을 묵과하거나 법률로 정당화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정책과 교리까지도 변경할 수 있는 다른 조직들과는 달리, 우리의 정책은 변경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진리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앙개조 제12조를 보면, 우리는 행정 당국의 지시를 받고 또 "법률을 순종하고

존중하며 지지할 것을 믿는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도덕하다고 하신 것을 인간의 법률이 도덕적인 것으로 만들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우리의 가장 높은 우선 순위를 지키고자 한다면, 그분의 율법을 우리의 행동 표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간음과 사통이 자신이 사는 국가나 주에서는 불법이 아닐 때에도, 우리는 그런 일을 범하지 말라는 신성한 명령을 계속 따릅니다. 마찬가지로, 소위 말하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법도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과 그에 관한 계명, 우리의 표준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또 다른 신과 우선 순위에 절하거나 섬기는 일이 설령 우리가 사는 시대와 장소에 만연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성약 안에 남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결단을 보일 때, 오해를 받거나 편협하다는 비판을 듣고 차별을 겪고 우리의 신앙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으나 그럴 때에도 우리는 견뎌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우리의 첫 번째 우선 순위를 기억하고, 우리 개척자 선조들이 보여 주었던 것과 같은 불굴의 정신으로, 우리 모두 각자의 손수레를 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의 가르침은 이런 상황에 적용됩니다. 27년 전 연차 대회에서 회장님은 담대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의견을 무시할 수 있는 용기, 원리를 고수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용기는 하나님의 승인의 미소를 가져다줍니다. 용기가 남자답게 죽는 자발성만이 아니라, 품위 있게 생활하고자 하는 결심으로 간주될 때 그것 자체가 생활이 되고 아름다운 덕이 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비겁자란 다른 사람들이 부인하거나 또는 조롱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기를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누구나가 두려움에 맞닥뜨리게 되지만, 품위를 가지고 두려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용기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11]

필멸의 생에서 겪는 일시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주께 받은 그 큰 계명과 우선 순위를 잊는 일이 없기를 간구합니다. 세상적인 것들에 우리 마음을 크게 내 주거나 사람의 명예를 갈망한 나머지(교리와 성약 121:35 참조)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을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그분의 계획을 아는 우리에게는, 거기에 참여하겠다고 성약을 맺은 우리에게는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겠다는 우리의 지극히 중요한 소망에서 결코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12]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이자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신들을 두고 섬기지 않으며 그분들보다 다른 것을 앞세우지 않겠다는 우리의 첫 번째 우선 순위를 절대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우선 순위를 이해하고, 현명하고 친절한 방법으로 추구하려 노력할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주

1. 예를 들어 교리와 성약 124:84 참조.
2. Joyce A. Martin and others, "Births: Final Data for 2011," National Vital Statistics Reports, vol. 62, no. 1 (June 28, 2013), 4; Gloria Goodale, "Behind a Looming Baby Bust,"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Weekly*, Feb. 4, 2013, 21, 23 참조.
3. Population Reference Bureau, "2012 World Population Data Sheet," www.prb.org/Publications/Datasheets/2012/world-population-data-sheet/data-sheet.aspx 참조.
4. D'Vera Cohn and others, "Barely Half of U.S. Adults Are Married—a Record Low," Pew Research Center, *Social and Demographic Trends*, Dec. 14, 2011, available at www.pewsocialtrends.org/2011/12/14/barely-half-of-u-s-adults-are-married-a-record-low; "Rash Retreat from Marriage," *Christian Science Monitor*, Jan. 2 and 9, 2012, 34 참조.
5. U.S. Census Bureau, "Estimated Median Age at First Marriage, by Sex: 1890 to the Present," available at www.census.gov/population/socdemo/hh-fam/ms2.xls.
6. 댈린 에이치 옥스, "모든 곳의 모든 사람들에게",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77~80쪽 참조.
7. 댈린 에이치 옥스, "위대한 행복의 계획", *성도의 벗*, 1994년 1월호, 72~75쪽 참조.
8. Martin, "Births: Final Data for 2011", 4 참조.
9. *The State of Our Unions: Marriage in America*, 2012 (2012), 76 참조.
10. *The State of Our Unions*, 101, 102 참조.
11. 토마스 에스 몬슨, "용기는 중요함", *성도의 벗*, 1987년 1월호, 53쪽; 또한 "Messages of Inspiration from President Monson", *Church News*, Aug. 4, 2013, 2 참조.
12. 댈린 에이치 옥스, "의로운 욕망",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42~45쪽 참조.

보니 엘 오스카슨
본부 청녀 회장

돌이키라

매일같이 자신이 참되다고 알고 있는 교리를 계속해서 행하며 계명을 지킬 때 진정한 개종이 이루어집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제 인생의 수많은 영웅들이 거쳐 가신 이 연단에 서는 것이 저를 얼마나 겸손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마음에 느끼는 몇 가지를 특히 청소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선지자이자 전사였던 여호수아는 구약전서에 나오는 위대한 영웅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끄는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1] 여호수아는 물론 우리는 모두 복음 원리대로 의롭게 생활하고 주님과 맺은 성약에 충실할 때, 복음 원리로 개종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저희 가족의 역사에서 찾은 한 영웅의 개종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그네스 호건이란 이름의 이 여성은 남편과 함께 1861년, 스코틀랜드에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고향에서 심한 핍박을 받던 그들은 자녀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몇 년 후, 아그네스는 남편과 사별했고, 여덟 자녀를 먹이고 입히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열두 살 난 딸 이사벨은 운이 좋게도 어느 부유한 비회원 가정에 하녀로 들어갔습니다.

이사벨은 저택에 살면서 그 집의 어린 자녀들을 돌보았고, 그 대가로 매주 엄마인 아그네스에게 약간의 급료가 지급되었습니다. 그들은 곧 이사벨을 가족처럼 대하며 무용 수업도 보내 주고, 예쁜 옷도 입히고, 극장에도 데려가는 등 그 집 자녀들과 같이 많은 것을 누리게 해 주었습니다. 다른 주로 이사하기 전까지 그 가족은4년간 계속 그런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사벨을 매우 좋아하게 되어, 아그네스에게 이사벨을 법적으로 입양하고 싶다며 허락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이사벨이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친자녀들과 똑같이 재산도 상속받게 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계속해서 아그네스에게 돈을 지불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 곤궁한 홀어머니에게는 힘든 결정이었을 테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후에 그녀의 손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딸을 사랑해서이기도 했지만, 그녀의 거절에는 더 큰 이유가 있었다. 머나먼 스코틀랜드에서 이곳까지 와서 온갖 고난과 시련을 감내한 것은 복음을 위해서였고, 그녀는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이 그렇게 힘들게 얻어낸 것을 어떤 자녀도 잃게 하고 싶지 않았다."[2] 그 부유한 가족은 모든 가능한 이유와 주장을 제시했고, 이사벨도 그들과 함께 가게 해 달라고 울며 간청했지만, 아그네스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짐작이 가시겠지만, 열여섯 살이었던 이사벨은 인생이 망가져 버린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사벨 호건은 제 증조할머니이십니다. 저는 고조할머니의 마음에 밝게 타올랐던 간증과 확신에 대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분은 온갖 세상적인 약속에도 딸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현재 수 백 명에 이르는 그녀의 자손들이 교회 회원으로서 축복을 누리고 있으며, 모두 아그네스의 뿌리 깊은 신앙과 복음을 향한 개종의 수혜자입니다.

젊은 친구 여러분, 우리는 험난한 시기에 살고 있으며 여러분이 매일, 심지어 매시간 내려야 하는 많은 결정은 영원한 결과를 좌우합니다. 일상에서 내리는 결정에 따라 훗날 일어날 일들이 정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굳은 간증과 확신이 아직 없다면, 지금이 바로 그러한 확신을 얻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한 확신을 얻기 위한 노력을 미룬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개종은 복음 원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 이상이며, 복음 원리에 대한 간증을 갖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복음에 대한 간증은 있지만, 그에 따라 생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개종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바대로 행하여 "우리 안에, 곧 우리 마음 가운데 큰 변화를 이루[게]"[3]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충실함* 소책자에서 우리는 "개종은 과정이지 사건이 아니[며] 여러분은 구주를 따르려는 의로운 노력의 결과로 개종된다."[4]고 배웁니다. 개종하려면 시간과 노력과 실행이 필요합니다. 제 고조할머니는 세상이 부와 안락함이란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자녀들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강한 확신이 있으셨습니다. 그런 확신은 그분이

희생하고 견디며 복음에 따라 살아오신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분은 복음 원리에 따라 생활하고 그 원리를 위해 희생함으로써 확신을 얻으셨습니다.

그와 같은 결의를 얻고 싶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구주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5]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 일을 거꾸로 하려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기쁘게 십일조의 법을 지키겠지만 우선 이것이 참된지부터 알아야겠어.' 어쩌면 우리는 아직 헌금 명세서를 쓰지도 않았으면서 십일조의 법에 대한 간증을 얻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그런 간증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건 제대로 된 방식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신앙을 행사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십일조에 대한 간증을 얻으려면, 지속적으로 온전하고 정직한 십일조를 바쳐야 합니다. 이 방식은 순결의 법, 정숙한 복장의 원리, 지혜의 말씀이나 금식의 법 등 복음의 모든 원리에 적용됩니다.

원리를 실천할 때 어떻게 복음 원리로 개종하게 되는지를 보여 주는 한 예를 들겠습니다. 1960년대에 저는 당시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유일한 교회 회원이었습니다. 그때는 전통적인 도덕률을 거부하고, 마약을 하고, "내키는 대로 하라"는 식의 사고가 만연한 격변기였습니다. 많은 제 친구들은 좋은 아이들이었지만 이 새로운 도덕률의 흥분에 쉽게 빠져들었습니다. 새로운 도덕률이란 실은 기존의 부도덕에 불과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교회의 교사들은 자기 몸을 존중하여 다루고,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계명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의 가치를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음주가 예상되는 상황을 피하고 담배와 마약을 멀리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개 파티에 끼지 못했고 데이트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마약은 점점 더 일상화되었는데, 당시에는 그 위험이 지금만큼 잘 알려져 있지도 않았습니다. 후에 많은 친구들이 환각성 약물로 영구적인 손상을 입거나 심각한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가정에서 지혜의 말씀에 따라 살도록 가르침 받은 것에 감사했고, 신앙을 행사하고 그에 따라 행함으로써 그 복음 원리에 대한 깊은 간증을 얻었습니다. 성신은 제가 참된 복음 원리를 실천할 때 좋은 느낌을 주심으로써 그 원리가 참되다는 것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진정한 개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몰몬경의 선지자 모로나이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신앙이란 비록 보이지 아니하나 바라는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보이지 않는다 하여 이를 논박하지 말지니, 너희의 신앙이 시련을 겪기까지는 너희가 증거를 받지 못함이니라."[6] 순간의 만족을 좇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종종 노력도 하지 않고 상을 바라는 오류를 범합니다. 저는 모로나이의 이 말이 우리가 먼저 할 일을 다 하고 복음을 실천함으로써 신앙을 행사해야 하며, 그렇게 할 때에야 비로소 그것이 참되다는 간증을 얻게 된다는 뜻이라고 믿습니다. 매일같이 자신이 참되다고 알고 있는 교리를 계속해서 행하며 계명을 지킬 때, 진정한 개종이 이루어집니다.

이 시대에 이 교회의 청소년이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청소년 교과 과정 *와서 나를 따르라*에 참여하는 첫 세대입니다. 이 교재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청소년 지도자들이 아무리 영감에 가득 찬 사람들일지라도 "우리 모두는 자신의 개종에 대해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고] 아무도 우리 자신을 위해 개종될 수 없으며, 우리가 개종되도록 강요할 수도 없다."[7]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개종은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하고, 교회에 참석하고, 성전 의식에 참여하기에 합당할 때 이루어집니다. 개종은 순수하고 정결한 삶을 살며 성신과 동반할 때 이루어집니다. 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이해하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이자 구속주로 인식하며 속죄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게 할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개종은 성전에서 성약을 맺고, 선교사로 봉사하고, 미래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 준비할 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개종할 때, 배운 것을 나누려는 열망이 생기고, 확신과 힘을 가지고 간증하는 자신감과 능력이 커질 것입니다. 복음을 다른 이들과 나누려는 이 열망과 담대히 간증하는 자신감은 진정한 개종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물입니다. 구주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8]고 가르치셨습니다.

선지자이자 전사였던 여호수아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개종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데려가기 위해 평생 지치지도 않고 노력했습니다. 구약전서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 여호와를 섬겼더라"[9]라고 나옵니다. 진정으로 개종한 사람은 속죄의 권능에 의지하고, 영혼에 구원을 받고, 자신이 아는 모든 사람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자 노력합니다.

복음에 따라 생활하고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이 항상 쉽거나 편한 것만은 아니지만, 그것은 가치있는 일임을 간증드립니다! 주님은 에머 스미스에게 "이 세상의 것들을 제쳐 두고 더 나은 것을 추구[하라고]"[10] 권고하셨습니다. "더 나은 것"들로 이루어진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며, 그분은 복음대로 생활하고 개종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를 돕고 축복하기만을 무엇보다도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우리의 "불멸과 영생"[11]이 그분의 목적이자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면전으로 다시 데려가고 싶어 하십니다. 복음 교리를 행하고 매일의 생활에 적용할 때, 우리가 개종하고 가정과 세상에서 많은 선을 행하는 방편이 될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우리 모두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매일 노력할 때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주

1. 여호수아 24:15.
2. Fuschia Stringham, "Sketch of the Life of Isabelle Hunter Hoggan Stringham" (unpublished personal history, 1934), 4.
3. 모사이야서 5:2.
4. *신앙에 충실함*(2004), 14쪽.
5. 요한복음 7:17.
6. 이더서 12:6.
7. *신앙에 충실함*, 15쪽.
8. 누가복음 22:32.
9. 여호수아 24:31.
10. 교리와 성약 25:10.
11. 모세서 1:39.

리차드 제이 메이너즈 장로
칠십인 회장단

견뎌 낼 힘

의롭게 끝까지 견디는 능력은 우리의 간증과 개종 정도에 직접적으로 연관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인생의 도전으로 가득한 새로운 날이 시작됩니다. 도전에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신체적,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관계에서 생기는 시련, 감정에 관한 시련, 신앙과 관련한 시련도 있습니다.

인생에서 직면하는 많은 도전은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시련은 이해하기 어렵고 극복이 불가능하며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평생 계속되기도 할 것입니다. 해결 가능한 시련은 잠시 견디고, 해결할 수 없는 시련은 계속 견뎌가면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발전시킨 영적인 힘은 삶의 모든 시련을 견뎌 내는 힘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지상 생활을 계획하셔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 배워야 할 것들을 각자 배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인생에는 이 원리를 잘 설명해 주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선지자 조셉과 몇몇 동료들은 여러 달 동안 미주리 주 리버티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고생하는 동안 선지자 조셉은 성도들이 겪는 고통을 덜어 주시도록 주님께 겸손히 기도로 간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님이 선지자 조셉과 우리 모두에게 주신 가르침은 바로 우리가 겪는 시련을 잘 견뎌 내면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유익이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조셉의 간청에 대해 주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네 영혼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역경과 네 고난은 잠시 뿐이리니,

그러고 나서 만일 네가 이를 잘 견디어내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들어 올리실 것이요"[1]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성품을 시험하는 시간으로서 이 인생이란 여정을 계획하셨습니다. 우리는 선과 악 두 가지 모두의 영향력에 노출되어 있으며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도덕적 선택의지도 받았습니다. 고대 몰몬경의 선지자 사무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는 자유롭고 스스로 행하는 것이 허락되었음이니, 이는 보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식을 주시고 너희를 자유롭게 하셨음이니라."[2]

우리의 필멸성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옳고 의로운 선택만을 하지는 않을 것임을 하나님 아버지도 아셨습니다. 불완전하기에, 실수를 저지르기에, 그분 면전으로 돌아가려면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모범, 속죄 희생을 통해 주어집니다. 구주의 속죄 희생은 회개의 원리를 통해 미래에 구원과 승영을 받는 일을 가능하게 해 줍니다. 정직하게,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우리는 속죄를 통해 정결하게 되고, 우리의 본성을 바꾸고, 시련을 잘 견뎌 낼 수 있습니다.

인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에서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미래는 의롭게 견디는 우리의 능력에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니파이후서 31장에서 선지자 니파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것과 동일한 구원 의식인 침례를 받고 그런 다음 성신의 은사를 받은 후,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힘써 앞으로 나아가되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며 끝까지 견딜진대, 보라, 이같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하시느니라."[3]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축복 중 가장 위대한 축복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필요한 의식을 모두 받고, 그에 수반된 성약을 계속 지켜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반드시 성공적으로 견뎌야 합니다.

의롭게 끝까지 견디는 능력은 우리의 간증과 개종 정도에 직접적으로 연관됩니다. 간증이 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진정으로 개종했다면, 우리는 성신의 인도에 따라,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는, 또한 의롭게 견디려는 우리의 소망을 뒷받침하는, 그러한 선택을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간증이 약하고 우리의 개종이 피상적인 것에 그친다면, 세상의 그릇된 전통에 이끌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위험성이 더 커질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견디는 데 필요한 노력에 대해 알 수 있는 저의 경험 한 가지를 전하면서, 그것을 영적으로 견디는 데 필요한 노력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선교 사업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저는 한 캘리포니아 소재 대학에서, 작가로도

활동하시는 존경받는 농구 감독님의 팀에 들어갔습니다. 이 감독님은 농구 시즌이 다가올 때면 선수들에게 체력을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체육관에서 농구공을 만져보기도 전에 우리는 학교 근처 언덕의 크로스컨트리 구간을 매우 짧은 시간 내에 달리기로 주파하는 훈련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선교 사업에서 돌아오자마자 이 훈련을 받았던 때가 생각납니다. 정말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감독님이 정하신 목표를 달성하게 될 때까지, 몇 주에 걸쳐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구간을 다 뛰었을 뿐 아니라 결승선까지 더 빨리 달릴 수 있게 되었을 때는 굉장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농구를 잘하려면, 강인한 신체가 필수입니다. 최상의 몸 상태를 만들려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 대가는 헌신, 인내, 자기 수양입니다. 영적인 인내 역시 똑같은 대가가 필요합니다. 즉, 헌신, 인내, 자기 수양이 필요합니다.

간증을 계속 지속시키려면, 몸처럼 단련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간증을 강인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저 텔레비전으로 농구 경기만 본다고 해서 훌륭한 농구 선수의 몸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텔레비전으로 그저 연차 대회를 보기만 해서는 간증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기본 원리를 공부하고 배워야 하며, 그 원리에 따라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오래도록 지속될 간증을 쌓는 방법입니다.

삶에서 역경에 부딪힐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닮고 싶을 때, 관건은 영적인 준비입니다. 영적으로 준비된다는 것은 영적인 활력 또는 힘을 발전시킨다는 뜻입니다. 즉, 영적으로 강건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옳은 것을 선택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강해질 것입니다. 복음대로 살겠다는 소망과 능력이 확고해질 것입니다. 한 무명의 저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강물에 쓸려가지 않는 바위가 되라."

시련은 매일 있는 것이기에, 매일 영적인 힘을 기르고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활력을 키우면 세상의 그릇된 전통도, 우리가 매일 겪는 개인적인 시련도, 의롭게 견디려는 우리의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영적인 힘의 위대한 모범은 여러분의 가족 역사에도 있을 것입니다. 조상들이 남긴 많은 일화에서 인내의 긍정적인 속성을 보여 주는 본보기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가족의 역사에도 그 원리를 잘 보여 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증조부이신 조셉 왓슨 메이너즈는 1856년에 영국 요크셔 헐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의 가족은 영국에서 개종했고, 그 후에 솔트레이크시티로 이주했습니다. 증조부는 1883년에 에밀리 킵과 결혼하여 여덟 자녀를 두셨습니다. 1910년 6월, 그분은 53세의 나이에 전임 선교사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아내와 여덟 자녀의 지원을 받으며, 그분은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해 고향인 영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충실하게 봉사하며 보낸 시간이 2년 정도가 되었을 무렵, 증조부는 영국 글로스터에서 동반자와 자전거를 타고 주일학교로 가던 중 자전거 바퀴가 터졌습니다. 그분은 자전거에서 내려서 상태를 살폈습니다. 손상이 꽤 심각한 것을 알게 된 증조부는 고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 동반자에게 먼저 가서 주일학교

조셉 왓슨 메이너즈(오른쪽)와 그의 동반자였던 길핀 에스 울리

모임을 시작하고 있으면 곧 뒤따라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마치고서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증조부는 갑자기 심장마비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조셉 왓슨 메이너즈는 그렇게, 살아서는 아내와 여덟 자녀를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시신은 솔트레이크시티로 돌아왔고, 옛 워털루 어셈블리 홀에서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장례식에서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의 앤소니 더블유 아이빈스 장로님이 하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삶, 죽음, 인내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죽음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부활할 수 있다는 희망 말입니다. …… 이것은 [조셉 메이너즈]에게도 해당됩니다. …… 사람이 의로움과 신앙 안에서, 신앙에 충실한 가운데 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아는 것은 기쁘고 만족스러우며 행복해할 만한 일입니다."[4]

이 일화를 생각할 때면, 인내와 영적인 힘에 관한 증조할아버지의 모범을 따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남편을 잃고 틀림없이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했을 그분의 아내, 에밀리 할머니의 신앙에서도 그런 자극을 받습니다. 증조할머니는 여덟 자녀를 키우며 신앙에 충실하게 여생을 보내셨을 만큼 간증이 강하고 완전하게 개종한 분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5]고 말했습니다. 이 지상에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는 장애물로 가득한, 인내의 경주입니다. 이 경주에서 장애물이란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겪게 되는 시련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경주를 하기 위해, 우리의 도덕적 선택의지를 행사하기 위해, 옳고 그른 것 사이에서 선택하기 위해 지상에 왔습니다. 영예롭게, 성공적으로 경주를 마치고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는 헌신, 인내, 자기 절제라는 대가를 바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단련해야 합니다. 영적인 힘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개종으로 이끄는 강한 간증이 필요하며,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시련이든 견딜 수 있는 평안과 힘을 우리 내부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맞게 될 도전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도움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힘을 발전시킨다면, 경주가 끝날 즈음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한 사도 바울처럼 확신에 차 있을 것입니다.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6]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위대하고 영원한 행복의 계획이 실재하며 이 계획으로 지금 우리가 이 지상에 있게 된 것이라는 간증을 전합니다. 견뎌 내는 내적인 힘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주님의 영이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교리와 성약 121:7~8.
2. 힐라맨서 14:30.
3. 니파이후서 31:20.
4. Anthony W. Ivins, Richard Watson Maynes 장례식에서 전한 말씀 (메이너즈 가족 개인 기록)
5. 히브리서 12:1.
6. 디모데후서 4:6~8.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개인적으로 얻는 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깨끗해질 수 있으며, 우리 죄의 짐은 들어올려질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아이다호 주에서 아주 인상깊은 청소년들을 만나 보는 감사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숙해 보이는 한 청녀가 제게 질문을 했는데, 청소년들이 지금 즉시 하길 바라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힘을 생활 속에서 깨닫는 법을 배우도록 제안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 힘의 한 측면을 다루고 싶은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개인적인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몰몬경에는 "거칠고 완악하며 흉포한 백성"[1]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암몬과 그 형제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백성 중 많은 수가 개종했으며, 그들은 죄가 되는 행동들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개종은 아주 완전해서, 마침내는 자신들의 무기를 땅에다 묻고 다시는 그것을 들지 않겠다고 주님과 성약을 맺었습니다.[2]

후에 개종하지 않은 그들의 많은 형제들이 이들을 공격하여 살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신앙이 충만한 사람들이 된 이 백성은 무기를 들어 영적인 생명을 위태롭게 하기보다는 칼 앞에 목숨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 의로운 모범에 더 많은 사람이 개종하게 되었고, 그들도 전쟁 무기를 내려놓게 됩니다.[3]

주님은 암몬을 통해 그들을 니파이인이 있는 지역에 터를 잡게 하셨으며, 이들은 암몬 백성으로 불립니다.[4] 오래도록 이들은 니파이인들의 보호를 받았으나 나중에는 결국 니파이 군대가 약화되면서 병력 증강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 오고 맙니다.[5]

암몬 백성의 영적 삶에 중대한 고비가 찾아온 것입니다. 다시는 무기를 들지 않겠다는 성약을 충실히 지켜 왔지만, 가장에게는 가족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6] 성약을 깨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상황이 위중해 보였습니다.[7]

그들의 현명한 신권 지도자인 힐라맨은 주님과 맺은 성약을 깨뜨리는 것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영감 어린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힐라맨은 그들의 아들들은 아버지들과 같은 죄를 지은 적이 없기에 그와 같은 성약을 맺을 필요도 없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8] 아들들은 아직 어렸으나 신체적으로 강건했으며, 더욱이 그들은 정결하고 순결했습니다. 아들들은 그들의 어머니들의 신앙으로 강화되어 있었습니다.[9] 이 청년들은 선지자였던 지도자의 지휘 하에 아버지들을 대신하여 가족과 가정을 지키는 임무를 짊어졌습니다.[10]

이 중대한 결정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어떻게 개인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과거의 죄로 정작 필요한 때에 아내와 자녀들을 보호하지 못하게 된 것을 깨달았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제 아들들이 이 잔혹한 행위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알고서 그들은 틀림없이 남몰래 슬피 울었을 것입니다. 가족을 보호해야 할 사람은 자식이 아니라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11] 그들의 슬픔은 참으로 컸을 것입니다.

왜 그들의 영감받은 신권 지도자는 아버지들이 무기를 다시 듦으로써 "그들이 그 영혼을 잃게 될까"[12] 두려워했을까요?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자기 죄를 회개한 자, 그는 용서받으며, 나 주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13] 이 충실한 아버지들은 이미 오래 전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깨끗하게 되었는데도 왜 가족을 지키는 일에 나서지 말라는 권유를 받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은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우리는 정결하고 순결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그 대가가 오래 지속될 때도 있습니다. 완전한 회개로 가는 중요한 단계 가운데 하나는 바로 과거에 범한 죄의 결과를, 그것이 아무리 오래 지속되더라도 짊어지는 것입니다. 이 암몬인 아버지들은 과거 그릇된 선택을 해 보았기에, 다시 세상적인 욕망에 빠져서 사탄이 쉽게 조종할 수 있을 만큼 약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사탄은 자신의 영향력 안으로 우리를

끌어들이기 위해 이전의 죄에 대한 기억을 이용하려 합니다. 사탄의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충실한 암몬인 아버지들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오랜 세월 동안 과거에 맺은 성약에 충실하게 살아 왔지만, 과거의 죄에 대한 기억에 이끌리지 않도록 자신을 영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수많은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모로나이 대장은 가장 취약한 성들을 강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들로 웅덩이의 안쪽 둑 위에 목재로 흉벽을 만들게 하매, 그들이 목재로 된 흉벽에 대하여 웅덩이로부터 흙을 던져 쌓아 올렸으니 …… 이윽고 목재와 흙으로 된 심히 높은 견고한 성벽으로 …… 성 주위를 두르기까지 한지라."[14]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취약한 지역을 강화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을 모로나이 대장은 잘 알았던 것입니다.[15]

암몬인 아버지들의 상황은 그와 상당히 비슷했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삶과 과거의 불의한 행동 사이를 가로막는 진지를 더 높고 넓게 구축해야 했습니다. 의로운 전통 속에서 살았던 아들들은 똑같은 유혹에 그 정도로 취약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복리를 해치지 않고도 가족들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약점과 죄를 다르게 보십니다. 이것은 과거의 그릇된 선택이 낳은 결과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주님은 회개하지 않고 반항할 때에는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시면서도[16], 약점은 언제나 자비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17]

암몬인 아버지들은 그들의 부모에게서 잘못된 전통을 가르침 받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가 그리스도의 빛을 갖고 지상에 온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행위의 원인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 영향으로 영적인 취약성이 커지게 되는데, 사탄은 바로 그 점을 노리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들은 복음을 배우고 회개했으며, 사탄의 유혹을 뛰어넘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영적으로 강건해졌습니다. 또다시 잔악했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자신들의 선지자인 지도자를 따름으로써 사탄에게 "영혼을 속여, 조심스럽게 그들을 인도하여 지옥으로 내려가[게]"[18] 만들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주의 속죄를 통해 죄에서 깨끗해졌을 뿐만 아니라 신권 지도자의 권고에 순종했기에 약점을 파고드는 사탄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강화되었습니다. 죄를 버리기 위해 평생 기울여 온 겸손한 노력은 그들이 전쟁터에서 할 수 있는 그 어떤 일보다도 더 훌륭하게 가족을 지켜냈습니다. 그 굴복으로 축복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강건해지고 축복을 받았으며 또한 수많은 후세를 축복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에서 우리는 주님의 자비가 어떻게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되게"[19] 하는지를 배웁니다. 이 충실한 아버지들은 아들들을 힐라맨의 지휘 아래 전장으로 보냈습니다. 아들들은 격렬한 전투를 치르면서 일부 부상을 당하기는

했지만, 목숨을 잃은 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20] 이 청년들이 지쳐 있던 니파이인 군대에 큰 힘이 되었을 것은 자명합니다. 그들은 충실했으며, 영적으로 더욱 강건해져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축복받고, 보호되고, 강화되었습니다.[21] 이 순수하고 의로운 아들들의 모범은 몰몬경을 공부하는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살다보면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서 얻을 수 있는 구속의 권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죄가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무릇 나 주는 죄를 털끝만큼도 묵과할 수 없느니라."[22] 주님과 같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아시기에,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성품 면에서 결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우리도 암몬인들처럼 자신과 과거의 실수 사이에 영적인 요새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호시탐탐 노리는 그 약점 부분에 말입니다. 암몬인 아버지들 주위에 세워진 영적인 방벽은 그들 자신과 가족, 조국과 후세대에까지 축복이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원한 요새를 어떻게 구축해야 할까요? 우선, 진지하고 철저하고 완전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깨끗해질 수 있으며, 우리 죄의 짐은 들어올려질 것입니다. 회개는 형벌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회개는 더 영광스러운 미래로 이어지는 희망 가득한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약점과 강점 사이에 요새를 구축할 수 있도록 방편을 주셨습니다. 다음 제안을 생각해 보십시오.

- 성약을 맺고 자신을 위한 의식을 받으십시오. 그런 후에는 자신의 조상들을 위한 성전 의식을 받고자 꾸준히 지속적으로 노력하십시오.
- 비회원이나 저활동인 가족 회원, 또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진리를 나누면 삶에 새로운 활력이 생길 것입니다.
- 교회의 모든 부름, 특히 가정 복음 교사와 방문 교사 부름에 충실하십시오. 한 달에 15분간만 방문하는 가정 복음 교사와 방문 교사는 되지 마십시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길을 내미십시오. 그들과 개인적으로 친해지십시오. 진정한 친구가 되십시오. 친절한 행위를 통해 그들 한 명 한 명에게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십시오.
- 다른 무엇보다도 자신의 가족을 위해 봉사하십시오. 배우자와 자녀의 영적인 발전을 최우선 목표로 두십시오. 서로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지 더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의 시간과 사랑을 아낌없이 베푸십시오.

앞서 드린 제안에는 한 가지 공통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타인을 위한 봉사로 삶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위한 봉사에 여념이 없는 삶을 산다면[23], 사탄의 유혹이 접근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그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대개 우리는 잘못된 선택 때문에 부담감을 느끼지만, 누구라도 주님의 용서와 자비, 힘을 통해 고양시키는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느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그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앨마서 17:14; 또한 앨마서 17~27장 참조.
2. 앨마서 23:4~7; 24:5~19 참조.
3. 앨마서 24:20~27 참조.
4. 앨마서 27장 참조.
5. 앨마서 53:8~9; 56:10~17 참조.
6.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참조.
7. 앨마서 53:10~13 참조.
8. 앨마서 53:14~16 참조.
9. 앨마서 56:48 참조.
10. 앨마서 53:17~22; 56:3~10, 30~57 참조.
11.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참조.
12. 앨마서 53:15.
13. 교리와 성약 58:42.
14. 앨마서 53:4.
15. 이더서 12:27 참조.
16. 사무엘상 12:15; 이사야 1:20; 니파이전서 2:23; 모사이야서 15:26; 앨마서 9:24; 교리와 성약 76:25; 모세서 4:3 참조.
17. 잠언 28:13; 고린도전서 2:3, 15:43; 고린도후서 13:4; 야고보서 3:17; 니파이후서 3:13; 야곱서 4:7; 앨마서 34:17; 제3니파이 22:8; 이더서 12:26~28; 교리와 성약 24:11, 35:17, 38:14, 62:1 참조.
18. 니파이후서 28:21.
19. 이더서 12:27.
20. 앨마서 57:25; 58:39 참조.
21. 앨마서 58:40 참조.
22. 교리와 성약 1:31.
23. 마태복음 16:25; 교리와 성약 88:125 참조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아버지는 …… 헤쳐 나가야 할 시련을 이겨 낼 때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며 강인해진다는 것을 아십니다.

오늘 밤 저는 일지에 이렇게 적을 것입니다. “이번 대회는 지금껏 내가 참석한 그 어느 연차 대회보다도 영감에 찬 대회였다. 모든 것이 가장 훌륭하고 영적이었다.”

형제 자매 여러분, 6개월 전에 우리가 연차 대회에서 모임을 하는 동안 제 사랑스러운 아내 프랜시스는 며칠 전에 크게 넘어지는 사고를 당해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내는 여러 주 동안 그 부상을 이겨 내려고 용감히 맞섰지만 5월에 영원 속으로 잠들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내를 잃게 되어 상실감이 컸습니다. 아내와 저는 1948년 10월 7일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했습니다. 내일이 65번째 결혼기념일입니다. 아내는 제 인생의 사랑이자 충실한 동반자였고, 가장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단지 그립다는 말로는 이 통렬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이번 연차 대회는 제가 데이비드 오 멕케이 회장님에게서 십이사도로 부름받은 지 50년째가 되는 대회입니다. 그 긴 세월을 지나오는 동안 제 사랑스러운 동반자는 완전하고도 충실하게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제가 부름을 수행하도록 아내는 헤아릴 수 없는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임무로 아내와 자녀들을 며칠, 때로는 몇 주간 떨어져 지내야 할 때도 절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말 그대로 천사였습니다.

아내 프랜시스가 세상을 떠난 후, 놀라울 정도로 쏟아부어 주셨던 여러분의 사랑에 대해 저와 제 가족의 고마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내에게 보내는 찬사와 저희 가족에게 보내는 애도의 글을 담은 수백 장의 카드와 편지가 전 세계에서 날아왔습니다. 수십 개의 아름다운 화환도 받았습니다. 아내의 이름으로 교회의 일반 선교사 기금에 수많은 헌금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아내는 떠났지만, 남은 가족들을 대신해서 여러분의 친절하면서도 진심 어린 사랑의 표현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아내와 떨어져 지내야 하는 슬픈 시기에 가장 큰 위안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간증과 제 사랑스러운 아내 프랜시스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있다는 지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이별의 순간은 잠시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땅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맬 수 있는 권세를 지닌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집에서 인봉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다시 만나리라는 것과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압니다. 그 지식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고통이나 슬픔에서 면제받은 삶을 산 적이 없었고, 또한 인류 역사상 큰 동요나 비극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는 없었다고 말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삶의 여정에 잔인한 시기가 찾아 들면,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유혹이 들게 됩니다. “왜 나지?” 때로는 그 터널 끝에는 빛도 없고, 밤의 암흑을 물리칠 태양은 떠오르지 않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산산조각 난 꿈과 사라져 버린 희망으로 절망하여 실망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온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며 간청합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1] 버림받았다고 느끼며 애통해하고 외로워합니다. 개인적인 불행을 비관주의라는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기다리지 못해 안절부절못하고, 종종 그런 일에는 하늘의 덕성인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잊어 버립니다.

그러한 난제가 찾아 들면, 우리의 인내력은 진정한 시험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모두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비틀거리며 넘어질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잘 해낼 것인가?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없다고 생각하며 쓰러져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끝까지 잘 해 내려면 인생의 종착지까지 인내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사건들을 생각해 볼 때, 고대에 욥이 했던 말이 딱 맞아들어갑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2] “온전하고 정직[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3]

였습니다. 행실이 훌륭했으며 경제적으로도 번성했던 욥은 그 누구도 파멸할 수밖에 없을 시험에 처하게 됩니다. 소유물을 빼앗기고, 친구들에게 비난당하며, 극심한 고통을 겪고, 가족들을 잃어 비탄에 빠진 욥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4]라는 말까지 듣습니다. 욥은 그 유혹을 이겨 내고 자신의 고귀한 영혼 깊숙한 곳에 있던 이 말을 선언합니다.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5]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6]

욥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앞으로 닥칠 어려움 앞에서 우리도 그와 같이 하겠습니까?

삶이 송두리째 흔들려 그 무게에 짓눌린 듯 느껴질 때,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길을 지나갔고 인내했으며 마침내는 이겨 냈다는 점을 기억합시다.

이 때가 찬 경륜의 시대의 교회 역사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굳건히 남아 힘을 냈던 사람들의 일화로 가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우리의 여정에 무엇이 닥치든 간에 우리를 이끌고 지탱해 줄 힘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난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지만, 우리는 그 현실에 굳건히 맞서며 정면 돌파하여 승리를 거머쥘 수 있을 것입니다.

고통의 침대에서, 눈물로 젖은 베개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신성한 확신과 소중한 약속으로 눈을 하늘로 돌립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7] 이보다 더 소중한 위로가 어디있겠습니까.

세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부름에 따른 책임을 수행해 오면서 저는 슬픔과 고통은 보편적으로 존재한다는 것과 함께 또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슬픔을 겪고, 병으로 고통받고, 이혼 과정 중이거나 엇나간 아들딸로 시련을 겪고, 죄의 결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방문할 때면,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탄과 슬픔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하나 열거하자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문제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 단 하나의 예를 꼽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저는 고난에 대해 생각할 때면 어린 시절 저의 주일학교 교사셨던 브렘스 형제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분은 교회의 충실한 회원으로 마음이 고결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과 아내 사디 자매님에게는 여덟 자녀가 있었는데, 대부분이 저희 가족의 형제자매들과 같은 연령대였습니다.

프랜시스와 제가 결혼을 하고 다른 와드 지역으로 이사를 간 후에는 결혼식과 장례식, 와드 회원 재회 모임 등에서 브렘스 형제님과 자매님과 그들의 가족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브렘스 형제님은 1968년에 사디 자매님을 잃으셨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여덟 자녀 중 두 사람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거의 13년 전 어느 날, 브렘스 형제님의 큰 손녀가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손녀는 제게 할아버지가 105번째 생신을 맞이하셨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작은 요양원에 계시는데 매주 온 가족과 만나서 복음 공과를 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할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이번 주에 죽을 것 같구나. 토미 몬슨에게 전화를 해 주겠니? 무얼 해야 할지 잘 아실 게다.'"

다음 날 저녁에 저는 브렘스 형제님을 찾았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뵙는 것이었습니다. 형제님은 청력을 잃으셨기에 저는 어떤 말도 해 드릴 수 없었습니다. 시력 역시 잃으셔서 글로 무언가를 적어 보여 드리는 일도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가족들이 할아버지의 오른손 손가락으로 왼손 손바닥에다 찾아온 사람의 이름을 적어 대화를 나눈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말들도 그렇게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 방법대로 그분의 손가락을 잡아 "토미 몬슨"이라고 한 자 한 자 적어 드렸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저를 그 이름으로 기억하셨습니다. 브렘스 형제님은 신이 나셔서 제 손을 잡으시고는 그분의 머리에 얹어 놓으셨습니다. 신권 축복을 받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저는 요양원까지 데려다 주었던 운전 기사분과 함께 브렘스 형제님의 머리에 손을 얹어 그토록 바라시던 축복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자 시력을 잃은 양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분은 감사해하시며 우리 손을 꼭 잡아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드린 축복의 말씀을 듣지 못하셨어도 영은 강하게 임했으며, 저는 형제님이 영감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축복을 우리가 전했다는 것을 아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정한 형제님은 더는 아무것도 보실 수 없었습니다. 더는 들으실 수도 없었습니다. 요양원의 작은 방에 밤이고 낮이고 갇혀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웃는 얼굴과 그분이 하신 말로 제 마음에는 물결이

일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고마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정말 잘 대해 주셨지."

브렘스 형제님은 스스로 예측하신 것처럼 한 주가 안 되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에게 부족했던 것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많은 축복에 대해 언제나 깊이 감사드렸습니다.

기뻐할 만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또한 헤쳐 나가야 하는 시련을 이겨 낼 때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며 강인해진다는 것을 아십니다. 가슴이 에이는 슬픔을 경험하거나 비탄에 젖거나 극한까지 시험받는 시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으로 우리는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는 방법으로 삶을 재편하여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즉, 전보다는 더 나아지고, 더 이해력이 커지며, 더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더 큰 간증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햇빛과 슬픔 속을 헤쳐 나갈 때 참고 인내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더 정화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극복해야 할 어려움이나 풀어야 할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전과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우리의 목표인 영생을 향해 거의, 또는 조금도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시인은 다음과 같은 글귀로 비슷한 생각을 표현했습니다.

훌륭한 재목은 쉽게 자라지 않지,
바람이 거셀수록 더 강인해지는 나무.
하늘이 높을수록 더 높이 자라고,
폭풍우가 몰아칠수록 힘은 더 강해지니.
햇빛, 추위, 비와 눈에
훌륭한 재목이 되어 가는 나무와 사람.[8]

우리의 선생님이신 구주만이 우리의 시련과 아픔, 고통의 깊이를 아십니다. 역경의 시기에 영원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그분뿐이십니다. 우리의 상한 영혼을 위안의 말씀으로 어루만져 주실 분은 그분뿐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9]

가장 좋을 때에도, 제일 힘들 때에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그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서, 또는 삶에 위기가 닥쳐올 때 썰물과 같이 변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기억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분께 우리의 신앙과 신뢰를 드리기 위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그렇게 하기 위해 매일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햇빛이 비치든 비가 오든 우리는 참으로 매 순간 그분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약속이 언제나 우리의 좌우명이 되게 합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10]

제 영혼의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분의 독생자는 이 지상에서 거하시다가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삶의 어둠을 환히 밝히는 빛이 됨을 간증드립니다. 복음이 언제나 그런 빛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주

1. 예레미야 8:22.
2. 욥기 5:7.
3. 욥기 1:1.
4. 욥기 2:9.
5. 욥기 16:19.
6. 욥기 19:25.
7. 여호수아 1:5.
8. Douglas Malloch, "Good Timber," Sterling W. Sill, *Making the Most of Yourself* (1971), 23에서 인용.
9. 마태복음 11:28~30.
10. 여호수아 1:5

쿠엔틴 엘 쿡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예레미야애가: 속박을 조심하라

우리의 과제는 모든 종류의 속박을 피하고, 주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모으시도록 돕고,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 희생하는 것입니다.

신혼 시절, 아내 메리와 저는 가능한 한 자주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신중하게 쓰고 싶었습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아내는 분명히 제가 운동 경기를 너무 많이 보러 다니자고 할 것으로 생각해 협상안을 내놓았습니다. 경기 하나를 볼 때마다 뮤지컬, 오페라, 혹은 문화 공연을 두 번 보자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오페라를 보러 가자고 하는 게 내키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특히 주세페 베르디[1]의 오페라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베르디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는 주입니다.

젊었을 때 베르디는 선지자 예레미야에 마음이 끌렸고, 28세였던 1842년에 자신이 작곡한 오페라 나부코로 명성을 얻게 됩니다. *나부코*(Nabucco)는 이탈리아어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짧게 줄인 말입니다. 이 오페라에는 구약전서의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시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오페라 나부코는 예루살렘 함락, 유대인 유수, 그리고 그들의 속박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시편 137편에서 영감을 받은 베르디는 감동적이고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작곡했습니다. 후기 성도 영문 성경에 삽입된 시편 머리글은 매우 극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속박에 놓인 유대인들은 바벨론 강변에 앉아 울었다. 그들은 슬픔에 잠겨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 없었다."

저는 다양한 형태의 속박과 예속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 시대의 몇몇 상황과 예루살렘 함락 전 예레미야 시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저는 교회 회원 대부분이 주님께 그렇게 불경스러웠던 예레미야 시대의 일들을 의롭게 피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기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과 한탄은 후기 성도들에게 중요합니다. 예레미야와 그가 살던 당시 예루살렘은 몰몬경 시작 부분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 리하이와 동시대 인물입니다.[2]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그의 예임에 대해 극적인 표현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3]

리하이는 주님으로부터 다른 부름과 사명, 임무를 받았습니다. 리하이는 나이가 들어서야 부름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그의 부름은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일이었지만, 예레미야와 똑같은 메시지를 충실하게 외친 후에 리하이는 주님으로부터 가족을 데리고 광야로 떠나라는 명을 받습니다.[4] 리하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의 가족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축복받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몰락하기 전에 몇 년에 걸쳐[5]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예레미야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6]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닥칠 재앙에 대해 이야기하시며 주님은 한탄하셨습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그들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7]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선과 악 사이에서 자유로이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문화권, 혹은 나라에서 악한 선택이 지배적인 성향이 된다면 이생과 다음 생에서 심각한 결과가 수반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해로운 중독성 물질뿐 아니라 의로운 삶에서 벗어나게 하는 해롭고, 중독성 강한 철학이라는 속박에 예속되거나 스스로 자신을 그러한 속박에 결박시킬 수 있습니다.

살아 계신 참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부나 명예 같은 거짓 신을 경배하며 부도덕하고 사악한 행동을 하면, 모든 면에서 속박되고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영적, 육체적, 지적 속박이

포함되며, 때때로 그것은 파멸까지도 불러옵니다. 예레미야와 리하이는 의로운 자들에게 주님을 도와 그분의 교회와 왕국을 건설하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라고 가르쳤습니다.[8]

이 메시지는 모든 경륜의 시대에 거듭 전해졌고 수세기에 걸쳐 재차 강조되어 왔습니다. 또한 이 메시지는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의 사로잡힘과 열 지파를 포함한 이스라엘 지파의 분산은 복음 회복에서 중요한 교리적 요소입니다. 이스라엘 북왕국을 이루었던 잃어버린 열 지파는 주전 721년에 앗수르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북방에 있는 여러 나라로 갔습니다.[9] 신앙개조 제10조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문자 그대로 집합하고 그 열 지파가 회복될 것[을] …… 믿는다."[10] 우리는 또한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성약의 일부로서 아브라함의 후손뿐 아니라 지상의 모든 민족이 축복받게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러셀 엠 넬슨 장로님은 집합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합은] 물리적인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의 헌신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고국을 떠나지 않고도 '[주님에] 대한 지식에 이[를]'[제3니파이 20:13] 수 있습니다."[11]

우리의 교리는 다음과 같이 분명합니다. "주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그들의 의롭지 못함과 모반 때문에 흩어지게 하시고 고통을 당하도록 하셨다. 하지만 주는 또한 세상 나라 가운데로의 그의 택한 백성의 흩어짐을 이용하여서 그러한 나라들을 축복하셨다."[12]

우리는 이 비극적인 시대로부터 귀중한 교훈을 배웁니다. 우리는 속박으로 이끄는 죄와 모반을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13] 또한 우리는 주님을 도와 그분이 택한 자들을 모으고, 말 그대로 이스라엘을 모으는 일을 돕기 위해서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선결 과제임을 인식합니다.

속박, 예속, 중독, 종속에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물리적인 예속 상태를 뜻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발전을 저해하는 도덕적 선택의지의 상실과 손상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사악함과 모반이 예루살렘 몰락과 바벨론 유수의 주요 원인임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14]

인간의 영이 파괴되는 것 역시 속박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도덕적 선택의지는 수많은 방법으로 남용될 수 있습니다.[15] 저는 작금의 문화에서 특별히 치명적인 네 가지를 언급하겠습니다.

첫째, 중독은 선택의지를 망가뜨리고 도덕적 신념에 반하며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속박을 야기합니다. 마약, 술, 부도덕, 외설물, 도박, 빚, 기타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들의 영향력은 거기에 속박된 사람과 사회에 거의 측량이 불가능할 정도의 막대한 짐을 부과합니다.

둘째, 본질적으로는 악하지 않은 일부 중독이나 개인적 취향도 유덕한 일을 성취하는 데 써야 할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셜 미디어, 비디오 게임 및 디지털 게임, 운동, 오락거리 등을 지나치게 이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16]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어떻게 지켜 낼 것인가 하는 것은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가장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법률회사에서 일하던 시절, 저는 직장에서 유일한 후기 성도였는데, 당시 한 여성 변호사는 자신을 마치 공 세 개를 공중에서 계속 던지고 받는 곡예사 같이 느낀다고 토로했습니다. 그중 한

개의 공은 변호사라는 자신의 직업이고 다른 하나는 결혼 생활, 또 하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녀는 이 세 공 중 하나는 언제나 땅에 떨어져 있다면서 그게 가장 걱정이 되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의 우선순위에 대해 토론해 보자고 제의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일하는 첫 번째 이유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라는 점에 동의했습니다. 또한 돈을 더 버는 것은 가족만큼 중요하지는 않으며, 다만 고객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 인식했습니다. 토론은 점차 직장에서 꼭 할 필요가 없었던 일과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희생하면서까지 했던 일들에 관한 논의로 옮겨갔습니다. 꼭 필요한 일도 아닌데 직장에서 시간을 보내라는 압력이 있었던 걸까요?[17] 우리는 우리의 목표가 모든 사람에게 가족 친화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가족을 위한 시간을 남겨두는 데 앞장섭시다.

셋째, 오랜 역사에 걸쳐 존재해 왔으며 오늘날에도 가장 보편적인 속박의 형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스르는 사상 또는 정치적 신념이 있습니다. 인간의 철학이 복음 진리를 대신하면 구주의 간결한 메시지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아덴을 방문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가르치려 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18] 군중은 바울의 말이 새롭지 않은 단순한 종교 메시지라는 것을 깨닫고서 그의 말을 외면했습니다.

그것은 복음 진리가 자주 배척당하고, 복음 진리를 지적인 면에서 더 그럴싸하게 만들거나 현 시대 문화 풍조와 지적인 철학에 더 영합시키려는 목적으로 왜곡하는 우리 시대와 똑같지 않습니까? 조심하지 않으면 이러한 조류에 휩쓸려 지적인 속박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여성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충고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19] 하지만 대부분은 서로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가장 염려되는 것은 자녀에게 어머니, 교사, 양육자, 친구가 되기 위해 희생을 치르고자 하는 여성을 비난하거나 경시하는 태도입니다.

몇 달 전, 가장 어린 손녀 둘이 각각 한 주에 한 명씩 저희 집을 찾았습니다. 집에 있던 제가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제 아내 메리는 다른 방에 있었습니다. 그 두 방문에서, 두 손녀 모두 제 품에 안긴 후 거의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두리번거리더니 "할머니 댁에 오는 게 정말 좋아요.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긴 이 할아버지 집이기도 하단다.' 하지만 제가 어릴 때에도 우리 가족이 놀러갔던 곳은 바로 '할머니 댁'이었다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잘 아는 노래 한 소절이 떠올랐습니다. "강과 숲을 지나 할머니 댁으로 가지요."

여성들에게 주어진 교육과 기타 다른 기회들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성들이 해야 했던 고달픈 일과 힘든 가사 노동이 현대 문명의 발전으로 크게 경감되었고 여성들이 모든 연구 분야나 직장에서 지대한 공헌을 한다는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문화가 아이들이 어머니와 할머니, 그리고 그들을 양육하는 그 밖의 사람들과 맺는 특별한 관계를 축소시키도록 내버려둔다면, 우리는 분명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성심을 다해 지키려 하는 종교적 원리를 어기게 하는 세력들도 속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장 부당한 형태 중 하나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느끼는 의로운 사람들이 양심에 거스르는 일을 강요받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 관계자들은 자신의 양심을 거스르는 낙태 시술을 돕든지, 아니면

직장을 그만둘 것인지를 놓고 선택하도록 강요받습니다.

교회는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생활하는 곳이지만, 비교적 작은 소수 단체입니다. 사회 전반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는 주변의 도덕 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후기 성도는 각 나라에서 훌륭한 국민이 되고, 시정에 참여하며, 정부의 정치적, 사법적 정책을 알고, 투표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과 자라나는 세대를 보호하기 위해 언제든 필요한 희생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20] 이들 중 상당수는 아직 심각한 중독이나 거짓 사상에 속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리하이와 예레미야가 경험한 예루살렘과 상당히 닮아 있는 이 세상에 맞서 그들이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약을 맺고 지키도록 그들을 준비시키며,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을 돕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며 곳곳에 있는 주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집합시키는 일에서 주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21] 교리와 성약에는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말씀이 나옵니다. "의인은 모든 나라 가운데서 모아지고 영원한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시온에 이르리라."[22]

우리의 과제는 모든 종류의 속박을 피하고, 주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모으시도록 돕고,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 희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은 구주의 사랑, 자비, 속죄 희생입니다. 길을 떠난 리하이 가족은 주님의 빛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분의 빛에 진실하고 그분의 계명을 따르며 그분의 공덕에 의지할 때, 우리는 영적, 육체적, 지적 속박을 피할 수 있고, 광야에서 헤매다 한탄하는 일을 겪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속박되어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된 자들이 겪는 절망과 슬픔을 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아이다, 라트라비아타, 일 트로바토레와 같은 수많은 베르디의 오페라는 오늘날 전 세계에 걸쳐 공연되는 인기있는 작품들로 손꼽힌다.
2. 니파이전서 5:13, 7:14 참조.
3. 예레미야 1:5.
4. 니파이전서 2:2~3 참조.
5. 솔로몬 성전 파괴, 예루살렘 함락, 유다 지파의 속박은 주전 586년경에 일어났다.
6. 예레미야 2:11, 13.
7. 예레미야 8:20. 예레미야의 기록을 보면, 이 부분이 기록되기 이전에 주님은 회개를 촉구하시며 "내 마음속이 아프[다]"(예레미야 4:19)라고 말씀하셨고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예레미야 5:1)라고 간청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 예레미야 31장; 니파이전서 22장 참조.
9. 열왕기하 17:6; 교리와 성약 110:11 참조.
10. 신앙개조 제10조; 또한 니파이후서 10:22 참조.
11. Russell M. Nelson, "The Book of Mormon and the Gathering of Israel," address given at a seminar for new mission presidents, June 26, 2013.
12. 경전 안내서, "이스라엘", scriptures.lds.org.
13. 현 시대에 대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온 세상은 죄 가운데 놓여 있어 어둠 아래 그리고 죄의 속박 아래 신음하고 있느니라. …… 그들이 내게로 나아오지 아니하므로"(교리와 성약 84:49~50)
14. 선량한 사람 역시 속박당할 수 있다.
15. 교리적 원리는 변하지 않지만 속박, 예속, 파괴의 형태는 전례 없는 방식으로 가속화되어 왔다.
16. 작년 뉴욕 타임스(2012년 4월 8일)의 표지에는 디지털 게임의 중독성을 해학적으로 잘 풍자한 이런 문구가 실렸다. "지극히 중독적이고 시간을 낭비하며 관계를 나빠지게 하고 정신을 무능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디지털 게임의 위력과 그 매력" 그리고 아래에는 조그맣게 "(그렇다고 우리가 디지털 게임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문구도 나온다. 다소 가볍고 우스꽝스러운 이 표현은 이 시대의 놀라운 기술 발명품을 사용하는 일에서 지혜로워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역설로 볼 수 있다.
17. 많은 직장 환경에서 흔히 생각하는 좌우명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자"이다. 직원들간의 결속도 중요하지만 "일과 놀이" 때문에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희생한다면 자기 파멸을 가져올 것이다.
18. 사도행전 17:21; 강조체 추가.
19. Keli Goff, "Female Ivy League Graduates Have a Duty to Stay in the Workforce," *Guardian*, Apr. 21, 2013, 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3/apr/21/female-ivy-league-graduates-stay-home-moms; Sheryl Sandberg, *Lean In: Women, Work, and the Will to Lead*(2013); Anne-Marie Slaughter, "Why Women Still Can't Have It All," *The Atlantic*, June 13, 2012, www.theatlantic.com/magazine/print/2012/07/why-women-still-cant-have-it-all/309020; Lois M. Collins, "Can Women 'Have It All' When It Comes to Work and Family Life?" *Deseret News*, June 28, 2012, A3; Judith Warner, "The Midcareer Timeout (Is Over)," *New York Times Magazine*, Aug. 11, 2013, 24–29, 38; Scott Schieman, Markus Schafer, and Mitchell McIvor, "When Leaning In Doesn't Pay Off," *New York Times*, Aug. 11, 2013, 12 참조.
20. 교회는 감독단에게 가족들이 청남, 청녀, 청년 독신 성인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도록 권장한다. 감독단은 와드 평의회에서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 보조 조직, 다른 사람들을 적절하게 도울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갖춘 회원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위임하도록 권유받아 왔다.
21. 교리와 성약 29:7 참조.
22. 교리와 성약 45:71.

닐 엘 앤더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신권 권능

남성은 커튼을 열어 따뜻한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일을 하지만, 그렇다고 태양이나 빛, 그 온기까지 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권 축복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성찬식에서 어린이들이 행복한 얼굴로 초등회 노래 "사랑의 기도"를 부르자 모두들 대견해하며 웃음 지었습니다. 다섯 아이를 키우는 어느 용감한 어머니는 2절에서 "내 가정은 성신권의 권능으로 축복받으니"[1]라는 가사 부분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녀는 슬퍼하며 '우리 아이들은 저런 가정을 모르는걸.'[2]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 충실한 여성을 포함한 모든 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건 매 시간 "성신권의 권능으로 축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신권 권능을 너무 교회의 남성들에게만 연관시켜 생각합니다. 신권은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 모든 사람, 즉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들의 구원과 축복을 위해 주어졌습니다.

남성은 커튼을 열어 따뜻한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일을 하지만, 그렇다고 태양이나 빛, 그 온기까지 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권의 축복은 그 은사를 집행하도록 위임된 사람보다 한없이 더 위대한 것입니다.

이생과 내세를 위한 신권의 축복과 권능, 약속을 받는 일은 필멸의 삶에서 주어진 위대한 기회이자 책임입니다. 우리가 합당하다면, 신권 의식은 지상에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또한 앞으로 올 세상의 위대한 약속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킬 것입니다. 주님은 "의식으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느니라."[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침례를 받고, 성신을 받고, 정기적으로 성찬을 취하는 모든 합당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축복이 있습니다. 성전을 통해 우리는 더 큰 빛과 힘을 받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얻으며 영생을 약속받습니다.[4]

모든 의식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발전시키고 하나님과 성약을 맺고 지키도록 초대합니다. 그런 거룩한 성약을 지킬 때 우리는 신권의 권능과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신권 권능을 자신의 삶에서 느끼지 않습니까? 성약에 충실한 교회 회원들에게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개종자가 침례의 물에서 나오며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었음을 느낄 때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우리는 자녀와 청소년들이 성신의 속삭임과 인도에 더 민감한 것을 봅니다. 우리는 성전 의식이 전 세계의 의로운 남성과 여성들에게 힘과 빛의 근원이 되는 것을 봅니다.

지난 달에 저는 생후 일주일 된 어린 아들을 잃은 젊은 부부가 성전에서 맺은 인봉의 약속으로 큰 힘을 얻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권 의식을 통해 이 젊은 부부와 우리 모두는 위안과 힘, 보호, 그리고 평안과 영원한 약속을 받습니다.[5]

우리가 신권에 관해 아는 것

일부 사람들은 진심으로 물어올 것입니다. "신권의 권능과 축복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면, 신권 의식은 왜 남자들이 집행하는 것입니까?"

천사가 니파이에게 "너는 하나님의 낮추어 오심을 아느냐?"라고 물었을 때, 니파이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심을 알고 있나이다. 그러할지라도 모든 것의 의미를 알지는 못하나이다."[6]

신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모두 다 동일하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자녀를 사랑하시며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그에게로 나아오는 자는 …… 남자나 여자나 아무도 거절하지 아니하시며 …… 모두 다 하나님께는 동일하니라."[7]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들과 딸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만큼, 또한 우리는 그분이 남자와 여자를 완전히 동일하게 창조하지는 않으셨다는 것도 압니다. 우리는 남녀의 성별이 현세와 영원에 걸친 우리의 정체성과 목적을 결정하는 본질적인 특성임을 압니다. 성별에 따라 우리는 각자 거룩한 책임을 받습니다.[8]

태초부터

우리는 태초부터 주님께서 그분의 신권이 집행되는 방법을 제정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신권은 처음에 아담에게 주어졌습니다."[9] 노아, 아브라함, 모세도 모두 신권 의식을 집행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에도 지금도 위대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사도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10]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하늘 사자들을 보내 주셨습니다. 침례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신권을 지상에 회복했습니다.[11]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신권을 집행하시는 방식입니다.[12]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많은 은사

우리는 거룩한 신권 권능이 신앙, 성신, 영의 은사와 따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경전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부인하지 말라. 이는 은사가 많음이요, …… 또 이러한 은사들이 베풀어지는 데도 여러 가지 길이 있으나 ……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이는 같은 하나님이시요."[13]

합당성

우리는 신권 의식을 집행하고 받을 때 핵심은 합당성이라는 것을 압니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린다 케이 버튼 자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로움은 …… 우리의 생활에 신권의 권능을 초대하기 위한 자격 요건입니다."[14]

한 예로, 음란물이란 역병이 세상을 휩쓰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합당성에 대한 주님의 표준은 신권 의식을 집행하는 이들에게 음란물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은밀한 가증함[을] …… 회개하고."[15]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16]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17]

합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찬을 전달하거나 병자를 축복하거나 다른 신권 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님이 말씀하셨듯,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18] 합당하지 않다면, 신권 의식 집행을 피하고, 회개하고, 다시 계명을 지키는 첫 단계로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독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겸손

우리는 또한 의로운 어머니와 아버지가 한마음으로 자녀들을 이끄는 가정에 신권의 축복이 충만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다른 여러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기꺼이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19]

가족에게 영적, 현세적 부양자로서 책임을 지고 있는 어느 어머니는 자녀 중 한 아이를 축복해 달라고 가정 복음 교사에게 부탁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혜롭게도, 자녀들을 축복할 때 가정 복음 교사들 역시 겸손해져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20]

신권의 열쇠

우리는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이 소유한 신권 열쇠가 지상에서 주님의 사업을 인도한다는 것을 압니다. 스테이크 회장과 감독에게는 책임을 맡은 지역에 대해 특정한 신권 열쇠가 부여됩니다. 그들은 계시에 따라 남성과 여성들에게 부름을 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가르치며 성역을 베풀기 위해 위임된 권세를 행사하도록 지지와 성별을 받습니다.[21]

신권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많지만 필멸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업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22]라는 말씀은 우리가 시간적이고 영원한 관점에서 사물을 보면 "사물을 있는 그대로"[23] 볼 수 있으며, 그분의 완벽한 사랑을 더욱 완전히 이해하게 된다고 확신시켜 줍니다.

우리 모두는 기꺼이 봉사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부름 때문에 버거워하는가 하면 좀 더 많은 일을 하도록 부탁받았으면 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해임될 때가 되어 감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부름을 받을지 스스로 결정하지 않습니다.[24] 저는 이

교훈을 결혼 초기에 배웠습니다. 신혼 시절 아내 케이티와 저는 플로리다에 살았는데 어느 일요일, 스테이크 회장단 보좌인 형제님이 케이티를 새벽 세미나리 교사로 불러야겠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어리고, 세미나리는 새벽 5시에 시작하고, 저는 와드 청남 회장입니다."

그분은 빙그레 웃으시며, "괜찮을 겁니다. 앤더슨 형제님. 우리가 자매님께 부름을 드리고, 형제님을 해임하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성의 기여

여성들에게 진지하게 의견을 묻고 그들이 말하는 생각과 염려를 경청하는 것은 삶에서, 결혼 생활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데에서 필수적입니다.

스무 해 전 연차 대회에서 엠 러셀 밸라드 장로님은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님과 나눈 대화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선교 사업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의 합당성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하여 한 가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일레인 잭 자매님은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밸라드 장로님, 교회의 [여성들은] 요청만 받으면 …… 훌륭한 제언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뭐니뭐니해도 우리는 그 신권 소유자들의 어머니입니다!"[25]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평생 여성들을 염려하고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여성은 바로 프랜시스 몬슨 자매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매우 그리워합니다. 또한 회장님은 지난 목요일에 총관리 역원들에게 그분이 감독으로 있던 와드에 남편 없이 홀로 지내셨던 여든네 분의 자매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재차 말씀하셨습니다. 그분들은 몬슨 회장님이 감독으로 봉사하실 때와 그분의 인생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선교사 연령 변경에 대해 몬슨 회장님께서 기도하신 후 결정 내리시기 전에, 몬슨 회장님과 제일회장단의

베니 파레야

인도 아래 상호부조회, 청녀회, 초등회 회장단들과 이 주제에 관해 수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감독 여러분, 여러분이 몬슨 회장님의 모범을 따를 때 여러분의 거룩한 일을 더욱 풍족하게 축복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낄 것입니다.

저희는 몇 년간 브라질에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는 칠십인으로 봉사하시던 아델슨 파레야 형제님과 그분의 형제이자 스테이크 회장단 일원이신 아딜슨 형제님을 만났습니다. 나중에는 그분들의 형제이며 플로리아노폴리스 스테이크 회장인 아달튼 형제님과 그들의 또 다른 형제인 아델모 감독님도 만났습니다. 저는 이 형제들의 신앙에 감명을 받았고, 그분들의 부모님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이 가족은 브라질 산토스에서 42년 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아딜슨 파레야 형제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아버지는 교회에 가입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저활동이 되셨고, 어머니에게도 교회에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딜슨 형제님은 어머니가 동네에서 삯바느질을 해서 자녀들이 교회에 타고

갈 버스비를 마련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작은 네 소년은 다른 마을까지 1.6킬로미터 이상을 걸어 가서 버스를 타고 45분을 달린 후 다시 20분을 걸어서 교회에 갔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교회에 갈 수는 없었지만 파레야 자매님은 아들딸들을 데리고 경전을 읽고, 복음을 가르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소박한 집은 신권 권능의 풍족한 축복이 가득했습니다. 작은 소년들은 자라서 선교 사업을 했고, 교육을 받고, 성전에서 결혼했습니다. 신권의 축복이 그들의 가정을 채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 홀로 되신 베니 파레야 자매님은 자신을 위한 엔다우먼트를 받기 위해 성전에 가셨고, 그 후에는 브라질에서 세 차례에 걸쳐 선교 사업을 하셨습니다. 현재 84세인 자매님의 신앙은 계속해서 여러 대에 걸쳐 후손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간증과 약속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권 권능이 있습니다. 합당하게 신권 의식에 참여한다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더 큰 힘과 평안과 영원한 관점을 주실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가정은 "성신권의 권능으로 축복 받[을]" 것이며 여러분 주위 사람들도 그러한 축복을 더 깊이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자매와 형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는 함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회이고 책임이며 축복입니다. 구주의 재림을 위해 하나님의 왕국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운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사랑의 기도", *어린이 노래책*, 102~103쪽.
2. 개인 이메일, 2013년 8월 5일.
3. 교리와 성약 84:20.
4. 교리와 성약 138:37, 51 참조.
5. 교리와 성약 84:35; 109:22 참조.
6. 니파이전서 11:16~17.
7. 니파이후서 26:33.
8.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참조.
9.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2007), 104; 또한 교리와 성약 84:16; 107:40~53; 128:18, 21; 러셀 엠 넬슨, "이브로부터 배우는 교훈", *성도의 벗*, 1988년 1월호, 86~89쪽 참조.
10. 요한복음 15:16.
11. 조셉 스미스-역사 1:72; 또한 교리와 성약 13편; 27편 참조.
12. M. Russell Ballard, "Let Us Think Straight,"(BYU Campus Education Week devotional, Aug. 20, 2013) 참조; speeches.byu.edu. 밸라드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왜 남자들이 신권 성임을 받고 여자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은 그분의 '교회의 남성들이 신권을 갖도록 제정하신 분'은 인간이 아니라 주님이며, 또한 여성들에게 '이 위대하고 훌륭한 조직, 곧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를 완전케 할 수 있는 능력을'("교회의 여성들", *리아호나*, 1997년 1월호, 70쪽) 주신 분도 주님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그분의 교회를 왜 그와 같은 형태로 만드셨는가에 대한 이유를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13. 모로나이서 10:8.
14. Linda K. Burton, "Priesthood: A Sacred Trust to Be Used for the Benefit of Men, Women, and Children" (Brigham Young University Women's Conference address, May 3, 2013), ce.byu.edu/cw/womensconference/pdf/archive/2013/lindaBurtonTalk.pdf.
15. 제3니파이 30:2.
16. 마태복음 6:22~23.
17. 마태복음 5:28; 또한 앨마서 39:9 참조.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외설물은 특히 위험하고 중독성이 강합니다. 호기심으로 탐닉한 외설물은 삶을 지배하는 습관이 되고, 이는 더 저속한 외설물로 이어져 끝내는 성적 범법을 저지르게 만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외설물을 피하십시오."("준비, 축복으로 향하는 길", *리아호나*, 2010년 5월호, 65쪽)
"…… 참으로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 인터넷을 사악하고 저속한 목적으로 쓰고 있다는 보고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외설물을 보는 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한 행위에 가담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의 영혼을 파멸시킬 것입니다. 강해지고 깨끗해지십시오. 저속하고 파괴적인 모든 종류의 매체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피하십시오! 전 세계의 모든 분들께 이 경고의 음성을 전해 드립니다."("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리아호나*,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112쪽)
"외설물과 유사한 것은 무엇이든 피해야 한다. 그것은 정신과 양심을 무뎌지게 할 것이다. 교리와 성약에 이런 말씀이 있다. '교화를 이루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요, 어둠이라.'[교리와 성약 50:23]"(*"신앙에 충실함"*,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19쪽)
18. David A. Bednar, *Act in Doctrine*(2012), 53참조.
19. 댈린 에이치 옥스, "가정과 교회에서의 신권의 권세",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24~27쪽.
20. 2013년 8월 5일에 받은 개인 이메일; 또한 야고보서 5:14 참조.
21. 히브리서 5:4 참조.
22. 이사야 55:8.
23. 야곱서 4:13.
24. 교리와 성약 81:4~5 참조.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제가 맡고 있는 책임의 영역에서처럼 여러분의 영역에서 여러분의 책임도 중요합니다. 이 교회에서는 어떤 부름도 작거나 대수롭지 않습니다."("이 사업은 주님의 사업입니다", *성도의 벗*, 1995년 7월호, 69~70쪽)
25. 엠 러셀 밸라드, "협의의 힘", *성도의 벗*, 1994년 1월호, 76쪽.

데이비드 엠 맥콩키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 제1보좌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 가르침

주님은 모든 합당한 후기 성도들에게 구주의 방법으로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교회의 모든 교사 여러분에게 무한한 감사를 전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대단히 신뢰합니다. 여러분은 회복된 복음에서 위대한 기적 중 하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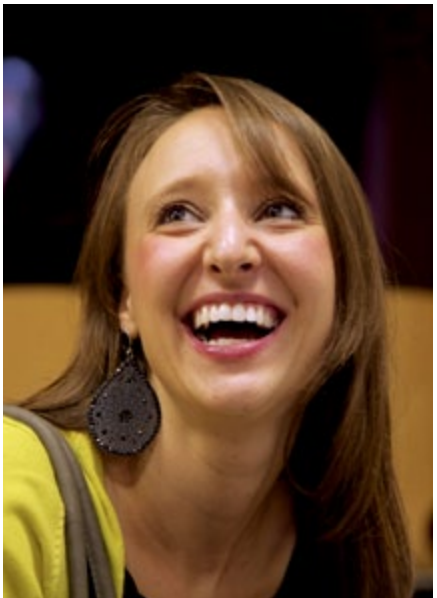
성공적인 복음 교사가 되고,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 가르칠 수 있는 한 가지 비법이 있습니다. '비법'이란 단어를 쓴 이유는 1820년 이른 봄, 어느 아름답고 청명한 날 아침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간증이 있는 사람들만이 교사로서 성공하는 원리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네 살 소년이 드린 겸손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늘이 열렸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고대하던 모든 것의 회복이 시작되었고, 영원히 지속될 계시의 원리가 이 경륜의 시대에 세워졌습니다. 세상에 전하는 조셉과 우리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두 마디로 요약됩니다. 그분은 고대에도 말씀하셨고 조셉에게도 말씀하셨으며,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세상의 다른 교사들과 구분해 주는 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절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언과 계시의 영으로 부름받았으며, 신권 권세로 성별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로, 여러분이 주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대리인이며, 그분을 대표하고 대신하여 행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대리인인 여러분은 그분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주께서 오늘 우리 반을 가르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라고 자문한 후 그대로 해야 합니다.

이탈리아 로마



이 같은 책임으로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두려움마저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은 모든 합당한 후기 성도에게 구주의 방법으로 가르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둘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경전과 혼합된 자신의 생각이나 철학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1]이며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셋째, 여러분은 교회의 표준 경전에 나오는 복음 원리, 현대의 사도 및 선지자들의 말씀을 성신의 지시에 따라 가르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가장 큰 책임은 성신이 우리를 인도하고 함께할 수 있을 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후기의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했던 하이럼 스미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그러하도다. 네 모든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내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네 일이니라."[2] 이것이 시작점입니다. 하이럼이 받은 이 권고를 주님은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똑같이 전해 오셨습니다.

오늘날의 교사들에게 제일회장단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봉사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매일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하며, 계명에 순종하여 여러분 자신을 영적으로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복음대로 사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3]

제일회장단은 교사로서 봉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으로 공과를 잘 준비하거나 다양한 교수법을 습득하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는 점이 의미심장합니다. 물론, 부지런히 매 공과를 준비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선택의지를 행사하도록 돕고, 복음을 가슴 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겠지만, 여러분의 봉사에서 첫째 되고

파나마 아라이잔

중요한 부분은 개인적인 준비, 영적인 준비입니다. 제일회장단은 이 권고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모범을 따를 때 성신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알려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큰 간증을 얻게 될 것이고, 더 깊게 개심하게 될 것이며, 삶의 시련에 맞설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4]

교사라면 이보다 더 큰 어떤 축복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다음으로,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얻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명하셨습니다.[5] 여러분은 부지런히 경전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함으로써 온전한 이해력을 지닌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그분의 영과 말씀으로 축복받고, 사람을 확신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에게 두 가지 방법, 즉 말씀과 능력으로 온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6] 복음의 말씀은 경전에 기록되어 있으며,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성신을 동반자로 삼을 수 있을 만한 삶을 살며, 성신의 속삭임에 따르는 이들의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씀을 얻고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서 전문가가 되는 일에만 관심을 쏟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준비는 게을리한 채 선하신 주님께서 어쨌든 공과 시간을 무사히 넘길 수 있게 해 주시리라고 기대합니다. 공부하거나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경전 구절과 원리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영이 도와주리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성공적으로 가르치려면, 우리 삶에 복음의 말씀과 능력, 둘 다가 있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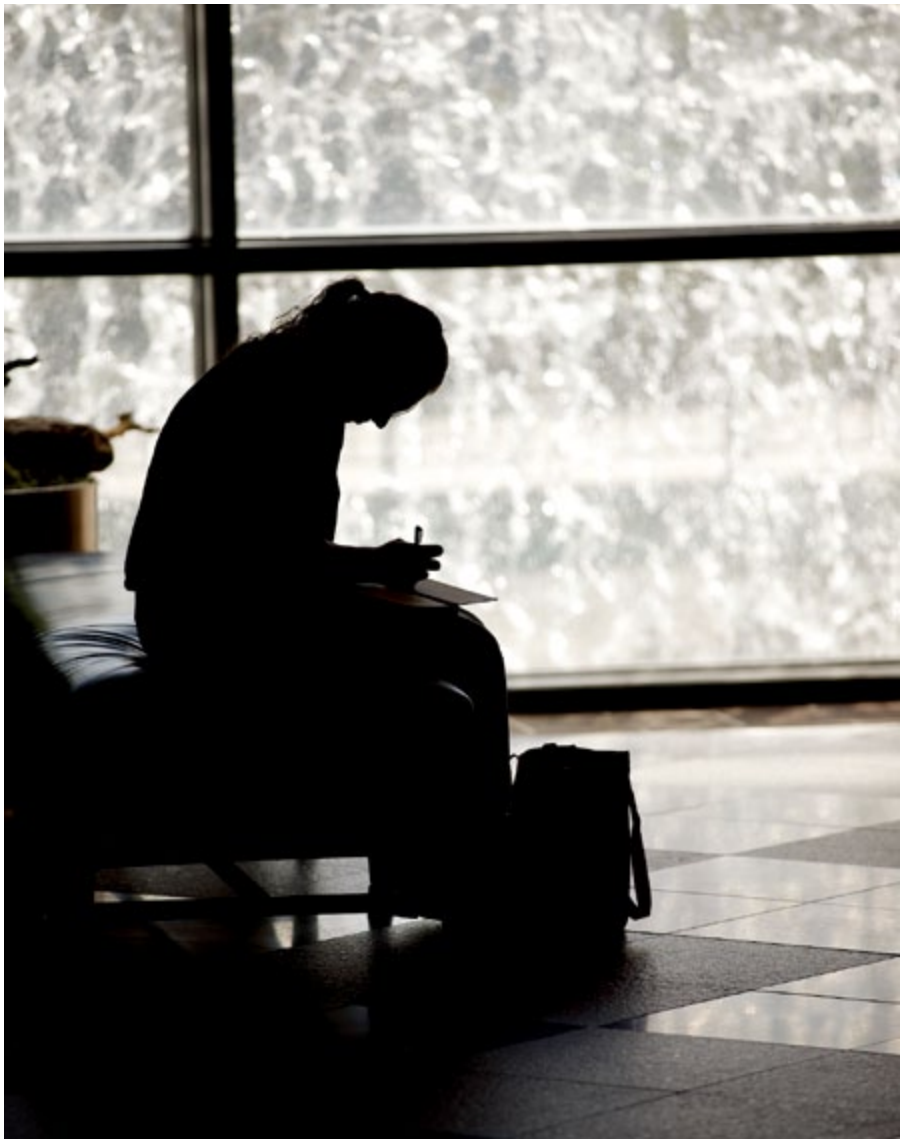
앨마는 모사이야의 아들들에 대해 기뻐하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 가르쳤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이 원리들을 이해했습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온전한 이해력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부지런히 경전을 상고하였음이더라.

그러나 이것이 모두가 아니니, 그들은 많은 기도와 금식에 힘썼었고 그리하여 …… 계시의 영을 지니게 되어"[7]

다음으로, 경청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님은 이 원리를 선교사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장로님이 하신 말씀은 모든 교사에게 해당됩니다. *선교사*와 *구도자*를 *교사*와 *학생*으로 바꾸어서 홀런드 장로님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교사]가 영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는 책임에 버금가는 것은 바로 [학생들]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 우리가 영의 귀로 듣는다면 ……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훈이 무엇인지를 *[학생들]이 우리에게 알려 줄 것입니다.*"

홀런드 장로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교사들]은 여전히 [학생들] 개개인에 집중하기보다는 익숙하고



반복되어 나오는 공과 내용을 전달하는 데만 너무 많이 신경쓰고 있습니다."[8]

최선을 다해 자신과 공과를 준비했다면, 성신의 인도에 기꺼이 따를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고요한 성신의 음성이 들릴 때, 준비한 개요와 기록을 제쳐 두고 성신의 속삭임에 따를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가르치는 공과는 더는 우리의 공과가 아니라 구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가르침이 됩니다.

지금까지보다 더 큰 목적을 따라 복음대로 살기 위해 자신을 헌신하고, 경전을 연구하여 마음속에 쌓아 둔다면, 고대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이 말씀을 계시해 주셨던 그 성신이 여러분에게 말씀의 참됨을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여러분은 성신으로부터 그것을 새롭게 계시받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이 읽는 말씀은 단순히 니파이, 바울, 앨마의 말씀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르칠 때 성신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이는 너희가 말할 바가 바로 그 시각에, 참으로 바로 그 순간에 너희에게 주어질 것임이니라."[9]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원래 계획에 없는 말을 하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를 기울인다면 여러분도 자신이 가르칠 때 스스로 무언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매리온 지 롬니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언제 성신의 영감에 따라 말하는지를 항상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제 말씀에서 무언가를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10] 기억하십시오. 교사도 또한 학생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사는 가르칠 때 독자적인 증인으로 서야지, 타인의 생각이나 교재 내용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고, 전보다 더 위대한 목적에 따라 복음대로 살 때, 성신은 여러분이 가르치는 원리의 참됨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의 영이며, 이 똑같은 영이 여러분의 메시지를 원하고 기꺼이 들으려 하는 자들의 가슴 속에 전해 줄 것입니다.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성스러운 숲을 떠올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 오래 지나지 않은 어느 아름다운 봄날 아침에 일어났던 일 덕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 가르칠 자격을 받았습니다.

엄숙하고 독자적인 증인으로서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로마서 1:16.
2. 교리와 성약 11:20.
3. 제일회장단,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복음을 가르침: 와서 나를 따르라 안내서: 청소년 학습 자료*(2012), 2쪽.
4. 제일회장단,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복음을 가르침*, 2쪽.
5. 교리와 성약 11:21 참조.
6. 데살로니가전서 1:5 참조.
7. 앨마서 17:2~3.
8. Jeffrey R. Holland, "The Divine Companionship" (address given at the seminar for new mission presidents, June 26, 2009), 7, 8, Church History Library, Salt Lake City; emphasis in original.
9. 교리와 성약 100:6.
10. Marion G. Romney, Boyd K. Packer, *Teach Ye Diligently* (1975), 304.

케빈 에스 해밀턴 장로
칠십인 정원회

계속해서 굳게 잡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으로 이어진 쇠막대를 계속해서 굳게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아버지는 자신의 가족이 교회를 떠난 날짜와 시각까지도 기억하십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의 네 형제는 대부분 생전에 교회에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 시절에 가족들은 오전에는 주일학교에 가고, 오후에는 성찬식에 참석했는데, 아버지는 그때 열세 살인 집사셨습니다. 어느 아름다운 봄날, 일요일에 오전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점심 식사를 하는데, 할머니께서 할아버지를 보시면서 다음과 같은 단순한 질문을 건네셨습니다. "여보, 오후에 성찬식에 갈까요, 아니면 아이들을 데리고 시골로 드라이브를 갈까요?"

성찬식을 대신할 다른 뭔가가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으셨지만, 당시 십대였던 아버지와 세 형제들은 그 제안에 솔깃했습니다. 그날 오후, 시골로 떠난 드라이브는 즐거운 가족 활동이었지만, 그 작은 결정은 새로운 방향으로 뻗어가는 시발점이 되었으며, 결국 아버지의 가족은 안전과 보호, 축복이 있는 교회에서 멀어져 다른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우리 시대에 다른 길을 선택하도록 유혹을 받는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으로, 몰몬경의 선지자 리하이는 자신의 가족에게 한 시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무수한 사람의 무리를 보았는데, 그들 가운데 많은 이가 내 곁에 서 있는 나무에 이르는 길에 들어서려고 앞으로 밀고 나아오더라.

그리고 …… 그들은 앞으로 나아와, 나무에 이르는 길에 들어서서 나아가기 시작하더라.

그리고 …… 어둠의 안개가 일어나매, …… 그로 인해 그 길에 들어섰던 자들이 길을 잃더니, 방황하며, 멀어지다가, 잃어버린 바 되더라."[1]

리하이는 또한 두 번째 무리도 보았습니다. "이들이 앞으로 밀고 나아옴을 보았나니, 그들이 나아와서 쇠막대의 끝을 붙잡더라. 또 그들은 쇠막대를 꼭 붙든 채 밀고 나아가 어둠의 안개를 지나가더니 마침내 나아와 나무의 열매를 먹더라."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 마치 부끄러운 듯 주위에 그들의 눈길을 던[졌는데]" 이유인즉슨 "크고 넓은 건물"에 있던 사람들이 "열매에 이르러서 먹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 이 사람들은 "금단의 길로 떨어져 나가서는 잃어버린 바"[2] 되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견딜 수 없었거나 기꺼이 그렇게 하려는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무리는 생명나무에 성공적으로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떨어져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경전에는 그들이 "쇠막대를 *계속하여 굳게 잡은 채* 앞으로 밀고 나아오더니, 드디어 나아와 엎드러져서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3]고 나옵니다. 쇠막대는 이들 무리가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안전과 보호책을 나타내며, 그들은 그 쇠막대를 계속하여 굳게 잡았습니다. 일요일 오후의 시골길 드라이브와 같은 단순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쇠막대에서 손을 떼지 않기 위해 거절했습니다.

이 무리에 대해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핵심 문구는 쇠막대를 '계속하여 굳게 잡은 채'입니다. …… 아마도 이 세 번째 무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공부하고 찾아보았을 것입니다. …… 여러분과 제가 속하고자 노력해야 하는 곳은 바로 이 무리입니다."[4]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회원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로 성약을 맺었습니다. 침례 받을 때 우리는 구주의 증인이 되고[5] 연약하고 궁핍한 사람을 도우며[6]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도 바울이 가르쳤듯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에]"[7] 필요하다면 회개하겠다고 성약을 맺었습니다.

매주 우리는 성찬식에 참석하여 성찬 의식에서 떡과 물을 취함으로써 이러한 성약을 새롭게 할 기회를 맞습니다. 이 간단한 행위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엄숙히 약속하며,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때는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한 답례로 우리에게 안내자와 보호자가 되는 그분의 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를 보면, 선교사들은 우리가 일요일 교회 모임에 참석함으로써 계시와 간증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교회 모임에 참석하여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서로를 강화합니다. 우리는 친구 및 가족과 함께 나누는 교제를 통해서 새롭게 됩니다. 경전을 공부하고 회복된 복음에 대해 더 많이 배우면서 우리의 신앙은 강화됩니다."[8]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 일요일에 세 가지 모임을 하는 건가요? 그 각각의 모임은 왜 필요합니까? 이 세 모임에 대해 각각 간략하게 살펴봅시다.

- 성찬식은 성찬 의식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의 성약을 새롭게 하고, 영을 더 많이 받으며, 성신을 통해 가르침을 받고 교화되는 축복도 받습니다.
- 주일학교에서 우리는 "왕국의 교리를 서로 가르[쳐]"[9] 모든 사람이 "교화되며,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10] 회복된 복음의 교리를 이해할 때, 우리는 큰 힘과 개인적인 평화를 얻습니다.
- 신권회는 성인 형제와 청남들이 "자기 의무를 배우고"[11] "더욱 온전히 가르침을 받[는]"[12] 시간이며, 상호부조회는 교회의 여성들이 "신앙[을] …… 키우고, [자신의] 가족과 가정을 강화하며, 궁핍한 사람들을 돕[는]"[13]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의 청녀들과 어린이들도 각자 자신의 모임과 공과에 참석하여 복음을 배우며 앞으로 받게 될 중요한 책임들을 준비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유하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결된 각 모임에서 교리를 배우고, 영을 느끼며, 서로에게 봉사합니다. 거리나 교통비, 건강 등의 이유로 이례적인 상황도 있을 테지만, 우리는 일요일에 열리는 모든 모임에 참석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약속하건대, 세 시간에 걸친 일요일 모임에 참석하여 예배를 드린다면, 커다란 기쁨과 평안을 축복받게 될 것입니다.

저희 가족은 일요일에 열리는 모든 모임에 참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때 신앙이 강해지고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모임에 참석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만족감을 느낀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특히 집에 돌아가서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면 더욱 그랬습니다. 저희는 휴가나 여행 중에도 일요일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합니다. 제 딸 아이는 최근

여행 중인 도시에서 교회에 참석했다는 소식을 편지로 전하며 "아빠, 이번에도 일요일에 세 모임 다 참석했어요."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의로운 선택으로 딸 아이가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저희는 압니다.

우리 각자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문제로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교회 모임에 참석한다는 더 좋은 선택을 위해 희생할 수 있거나 희생해야 하는 "좋은" 활동은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사실, 악마가 "[우리]의 영혼을 속여, 조심스럽게 [우리를] 인도"[14]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악마는 어떤 활동이 그저 "좋다"는 이유로 "더 좋거나" 나아가 "가장 좋은" 것을 뒤로하게 만듭니다.[15]

쇠막대를 계속하여 굳게 잡는다는 것은 일요일에 하는 모임, 즉 성찬식, 주일학교, 신권회 또는 상호부조회에 가능한 한 참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각각 초등회, 청남, 청녀 모임에 참석합니다. 어떤 모임에 참석할지 고르거나 선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안식일 모임에 참석하고 예배드림으로써 우리는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을 수 있습니다.

쇠막대를 계속해서 굳게 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고, 매일 개인 기도와 가족 기도, 경전 공부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굳게 잡는다는 것은 몰몬경에서 가르치는 그리스도 교리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고, 그런 후에 그분을 따라 침례의 물로 내려가서 안내자이자 보혜사 역할을 하는 성신의 은사를 받아 확인됩니다. 그런 뒤 니파이가 가르쳤듯이 "힘써 앞으로 나아가되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는]"[16] 일을 생의 마지막 날까지 계속해 나갑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성약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기꺼이 성약을 맺고 지키면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17]을 받게 되리라는 축복을 약속받았습니다. 성약을 지킴으로써 쇠막대를 계속해서 굳게 잡는다면, 세상의 유혹과 위험에 굴하지 않도록 강해질 것입니다. 온갖 어려움이 가득한 이 필멸의 삶을 헤쳐 나가 실제로 "다른 모든 열매보다 가장 귀하며 가장 바람직한"[18] 열매가 있는 나무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다행히도 훌륭한 여성과 결혼하셨고, 아내의 격려 덕분에 어릴 때 다녔던 교회로 돌아와 다시 그 길을 따라 진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두 분의 충실한 삶은 모든 자녀와 그다음 세대인 손자손녀, 지금은 증손자손녀들에게까지 축복이 되었습니다.

안식일 예배 모임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단 한 번의 단순한 결정이 제 조부모님 가족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 생활 속에서 내리는 일상적인 결정들이 우리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성찬식에 참석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와 같이 사소해 보이는 결정이 지대한, 심지어 영원한 결과까지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함을 선택할 수 있기를, 그리고 함께 모여 성약을 지킬 때 얻는 위대한 축복과 보호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으로 이어진 쇠막대를 계속해서 굳게 잡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주

1. 니파이전서 8:21~23.
2. 니파이전서 8:24~28.
3. 니파이전서 8:30; 강조체 추가.
4. David A. Bednar, "A Reservoir of Living Water" (Church Educational System fireside address, Feb. 4, 2007), 8–9; speeches.byu.edu.
5. 모사이야서 18:9 참조.
6. 교리와 성약 81:5 참조.
7. 로마서 3:23.
8.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 사업 지도서* (2004), 74쪽.
9. 교리와 성약 88:77.
10. 교리와 성약 50:22.
11. 교리와 성약 107:99.
12. 교리와 성약 88:78.
13.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 (2010), 9.1.1.
14. 니파이후서 28:21.
15. 댈린 에이치 옥스, "좋은 것,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리아호나*, 2007년 11월호, 104~108쪽 참조.
16. 니파이후서 31:20.
17. 교리와 성약 84:38.
18. 니파이전서 15:36.

에이드리언 오초아 장로
칠십인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은 진리의 근원을 바라보고 간증을 강화할 때입니다.

여덟 살 때 저는 사촌 두 명과 함께 보름간 먹을 식료품을 구하러 인근 마을로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할머니와 숙부, 숙모님이 우리를 그렇게나 신임하셨다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말 세 필로 이루어진 우리의 작은 행렬이 여정을 출발하던 그날 아침, 하늘은 맑고 눈부셨습니다.

초원 한복판을 지나던 우리는 말에서 내려 구슬치기를 하자는 번뜩이는 생각을 해 냈습니다. 우리는 놀이에 열중한 나머지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으며 머리 위로 드리운 "시대의 표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상황을 깨달을 즈음에는 말에 올라탈 시간도 없었습니다. 폭우와 세차게 퍼붓는 우박이 우리 얼굴 위로 떨어질 때, 우리가 고작 생각해 낸 대책은 말 안장을 내린 뒤 조그만 안장용 깔개를 담요처럼 덮어쓰고 그 아래 숨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말도 없이, 춥고 젖은 몸으로 최대한 빨리 움직이려 애쓰며 길을 재촉했습니다. 목적지에 거의 다다랐을 때, 마을로 들어가는 넓은 도로는 홍수가 나 있었는데, 마치 우리를 향해 흘러오는 강처럼 보였습니다. 할 수 있는 선택은 안장 깔개를 버리고 마을 둘레에 쳐 놓은 철조망 담장으로 올라가는 것뿐이었습니다. 늦은 밤, 우리는 피곤하고 지치고 흠뻑 젖은 채 마을로 들어가 첫 번째로 보이는 집에 몸을 의탁했습니다. 그 착한 가족은 몸을 말리게 해 주고, 맛있는 샌드위치도 주고, 우리가 있던 방에 잠자리도 깔아 주었습니다. 그 방이 흙바닥이라는 것을 금세 알아챈 우리에게 번뜩이는 생각이 또 다시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땅바닥에 원을 그리고서 흙바닥에 쓰러져 잠들 때까지 계속 구슬치기를 했습니다.

철없던 우리는 그저 우리 생각밖에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야 할 이 아이들을 절박하게 찾아 헤맬 가족들 생각은 아무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생각했다면, 그런 쓸데없는 일로 일정을 늦추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더 현명했다면, 하늘을 올려다보고, 먹구름이 모이는 것을 눈치채고, 발걸음을 재촉해 폭우보다 앞서 갔었을 것입니다. 이제 지금은 좀 더 많은 경험을 해 보았기에 저는 언제나 저 자신에게 이렇게 일깨워 줍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것을 잊지 말라.

사촌들과 한 이 경험에서 저는 시대의 표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디모데후서 3:2~4)라고 설명했던, 위험천만한 폭풍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대해 댈린 에이치 옥스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 세상적인 준비와 영적인 준비를 모두 해야 합니다. 소홀히 하기 쉬운 것은 잘 보이지 않고 좀 더 힘든 영적인 준비입니다."("재림을 위한 준비",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9쪽) 다른 말로 하자면, 하늘을 바라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위험천만한 시대에 영적인 준비는 시급한 문제이므로, 저는 아주 강력한, 이 시대의 한 가지 표적에 관해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려 합니다. 저는 직업상 첨단 기술의 최전선에 있었기에 그것의 가치, 특히 의사소통 면에서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잘 압니다. 손가락만 움직이면 사람들이 만든 정말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은 추잡하고 사람을 오도하는 것들도 가득 차 있습니다. 기술은 표현의 자유를 확장시켰지만, 한편으로는 클릭 수에 근거한 거짓 신뢰성을 자격 없는 블로거들에게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마태복음 7:20)는 영원한 원리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추잡한 이미지를 보거나 그리스도와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모함하는 사람들에게 주목하지 마십시오. 이 두 가지 행동은 성신과 보호하고 지지하는 성신의 권능을 잃어 버리는, 똑같은 결과만을 낳습니다. 악덕과 불행이 언제나 뒤따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연히라도 복음에 대한 자신의 간증을 의심하게 하는 어떤 것을 접한다면, 간청하건대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지혜와 진리의 근원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간증을 키우십시오. 세상에는 진리와 거짓을 반씩 섞어서 여러분 신앙을 허물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함께할 수 있도록 늘 합당해야 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성신의 동반은 즐거운 편의성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 생존에

브라질 브라질리아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고 영의 속삭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속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조셉 스미스-마태 1:37 참조)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완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했던 조셉 스미스는 모두 그들의 간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짓 모함자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조셉 스미스는 참된 선지자라는 그분들의 간증이 참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좋은 열매가 나쁜 나무에서 열릴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구속주께서 제 죄를 용서하시고 제 멍에에서 자유롭게 해 주셨으며, 전에는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행복의 상태로 데려다주셨음을 압니다. 또한 저는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라는 것을 아는데, 이는 제가 몰몬경에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여 보라."(모로나이서 10:4)는 단순한 약속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부활이나 그분의 회복된 복음의 진실성을 믿으려면 물리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믿지 못하도록 설득하려 애썼던 코리호어가 앨마에게서 들은 이 말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네가 표적을 충분히 가졌거늘, 네가 네 하나님을 시험하려느냐? 네게 이 모든 네 형제들과 또한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의 증거가 있거늘, 네가 말하기를 내게 표적을 보이라 하려느냐? 경전이 네 앞에 놓여 있고"(앨마서 30:44)

여러분과 제가 바로 구주의 속죄 권능에 대한 살아 있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선지자 조셉의 성역과 자신의 간증을 확고하게 지킨 초기 성도들의 충실성에 대한 살아 있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제 온 세상에 퍼져 있으며 유례없이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시대처럼 보거나 만져 보지 않아도 믿는 겸손한 사람들을 맞아들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위험천만한 시대입니다. 지금은 진리의 근원을 바라보고 간증을 강화할 때입니다.

제 어린 시절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사촌들과 저는 찬란한 태양과 아름다운 아침 하늘을 보며 깨어났습니다. 잃어버린 세 소년을 찾아 헤매던 한 남자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우리를 말에 태우고 같은 초원을 지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돌아가면서 저는 잊지 못할 광경을 보았습니다. 밤새 우리를 찾아 헤맸던 수많은 사람과 진흙탕에 빠진 트랙터와 트럭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말 안장 하나, 저기서 말 한 필을 찾아 냈던 식구들은 집으로 돌아오는 우리를 보며 안도했고, 저는 그 마음과 그분들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사랑하는 할머니와 숙부와 숙모님도 앞에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잃어버린 아이들을 찾은 기쁨에 울음을 터트리시며 우리를 품어 주셨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마음을 절절하게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은 온통 폭풍이 닥칠 것이라는 표적들로 가득합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자신을 준비하십시오. 강한 간증 안에 안전이 있습니다. 매일 간증을 소중히 여기고 키웁시다.

저는 우리가 가족으로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팔을 펼치고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구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심을 압니다. 베드로처럼 이를 제게 알려 준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마태복음 16:15~19 참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터렌스 엠 빈슨 장로
칠십인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우리 구주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참으로 사랑하여 우리 뜻을 그분의 뜻에 일치되게 하고자 하기를 바라십니다.

저를 보면 다정스레 "할비"라고 부르는 여섯 살 난 손자 올리가 차에서 뭔가를 꺼내려 했습니다. 아이 아범은 집 안에 서 있다가 올리가 자동차로 다가가자 리모컨으로 문을 열어 주었고, 아이가 볼일을 마치자 다시 문을 잠갔습니다. 올리는 활짝 웃으며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올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자동차 문이 마음대로 열렸다 닫혔다 한 거니?" 아이는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아이의 엄마인 제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비가 하시는 것과 비슷하네. 올리는 마술을 할 수 있나 봐!"

몇 분 뒤에도 다시 한 번 그러한 상황이 똑같이 재연되었고, 그 새로운 능력에 관한 가족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올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할비는 저랑 제일 친한 친구거든요. 할비가 저를 사랑하고 돌봐 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아프리카와 파푸아뉴기니, 호주, 뉴질랜드, 태평양의 여러 섬에 사는 충실한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참으로 기적적인 이야기들을 알게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 역시 올리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 충실한 분들은 올리가 저에 대해 느끼는 것과 같은 식으로 하나님과 구주를 느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가까운 친구로서 사랑하며, 그분께서는 그들을 보살펴 주십니다.

이 교회 회원들은 신성한 진리에 대한 영적 증거를 받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성스러운 성약을 맺을 자격이 있으며, 많은 분이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우주의 중심, 문자 그대로 우리의 중심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과 의도는 언제나, 또는 때로 하나님을 멀리하지는 않습니까?(모사이야서 5:13 참조) 우리 마음의 생각뿐 아니라 "의도" 또한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우리의 품행과 행동은 우리 의도의 고결함을 제대로 반영합니까?

제 아들 벤은 16세 때 스테이크 대회에서 말씀을 전하며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매주 뭔가를 약속하고도 한 번도 지키지 않는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벤은 계속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성찬을 취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항상 그분을 기억하겠다는 성약을 맺을 때, 우리는 그 약속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또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의 권능을 기억하도록 여러 방편을 주셨습니다. 그중 하나는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역경입니다.(앨마서 32:6 참조) 제가 겪은 시련들을 돌아보면, 그 일로 제가 더 성장하고, 이해력이 깊어졌으며, 공감하는 능력이 커졌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역경을 겪으며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께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고, 그 경험들과 정련의 순간들은 제 마음에 깊이 아로새겨졌습니다.

주님의 인도와 지시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님은 신앙으로 지어진 거룻배에 신선한 공기를 채우는 방법을 일러 주심으로써 충실한 야렛의 형제가 당면했던 두 문제 중 하나를 해결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이더서 2:20 참조)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은 빛이 있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두셨을 뿐만 아니라 분명, 그가 스스로 해결하도록 시련과 고난을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람이나 비, 넘치는 물을 보내실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이더서 2:23~24 참조)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아예 위험이 닥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으시면서도 위험에서 벗어나라고 경고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윌포드 우드럽 회장님은 영적인 경고에 따라 부인과 자녀와 함께 자고 있던 마차를 옮겼을 때, 뿌리째 뽑힌 거목이 회오리바람에 날아와 마차를 세워 두었던 그 자리에 떨어졌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주신 바 있습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윌포드 우드럽* [2004], 47쪽 참조)

두 사례 모두 날씨만 조정했더라면 위험 요소는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이것입니다. 주님은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보다는 우리가 신앙을 발전시켜 그분께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그분을 신뢰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더욱 강하게, 더욱 지속적으로, 더욱 뚜렷하게 개인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하나가 되고, 그분처럼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목적은 우리가 그분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실로 이것이 곧 그분의 일이요, 그분의 영광입니다.(모세서 1:39 참조)

한 어린 소년이 뒤뜰에서 자동차 놀이를 하기 위해 흙 바닥을 평평하게 다지려 했습니다. 그런데 큰 돌이 박혀 있어 방해가 되었습니다. 소년은 밀고 당기며 안간힘을 써 보았지만 돌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이를 지켜보던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큰 돌을 뽑아 내려면 있는 힘을 다해야 한단다."

소년이 대답합니다. "그렇게 했는걸요!"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렇지 않아. 너는 아직 내 도움을 받지 않았잖니!"

그리고 함께 몸을 웅크린 두 사람은 그 큰 돌을 쉽게 굴려냈습니다.

파푸아뉴기니의 초대 스테이크 회장이었던 제 친구 베이버 로움의 부친 또한 어려울 때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그분과 마을 사람들은 농사일로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경작지를 만들려고 마을 농지 중 자신의 땅에 불을 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뜨거운 날씨로 초목이 바짝 말라 있어서 불은 금세 번졌습니다. 그리하여 그 불은 우리의 선지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이 지난 연차 대회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불길이 되고 말았습니다.("순종은 축복을 가져옵니다",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89~90쪽 참조) 불길은 풀밭과 수풀로 번지기 시작했고, 친구 말에 따르면 "커다란 불 귀신"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분은 마을 사람들이 위험에 빠지거나 농작물이 타 버릴까 봐 두려웠습니다. 농작물이 소실된다면, 마을에서 처벌을 받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불길이 걷잡을 수 없게 번졌을 때, 그분은 주님을 떠올렸습니다.

텍사스 콜리빌

이제 그분의 아들인 제 친구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언덕 위 수풀 속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불길을 멈추어 주시기를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기도하던 자리 바로 위로 커다란 먹구름이 나타나더니 비가 억수 같이 쏟아졌습니다. 비는 불길이 타오르던 곳으로만 내렸습니다. 아무리 둘러 봐도 불길이 타오르는 곳을 제외하고는 사방이 맑았습니다. 아버지는 주님께서 자신처럼 단순한 사람에게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무릎을 꿇고서 아이처럼 우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그 어느 때보다도 감미로운 느낌을 느꼈다고 말씀하셨습니다."(앨마서 36:3 참조)

우리 구주께서는 우리가 그분에 대한 진실한 사랑으로 우리의 뜻을 그분의 뜻에 맞추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의 영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라야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은 힐라맨의 아들 니파이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기까지 발전했으며, 그 때문에 주님은 그가 무엇을 구하든 축복해 주실 수 있으셨습니다.(힐라맨서 10:4~5 참조)

'얀 마텔'이 쓴 소설, '*파이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습니다. "그를 뇌리에서 지울 수가 없다. 지금까지도. 꼬박 사흘간 그만을 생각했다. 그럴수록 더욱 잊히지가 않는다. 알면 알수록 그를 떠나고 싶지 않다."([2004])

구주에 대한 제 마음을 정말 잘 대변해 주는 글입니다. 주님은 늘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곳에 있을 때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때로 기대하지 못한 순간에 주님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사랑을 전해 주십니다. 저는 그분께 제 마음을 드림으로써 제 나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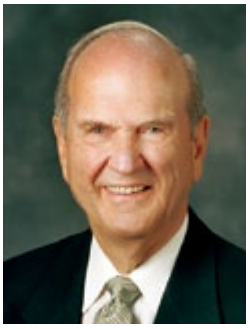
불완전한 방식으로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64:22, 34 참조)

몇 개월 전, 저는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님이 선교사들을 선교부로 배정하시는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모임을 마치고 나올 때 그분은 저를 기다려 주셨고, 함께 걸어가면서 어깨동무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지난번 호주에서도 그렇게 하셨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바로 형제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이 진심임을 압니다.

우리가 실제로 구주와 함께 걸을 특권을 누릴 수 있다면,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어깨를 두르시는 주님의 팔을 느끼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처럼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게 될 것입니다.]"(누가복음 24:32) 그분은 이렇게 외치십니다. "와서 보라."(요한복음 1:39) 구주께서는 어깨동무를 하고 함께 걷자는 개인적인 초대와 환영을 우리에게 보내고 계십니다.

짧지만 심오한 이노스의 기록 마지막 구절에 나오듯이 우리도 모두 이노스처럼 자신감을 갖기를 기원합니다. "또 나는 나의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그의 앞에 서게 될 날을 기뻐하노니, 그때 내가 기쁨으로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는 내게 이르시기를, 내게로 오라 복된 자여, 내 아버지의 거처에 너를 위하여 예비된 처소가 있도다 하시리라."(이노스서 1:27)

지금껏 해 온 수많은 경험과 성신의 권능으로 받은 증거에 따라 저는 절대적인 확신으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그분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것만큼 행복감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뜻을 그분의 뜻에 일치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을 행하며 참으로 그분을 사랑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러셀 엠 넬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영원을 위한 결정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은 현재와 영원에 이르는 우리의 영적 성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매일 결정을 내립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결정은 운명을 정한다."[1]고 가르치셨습니다.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은 현재와 영원에 이르는 우리의 영적 성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배움을 얻지 못할 정도로 어리거나 변하지 못할 만큼 많은 나이란 없습니다. 배우고 변하겠다는 열망은 영원한 진보를 갈구하는 거룩한 마음가짐에서 나옵니다.[2] 매일 우리는 영원을 위한 결정을 내릴 기회를 맞습니다.

우리는 하늘 부모의 영의 자녀이기에 영원한 존재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기 ……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3]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어린이 합창단이 널리 애창되는 찬송가 "난 하나님의 자녀"[4]를 부르는 것을 들으면서, 궁금증에 휩싸였습니다. "충실한 아버지나 어머니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왜 더 자주 듣지 못하는 걸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진실로, 어느 누구도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낳아 주신 부모님보다도 온 마음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5] 이웃을 형제 자매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습니다.[6]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 존재이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경전은 몸과 영이 곧 사람의 영혼이라고 가르칩니다.[7] 두 가지 존재로 된 우리는 자신의 몸과 영이란 값진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

저는 의사로 일하면서 사람의 몸을 가슴 깊이 우러러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어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이 몸은 정말 경이롭습니다! 주위의 놀라운 것들을 보는 여러분의 눈, 듣는 귀, 느끼는 손가락,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뇌를 통해 배우고, 생각하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심장은 지치지도 않고 밤낮없이 거의 무의식적으로 박동합니다.[8]

우리 몸은 스스로 보호합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신경 써야 할 때 그에 대한 경고로서 고통이 옵니다. 전염병이 일어나 전염이 되면, 항체를 만들어 재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입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고칩니다. 베이고 멍들어도 저절로 낫습니다. 부러진 뼈는 더 단단해집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 주신 놀라운 특징 가운데 극히 일부만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모든 가족에는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어떤 물리적 상태들이 존재합니다.[9] 그런 어려움과 싸워 나가는 모형에 대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연약함을 주는 것은 그들로 겸손하게 하려 함이요, …… 만일 그들이 …… 스스로 겸손하여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지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되게 할 것임이니라."[10]

훌륭한 영이 온전치 못한 몸에 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11] 그런 몸으로 태어나는 은사는 실제로 가족을 강화할 수 있는데, 부모형제가 기꺼이 장애를 안고 태어난 아기를 위해 자신의 삶을 새롭게 확립할 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드는 과정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죽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필멸의 몸이 죽는 일은 하나님의 위대한 행복의 계획에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12] 왜일까요? 죽음이 있어야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13]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죽음이 너무 일찍 찾아왔다고 느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다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서 그토록 중요하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일컫기도 했습니다.[14]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몸을 성전처럼 보십시오. 그러면 매일 감사함이 새록새록 느껴지고, 몸을 보살피고 사용하는 문제에 대한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몸은 우리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을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 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정하는 몇 가지 결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돌보고 사용하시겠습니까?
- 어떤 영적 자질을 계발하시겠습니까?

인간의 영

우리의 영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선지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가 태어나기 전에 택함을 받았느니라"[15] 주님은 예레미야와[16] 다른 많은 사람에게도[17] 비슷한 말씀을 하셨고, 여러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18]

하나님 아버지는 아주 오랫동안 여러분을 아셨습니다. 그분의 아들딸인 우리가 이 소중한 시기에 지상으로 와서 그분의 위대한 사업을 이끌 지도자가 되도록 택하신 분은 그분이십니다.[19] 여러분이 선택된 것은 신체적 특성이 *아니라* 대담함과 용기, 마음의 고결성, 진리와 지혜에 대한 갈증, 타인을 위한 봉사와 같은 *영적인* 특성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전세에서 이런 특성을 발전시켰습니다. 여러분은 이곳 지상에서도[20] 꾸준히 노력하면 발전시킬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21]

핵심이 되는 영적인 특성은 바로 극기, 즉 욕망이 아니라 이성에 따라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극기는 양심을 강하게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양심은 어려움과 유혹, 도전에 맞서야 하는 상황에서 도덕적인 대응을 하게 합니다. 금식은 신체적인 욕망보다 영이 더 큰 힘을

갖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늘의 도움을 끌어내리는데, 금식은 여러분 기도를 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극기는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영속시키는 데 꼭 필요한, 양육과 사랑에 대한 강한 욕구를 우리의 내면에 심어 주셨습니다.[22]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욕망을 다스릴 수 있을 때, 더 오래 삶을 즐기고, 더 큰 사랑을 느끼며, 완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23]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필수적인 욕망을 오용할 때, 하나님의 행복의 계획에서 우리를 엇나가게 하는 가장 큰 유혹이 온다는 사실은 그리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욕망을 통제하는 일은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중에 그런 것을 완벽하게 조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24] 실수를 합니다. 잘못을 저지릅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것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25]

우리는 행동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원한다면 말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길은 하나뿐입니다. 참된 변화, 영속적인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지닌 힘, 치유하고 깨끗하게 하고, 가능하게 하는 그 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26] 그분은 우리 하나하나를 사랑하십니다.[27]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진지하게, 정확하게 지키면, 그분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단순하고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변화의 복음입니다![28]

육체적 욕망을 조절하는 사람의 강인한 영은 감정과 격정을 다스리는 주인이지, 그것들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런 자유는 몸에 산소가 필요하듯 우리의 영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스스로 갇혀 버린 욕망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되는 참된 해방입니다![29]

우리는 "자유로이 …… 자유와 영생을 택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 사로잡힘과 [비참함과] 죽음을 택할 수도"[30] 있습니다. 자유와 영생을 향한 높은 길을 택할 때, 그 길에는 결혼도 포함됩니다.[31] 후기 성도는 "남녀 간의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여 주신 것이며 가족은 창조주께서 그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을 위하여 마련하신 계획의 중심"이라고 선언합니다. 또한 우리는 "남녀의 성별은 각 개인의 전세와 현세와 영원에 걸친 개인의 신분과 목적을 결정하는 본질적인 특성"[32]임을 압니다.

남녀간의 결혼은 주님의 교리에서 기본이 되는 사항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서 중대한 부분입니다. 남녀간의 결혼은 지상과 하늘에서 생명이 충만해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형입니다. 참된 기쁨을 바란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 모형을 오용하고 오해하거나 곡해해서는 안 됩니다.[33] 하나님의 결혼 모형은 생명 창조라는 성스러운 힘과 결혼 관계의 기쁨을 보호합니다.[34] 우리는 아담과 이브가 남편과 아내로서 하나로 결합하는 기쁨을 경험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혼시키셨다는 것을 압니다.[35]

우리 시대에 정부는 결혼 제도를 보호하는 데 각별한 관심을 보여 왔는데, 그것은 튼튼한 가족이 다음 세대의 건강과 교육, 복지와 번영을 이룩하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36] 그러나 정부는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고, 집행할 때, 사회 조류와 세상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법률을 만들든, 결혼과 도덕성에 관한 주님의 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37]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법률을 제정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는 여전히 죄입니다!

우리는 구주의 친절하심과 동정심을 본받고 하나님의 모든 자녀의 권리와 감정을 귀하게 여겨야 하지만, 우리가 그분의 교리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바꾸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니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의 교리를 공부하고, 이해하고,

옹호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관련된 구주의 방법은 선합니다. 그분의 방법에는 혼전 순결과 결혼 후의 정절이 포함됩니다.[38] 오직 주님의 방법만이 우리의 행복을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그분의 방법은 우리의 영혼을 지탱하는 위안을 주고, 우리의 가정에 평안이 머물게 해 줍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의 방법은 우리를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께로, 영생과 승영으로 인도합니다.[39] 이것이 하나님의 일과 영광의 핵심입니다.[40]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매일 결정을 내리며,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41] 한 사람씩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 접견을 할 것입니다.[42] 우리의 몸과 영적 특성, 그리고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모형을 얼마나 존중했는가를 보여 주는 결정들에 대해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영원을 위해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주

1. Thomas S. Monson, "Decisions Determine Destiny" (Church Educational System fireside, Nov. 6, 2005), speeches.byu.edu.
2. 영원한 진보의 개념은 윌리엄 더블유 펠프스가 작사한 찬송가 'If You Could Hie to Kolob"(*영문 찬송가*, 284장)에 잘 표현되어 있다. 4절은 이렇다. "미덕에는 끝이 없고, 힘에도 끝이 없고, 지혜에도 끝이 없고, 빛에도 끝이 없고, 단결에도 끝이 없고, 젊음에도 끝이 없고, 신권도 끝이 없고, 진리에도 끝이 없네" 5절은 이렇게 끝난다. "영광에도 끝이 없고, 사랑에도 끝이 없고, 존재에도 끝이 없다, 하늘에는 죽음이 없으니."
3. 창세기 1:27; 또한 골로새서 3:10; 앨마서 18:34; 이더서 3:15; 모세서 6:9 참조.
4. "난 하나님의 자녀", *찬송가*, 187장.
5. 마태복음 10:37 참조.
6. 마가복음 12:30~31 참조.
7. 교리와 성약 88:15 참조.
8. 우리 몸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체계가 작동한다. 나트륨, 칼륨, 칼슘과 같은 원소와 물, 포도당, 단백질과 같은 화합물도 생존에 꼭 필요하다. 몸은 산소와 이산화탄소 같은 기체를 처리한다. 인슐린과 아드레날린, 갑상선 호르몬과 같은 호르몬을 만든다. 우리 몸에서 이런저런 많은 구성 요소의 함량은 어떤 한계 내에서 자동 조절된다. 몸 속 기관은 유기적으로 서로의 관계를 자동 조절한다. 예를 들어, 뇌하수체는 부신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분비하여 부신 피질 호르몬을 생산한다. 피질 호르몬이 많아지면 뇌하수체에서 자극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며, 적어지면 분비를 촉진한다. 체온은 우리가 적도에 있든 북극에 있든 일반적으로 섭씨 37도 부근에서 유지된다.
9. 쉽게 분간되는 상태도 있고, 잠복성도 있다. 또 유전적인 것도 있다. 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도 있고,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유형이 있다. 각 사람은 자신이 약한 부분에 늘 신경을 씀으로써 연약한 것이 강하게 될 수도 있다는 주님의 가르침을 겸손히 배울 수 있다.
10. 이더서 12:27.
11. "모든 것이 그 적절하고도 완전한 구조로 회복"(앨마서 40:23)되는 부활 때까지 완전하게 바로 잡히지 않는 상태도 있다.
12. 앨마서 42:8 참조.
13.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적었다. "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시편 116:15) 주님의 성도들에게 죽음은 "귀향"이기 때문에 귀중하다.
14. 고린도전서 3:16; 또한 6:19 참조.
15. 아브라함서 3:23.
16. 예레미야 1:5 참조.
17. 앨마서 13:2~3 참조.
18. 교리와 성약 138:55~56 참조.
19. 앨마서 13: 2~3; 교리와 성약 138:38~57 참조.
20. "신앙, 덕, 지식, 절제, 인내, 형제애, 경건, 자애, 겸손, 근면"(교리와 성약 4:6) 등의 특성은 우리가 발전시키고 받을 수 있는 영적 은사이다. 감사함도 발전시킬 수 있는 영적 특성이다. 감사함은 분위기와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에게서" 거듭날 때, 감사하게도 우리 얼굴에 그분의 형상을 지닐 수도 있다.(앨마서 5:14 참조)
21. 고린도전서 12장; 14:1~12; 모로나이서 10:8~19; 교리와 성약 46:10~29 참조.
22. 어떤 사람들은 과식에 대한 충동을 느낀다. "비만이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서 매년 적어도 280만 명이 과체중으로 사망하고 있다."("10 Facts on Obesity," *세계 보건 기구*, Mar. 2013, www.who.int/features/factfiles/obesity/en)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적게 먹으려는 충동을 느낀다. 거식증과 폭식증이 많은 사람의 생활과 결혼 및 가족 관계를 해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창조주께서 금하신 성적 욕구에 대한 충동을 느낀다.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에는 분명한 설명이 나온다. "순결에 대한 주님의 율법은 합법적인 결혼 관계 밖에서의 성적 관계를 금하고, 결혼 관계 안에서는 정절을 지키는 것이다. …… 간음, 사통, 동성애 관계, 다른 모든 거룩하지 않거나 부자연스럽거나 순수하지 않은 행위는 죄이다." 이런 내용도 있다. "동성애 행위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인간의 성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며, 가족생활과 복음의 구원 의식에서 얻을 수 있는 축복을 사람들에게서 빼앗아 간다. …… 교회는 동성애 행위를 반대하지만, 한편으로는 동성에게 끌리는 개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손길을 내민다." ([2010], 21.4.5; 21.4.6)
23. 고린도전서 6:9~20; 야고보서 1:25~27; 교리와 성약 130:20~21 참조. 우리는 "사람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니파이후서 2:25)임을 늘 기억해야 한다.
24. 필멸의 생은 경전에 설명된 대로 시험의 기간이다. "이로써 우리는 그들을 시험하여 주 그들의 하나님이 명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들이 다 행하는지를 보리라"(아브라함서 3:25)
25. 모사이야서 4:10; 앨마서 39:9; 힐라맨서 15:7 참조. *지침서 제2권*에는 이런 메시지가 있다. "동성애 행위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 용서받을 수 있다."(21.4.6)
26.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또한 복음 원리에 대한 순종으로 온 인류는 구원받을 수 있다.(교리와 성약 138:4; 신앙개조 제3조 참조)
27. 이더서 12:33~34; 모로나이서 8:17 참조.
28. 모사이야서 5:2; 앨마서 5:12~14 참조.
29. 로마서 8:13~17; 갈라디아서 5:13~25; 교리와 성약 88:86 참조.
30. 니파이후서 2:27.
31. 교리와 성약 131:1~4 참조.
32.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33. 마태복음 19:4~6; 모사이야서 29:26~27; 힐라맨서 5:2 참조.
34. 각 사람은 독특한 정체성, 염색체와 DNA(데옥시리보핵산)을 갖고 태어난다. DNA는 살아 있는 세포의 발전과 기능에 사용되는 유전 정보를 암호화하는 분자이다. 각 사람의 DNA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온 DNA가 조합되어 새로운 몸의 DNA를 생성할 때 만들어진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 사이의 협력이다.
35. 창세기 2:24~25; 3:20~21; 4:1~2, 25 참조.
36. 패트릭 에프 페이건 박사는 이렇게 적었다. "경제 부흥을 이루는 토대는 결혼한 부모가 있는 세대, 특히 자녀가 있고 매주 예배에 참여하는 가족이다. 결혼하면 독립적인 경제 단위인 세대가 만들어지며, 여기서 수입이 생기고, 지출하고, 저축하고 투자를 한다."("The Family GDP: How Marriage and Fertility Drive the Economy," *The Family in America*, vol. 24, no. 2 [spring 2010]: 136)
37. 출애굽기 20:14; 레위기 18:22; 20:13; 신명기 5:18; 마태복음 5:27~28; 마가복음 10:19; 누가복음 18:20; 로마서 1:26~27; 13:9; 모사이야서 13:22; 제3니파이 12:27~28; 교리와 성약 42:24; 59:6 참조.
38. 고든 비 힝클리, "이 일은 한 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성도의 벗*, 1997년 1월호, 48쪽 참조.
39. 교리와 성약 14:7 참조.
40. 모세서 1:39 참조.
41. 니파이후서 9:41, 46; 모사이야서 16:10 참조.
42. 우리는 우리 행위와 마음의 소원에 따라 심판받을 것이다.(교리와 성약 137:9 참조, 또한 히브리서 4:12; 앨마서 18:32; 교리와 성약 6:16; 88:10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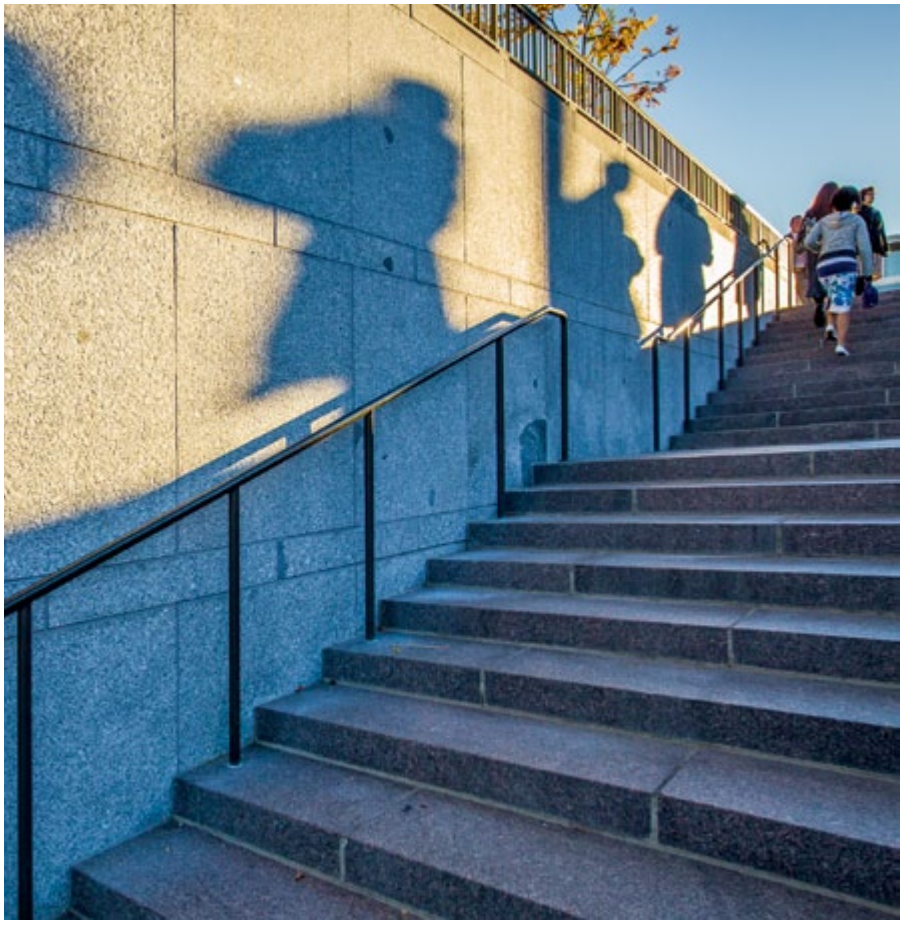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서로에게 더 많은 친절을 보일 수 있고, 변함 없이 주님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훌륭한 교회 연차 대회를 마감하려니 감개가 무량합니다. 각 모임에 함께해 주신 분들로부터 권고와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배부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곳 장엄한 컨퍼런스 센터에서 평화롭고 안전하게 모임을 치렀습니다. 대회는 방송 매체들의 지원을 받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여러 대륙 곳곳으로 전해졌습니다. 비록 여러분 대다수가 이곳에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만, 우리는 여러분의 영을 느낍니다.



오늘 대회에서 해임되는 총관리 역원들께는 수년 간의 헌신적인 봉사에 대해 교회 전체를 대표하여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합니다. 주님의 사업을 위한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분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태버내클 합창단을 비롯해 이 대회에 참석하신 합창단 여러분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여러분의 음악은 아름다웠으며 모임마다 영의 깊이를 더해 주었습니다.

저와 모든 총관리 역원 및 교회 본부 역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 기도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예절과 주님의 영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쉼 없이 복음에 대한 간증을 키우셔서 사탄의 매질로부터 보호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대회는 끝났습니다.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느꼈던 영이 매일의 생활 속에서도 변함 없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서로에게 더 많은 친절을 보일 수 있고, 변함 없이 주님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길, 또 그분이 약속하신 평안이 지금,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6개월 후에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린다 케이 버튼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성약을 지킴으로써 오는 힘과 기쁨, 그리고 사랑

저는 우리가 성약을 얼마나 기쁘게 지키는지를 기준으로, 자신이 구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평가해 보도록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척 감동을 받았던 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저녁, 한 남성이 다섯 마리 양을 우리로 불러 모았습니다. "이리 온." 하는 한 마디에 다섯 마리가 모두 고개를 들고 그가 있는 쪽을 쳐다보는 것을 가족들은 매우 흥미롭게 지켜보았습니다. 네 마리 양은 얼른 달려왔습니다. 그는 네 마리 양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었습니다.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았으며 그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한 마리는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커다란 암양은 사납고 제멋대로인데다 다른 양들까지도 잘못된 길로 가게 한다며 몇 주 전에 주인이 못 키우겠다고 포기한 양이었습니다. 새 주인은 그 양을 받아서 며칠간 목초지에 묶어 두어 가만히 있는 법을 배우게 했습니다. 인내하면서 주인과 다른 양들을 좋아하도록 가르치자 마침내 그 양은 목에 짧은 줄만 걸면 될 뿐, 묶어 두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의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목초지 끝에 있는 암양에게 다가가 "이리 온. 넌 묶이지 않았어. 너는 이제 자유란다." 하고 다시 상냥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정하게 손을 뻗어 암양의 머리를 쓰다듬고는 그 양과 다른 양들을 데리고 우리로 돌아왔습니다.[1]

이 이야기에 담긴 정신을 바탕으로, 오늘 밤 성신께서 우리가 성약을 지키는 것에 관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약을 맺고 지킨다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결속시키는 것을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구주를 따르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구주를 신뢰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시고자, 무한한 은사인 속죄의 대가를 치르신 데 대한 감사함을 표하고자 소망하는 것입니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성약은 구속력 있는 영적 계약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특정한 방법대로, 즉 그분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겠다는 엄숙한 약속입니다. 그 보답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은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충만한 영광을 약속하십니다."[2] 주님은 구속력이 있는 이 계약 조건을 정하시고, 우리는 이를 지키겠다고 동의합니다. 성약을 맺고 지키는 일은 구주처럼 되겠다는 우리의 다짐을 나타냅니다.[3] 우리가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다음 찬송가에 표현된 태도를 지니려고 애쓴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어느 곳에나 주 원하면 내 가리라 주께 대답하리니 주 뜻대로 되오리다."[4]

왜 성약을 맺고 지켜야 할까요?

1. 성약을 지키면 강해지고 힘과 보호를 받습니다.

니파이는 성약을 지키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는 것을 시현으로 보았습니다.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권능이 …… 주의 성약의 백성 위에 내려옴을 보았나니, 그들이 큰 영광 중에 의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하였더라."[5]

저는 최근에 한 친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님은 성전 엔다우먼트를 받자 전에는 이겨 내기가 쉽지 않았던 유혹에 대항하는 힘이 강해졌음을 느꼈다고 간증했습니다.

성약을 지키면 또한 서로의 짐을 질 용기와 힘을 얻게 됩니다. 중병으로 목숨이 위태로운 아들 때문에 애가 타던 한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상호부조회 자매들을 성약을 지키는 사람들로 믿는 신앙이 있었고, 그래서 용기를 내어 아들을 위해 금식과 기도를 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또 다른 자매님은 자신도 자매들에게 그 같은 기도를 부탁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아쉬워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분의 아들도 어려운 일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가족이 그 짐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매들에게 도움을 부탁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생각했습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6]

자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짊어져야 할, 또 서로 나누어야 할 짐들이 있습니다. 서로의 짐을 지라는 권유는 곧 성약을 지키라는 권유입니다. 루시 맥 스미스가 초대 상호부조회 자매들에게 한 다음 권고는 그 어느 때보다 오늘날 더 와 닿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늘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도록 서로 소중히 여기고, 보살피고, 위로하고, 이끌어야 합니다."[7] 이것이야말로 성약을 지키는, 또 방문 교육을 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몰몬경을 통해 선지자 앨마조차도 반항적인 아들이라는 짐을 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앨마는 복음 안에서 주님께 깊이 개종하고 서로의 짐을 진다는 것의 의미를 알고 성약을 지키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앨마가 아들을 위한 기도에서 보인 큰 신앙이 묘사된, 모사이야서의 다음 성구를 잘 압니다. "주께서 *그 백성의* 기도와, 또한 …… 그 종 앨마의 기도를 들으셨으니"[8]

주님께서는 언제든 "회개하는 영혼"[9]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성약을 맺고 지키는 일에서만큼은 "일찍 시작하고 꾸준히 행[하라]"는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님의 권고를 따르고 싶어합니다.[10] 얼마 전에 신권 및 보조 조직 지도자 평의회에서 "우리는 정말 여덟 살 난 어린이들이 성약을 지키기를 기대하는가?"라는 진솔하면서도 생각을 곱씹게 하는 질문이 대두되었습니다. 이 날 협의에서, 아이들이 성스러운 침례 성약을 맺고 지키도록 준비시키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 간단한 약속을 하고 지키는 법을 배우게 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충실한 부모는 자녀의 필요에 맞게 잘 가르치는 방법을 알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개인적인 계시를 구하고 그에 따라 행하며 함께 협의하고 돌보면서 단순한 복음 원리를 가르칠 때, 가족을 강화하고 보호할 힘을 얻게 됩니다. 다른 식구들도 도울 수 있습니다. 멋진 제 할아버지는 간단한 노래를 통해 약속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는데, 노래 가사는 이러했습니다. "약속하기 전에는 얼마나 중요한지 꼭 생각해. 약속한 뒤에는 마음에 새겨 두자. 마음에 새겨 두자." 할아버지는 가슴 속에 약속을 새겨 두신 분이셨기에 이 짧은 노래를 사랑과 확신으로 힘 있게 가르칠 수 있으셨습니다.

제가 아는 한 현명한 어머니는 자신의 성약을 지키는 일에 자녀를 참여시켰습니다. 그녀는 즐겁게 이웃, 친구, 와드 회원들의 짐을 졌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최근에 그녀의 딸이 엄마에게 와서 아버지를 여읜 친구를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위로할 수 있겠느냐며 도움을 구한 일은 그다지 놀랄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친구를 위로하려는 소망이 곧 침례 성약을 지키는 한 가지 방법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줄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자녀가 자신의 첫 번째 성약인 침례 성약을 지키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면, 성전 성약을 맺고 지킬 것은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축복으로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 하나를 든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을 가르치고 성약을 지키며 사랑이 넘치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두는 가정의 힘이 될 것입니다."[11] 자녀가 성전 성약을 맺고 지키도록 준비시키는 가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우리는 성전 추천서를 받기에 합당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함께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우리는 성신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함께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성전 엔다우먼트는 계시로 주어지므로, 우리는 이 필수적인 방법을 익혀야만 합니다.

- 우리는 침례와 성찬의 성스러운 상징부터 시작해서, 상징을 활용하여 배우는 법을 함께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우리는 육신이 왜 성스러우며, 때로 왜 육신이 성전에 비유되는지, 단정한 복장과 차림새가 성전 의상의 성스러운 속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우리는 경전에서 행복의 계획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경전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속죄에 대해 더 잘 알수록 성전 예배는 더 깊은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 우리는 조상의 이야기를 알고, 가족 역사를 탐구하며, 색인 작업을 하고, 세상을 떠난 친족을 위해 성전 사업을 대리로 행할 수 있습니다.
- 우리는 *엔다우먼트, 의식, 인봉, 신권, 열쇠*, 기타 성전 예배와 관련된 용어의 의미를 함께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약을 맺기 위해 성전에 가며, 그러한 성약을 지키기 위해 집으로 가는 것임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12]

가르칠 때는 "좋은 것,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이란 개념을 떠올립시다.[13] 자녀에게 성전에 대해 가르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자녀를 준비시키고, 성약을 맺고 지키리라 기대하는 것은 더 좋은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즐겁게 침례 및 성전 성약을 지키는 것을 모범으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자매 여러분, 자녀가 성약의 길로 나아가도록 양육하고, 가르치며, 준비시키는 구원 사업에서 우리가 맡은 이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성약을 존중하고 지킬 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2. 성약을 지키는 것은 참된 행복을 얻는 데 필수적입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성스런 성약을 존중해야 하며, 성약에 충실하게 생활하는 것은 행복의 필수 조건입니다."[14] 니파이 후 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행복하게 살았더라"[15] 같은 장 앞부분에서 우리는 니파이와 그의 백성이 성전을 지었다는 내용을 배웁니다. 그들은 기쁘게 성약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앨마서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보라 니파이의 시대 이래로, 니파이 백성에게 있어서 모로나이의 때[보다도] …… 더 행복한 때가 결코 없었더라."[16]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 앞 절에서 그들이 "주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는 자들"17이었다는 것을 배웁니다. 성약을 지키는 자들은 계명을 지킵니다!

저는 이 성구를 좋아합니다. "이에 이제 무리가 이 말 [즉, 침례 성약을 나타내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기쁨으로 손뼉을 치며 외치기를,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원하는 바라 하더라."[18] 저는 그들의 가슴속에 있었던 소망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성약을 맺고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일요일에 다음과 같이 기쁘게 외쳤던 어느 젊은 자매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찬을 취할 수 있는 날이에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언제 이런 특권을 기뻐했습니까? 그 기쁨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우리는 *언제나* 구주를 기억하고, 그분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포함하여 계명을 *항상* 지킴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언제나* 그분을 기억하기 위해 *항상* 개인 기도와 가족 기도를 드리고, 매일 경전을 공부하고, 매주 가정의 밤을 함으로써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정신이 산란해지거나 이 중요한 일에 소홀해지면,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성약을 맺고 즐겁게 지키는 것은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19]을 받는 데 필수적인 성스러운 구원 의식에 효력과 의미를 불어넣습니다. 의식과 성약은 "영적인 이정표"와 같습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후기 성도들은 성약의 백성입니다. 침례 받은 그날부터 우리들은 영적인 이정표를 통해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세를 받은 종들을 통해 제안하신 약속들을 *항상* 지키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성약을 맺고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중대한 시험입니다."[20]

3. 성약을 지키는 것은 구주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사랑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성약을 더 부지런히 지켜야 합니다. 사랑의 원리를 떠올릴 때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성구가 구약전서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야곱과 라헬의 사랑 이야기에 감동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칠 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칠 년을 며칠 같이 여겼더라"[21] 자매 여러분! 우리는 깊고도 헌신적인 이러한 사랑으로 성약을 지킵니까?

구주께서는 왜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와 맺은 성약을 지키고 세상의 죄를 속죄하는 거룩한 사명을 이루려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째서 당신의 독생자이자 완전무결한 아들이 죄와 마음의 고통, 병고, 세상의 연약함, 그리고 정당하지 못한 이생의 모든 일을 짊어지며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도록 흔쾌히 허락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다음 성구에서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22]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속을 통해 우리가 받은 많은 축복을 온전히 이해한다면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 중에 열성을 다해 기쁘게 행하지 못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23] 이와 같은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님의 말씀에 따라, 성약을 지키는 일은 우리 구주이자 구속주의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속죄와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에 대해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홀런드 장로님은 이런 감동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심판의 날에 우리가 어떤 일을 겪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날 어느 시점에는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네가 나를 사랑했느냐?'는 질문을 우리에게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24] 오늘 밤 저는 우리가 성약을 얼마나 기쁘게 지키는지를 기준으로, 자신이 구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평가해 보도록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25] 우리는 일상의 삶에 구주의 모습이 자주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과거에 길을 벗어났거나 현재 분투하고 계시는 분들까지도, 그들의 머리를 쓰다듬는 선한 목자의 손길을 느끼며, "이리 온. 넌 묶이지 않았어. 너는 이제 자유란다." 하고 부르시는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구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26] 그분은 사랑으로 자신의 성약을 지키셨기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과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성약을 지키는 자가 되겠다는 큰 소망으로 전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큰 사랑으로 이 두 분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넌 이제 자유란다", *리아호나*, 2013년 3월호, 16~18 쪽 참조.
2. 제프리 알 홀런드, "성약을 지키십시오: 선교사로 봉사할 이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리아호나*, 2012년 1월, 48~49쪽.
3. "하나님과 맺은 우리의 성약 이해하기", *리아호나*, 2012년 7월호, 23쪽 참조.
4. "주께서 날 보내시기 심히 원하시는 곳은", *찬송가* 146장; 강조체 추가.
5. 니파이전서 14:14.
6. 요한복음 13:35.
7. 루시 맥 스미스, *내 왕국에 속한 딸들*(2011), 25쪽.
8. 모사이야서 27:14; 강조체 추가.
9. 교리와 성약 18:13.
10. 헨리 비 아이어링, "영적인 준비: 일찍 시작하고 꾸준히 행함",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37~40쪽 참조.
11. 리차드 지 스코트, "가정의 평화를 위해",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30쪽.
12.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복음은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에 대한 해답을 준다"(전 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2012년 2월), LDS.org/broadcasts 참조.
13. 댈린 에이치 옥스, "좋은 것,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리아호나*, 2007년 11월호, 104쪽 참조.
14. 토마스 에스 몬슨, "행복-보편적인 추구", *리아호나*, 1996년 3월호, 5쪽.
15. 니파이후서 5:27.
16. 앨마서 50:23.
17. 앨마서 50:22.
18. 모사이야서 18:11.
19. 교리와 성약 84:38.
20. 헨리 비 아이어링, "하나님의 증인", *성도의 벗*, 1997년 1월호, 30쪽; 강조체 추가.
21. 창세기 29:20.
22. 요한복음 3:16.
23. Joseph Fielding Smith, "Importance of the Sacrament Meeting," *Relief Society Magazine*, Oct. 1943, 592.
24. 제프리 알 홀런드,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84쪽.
25. 요한복음 14:21.
26. 요한복음 10:11.

캐롤 엠 스티븐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

우리가 기뻐할 큰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작고 단순한 방법으로 봉사할 때, 여러분은 구원 사업[에] ……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희 가족은 함께 모여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을 맞이하던 그날 저녁 내내 저는 열 살 난 제 손자 포터가 증조할머니, 즉 저의 시어머니 곁에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때로 그 아이는 뒤에 서서 증조할머니를 지켜보았습니다. 증조할머니의 팔짱을 끼기도 했습니다. 증조할머니의 손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안아드리고, 곁을 지켰습니다.

그로부터 며칠간 그 광경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포터에게 제가 본 것을 말해 주어야겠다는 속삭임을 느꼈습니다. 저는 제가 보고 느낀 것을 이메일에 써서 보냈습니다. 포터에게 침례 성약을 상기시키면서, 모사이야서 18장에 나오는 앨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무리 안으로 들어와, 그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기 원하며 기꺼이 서로의 짐을 져 가볍게 하고자 하며,

참으로 또한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기꺼이 슬퍼하고, 또한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로하며, 참으로 죽을 때까지 어느 때에나 무슨 일에나, 너희가 있게 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너희가 하나님께 구속을 받고 첫째 부활에 속한 자들과 함께 헤아림을 받아 영생을 얻고자 한즉 –

…… 이것이 너희 마음의 원하는 바일진대 주께서 너희에게 그의 영을 더욱 풍성하게 부어 주시도록, 너희가 그를 섬기며 그의 계명을 지키기로 그와 성약을 맺었다는 그의 앞에서의 증거로서, 주의 이름으로 침례 받음에 너희가 꺼릴 것이 무엇이 있느냐?"[1]

침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평생 타인을 섬김으로써 주님께 기꺼이 봉사해야 한다는 앨마의 가르침을 포터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증조할머니께 사랑과 관심을 보여 준 것은 바로 너의 성약을 지킨 것이기도 했어. 매일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보이고, 서로 돌볼 때, 우리는 성약을 지키는 거란다. 네가 성약을 지키는 사람이어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침례 성약을 지킬 때, 너는 신권에 성임되기 위해 준비되는 것이란다. 신권 성임으로 맺게 되는 또 다른 성약은 네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봉사하도록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성전에서 성약을 맺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줄 것이다. 좋은 모범을 보여 주어서 고맙구나! 성약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 주어 고맙다!"

포터는 이렇게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할머니, 편지 감사드려요. 제가 증조할머니를 안아드릴 때마다 성약을 실천하는 것이었다는 건 몰랐지만, 따뜻하고 정말 좋은 기분은 느꼈었죠. 저는 그것이 성신이 제 마음속에 전해 주신 느낌이라는 걸 알아요."

포터가 성약을 지키는 것이 "항상 그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2] 한다는 약속, 즉 성신의 은사를 받음으로써만 가능한 그

증조모와 함께 있는 포터(오른쪽)

약속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안다는 것에서 저도 따뜻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매 여러분, 저는 전 세계에서 만났던 여러분 중 많은 분이 포터와 같이 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침례의 물가와 성전에서 맺은 성약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여러분은 조용히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고, 위로가 필요한 이들을 위로합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작고 단순한 방법으로 봉사할 때, 여러분은 구원 사업, 곧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주는"[3]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왕국에서 …… 딸"[4]로서 우리는 신성한 성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니파이가 말한 "영생으로 인도하는 이 협착하고 좁은 길"[5]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길에서 각기 다른 장소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과 하나님과 만인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을 지니고 힘써 앞으로 나아[가도록]"[6] 협력하여 서로 도울 수 있습니다.

진은 청녀 고문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 그녀는 와드에서 곧 열릴 청소년 활동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말란 봉우리'로 등산을 가는 활동이었습니다. 진은 기뻤습니다. 마침, 진도 최근에 그 산을 오르겠다고 개인적으로 다짐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이 산길 입구에 들어서자 친한 친구인 애슐리가 다가왔습니다. 애슐리는 진의 팔짱을 끼고 "같이 가자."고 말하며, 등산을 함께하자고 청했습니다. 열여섯 살인 애슐리는 신체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다지 빨리 걷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애슐리와 진은 천천히 걸으면서 산 봉우리의 바위와 주변에 가득한 꽃들, 그 주위로 날아다니는 벌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물을 감상했습니다. 나중에 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상에 오르겠다는 목표는 곧 잊어 버리게 되었어요. 등산은 금세 다른 모험, 주위의 아름다움을 찾아보는 모험이 되었죠. 말란 봉우리를 등정하겠다는 목표로만 산행을 했다면 많은 것을 놓쳤을 거예요."

일행보다 훨씬 뒤처져서 산을 오르는 진과 애슐리 옆으로, 와드의 또 다른 청녀인 에머가 합류했습니다. 에머는 기다렸다가 그들과 함께 걷기로 했습니다. 에머의 동행으로 기쁨은 두 배가 되었습니다. 에머는 노래를 가르쳐 주고 도움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진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앉아서 쉬면서 노래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었습니다. 애슐리와 에머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죠.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그 친구들을 그렇게 잘 알게 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날 밤, 산보다 훨씬 중요한 것들이 더 있었어요. 바로 발걸음을 맞추며 서로 돕는 것이었죠."

함께 산을 오르며 노래하고, 쉬고, 웃을 때 진과 애슐리, 에머는 '우린 지금 성약을 지키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성약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랑, 동정심, 헌신으로 서로에게 봉사했으며 용기를 주고, 베풀면서 서로의 신앙을 강화했습니다.

러셀 엠 넬슨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이 성약의 자녀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분의 율법은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7]

마리나 쿠지나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아는 하나님의 성약의 딸입니다. 그녀가 러시아 옴스크에 있는 집에서 저를 맞아 주었을 때, 저는 제가 거기에 있는 이유를 그녀에게 봉사를 베풀기 위해서라고 생각했으나 곧 그보다는 제가 그녀에게 배우기 위한 이유가 더 크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개종자인 마리나는 누가복음 22장의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8]는 가르침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살아 있는 선지자이신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의 다음 말씀을 믿는 신앙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회원과 선교사들이 하나가 되어 주님의 포도원에서 함께 일하고 수고하여 영혼들을 그분께로 데려와야 할 때입니다. ……

우리가 신앙으로 행동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와드 또는 지부에서 그분의 교회를 강화하는 방법을 보여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실 것이며 우리가 선교 사업에서 수고할 때 적극적인 동반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 여러분의 …… 신앙을 행사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 지인 중 누구를 여러분의 가정에 초대해서 선교사들과 만나게 하고 회복의 메시지를 들려줄 수 있을지를 고려해 보시도록 간청합니다."[9]

마리나는 이 권고에 따라 방문 교육을 가도록 부탁받은 자매들을 보살피고 돌볼 뿐만 아니라 임무 이상의 일들을 합니다. 그녀에게는 저활동이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메시지를 듣지 못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매일 그녀는 신앙을 행사하며 누구에게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지 알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속삭임 받은 대로 실행합니다. 전화를 걸고, 사랑을 표현하고, 친구들에게 "우리는 네가 필요해."라고 말해 줍니다. 그녀는 매주 자신의 아파트에서 가정의 밤을 열고 이웃과 회원, 선교사들을 초대하여 음식을 대접합니다. 사람들에게 교회에 오라며 초대하고, 기다렸다가 그들이 도착하면 옆자리에 앉습니다.

마리나는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님이 최근에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압니다.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하는 권유는] …… 결코

불쾌하거나 비난할 일로 비쳐지지 않을 것입니다."[10] 그녀는 기분이 상했다는 말을 한 사람들의 이름을 목록으로 만들고 계속해서 보살핍니다. 그녀의 사랑을 그들도 알기에, 그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분 나빠 하지 마세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마리나는 성약을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가정에 신권 소유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매일 전진하고 끝까지 견디면서 사람들이 구원 사업에 참여하도록 돕고 성전 성약을 실천하며 매일 하나님의 권능을 느낍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구원 사업 안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돌아오기 위해 용기를 내야 하거나 계속 남아 있기 위해 다소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의 다른 딸들을 생각할 시간을 내십시오. 그녀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 여쭈어 보십시오. 그녀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분은 그녀를 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러므로 그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녀를 위해 인내하면서 계속 신앙을 갖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받는 속삭임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행동을 주님께서 받아들여 주신다는 확인받게 될 것입니다.

"엘리자 알 스노우 자매는 …… 서로를 강화하는 자매들의 노력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다. 교회는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궁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내놓은 모든 기부 내역을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주님께서는 구원 사업을 위해 행한 그들의 노력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셨다고 스노우 자매는 말씀했다.

'…… 조셉 스미스 회장님은 상호부조회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조직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에서 벗어나 복음에 냉담해진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서 우리 안으로 데려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과 친절, 선한 행실과 말은 또 다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11]

몰몬경에서 암몬은 우리가 기뻐해야 할 큰 이유에 대해 말했습니다. "또 이제 내가 묻노니, 무슨 큰 축복을 그가 우리에게 내려 주셨느냐? 너희는 말할 수 있느냐?"

가슴이 뜨거워진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 대답하노니, …… 이러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내려진 축복이니, 곧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되어 이 큰 일을 이루게 된 것이라."[12]

우리는 주님의 왕국에서 성약의 딸이며, 우리에게는 주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서로 돌보고 강화하며 가르치면서 작고 단순한 방법으로 매일 구원 사업에 참여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 암몬처럼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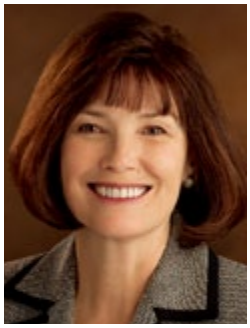
"보라, 나의 기쁨이 충만하고, 참으로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찼으니, 내가 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리라.

과연 나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아노니, 내 능력으로는 내가 약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스스로를 자랑하지 아니하겠고, 내 하나님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의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이라."[13]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모사이야서 18:8~10.
2. 교리와 성약 20:77.
3. 모세서 1:39.
4. 교리와 성약 25:1.
5. 니파이후서 31:18.
6. 니파이후서 31:20.
7. 러셀 엠 넬슨, "성약",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88쪽.
8. 누가복음 22:32.
9. 토마스 에스 몬슨, "구원 사업에 대한 신앙"(전 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방송, 2013년 6월 23일), lds.org/broadcasts.
10. 제프리 알 홀런드, "초대할 우리의 책임" (전 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방송, 2013년 6월 23일), lds.org/broadcasts.
11. *내 왕국에 속한 딸들: 상호부조회의 역사와 업적*(2011), 83쪽.
12. 앨마서 26:2~3.
13. 앨마서 26:11~12.



린다 에스 리브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2보좌

성약을 지키고 그에 따른 축복을 구하십시오

성약을 새로이 하고 지킬 때,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정결하게 되고 강화될 것입니다.

자매 여러분!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저는 최근에 침례를 준비 중인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일요일에 그녀는 진창길을 3킬로미터나 걸어서 교회로 왔습니다. 그녀는 즉시 화장실에 가서 진흙투성이가 된 옷을 벗고, 몸을 씻은 후, 깨끗한 안식일 복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상호부조회 모임에서 그녀는 자신의 개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회개와 구주의 속죄 희생을 통해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싶어하는 그녀의 열망과 하나님 아버지와 신성한 성약을 맺기 위해 '예전의 삶'을 기꺼이 포기하는 그녀의 의지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녀는 남자 친구와 헤어졌고, 지혜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중독을 극복하고 있었으며, 일요일 일자리를 그만두었고, 침례 계획을 발표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의 우정을 잃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구주의 구속하는 사랑을 느끼고 깨끗해지기 위해 자신의 모든 죄를 버리겠다는 강렬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깨끗하게 되고자 하는 그녀의 열망에 고무되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이 성신의 증거를 느끼고, 회개하고, 침례받고, 깨끗하게 되고 싶은 소망으로 비슷한 희생을 치르셨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구주의 사랑을 느낄 때만큼 구주의 거룩한 사랑을 풍성하게 느끼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께 우리가 받아들여졌음을 확신할 수 있는 때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몇 주 전 일요일에 저는 제사가 한 자 한 자 깊은 감정을 담아 읽는 성찬 기도문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저는 성찬식이 저와 회중에게 깊은 영적 경험이 될 수 있게 해 준 것에 감사를 전하고자 그 제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집에 없었고, 전화를 받은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매님이 전화하셨다는 것을 알면 그 애가 정말 기뻐할 거예요! 성찬 기도문을 처음으로 낭독한 날이거든요. 성찬의 중요성과 구주와 맺은 침례 성약을 합당하게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함께 준비했었죠." 이 사랑스러운 어머니가 아들에게 침례 성약의 권능에 대해, 와드 회원들이 그 권능을 느끼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 가르쳤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혼자서 어린 네 자녀를 데리고 성찬식에 참석해 온 또 다른 어머니를 압니다. 성찬식 동안 구주께 거의 집중할 수가 없었기에, 그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그녀는 토요일이 오면, 한 주를 돌아보고 성약을 기억하고 회개할 점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일요일에 아이들과 상관 없이 성찬을 취하고, 성약을 새롭게 하고, 속죄의 씻어 주는 권능을 느끼도록 준비될 수 있어요."

자매 여러분, 구주께서 왜 그렇게 성찬에 커다란 중요성을 부여하셨겠습니까? 매주 성약을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은 합당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성찬을 취하면서 매주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 주시는 구주의 능력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속죄가 주는 약속입니다. ……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을 마칠 때 [우리] 죄를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깨끗하게 된 채로 휘장을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1]

우리 회장단은 자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성약을 맺고 지키는 모습에서 큰

기쁨도 느끼지만, 성약을 어기는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큰 역경을 겪는 자매님들을 볼 때면 가슴이 아픕니다. 니파이의 동생인 선지자 야곱은 그 시대의 의로운 여성들과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형제들에게 하라는 주님의 명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그 말은 우리 시대를 위해 보존된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야곱은 구주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은 "염려로 짓눌[린 채로]" 남편과 아버지들에게 간증했습니다.

"내가 너희의 아내들과 너희의 자녀들 앞에서 …… 이토록 많은 담대함을 사용하여 말해야만 하는 일은 나를 슬프게 하는도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의 감정이 하나님 앞에 심히 다감하고 순결하며 섬세하니, ……

그들의 마음의 흐느낌이 …… 하나님께 올라가느니라. …… 많은 이들의 마음이 찔려 깊은 상처를 입고 죽었도다."[2]

그 시대와 우리 시대의 성약을 지키는 여성들과 자녀들에게 야곱은 다음과 같이 약속했습니다.

"굳건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터운 신앙으로 그에게 기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의 고난의 때에 너희를 위로하실 것이요 …….

너희 머리를 들고 하나님의 기쁜 말씀을 받으며, 그의 사랑을 흡족히 취하며."[3]

자매 여러분, 가슴 깊은 곳에 있는 고통과 소망을 하나님 아버지께 털어놓을 때 우리의 기도에 더해지는 힘과 권능에 대해, 그리고 경전과 살아 있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흡족히 취[할 때]" 받게 되는 응답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약 3년 전, 우리가 아끼던 유타 프로보 소재의 역사적 건물인 태버내클 내부가 큰 화재로 소실되었습니다. 지역 사회와 교회 회원들에게 이 건물의 소실은 커다란 슬픔을 안겨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놔두셨을까? 화재나 이 건물이 파괴되는 것을 막으실 수 있으셨을 텐데." 하고 의아해했습니다.

그로부터 10개월 후인 2011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이 대부분이 파괴되어 버린 태버내클이 거룩한 성전, 곧 주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발표하셨을 때, 청중은 놀라움에 웅성거렸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화재를 일으키신 것은 아니었지만, 그분은 내부가 타도록 그냥 두셨습니다. 그분은 태버내클을 웅장한 성전, 신성한 성약을 맺는 영원한 집으로 보셨습니다.[4]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시험받는 것을 허락하시며, 때로는 최대한 견딜 수 있을 때까지 두고 보십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 혹은 우리의 삶이 잿더미처럼 되어 버린 것을 본 적이 있으며,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두시는지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재 속에 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서서 나에게 오라며 부르시며, 우리의 삶을 그분의 영이 영원히 거할 웅장한 성전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교리와 성약 58편 3절~4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후에 임하게 될 일들에 관한 너희 하나님의 계획과, 많은 환난 후에 뒤따르게 될 영광을 지금 너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느니라.

대저 많은 환난 후에야 축복이 오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많은 영광으로 면류관을 쓸 그 날이 오나니"

자매 여러분, 주님께는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분께는 어떤 일도 충격적이거나 놀랍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며,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속죄의 권능에 의지하고 성약을 지키는 우리를 돕고, 위로하고, 고통을 덜어 줄 수 있기만을 간절히 바라십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시련과 고통은 그분께 나아가 성약에 의지함으로써 그분 면전으로 돌아가 아버지가 가지신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작년에 저는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느끼고, 개인적인 계시를 받고, 성전 성약을 더 잘 이해하며 짐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었고, 또 그렇게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성전 성약을 더 잘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축복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했고, 성전으로 가서 제게 주어진 모든 축복의 말씀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 보라는 영의 지시를 느꼈습니다. 더욱 주의 깊게 듣고 신앙을 행사하고자 노력했을 때, 주님께서는 제게 자비를 베푸셨고, 짐을 가볍게 해 주셨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에 대해서도 큰 화평을 느끼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약을 지키고 신앙을 행사할 때 그분은 약속을 지키실 수밖에 없습니다.[5]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성전으로 가셔서 여러분이 받고 싶은 축복을 하나님께 당당히 구하십시오!

확신과 신앙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성인 우리는 때로 자신에게 너무 가혹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을 구하고,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주님은 내가 내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사탄이 우리를 낙담시키려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완벽하며 무한합니다.[6] 그분은 우리를 낙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북돋아 주고 싶어하십니다.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는 간혹 주님께 받아들여지려면 "완벽한 후기 성도 가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 그림처럼 되지 못하면, 왕국에 맞지 않고 속할 수도 없다."고 느낍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하나님 아버지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약을 얼마나 잘 지켰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려고 얼마나 노력했느냐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자 구속주시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의 속죄 희생 덕분에 우리는 매주 성찬을 합당하게 취하면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성약을 새로이 하고 지킬 때,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정결하게 되고 강화될 것이며,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 인생 마지막에는 승영과 영생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헤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사랑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보이드 케이 패커, "속죄",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77쪽.
2. 야곱서 2:3, 7, 35.
3. 야곱서 3:1~2.
4. 모사이야서 23:21~22 참조.
5. 교리와 성약 82:10 참조.
6. 러셀 엠 넬슨, "하나님의 사랑", *리아호나*, 2003년 2월호, 12~17쪽 참조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어느 날 잠시 한 쪽으로 비켜서서 어려웠던 시간들을 바라보면, 그분께서 언제나 여러분 곁에 계셨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느끼는 영은 여러분의 힘과 헌신과 선함을 반영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자면,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며] …… 세상의 빛[입니다.]"[1]

여러분께 말씀 드릴 기회에 대해 생각해 보다가 제 아내 프랜시스가 상호부조회에 대해 품었던 사랑에 대해 회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평생 상호부조회의 여러 직책에서 봉사했습니다. 아내와 제가 같이 31세가 되던 해에 저는 캐나다 선교부 회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3년간, 프랜시스는 온타리오와 퀘벡을 아우르는 광대한 지역의 상호부조회를 총괄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그 부름을 수행하면서 사귀게 된 친구들, 이후에 와드 상호부조회에서 많은 부름을 수행하면서 사귀게 된 친구들은 아내와 매우 각별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하나님 아버지의 충실한 딸이었으며, 제 사랑하는 동반자이자 가장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내가 그립습니다.

저 또한 상호부조회를 사랑합니다. 상호부조회는 영감에 따라 조직되었고, 이곳 지상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증언합니다. 얼마나 많은 선행이 이 조직에서 나와 행해지고 있는지, 이 조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삶이 축복받았는지 헤아리기란 불가능합니다.

상호부조회는 다양한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호부조회에는, 학교에 다니거나 일을 하며 왕성하고 풍부한 삶을 영위하는 독신 여러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를 키우느라 바쁜 어머니들입니다. 이혼이나 사별로 남편을 잃고 남편이자 아빠의 자리를 채워 줄 사람 없이 홀로 자녀들을 키우고자 애써 노력하는 여러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자녀들이 장성했지만 여러분이 계속 그들을 도와야 하는 어머니들도 있습니다. 오직 여러분만이 줄 수 있는, 사랑으로 돌보는 손길을 필요로 하시는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삶의 여정 어느 곳에서든, 우리는 모두 온갖 어려움을 감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비록 그 종류는 사람마다 다를 테지만, 누구나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대다수의 문제들은 온갖 사람이 어울려 살아가는 이 필멸의 세계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때로 우리는 절망 중에 외칩니다. "이 별의 왕국 세계를 살아가야 하면서 어떻게 해의 왕국을 굳건히 바라볼 수 있단 말입니까?"

험난한 고난의 가시밭 길을 걸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좋은 은사를 주시는 분으로부터 멀어지고, 심지어 고립되었다고 느낄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이 길을 홀로 걷는다고 걱정합니다. 신앙이 물러가고 두려움이 자리잡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기도할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님이 기도에 대해 하신 다음 말씀을 좋아합니다.

"제 일생을 통해 기도에 의지하라는 권고는 제가 …… 받아 온 어떤 충고보다도 주옥 같이 귀중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없어서는 안 될 닻이요, 변함없는 힘의 원천이요, 거룩한 것에 대한 제 지식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

…… 역경 속에서도, 기도를 통해 우리는 확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에 평안을 말씀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평안, 그 평정의 영은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2]

사도 바울은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3]

참으로 영광스러운 약속이 아닙니까! 평강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하고 염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걷도록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각자는 참으로 놀라운 권능과 힘과 위안의 원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 대해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는 그분께서, 더 큰 그림을 보시는 그분께서, 시작부터 끝까지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가 다만 구하기만 한다면 우리와 함께하며 도와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또 믿으라. 그리하면 …… 너희 유익을 위하여 모든 것이 함께 역사하리라."[4]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구주께서 가르치신 이러한 말씀들을 잊지 않도록 합시다. 그분께서는 겟세마네와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을 때,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 드리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5] 때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는 도움을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주어야 할지 가장 잘 아신다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제가 아끼는 한 시인의 글입니다.

그 어떤 진귀한 방법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나는 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지
언제나 내 기도 듣고 계시며
곧 응답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나는 기도하고 고요히 기다린다.
간구한 축복이 내가 생각한
그대로 올지는 알 수 없는 일이나,
오직 그분께만 기도드리리
그분의 뜻은 나보다 현명하시니,
나의 청원을 들어 주시고
더 큰 축복으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기에.[6]

물론 기도는 어려울 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경전에서 "항상 기도"[7]하고 우리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그치지 말라는[8] 권고를 거듭 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친숙한 찬송가의 가사에 우리가 매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나옵니다. "기도했느냐?"[9]

기도와 더불어 힘든 이 세상을 견딜 힘을 주는 것은 바로 경전 공부입니다. 4대 표준 경전에 나오는 진리와 영감어린 말씀들은 저의 귀중한 자산입니다. 저는 경전을 아무리 읽어도 싫증나지 않습니다. 경전을 연구할 때마다 영적으로 고양됩니다. 이러한 진리와 사랑의 거룩한 말씀은 제 삶에 지침이 되어 영원한 완전으로 나아갈 길을 인도합니다.

경전을 읽고 상고할 때, 영이 우리 영혼에 전하는 감미로운 속삭임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의문에 대한 답을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받는 축복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들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간증을 얻게 됩니다. 기도와 더불어 경전을 공부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거룩한 [말씀]을 흡족히 취하고 [말씀]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빌립보서 4:7) 힘과 평안과 지식을 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 각자를 축복하십니다."[10]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시간을 내어 경전을 가까이 한다면, 우리 삶에 무한한 축복이 임하고, 우리를 얽매는 짐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한 여성의 기도와 간청에 응답하셨고, 또 어떻게 그녀가 그토록 애타게 찾던 평안과 확신을 주셨는지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추수감사절과 성탄절 손님 접대를 치렀던 작년부터 티파니는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의대생이었고, 지금은 레지던트 2년차입니다. 오랜 시간 근무를 해야 했기에 남편은 아내와 자신이 원하는 만큼 집안 일을 도울 수가 없었고, 명절에 해야 할 일 대부분을 해 내고 아이들 넷을 돌보는 것까지 티파니 혼자서 감당해야 했습니다. 힘에 겨워 어쩔 줄 몰라하던 중에 소중한 사람이 암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티파니는 스트레스와 걱정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낙담과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병원에도 가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식욕이 사라지고 체중이 빠지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작은 몸이 버텨 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티파니는 경전을 통해 평안을 구하며 자신을 사로잡은 우울함에서 구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평안도 도움도 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기분까지 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그녀를 위해 기도하며 도움을 주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기력을 내도록 티파니가 좋아하는 음식도 갖다 주었지만, 몇 술 뜨고는 다 먹지 못했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어느 날, 한 친구가 늘 좋아해온 음식을 먹어 보라고 권했으나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말했습니다. "분명 먹고 싶은 음식이 *뭔가* 있을 텐데."

티파니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건 집에서 만든 빵뿐인걸."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집에 그런 빵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마침 집에 있었던 남편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윽고 그는 집에서 만든 빵 한 덩이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티파니는 그들과 친분이 거의 없는 셰리라는 여성이 그 빵을 갖다 주었다는 남편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셰리는 콜로라도 덴버에 사는 티파니의 언니인 니콜의 친구였습니다. 몇 달 전 추수감사절에 니콜이 가족과 함께 티파니 집에 머물었을 때, 니콜의 소개로 셰리와 인사를 나눈 적은 있었습니다. 셰리가 니콜을 보기 위해 오마하에서 티파니의 집까지 왔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여러 달 후, 티파니는 손에 먹음직스러운 빵을 들고서 니콜에게 사랑의 심부름을 하도록 셰리를 보내 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전하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티파니는 니콜이 이 방문을 부탁한 것도 아닌 데다가 아예 전혀 모르는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니콜이 셰리에게 어떻게 빵을 갖다 줄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물어본 후에야 티파니는 이 이야기 전체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화는 니콜에게, 티파니에게, 셰리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영감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빵을 전해 준 그 날 아침, 셰리는 원래 빵을 한 덩이만 만들려 했으나 하나를 더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빵 한 덩이를 차에 실어야 한다는 느낌도 들었다고 합니다. 친구 집에서 점심을 먹은 후, 한 살배기 딸이 울기 시작했기에 집으로 가서 낮잠을 재워야 했습니다. 여분의 빵을 도시 반대편으로 30분이나 떨어진 곳에 사는, 잘 알지도 못하는, 니콜의 동생 티파니에게 갖다 주어야 한다는 분명한 느낌이 들었을 때, 셰리는 망설였습니다. 피곤해하는 딸을 빨리 집에 데려가고도 싶었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빵 한 덩이를 갖다 주는 일이 멋쩍기도 해서 핑계를 대며 그 생각을 지워 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티파니 집에 가야 한다는 강한 느낌이 들었고, 셰리는 그 느낌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티파니의 집에 도착했고, 티파니의 남편이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셰리는 자신이 추수감사절에 만났던 니콜의 친구임을 밝히고 빵을 건네 준 후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사실상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도시를 가로질러 가서 티파니가 먹고 싶어 하는, 집에서 만든 빵을 주게 하시고, 거기에 분명한 사랑의 메시지까지 전해 주셨습니다. 그녀에게 일어났던 일을 다르게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티파니는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하나님은 그녀를 아시며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지금 당장 느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빵, 티파니가 정말 원하던 그 빵은 티파니를 잘 알지도 못하고, 티파니의 사정도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러나 영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는 한 사람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티파니에게 그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아시며, 도움을 보내실 만큼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표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조해 달라는 그녀의 외침에 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외모나, 가진 것 또는 은행 계좌에 찍힌 예금액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재능과 역량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슬플 때나 행복 할 때, 낙담할 때나 희망에 찰 때, 어느 때나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위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끼든 또는 그렇지 못하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여러분을 위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그냥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열렬하고 신실한 기도와 진심을 다해 전념하여 경전 공부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다면, 우리 간증은 강해지고 깊게 뿌리내릴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홀로 걷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잠시 한 쪽으로 비켜서서 어려웠던 시간들을 바라보면, 그분께서 언제나 여러분 곁에 계셨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저는 제 영원한 동반자 프랜시스 베벌리 존슨 몬슨을 떠나보내고서 그것이 사실임을 압니다.

여러분께 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선행과 여러분이 앞장 서 이끄는 삶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모든 좋은 은사로 축복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구주이자 구속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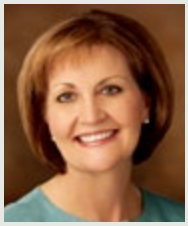
주

1. 마태복음 5:13, 14.
2. 에즈라 태프트 벤슨, "항상 기도하라", *성도의 벗*, 1990년 6월호, 4, 6쪽.
3. 빌립보서 4:6~7.
4. 교리와 성약 90:24.
5. 누가복음 22:42.
6. Eliza M. Hickok, "Prayer," in James Gilchrist Lawson, ed., *The Best Loved Religious Poems* (1933), 160.
7. 누가복음21:36; 또한 니파이후서32:9; 제3니파이18:16; 교리와 성약 10:5; 19:38; 20:33; 31:12; 61:39; 88:126; 93:49 참조.
8. 제3니파이 20:1 참조.
9. "오늘 네 집 떠나 올 때", *찬송가* 76장.
10. 고든 비 힝클리, "경전의 말씀을 기쁘게 지키며", *성도의 벗*, 1986년 6월호, 2~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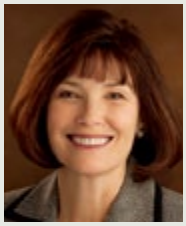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

상호부조회

캐롤 엠 스티븐스
제1보좌



린다 케이 버튼
회장



린다 에스 리브즈
제2보좌

청녀

캐럴 에프 맥콩키
제1보좌

보니 엘 오스카슨
회장

닐 에프 매리엇
제2보좌

초등회

진 에이 스티븐스
제1보좌

로즈메리 엠 윅솜
회장

췌럴 에이 에스플린
제2보좌

청남

래리 엠 깁슨
제1보좌

데이비드 엘 벡
회장

랜들 엘 리드
제2보좌

주일학교

데이비드 엠 맥콩키
제1보좌

러셀 티 오스구토프
회장

매튜 오 리차드슨
제2보좌

연차 대회에서 소개된 일화 색인

다음은 연차 대회에서 소개된 일화를 선별한 목록입니다. 이 내용은 개인 학습과 가정의 밤, 그리고 그 밖에 복음을 가르치는 여러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숫자는 각 말씀이 실린 첫 페이지를 나타냅니다.

연사	일화
닐 엘 앤더슨	(92) 브라질의 어느 충실한 어머니는 남편이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하자 자녀들을 교회에 보냈다
엠 러셀 밸라드	(43) 구원 사업을 서두르라는 목표를 가슴에 새긴 가족이 선교 사업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17) (당시 청녀였던)수잔 베드나의 가족은 십일조의 법을 지켜서 축복받았다.
제럴드 코세	(49) 제럴드 코세와 그의 가족은 후기 성도들의 따뜻한 환대 덕분에 새로운 도시에서 훨씬 쉽게 정착할 수 있었다.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29) 애나 데인스는 자원 봉사에 동참했고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후기 성도들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도록 도왔다.
쿠엔틴 엘 쿡	(88) 쿠엔틴 엘 쿡과 법률 회사의 다른 변호사들은 가족 중심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에드워드 듀브	(15) 에드워드 듀브가 어렸을 때 그의 어머니는 밭에서 함께 일할 때 뒤를 보지 말고 앞을 보라고 말했다.
티모시 제이 다익스	(37) 코리 텐 붐은 강제 수용소의 간수 중 한 명이었던 전 나치 군인을 용서했다.
헨리 비 아이어링	(58) 헨리 비 아이어링이 어렸을 때 그는 도움이 필요한 회원들을 감독과 함께 방문함으로써 축복받았다. (69) 밀드레드와 헨리 아이어링은 밀드레드의 가족 곁인 유타로 돌아가기로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가 되었다.
랜디 디 펑크	(52)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조셉 스미스의 이야기를 들은 인도의 한 구도자는 침례를 받겠다고 했다.
케빈 에스 해밀턴	(99) 성찬식에 참석하기보다 일요일에 드라이브를 가기로 한 결정 때문에 한 가족은 교회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제프리 알 홀런드	(40) 비행기 사고에서 중상을 입은 한 자매는 어머니로서의 목적을 찾게 되었다.
리차드 제이 메이너즈	(79) 리차드 메이너즈의 증조부는 선교사업 중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토마스 에스 몬슨	(61) 한 충실한 가정 복음 교사는 수년간 그가 방문했던 사람이 교회에 들어옴에 따라 감사함으로 가득 찼다. (85) 토마스 에스 몬슨이 청각과 시력을 잃은 노인에게 신권 축복을 주었다.
에스 기포드 닐슨	(33) 스테이크 회장은 한 성공적인 선교사의 낡은 신발을 청동으로 입혔다.
에이드리언 오초아	(102) 어린 에이드리언 오초아와 두 사촌이 심한 폭풍우가 그친 후 집으로 돌아오자 가족들이 기뻐했다.
보니 엘 오스카슨	(76) 아그네스 호건은 16세 된 딸을 비회원 가정에 입양 보내는 것을 거절했다.
보이드 케이 패커	(26) 보이드 케이 패커는 어려움을 겪고 있던 스테이크 회원들에게 경전을 읽게 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엘 톰 페리	(46) 어렸을 때 엘 톰 페리와 다른 초등회 어린이들은 교사와 함께 즐겨가던 캐년으로 등산을 갔다.
린다 에스 리브즈	(118) 침례를 준비중인 한 여성이 진창길을 3킬로미터나 걸어서 교회로 왔다.
울리세스 소아레스	(9) 남아프리카의 모세스 마흐랑구와 다른 이들은 교회 바깥에 앉아서 창문을 통해 예배를 들었다.
캐롤 엠 스티븐	(12) 온두라스의 충실한 자매들은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신권 축복을 받았다. (115) 10살 된 소년이 홀로된 증조모를 위로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슬픔을 나누겠다는 성약을 지켰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21) 한 남성이 후기 성도 부부가 교회에서 봉사할 기회에 대해 설명하는 꿈을 꾸었다 (55) 스키를 타다가 넘어져 일어날 수 없었던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는 손자의 도움으로 일어날 수 있었다.
아눌포 발렌주엘라	(35) 한 저활동 자매가 자신의 방문 교사들과 찬송가를 불렀을 때 성신을 느끼고 교회에 돌아왔다.
터렌스 엠 빈슨	(104) 마을의 농작물을 태울뻔한 불이 났을 때 파푸아뉴기니의 한 충실한 교회 회원의 기도가 응답되어 비가 내렸다.

연차대회에서 회원 총수 및 선교사 수 증가를 발표하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2013년 10월 5일에 열린 제183차 반연차 대회 첫 번째 모임에서 교회의 회원 수가 천오백만 명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몬슨 회장은 또한 2012년 10월에 선교사 연령을 낮춘 이후로 전 세계 각지에서 봉사하는 전임 선교사의 수가 58,500명에서 80,333명으로 극적으로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몬슨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교회가 매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며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 군대가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아내면서 교회가 세상으로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회원들과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데 서로 행동을 같이 하도록 격려했다. 50년 동안 사도로 봉사해 온 몬슨 회장은 "지금은 회원과 선교사가 하나로 뭉쳐, 주님의 포도원에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데려 오기 위해 함께 협력하여 일할 때"라고 말씀했다.

토요일 오후 모임에서, 칠십인 제일 정원회에서 명예롭게 해임된 존 비 딕슨, 폴 이 컬리커, 에프 마이클 왓슨 장로에게 명예 칠십인 자격이 주어졌고, 칠십인 제이 정원회의 켄트 디 왓슨 장로 또한 명예롭게 해임되었다. 덧붙여, 훌리오 에이 앙굴로(45세, 콜롬비아 보고타), 피터 에프 에번즈(54세, 미국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게네디 엔 포드보도프(47세, 우크라이나 도네츠크)가 지역 칠십인으로 지지받았다. 세자르 에이치 후커와 크레이그 티 라이트가 지역 칠십인에서 해임되었다.

전 세계 각지의 수백만 명이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라디오, 위성 방송을 통해 연차 대회를 보거나 들었다. 처음으로 토요일 저녁 신권 모임이 텔레비전 방송과 실시간 인터넷 중계를 통해 시청 가능해졌다. 10월 5일과 6일 양일 간에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의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다섯 모임에 십만 명 이상이 참석했다. 대회는 또한 197개국 및 영토에 95개 언어로 방송되었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접할 수 있었다.

몬슨 회장은 대회를 마무리하며 교회 회원들이 서로에게 더 많은 친절을 보이며 "변함없이 주님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기를" 촉구했다. ■

50년 간 사도로 봉사한 몬슨 회장

2013년 10월 반연차 대회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이 십이사도 정원회로 부름을 받은 지 50년이 된 것을 기념하는 대회였다. 몬슨 회장은 1963년 10월 4일, 36세의 나이에 사도로 지지받았다.

1963년 템플 스퀘어의 태버내클에서 총관리 역원으로 지지되기 직전의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사무실 사진

새롭게 선보인 교회 지도자 소셜미디어 페이지

에릭 머독
LDS.org 뉴스 및 이벤트

교회는 페이스북과 구글+에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의 개인 페이지를 개설했다. 이러한 페이지는 총관리 역원 각 분에 대한 공식적인 소셜미디어 역할을 할 것이며, 이분들의 지시에 따라 교회에서 그분들을 대신해 이러한 페이지들을 유지한다.

공식 페이스북 및 구글+ 계정은 또는 plus.google.com에서 검색하여 찾을 수 있다. 교회의 공식 소셜미디어 사이트 혹은 홈페이지인지를 알아보려면, 교회 로고를 확인한다.

이 페이지들을 팔로잉하면 각 총관리 역원의 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받게 될 것이다. 교회 대변인 데일 존스는 "교회는 역원들을 대신해 말씀, 기사, 영상 및 다른 관련 자료 링크들을 게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페이지는 사람들이 살아 계신 선지자들의 말씀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게 하고, 페이지에 "좋아요" 표시를 할 경우 그 표시를 한 개인의 페이스북 피드에 올라와 다른 사람이 그 내용을 보거나 공유할 수 있다.

공식 페이지를 만들게 되면 회원들은 교회에서 어떤 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위조 페이지로부터 개인들을 보호할 수 있다. ■

사진 : 니콜라스 카라스코, *CHURCH NEWS* 제공

성전 소식

코네티컷의 첫 번째 성전 착공식

미국 코네티컷에 세워질 첫 번째 후기 성도 성전 건축이 8월 17일 토요일에 하트포드에서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이 인도한 착공식 후 시작되었다. 코네티컷 하트포드 성전은 뉴잉글랜드 지역의 두 번째 성전이 될 것이며(또 다른 하나는 매사추세츠 보스톤에 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운영 중이거나, 공사 중이거나, 계획 단계에 있는 170개의 후기 성도 성전 중 하나이다.

콜로라도의 두 번째 성전

8월 24일 토요일, 칠십인 회장단의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장로는 콜로라도의 두 번째 성전이 될 콜로라도 포트콜린스 성전 착공식을 집행했다. 또 다른 성전은 포트콜린스에서 남쪽으로 약 95km 정도 떨어진 덴버에 있다.

로마와 파리에 스테이크가 조직되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댈린 에이치 옥스 장로와 엠 러셀 밸라드 장로는 2013년 9월 방문 중에 이탈리아 로마에서 두 번째 스테이크를, 그리고 프랑스 파리에서 세 번째 스테이크를 조직했다. 또한 영국 리즈와 맨체스터, 그리고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모임을 가졌다. 로마에는 성전이 건축 중에 있고, 파리에도 곧 지어질 예정이다.

옥스 장로는 "유럽에서 교회는 활기차고 왕성하며, 인상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했다. 밸라드 장로는 유럽 회원들에게 교회 전체가 "주님께서 그분의 구원 사업을 서두르고 계시며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씀했다. ■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

2013년 10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넷째 주 일요일 멜기세덱 신권 및 상호부조회 공과는 2013년 10월 연차대회에서 주어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말씀에서 준비한다. 2014년 4월에는 2013년 10월이나 2014년 4월 연차대회 말씀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스테이크 회장과 지방부 회장은 자신의 지역에서 어떤 말씀을 사용할 지 선택하거나, 그 책임을 감독이나 지부 회장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2013년 5월호 *리아호나*에 게제된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을 주의 깊게 읽어보고 더 알아본다. ■

랜들 엘 리드

새로 부름 받은 본부 청남 회장단 제2보좌

건축가의 아들로 자라난 랜들 엘 리드는 어린 시절 올바른 방법으로 일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다. 어린 시절 랜들은 일을 마쳤으나, 아버지 레온 리드에게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구나"라는 말을 여러 차례 듣곤 했다.

그런 정확함이 본부 청남 회장단 제2보좌로 현재 봉사하고 있는 리드 형제에게 지워지지 않는 인상을 남겼다. 지금까지도 그는 직업, 가족, 교회 의무를 수행할 때 때로 부친에게 엄하지만 사랑이 담긴 말들을 듣곤 한다.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구나. 제대로 하렴."

리드 형제는 가족에게서 배운 직업 윤리가 자신의 삶에 축복이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자신에게 복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격려했던 조언자와 신권 지도자들 또한 그의 삶에 축복이었다. 고등학교 동창생들 대다수가 19세의 나이에 선교사 부름을 받아 들였지만, 랜들은 대학 진학과 군 입대를 선택했다. 그 후, 그는 X선 기사로 일하며 유타 대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했다. 몇몇 현명한 사람들이 그가 있어야 할 곳은 선교 임지라고 그에게 담대히 말해 주었다. 그는 그들의 지시를 따라 선교사로 봉사하기로 결정하고 신청서를 작성했다. 곧 그는 멕시코 북 선교부에서 복음을 나누었다. 랜들 형제는 이렇게 말했다. "선교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저의 삶이 어땠을지를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는 귀환 후 학업을 이어갔고, 1975년에 타미나 로아크와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했다. 리드 형제가 부동산 및 기타 사업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 가는 동안 리드 부부는 네 자녀를 키웠다.

선교 사업에 대한 그의 사랑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에콰도르 과야킬 북 선교부를 감리했으며 전임 선교 사업이 청년 남녀의 삶에 일으키는 변화를 다시금 지켜보았다.

리드 형제는 본부 청남 위원회의 일원으로 봉사하다 2013년 5월에 본부 청남 회장단으로 부름을 받았다. ■

MICHAEL T. MALM, ILLUME GALLERY OF FINE ART 제공. 복사 금지

평화로운 마음, 마이클 티 맘

"그리고 영은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나니, 영은 세상 어느 곳에서나 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사람을 깨닫게 하느니라." (교리와 성약 84:46)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라고 제183차 반연차 대회의 일요일 오전 모임에서 토마스 에스몬슨 회장은 말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매일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햇빛이 비치든 비가 오든 우리는 참으로 매 순간 그분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약속이 언제나 우리의 좌우명이 되게 합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KOREAN
4 02107 91320 5
10791 320